

中國古中世史學會  
第4回 國際學術討論會

# 古中世 동북아시아에서의 境界와 領域問題

- 일시: 2009년 6월 26일(금)~27일(토)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02호

主催 : 中國古中世史學會  
主管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後援 : 동북아역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09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目次

西周王朝와 商族 .....	민후기	1
	토론문 / 심재훈	15
漢代 工官의 설치와 지역 지배		
— 巴·蜀 지역을 중심으로 — .....	金龍滌	17
	토론문 / 김진우	33
	중문요약문 / 金龍滌	35
東晉十六國南北朝의 疆域變動와 僑州郡縣設置 .....	胡阿祥	39
	토론문 / 崔珍烈	57
	중문토론문 / 崔珍烈	61
中國 南朝 國가의 境界와 영역 .....	鄭勉	65
	중문요약문 / 조개	81
北魏道武帝의 鮮卑語本名 .....	羅新	87
	토론문 / 趙永來	93
唐代東北諸族의 內附와 突厥 .....	王義康	95
	토론문 / 鄭炳俊	115
唐代押蕃使의 出現和 歐亞東部國際形勢의 變化 .....	村井恭子	117
	압변사표 / 村井恭子	130
	토론문 / 김선민	135
唐人의 新羅에 대한 認識 .....	李宇泰	137
	토론문 / 김택민	147
『元和郡縣圖志』로 본唐人의  영역에 대한 認識 .....	金宗燮	149
	토론문 / 최재영	165



# 西周王朝와 商族

민후기(연세대)

## I. 서론

필자가 西周시대 商族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여러 사료에 자주 보이는 서주시대 商族의 활약을 통해서였다. 우선 군사적인 측면에서 활약을 보이는 상족의 활동은 유명한 “殷八師”를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左傳』昭公 7년의 기사와 <禹鼎> 등에 보이는 이들의 활동과 그 신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로 周에 항복한 庶殷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白川靜의 연구성과<sup>1)</sup>를 필두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左傳』을 비롯한 많은 사료에는 서주왕조의 성립 이래의 상족과 관련된 기사가 적지 않다. 실례로, 魯에는 周族을 위한 周社이외에도, 商族을 위한 亳社가 있었다(『左傳』閔公 2년)는 점 등은 魯에 周族만이 아니라 商族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발견된 일련의 청동기<sup>2)</sup>는 西周시대에 商族이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제조할 만큼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최신 출토자료들은 노예제사회론이 흥미할 때 일부 논자들이 전쟁에 패한 商族이 周族의 종족노예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과는 달리, 商族이 周族지배질서하에서 종족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周族 아래의 지배층의 일단으로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傅斯年,<sup>3)</sup> 徐仲舒,<sup>4)</sup> 白川靜<sup>5)</sup> 등의 설을 보강시켜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西周시기에 祭祀, 墓葬 등의 분야에서 殷周二禮가 병용되었음을 주장하는 연구<sup>6)</sup>까지 발표되고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주로 『은주금문집성』에 보이는 상족의 족휘가 서주 시대에 들어와 어떤 변화를 겪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주혁명의 본질적 성격과 상주시기 족사회의 변화에 대해 그 일단을 살펴보자.

## 2. 西周 시대의 商族

西周初期의 列國은 문헌에 따라 그 수에 차이가 있다. 『史記』周本紀에서는 武왕의 1차 商 정벌에 모인 제후가 800이라고 하고 있고,<sup>7)</sup> 『漢書』賈山傳과 『尙書大傳』에서는 周에 1,800여 국이 복속했다고 하고,<sup>8)</sup> 『呂氏春秋』에서는 封國이 400여, 服國이 800여였다고 하

1) 白川靜, 「周初の對殷政策と殷の餘裔-特に召公の問題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79, 80, 1941-42)

2) 郭克煜 등 「索氏器的發現及其重要意義」, 『文物』1990-7.

3) 傅斯年, 「周東封與殷遺民」, 『民族與中國古代史』, 河北教育出版社, 2002.

4) 徐仲舒, 「殷周之際史蹟之檢討」, 『徐仲舒歷史論文選輯』, 中華書局, 1998.

5) 白川靜, 「周初における殷人の活動-主として軍事關係の考察」, 『古代學』1-1, 1942.

6) 王暉, 「周代殷周二禮并用論」, 『文史』51, 中華書局, 2000.

7) 『史記』周本紀, “諸侯不期而會盟津者八百.”

8) 『尙書大傳』洛誥傳, “天下諸侯之悉來進受命于周, 而退見文武之尸者, 千七百七十三諸侯.”; 『漢書』賈

고,9) 『史記』 陳杞世家에서는 周武王때의 侯伯이 1,000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0) 따라서, 이들 제문헌의 기록을 어림잡아 헤아리면, 西周初期 周室의 관할 영역안에는 최소 800에서 최대 1,800에 이르는 수다한 族·읍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11) 이들 族, 國들을 사료에서는 ‘多邦(『書經』 大誥)’, ‘庶邦(『書經』 武成)’, ‘萬邦(『書經』 微子之命)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 문헌 사료를 통해서는 ‘多邦’, ‘庶邦’, ‘萬邦’등으로 표현되는 서주초기의 정치체의 면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 청문기 사료들의 집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주초기의 정치체들과 그 속에 나타나는 상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商과 西周시대의 청동기에 나타나는 族徽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족휘는 은주청동기에 단독 혹은 한 묶음으로 문장의 처음이나 끝에 나타나는 그림문자인데, 이에 대해서는 송대 이래 ① 그림인가, 문자인가, ② 청동기에 그려져 어떤 작용을 했는가, ③ 청동기의 단대연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등에 관련된 여러 견해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郭沫若이 이를 “그림문자로 고대족족의 명호이며 토템(Totem)이 변화되어 형성된 흔적”이라고 정의한 이래 이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명칭 또한 族氏文字(張亞初), 족휘(朱鳳瀚, 張懋鎔), 도상기호(林巴奈夫) 등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12)

그러면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西周封建과 商族을 중심으로 한 諸族의 변화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西周시대 청동기에서 商族의 族徽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殷周金文集成』에는 총 11,983器的 청동기가 실려 있는데, 이 중 일단 『殷周金文集成』에 보이는 서주시대의 청동기를 분기에 따라 통계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13)

<표1> 『殷周金文集成』에 보이는 商과 西周的 청동기 시대분류표14)

- 
- 山傳, “周爵五等, 蓋千八百國. 而太昊·黃帝後唐·虞侯·伯猶存.”
- 9) 『呂氏春秋』 觀世篇. “此周之所封四百餘, 服國八百餘.”
- 10) 『史記』 卷36 陳杞世家第6, “周武王時, 侯伯尚千餘人.”
- 11) 따라서 유명한 “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곳이 없으며, 온 땅의 물가까지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詩經』 小雅, 北山, “溥天之下, 莫匪王土; 率土之濱, 莫匪王臣.)”라는 말은, 기실 諸書에 보이는 800에서 1,800에 이르는 族·읍을 서주왕조가 관할하였음을 지칭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 12) 일련의 통계에 따르면 『殷周金文集成』에는 대략 4천 수백여개의 족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張亞初 등 「商周族氏銘文考釋舉例」, 『古文字研究』 제 7집, 中華書局, 1982), 종래에는 청동기가 너무나 많은 장소에 분산, 소장되어 단편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청동기 모양을 통한 단대연구나 명문을 통한 연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청동기 銘文의 내용분석을 통한 유별분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 13) 1988년까지 출토되거나 알려진 청동기를 수록한 『殷周金文集成』 18책이 1984년에서 1994년에 걸쳐 출판되고, 뒤이어 이를 考釋한 張亞初의 『殷周金文集成引得』과 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學研究·應用中心의 『金文引得』이 간행됨으로써 금문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해졌다. 또한, 1988년 이후 발굴된 金文이 劉雨에 의해 『近出殷周金文集錄』(中華書局, 2003)으로, 2006년에 들어서서는 臺灣의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金文工作室의 鍾柏生 등에 의해 『殷周金文集成』에서 누락된 청동기와 그 이후에 출토된 모든 청동기의 사진, 고석, 출토지 등을 모두 수록한 『新收殷周青銅器銘文既器影彙編』(藝文印書館, 2006)이 간행되었다.
- 14) 『은주금문집성』 편집부에서 산정한 기본 연대는 다음과 같다.  
 은대: 기원전 13세기-기원전 11세기말  
 서주: 기원전 11세기 기원전 771년  
 서주초기(武王에서 昭王까지)  
 서주중기(穆恭懿孝夷)  
 서주말기(厲宣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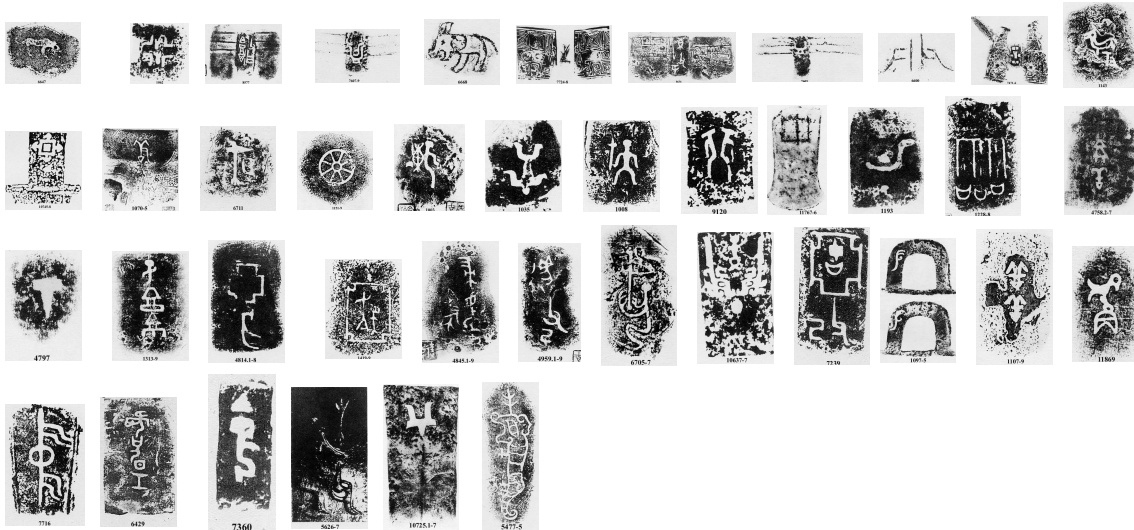
분기	상 서주초기	서주 초기	서주 초·중기	서주 중기	서주 중·말기	서주 말기	서주말 춘추초	서주	합계
숫자	589	2,688	92	742	30	997	25	131	5294

위의 표에 보이는 것처럼, 『殷周金文集成』에는 총 5,294개의 서주시대 청동기가 정리되어 있는데, 필자의 작업은 4393개의 상대족회가 서주시대에 들어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추적하고자 한다(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단일도상기호에 한정하여 서술). 그 결과는 아래의 표들과 같다.

<표2> 商에서 ‘은 혹은 西周초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

상대의 족회	은 혹은 서주초기	서주	합계
41종류			41종류
161개	64	1	226개

<그림들1> 商에서 ‘은 혹은 西周초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



商에서 ‘은 혹은 西周초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는 모두 41종류이고 총 수는 226개이다.

<표3> 商에서 ‘西周초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

상대	은 혹은 서주초기	서주초기	서주초기 혹은 중기	서주말기 혹은 춘추초기	서주	합계
130종류						130
989	111	402	3	2	12	1519

<그림들2> 商에서 西周초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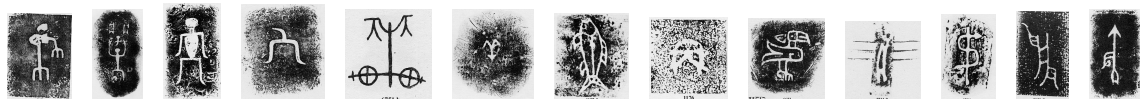


商에서 '西周초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는 모두 130종류 1519개이다.

<표4> 商에서 '西周중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

상대 족회	은 혹은 서주초기	서주초기	서주초기 혹은 서주중기	서주중기	서주중기 혹은 서주말기	서주	합계
28종류							28종류
520	112	248	8	63	2	2	955

<그림들3> 商에서 西周중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





商에서 ‘西周중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는 모두 28종류 955개이다.

<표5> 商에서 ‘서주말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

상대	은 혹은 서주초기	서주초기	서주초기 혹은 중기	서주중기	서주중기 혹은 말기	서주말기	서주	합계
2종류								2
3	0	3	0	8	0	11	2	27

<그림들4> 商에서 西周말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



商에서 ‘西周말기’까지 나타나는 단일도상기호는 모두 2종류 27개이다.

위의 족휘들을 보면 실제 상주혁명 이후에도 이들 상의 종족들이 위의 족휘를 가지고 서주시기 중국 영역에 ‘多邦’, ‘庶邦’, ‘萬邦’ 등의 형태로 흩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료들은 周가 殷의 족적 질서를 거의 손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① 周公乃朝用書, 命庶殷侯甸男邦伯.”<sup>15)</sup> ② 告爾四國多方. 惟爾殷侯尹民”<sup>16)</sup> 위의 자료 중 ①의 “庶殷侯甸男邦伯”이나 ②의 “殷侯尹民”이라는 표현은 殷族이 은 자체의 각급의 邦君에 의해 통치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明公簋>에서 “唯王令明公, 遣三族伐東或(國)”이라고 하고 있고, <班簋>에서는 “以乃族從父征”이라고 한 것처럼 당시의 민은 ‘族’을 기층단위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족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당시의 실정상 이들 殷族의 각 급의 邦君들을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邦君의 교체는 족체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의 표들을 모아보면 상의 족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6> 상에서 서주중기까지 나타나는 도상기호 종합표

상	상 혹은 서주초기	서주초기	서주초기 혹은 서주중기	서주중기	서주중기 혹은 서주말기	서주말기	서주말기 혹은 춘추초기	서주	총계
1673	287	653	11	71	2	11	2	17	201종류 2727개

15) 『書經』 周書 召誥

16) 『書經』 周書, 多方.

위의 표를 보면 서주초기에는 653개나 나타나는 상의 족휘를 그린 청동기가 서주중기에 가면 71개로 줄어들고 서주말기에 가면 11개로 거의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대의 족들은 서주 초기(昭王시기)까지는 상의 족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다가 서주 중기를 고비로 상적 족조직의 양식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크게 변했으며 이후 서주말기에 가서는 완전히 사라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西周시대 商族의 遷徙

서주시대 상족의 변화상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서주시대 청동기 중 상족과 주족의 청동기를 분류하고, 상대와 서주시대에 연속되는 상족의 족휘를 모은 다음에는 출토지가 확인된 청동기를 중심으로 그 출토위치의 변동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필자가 정리한 바로는 『殷周金文集成』에는 전체 청동기 중에서 20-30%의 청동기에서 출토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자료들은 상족이 어디에 분포했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sup>17)</sup> 그러면 먼저 상대의 족들이 서주시대에 들어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추론해보기 위해 상대에서 주대에 걸친 정치권력의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은주금문집성』에 나타난 출토지가 있는 금문을 정리해보자.

먼저 상대의 출토지가 있는 청동기 972점을 쑤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7> 銘文이 있는 상대 청동기출토지의 분류

하남 안양	하남 기타	산 동	섬 서	하 북	산 서	호 남	감 숙	호 북	광 서	북 경	요 녕	내 몽 골	강 서	절 강	안 휘	기 타	합 계
688	58	82	48	23	21	5	4	6	2	1	5	1	1	2	3	22	972

아직 출토되지 않은 청동기나 특정지역 청동기가 보다 많이 지금까지 출토되었을 개연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표는 상대 후기에는 그 정치적 중심이 安陽에 확고히 있었으며, 산동과 섬서, 하북, 산서가 비교적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점을 위의 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서주시대 청동기는 그 출토지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표7> 銘文이 있는 周代 청동기출토지의 분류

17) 또한, 『殷周金文集成』에 실린 청동기는 출토지가 확인된 것이 소수인데 반해, 『近出殷周金文集錄』이나 『新收殷周青銅器銘文既器影彙編』에 수록된 청동기들은 출토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출토지가 분명하게 나타난 청동기들은 종래 문헌사료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보다 입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春秋』 隱公 元年의 기사에서 “費伯이 師를 이끌고 郕에 성을 쌓았다(『春秋』 隱公 元年).” 등의 기사에 나타나는 費에 관한 銅器가 1972년에 발견되어 ‘費’가 있었던 정확한 위치가 山東省 鄒縣 남쪽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文物』 1974-1), 이는 청동기 출토지가 역사연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섬서	하남	산둥	하북	북경	산서	감숙	호북	요녕	호남	강소	강서	절강	사천	북건	안휘	기타	합계
7	2	7	1	6	2	2	4	2	6	2	1	1	2	1	4	4	1
6	6	9	8	0	2	8	4	5									3
5	2																6
																	4

위의 표를 보면, 서주시기에는 關中으로 통칭되는 섬서지역이 정치적 중심으로 떠올랐고, 그 옆으로 동쪽으로 산서, 하남, 하북, 북경, 산둥지역과 그 북쪽으로 요녕지역이, 그리고 서쪽으로 감숙으로 대표되는 황하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변화의 와중에서 상족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左傳』 僖公 24년의 유명한 봉건기사는 周公의 東征 이후에 管、蔡、郕、霍、魯、衛、毛、聃、郤、雍、曹、滕、畢、原、鄆、郕、邶、晉、應、韓、凡、蔣、邢、茅、胙、祭에 대한 대대적인 회성봉건의 기사를 전하고 있다.<sup>18)</sup>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봉건에는 집단과 토지가 수여되었는데, 초봉 당시 魯·衛·晉이 받은 봉건집단과 봉건토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 初封 당시 魯·衛·晉이 받은 집단과 토지표<sup>19)</sup>

봉건자	봉건집단	봉건토지
魯公	殷民 6族(條氏、徐氏、蕭氏、索氏、長勺氏、尾勺氏)	少皞之虛
衛康叔	殷民 7族(陶氏、施氏、繁氏、錡氏、樊氏、饑氏、終葵氏)	自武父以南及圃田之北竟，取於有閭之土以共王職；取於相土之東都以會王之東蒐。聃季授土，陶叔授民，命以康誥而封於殷虛。
晉唐叔	懷姓 9宗，職官 5正	

위의 표는 周公의 東征 이후에 26국을 대대적으로 봉하여 殷民과 懷姓 등의 이성씨족과 그들의 族邑 내지 國을 관할하게 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수여 대상에 상족이 자주 거론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족의 이동과 관련하여 출토지가 밝혀진 청동기가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는 1973년 6월 山東省 李宮村에서 발견된 〈索氏爵〉인데, 이 청동기가 周初 魯의 봉지안에서 출토된 것을 이유로 발굴보고자는 ‘索’이 서주 초기에 『左傳』의 기사에서 魯에게 분급되었던 殷의 ‘索氏’, 즉 위에 표에 나타난 殷民 6族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sup>20)</sup> 이러한 발굴보고서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左傳』 定公 4년의 노공에게 條氏、徐氏、蕭氏、索氏、長勺氏、尾勺氏의 殷民六族을 사여한

18) 『左傳』 僖公 24년, 昔周公弔二叔之不咸，故封建親戚以蕃屏周。管、蔡、郕、霍、魯、衛、毛、聃、郤、雍、曹、滕、畢、原、鄆、郕、邶、晉、應、韓、武之穆也。凡、蔣、邢、茅、胙、祭，周公胤也。

19) 『左傳』 僖公 24년.

20) 〈索氏器的發現及其重要意義, 『文物』 1990-7.

것을 증명해주는 실물임을 증명해준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금문에도 보이는데 『은주금문집성』 편호 04241의 <覲作周公卣>에는 覲과 內史에게 州人, 重人, 錡人 등의 臣 三品을 준 기사가 있는데,<sup>21)</sup> 이 때 하사한 세 종족 중 州는 『은주금문집성』 편호 17·10727로 安陽에서 출토된 청동기이며, 重 역시 河南 安陽 출토로 전하는 06·02927, 1982년 河南 安陽 小屯 西地묘장인 M1: 11에서 ‘重父壬(04·01666)’의 형태<sup>22)</sup>로 출토되었다.<sup>23)</sup>

그렇다면 족조직의 형태로 분사된 상의 유민들은 어디로 이동하였을까? 이에 대한 개략적인 범위를 추정하기 위해 1364개의 ‘은 혹은 서주초기’에서 ‘서주말기 혹은 춘추초기’에 이르는 서주와 관련된 청동기를 찾아 이를 분류하여 상대 양식(●), 주대양식이나 문장형 금문(○), 상대양식인지 주대양식인지 불명분한 경우(▲)로 나누어 이를 분류하였다.

〈西周 金文 出土地 분류표〉

		은 혹은 서주초기	서주초기	서주초기 혹은 중기	서주중기	서주중기 혹은 말기	서주말기	서주말기 혹은 춘추초기	서주
陝西	扶風縣 莊白村		●		●○	▲	○		
	扶風縣 召陳村				○		○		
	扶風縣 齊鎮		●		○		○		
	扶風縣 齊家村		●		●○		●○		
	扶風縣 雲塘村	●	●○	○	●○		○		
	扶風縣 法門寺		●				▲○		
	扶風縣 白家村		●		●○		○		
	扶風縣 齊村						○		
	扶風縣 康家村						○		
	扶風縣 强家村				○				
	扶風縣 劉家村		○				○		
	扶風縣 黃堆村				○		○		
	扶風縣 召李村		●						
	扶風縣 北呂		○						
	扶風縣 北橋	●					○		
	扶風縣 五郡西村						○		
	扶風縣 北岐山某溝					○	○		
	扶風縣 豹子溝						○		
扶風縣 白龍村	▲								
扶風縣 柳東村				●					

21) 『은주금문집성』 편호 04241, “佳三月。王令覲卣內史曰甸井囗服。易臣三品州人。重人。錡人。拜斧首。魯天子夙厥瀕福。克奔夙上下。帝無冬令于有周。追考對不敢象卻朕福卣。朕臣天子用典王令。乍周公彝。”

22) 이 두 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州(17·10727, 17·10727 03·00478). 重(03·01003, 03·01004, 06·02927[河南 安陽 출토로 전함], 12·06568, 12·06569, 13·07365, 13·07366, 13·07367) 亞重(11·06162), 重父丙(03·00478, 14·08438)·父丙重(11·06249) 重父壬(04·01666[1982년 河南 安陽 小屯 西地묘장 출토(M1: 11)]) 重父癸(11·06324, 11·06325).

23) 이런 봉건의 형태는 西周초기의 유명한 宜侯矢簋에도 나타난다. 『殷周金文集成』 08·04320, “王이 虞(虎)侯측에게 명하였다. ……土를 하사한다. 그 川(卣)은 三百□이고, 그 □는 120, 그 宅邑은 35, 그 □은 140이다. 宜에 있는 王人 17姓을 하사한다. 奠(甸 혹은 鄭)七伯을 하사한다. 그 盧는 □50 夫이다. 宜에 있는 庶人 6□6夫이다(“王令(命)虞(虎)侯측曰: ?(?)侯于宜, 賜?(?)鬯一鹵·商瓚一□·彤弓一·彤矢百·旅(?)弓十·旅(?)矢千, 賜土: 厥川(卣)三百□, 厥□百又廿, 厥宅邑卅又五, 厥□百又卅(四十), 賜在宜王人十又七生(姓), 賜奠(甸)七伯, 厥盧□又五十夫, 賜宜庶人六百又□六夫, 宜侯?揚王休, 乍(作)虞(虎)公父丁尊彝.”).

扶風縣 太白公社						○		
扶風縣 下務子村						○		
扶風縣 楊家堡		●						
扶風縣 南陽公社						○		
扶風縣 七里橋						○		
扶風縣 上康村						▲		
扶風縣 張黃村		●						
扶風縣 南陽鄉 溝原村					○			
扶風縣		○		○		○		
陝西省 扶風縣, 永壽縣 사이]						○		
扶風縣과 岐山縣 사이]		●				○		
扶風縣, 岐山縣 任家村	●	○		○		○		
岐山縣 賀家村		○▲	○			○		○
岐山縣 董家村				▲○		○		
岐山縣 京當公社		●		○		○		○
岐山縣 禮村		●						
岐山縣 清化鎮						○		
岐山縣 北寨子	●							
岐山縣 高店				○				
岐山縣 丁童家南壕			○					
岐山縣 北郭公社					○			
岐山縣 吳家莊								○
岐山縣 蔡家坡				○				
岐山縣 雙庵村		○						
岐山縣 周公廟		○						
岐山縣 小營原村				○				
岐山縣 張家場村		▲						
岐山縣 流龍嘴村								○
岐山縣 祝家港村		○						
岐山縣		●○		○		○		
寶鷄市 茹家莊		○	○	▲○				
寶鷄市 紙坊頭		●○						
寶鷄市 竹園溝		●○		○				
寶鷄縣 鬪鷄臺		●	○					
寶鷄縣 號鎮		○		○		○		
寶鷄縣 賈村		○				○		
寶鷄縣 賈村鄉 靈龍村		●						
寶鷄市 五里廟		○						
寶鷄 祀鷄臺	●	●						
寶鷄		●						
寶鷄市 姜城堡		●						

	寶鷄市  박물관 墓葬		●						
	寶鷄市 峪泉村		●						
	寶鷄市 青菱河 桑園堡		●						
	寶鷄縣 西高泉 村						○		
	寶鷄縣 戴家灣		●						
	寶鷄市 强家莊		●						
	寶鷄縣 虢川司						○		
	寶鷄		●○				○		
	臨潼縣		○		○		○		
	武功縣		●	○	○		○	○	
	涇陽縣		●						
	藍田縣				○	○	○		
	鳳翔縣	●	●		●○		○		▲
	長安縣 花園村		●○	●○	○				
	長安縣 普渡村		●	●○	●○				
	長安縣 張家坡	●	●○	○	○		○		●
	長安縣 馬王村				▲○		○		
	長安縣 灃西	●	●○		○		●○		
	長安縣		●○		○		●○		
	西安		●		○		○		
	郿縣		●○		●○				
	隴縣		●						
	盩厔縣		●				○		
	永壽縣				●		○	○	
	輝縣		●						
	白水縣		○						
	?陽縣		●						○
	長武縣		●		○		○		
	鄠縣		●				○		
	洋縣 張鋪						○		
	咸陽		○						
	乾縣 薛祿鎮						▲		
	周家橋 程家村		○						
	醴泉縣 黃平村					○			
	勉縣 老道寺				○				
	陝西省 周原刁						○		
	清澗縣 解家溝		▲						
	麟游縣 蔡家河		○						
	澄城縣 南申業 村				○				
	陝西省 韓城斗						○		
	澄城 境界								
	陝西		●○		○		○		
	關中		▲○		○				
河南 省	洛陽 馬坡		●○	○					
	洛陽	●	●○	●○	●○		○		
	洛陽市 北瑤		●○						
	洛陽 邙山麓苗 溝	●	○	○					
	洛陽 東郊		●						
	洛陽 近郊		●						
	洛陽 龐家溝		▲○		○				
	洛陽 鐵路二中 26호묘		○						

	洛陽廟溝		○							
	洛陽 機瓦廠 368호묘				○					
	洛陽 東郊 塔 西村		●○							
	洛陽 專區 文物 普查隊 伊川寺 後村		●							
	洛陽 東郊 墓 葬		○							
	洛陽 東郊 鐵路局 鋼鐵廠 墓葬		●							
	濟縣		●○		○				○	
	河清		●○							
	鶴壁市		●○							
	平頂山		○		○		○		○	
	安陽市	●	●							
	桐柏縣						○			
	南陽市						○			
	襄縣		●○							
	上蔡縣		●							
	新鄭縣						○			
	靈寶縣						○			
	孟津		○							
	陝縣						○ ▲			
	開封		▲							
	魯山縣	○	?							
	輝縣		●							
	泌陽前梁河村				○					
	河南省	○	●○		●○		○			
山 東 省	滕縣		●				○			
	滕縣 莊里西村		●○				○			
	鄒縣						○		○	
	日照縣						○			
	煙臺市					○	○			
	濟陽縣		●○	○						
	長山縣		●							
	肥城縣		○				○			
	費縣	●			○					
	新泰縣							○		
	泰安縣		○				○			
	黃縣		●		○		○			
	壽張縣 梁山	●	○				○			
	蓬萊縣						○			
	莒縣						○			
	蒼山縣		●							
	壽光縣						○			
	山東省 기타	○	○					○		
	北 京	房山縣 琉璃河		○						
		房山縣 琉璃河 鎮 黃土坡村		●○	○	○				
房山縣 琉璃河 劉家店			○							
順義縣 牛欄山		●	●							
昌平 白浮龍山 養鹿場			●							

	北京城 외곽		○						
甘肅	甘肅省		●○						
	靈臺縣		●○						
	寧縣						○		
	西峰鎮		○						
遼寧	喀左縣 山灣子		●○						
	喀左縣 北洞村		●▲						
	喀左縣 小波汰溝	●	○						
	凌源縣 海島營子村		●○						
	喀左縣 馬廠溝		○						
	喀左縣 小轉山		●						
山西	長子縣	●	○		○				
	芮城縣		○				○		
	翼城縣 鳳家坡		●						
	聞喜縣		○				○		
	洪趙縣		●						
	吉縣						○		
	屯留縣		▲						
	長治縣	○							
	大同						○		
	吉州						○		
山西省				○					
河北	元氏縣 西張村		○		○				
	易州		●○				○		○
	涞水縣		○						
	順義縣				○				
	邢台市		●						
	正定縣	●							
	束鹿		○						
河北		○							
湖北	黃陂縣 魯臺山		●○						
	江陵縣 萬城		●○		●○				
	隨縣		●				○		
	京山縣						○	●	
	棗陽縣						○		
	麻城		○						
	浠水縣 朱店村						○		
	黃陂縣		○						
	蘄春縣		●						
	天門縣						○		
	襄陽縣						○		
襄樊市						○			
武漢市		▲							
湖北省 기타						○			
湖南	湘潭縣 青山橋鄉 老屋村		●		●				
	石門縣		●						
江蘇	丹徒縣 母子墩		○						
安徽	潁上縣 王崗區 鄭家灣	●	●						
	上縣 鄭家灣村		●						
	屯溪市 西郊 墓葬		●						
江西	餘干縣 黃金早		○						
浙江	紹興市 坡塘獅				○				

	子山 西麓								
四川			●						
福建	光澤羊塘鄉 油 家壠								○

위의 표를 보면 陝西省에서는 扶風縣 莊白村, 岐山縣 禮村, 寶鷄 祀鷄臺를 비롯한 대략 50여 속에서 상대족회가 출토되고 있다. 山東省에서도 滕縣 莊里西村를 비롯한 9곳에서, 북경에서도 房山縣 琉璃河鎮 黃土坡村를 비롯한 3곳, 감숙성에서도 靈臺縣을 비롯한 2곳, 요녕성에서도 喀左縣 山灣子를 비롯한 5곳, 산서성 3곳, 하북성 3곳, 호북성 4곳과 湖南, 江蘇, 安徽, 江西, 浙江, 四川, 福建 등에서 상대 명문 양식의 청동기가 발견되고 있다. 상족이 상주혁명 이후 특히, 周公의 東征 이후 서주 영역 곳곳으로 족단위로 분산되었음을 시사해준다.<sup>24)</sup>

또한, 위의 표는 ●로 표시된 상족의 족회 양식이 서주초기에는 상당히 보이다가 서주중기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상대말기, 즉 중기의 마지막 왕인 夷王에서 말기의 첫 왕인 厲王을 고비로 완전히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명문의 분석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제시카 로슨(Jessica Rawson)은 전래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주중·후기시기 共王시기부터 나타나는 청동예기의 모양이나 문양, 조합 등의 큰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가족 중심의 소규모 제사에서 청중을 상대로 한 대형화된 새로운 제사 형태로의 변화로 이해하면서 ‘제사혁명(Ritual Revolution)’으로 명명하고 있다.<sup>25)</sup> 盧連成·胡智生,<sup>26)</sup> 李峰<sup>27)</sup>과 같은 중국의 학자들도 ‘제사혁명’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서주중기 이후부터 청동예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였다.<sup>28)</sup> 필자는 이런 변화를 ‘○父’로 대표되던 상적 질서가 ‘○○父’나 伯, 仲, 叔, 季로 대표되는 종법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서주 양식으로 변화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추정할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된 상족이 어떤 방식으로 西周의 지배를 받고 서주 초, 중기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을 것인가를 북경 琉璃河지역에서 출토된 대규모 청동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추론해보고자 한다. 먼저, 금문에 따르면 서주초기 이 지역의 총관할자는 ‘燕侯’인데 그 존재는 1973년에서 74년에 걸쳐 출토된 ‘匱(燕)侯’<sup>29)</sup>, ‘匱(燕)侯天?(戟)’<sup>30)</sup> 등의 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가 이 지역의 지배자라는 사실은 이 지역을 대표해서 匱(燕)侯 旨가 주왕실에 朝覲을 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燕侯와 관련된 청동기만 아니라 “伯乍(作)乙公尊簋.”<sup>32)</sup>나 “叔乍(作)寶尊彝.”<sup>33)</sup>와 같이 伯, 叔등이 작기자인

24) 청동기가 상대에는 河南省 安陽 殷墟를 중심으로 河北省나 山東省, 湖北省 등에서 발견되는 반면, 서주시대에 들어와서는 상족의 청동기가 安陽 殷墟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周族의 본거지인 陝西省 등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서주초기와 三監의 난 이후 실시된 서주 봉건의 목표가 商族의 대대적인 이동과 재배치에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25) Michael Loewe and Edward L. Shaughnessy ed.,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433-438쪽.

26) 魯連生, 胡智生, 『寶鷄 燕國墓地』(文物出版社, 1986), 521-533쪽.

27) 李峰, 「黃河流域出土青銅禮器的分期與年代」, 『考古學報』 1988-4, 397쪽.

28) 심재훈, 「고대중국 이해의 상반된 시각」, 『역사비평』 2003년 겨울호(역사비평사, 2003), 277-300쪽.

29) 『殷周金文集成』 18·11854.

30) 『殷周金文集成』 17·10953.

31) 『殷周金文集成』 05·02628, “匱(燕)侯旨初見事于宗周, 王賞旨貝卅朋, 用乍(作)又(有)始(妣)寶尊彝”

청동기가 출토되고 있고, 이와 함께 상대 양식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도 나타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琉璃河에서 출토된 두 청동기 명문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① 在戊辰，匱(燕)侯賜伯矩貝，用乍(作)父戊尊彝。<sup>35)</sup>

② 規伯矩乍(作)寶尊彝<sup>36)</sup>

위의 명문은 모두 琉璃河 유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이다. 그런데, 먼저, ①을 보면 燕侯가 ‘伯矩’에게 貝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伯矩가 燕侯의 臣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서주시기의 호칭관계로부터 ①의 匱구는 동일지역에서 출토된 ②에 보이는 ‘規伯矩’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규백인 구가 연후에게 신속하는 연후-규백, 즉 후-백 사이의 신속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琉璃河 유역에서는 백뿐만 아니라 “叔乍(作)寶尊彝”와 같이 속도 단독으로 청동기를 제작한 사례가 보인다. 이를 통해 북경 유리하 지역에서 발견된 상대 양식 청동기인 爵祖丙<sup>37)</sup>이나 ‘父乙’을 족휘로 했던 집단 또한 위에서 살펴본 규백처럼 연후에게 신속하고 있었음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또한 서주 중기 이후 상족 역시 주족처럼 〇〇父나 伯, 仲, 叔, 季를 호칭으로 하는 집단으로 전화되었을 가능성은 이후 보충하고자 한다.

## 4. 결론

종래 서주초기 정치사에서 봉건의 연구는 주로 군사와 그 결과로서의 정치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만일 필자처럼 청동기 족휘를 중심으로 한 족의 추적을 중심에 놓게 되면 서주봉건의 본질은 商族의 족조직을 보존시킨 채 족단위로 분리하여 서주의 관할 영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三監의 난은 商族의 족조직이 온전한 상태에서 그 지배자만 紂에서 武庚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며, 따라서 周公의 東征은 주로 상족의 족조직을 분산, 재배치하는 것이었다는 관점을 보다 확실하게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글의 목표가 서주봉건을 ‘族’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고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周代를 ‘封國연맹’의 단계,<sup>37)</sup> 商周사회의 기층단위를 ‘宗族’에 의한 ‘族落’,<sup>38)</sup> 혹은 아예 ‘氏族聯盟’이라고 정의하는 시각<sup>39)</sup> 등을 강화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32) 『殷周金文集成』 06·03540.

33) 『殷周金文集成』 04·02053.

34) 1974년 北京 房山현 琉璃河 黃土坡 50호묘(M50: 4)에서 발견된 서주초기의 ‘爵祖丙’이나 같은 지역 M50: 5)에서 발견된 父乙을 들 수 있다.

35) 『殷周金文集成』 03·00689.

36) 『殷周金文集成』 16·10073.

37) 高光品, 『中國-國家起源及形成』, 湖南人民出版社, 長沙, 1998.

38) 王貴民, 『商周制度考信』, 明文書局, 臺北, 1989.

39) 陶希聖, 『中國政治制度史』, 啓業書局, 臺北, 1973, 28-31쪽.

2009년 6월 26일 중국고중세사학회(서울대)

민후기, 「西周왕조와 商族」 토론문

심재훈

민후기 선생님의 발표는 상에서 서주시기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族徽(族氏 명문)의 계량적 분석을 토대로 이른바 상주혁명의 본질적 성격과 상주시기 족 사회 변화의 일단을 검토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동일한 족씨 명문을 시기별, 지역별로 분류함으로써 상족의 분산 재배치가 서주 봉건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를 통해 “족 연합”이라는 서주 국가의 성격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많은 명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된 연구라는 점에서 일단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최근 저 역시 족씨 명문의 분석을 토대로 서주 초기 시행된 사민을 검토한 바 있어서 제 견해와 상통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연구가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면, 민 선생님의 연구는 상당히 거시적인 담론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민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거시적 접근에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아직 정치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발표 논문의 성격을 지닌 듯 보여, 이 토론이 앞으로의 논문 작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논문의 제목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西周왕조와 商族」이라는 제목인데요, 商族이라는 용어가 약간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족씨 명문을 토대로 한 이 글의 성격 상, 중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商代의 족씨 명문을 다 상족의 것으로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해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상족이라는 용어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하고, 그 정의를 반드시 논문에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상주시대의 氏, 姓, 族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전래문헌이 여러 맥락에서 이들을 혼용하고 있고, 출토문헌 상의 같은 용어와 반드시 일맥상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UCLA의 Lothar von Falkenhausen은 周代 사회 고고학을 다룬 책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 용어보다는 서양 인류학자들이 만든 용어인 lineage, clan, ethnic group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길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이들에 대한 층차적 구분 없이 族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 듯한데 이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2. 고고학상 발견되는 족씨 명문의 존재가 어떤 특정 족 단위 조직의 존재와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5년 출간된 何景成의 『商周青銅器族氏銘文研究』(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에 의하면, 동일한 족씨 명문이 같은 시기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제가 분석한 冥族의 족씨 명문 역시 서주 초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경성은 이러한 경우, 특정 족씨 명문이 발견되는 지역들을 그 족속의 거주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는 이미 족이 분할된 흔적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선생님은 당시 기층단위로써 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각급의 邦君 교체가 불가능했다고까지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는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서주 초 상족의 무수한 遷徙와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족이 遷徙의 대상이었다면 그것은 여러 족 조직의 와해를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주

초기의 많은 사민은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족적 질서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족씨 명문의 분포지 변화가 반드시 족속의 이동을 입증해주는지의 문제입니다. 그 분포지의 다양성만큼 그 이유도 다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선생님께서는 서주 초기에 陝西省에서 발견된 상족의 족휘가 많다고 하시고 이를 통해 상족의 遷徙를 암시하고 있는 반면에, 하경성은 林灃의 견해를 인용하며 陝西省에서 나타나는 많은 상의 족씨 명문은 상당 부분 전리품이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주 금문 출토지 분류표>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불분명하게 느껴지는데, “상대 족휘”와 “상대 명문 양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주 중기 이후 상 스타일의 족휘 양식이 사라지는 것을 이른바 제사(의례)혁명의 제사(의례)혁명과 연관시키는데, 로슨이 주장하는 제사 혁명은 주로 서주 중후기 청동기 유형이나 양식상의 변화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측면에서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최근 컬럼비아대학의 리핑 교수가 서주 관료제에 대한 연구를 출간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로 책명금문들만을 이용하여 서주가 상당히 체계화 된 관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선생님의 족 중심 질서와는 일면 모순되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 저도 서주가 그렇게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의 생각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방대한 책명금문의 존재가 서주의 관료제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족적 질서와 관료제 사이의 모순 혹은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漢代 工官의 설치와 지역 지배

## —巴·蜀 지역을 중심으로—

金龍濼(서울大 助教)

### 目 次

#### 머리말

- I. 漢代 工官의 분포와 巴·蜀
  - II. 巴·蜀 지역의 점령과 본토화
  - III. 巴·蜀 工官과 지역 지배
- 맺음말

### 머리말

戰國 시대 秦에서 官營 手工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은<sup>1)</sup> 이미 상식에 속한다. 이러한 전통은 漢代에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중앙 정부는 각 지방에 工官을 설치하여 手工業을 직접 장악하려 했다. 前漢의 工官은 중앙에 설치된 內官, 寺工, 都船, 考工, 尙方, 東園匠 등과 지방에 설치된 工官 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중앙 工官은 거의 모두 皇帝를 봉양하고 山林藪澤의 수입을 관장하는 少府<sup>2)</sup> 屬官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분화됐다.<sup>3)</sup> 京師에 설치된 중앙 工官과 함께 몇몇 지방에도 중앙 직속의 工官들이 설치됐다. 이들 지방 工官은 중앙 정부, 특히 少府에서 직접 관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점차 각 工官이 위치한 郡의 지휘를 받게 됐으며, 後漢代에는 중앙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예 郡 소속 官府의 하나로 개편됐다.<sup>4)</sup> 皇帝의 봉양을 위해서라면 중앙에만 설치해도 충분했을 工官을, 그에 비견되는 규모와 조직으로 지방에까지 설치한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京師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巴·蜀 지역에 工官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생산된 器物이 상당한 수준과 비중을 보여 준 것은 특기할만 하다.

官營 手工業을 이끌었던 工官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手工業 제품을 만드는데 이용된 재료에 따라 각각의 생산 조직을 추적한 專著가 이미 1960년대에 출판됐으며,<sup>5)</sup> 秦·漢代 手工業을 官營과 私營으로 양분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논문도 제시됐다.<sup>6)</sup> 이와 같은 전반적인 연구 성과들의 정리와 아울러 鐵器,<sup>7)</sup> 靑

1) 李成珪 著,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秦國齊民支配體制的 形成—』, 一潮閣, 1984, pp.129-131.

2)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上, p.731. “少府, 秦官, 掌山海池澤之稅, 以給共養”; p.732, 注[一]. “師古曰: ‘大司農供軍國之用, 少府以養天子也.’”

3) 山田勝芳, 「秦漢代手工業의 展開—秦漢代 工官의 變遷から考える」, 『東洋史研究』 56-4, 1998, pp.714-717.

4) 위 논문, p.718.

5) 佐藤武敏 著, 『中國古代工業史의 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2.

6) 高敏, 「秦漢時代의 官私手工業」, 『中國: 社會と文化』 4, 1989(再發表: 高敏, 「秦漢時期的 官私手工業」, 『南都學壇(社會科學版)』 11-2, 1991).

7) 角谷定俊, 「秦における 製鐵業의 一考察」, 『駿台史學』 62, 1984; 李京華, 「漢代大鐵官管理職官의 再研究

銅器,<sup>8)</sup> 漆器<sup>9)</sup> 등 각 器物별로 생산 조직을 밝혀보려는 노력들도 전개됐다. 이에 비해 工官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중앙 工官이나<sup>10)</sup> 出土 자료를 중심으로 南陽 工官,<sup>11)</sup> 河內 工官,<sup>12)</sup> 蜀 工官<sup>13)</sup> 등 지방 工官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글 등이 있을 뿐이다. 기타 史料에 언급된 三 工官,<sup>14)</sup> 三服官<sup>15)</sup> 등 다른 것들에 비해 비중이 큰 工官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연구자들도 있었다. 기타 工官의 官員들을 보여주는 璽印 자료나<sup>16)</sup> 鐵器 銘文을<sup>17)</sup> 언급하여 工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한 저작도 있었다. 秦·漢代 工官 자체의 설치와 운영, 변화에 대한 專論은 한 편 정도가 존재한다.<sup>18)</sup>

이렇듯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은 工官을 독립된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手工業 전반을 다루면서 간단히 언급하거나, 각종 器物을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생산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상위 기관으로서 상정한 정도에 그쳤다. 중앙과 지방 工官이 어떻게 설치·운영됐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있긴 하지만, 지방 工官이 설치된 의의에 대한 부분까지 접근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戰國 秦의 縣級 官營 手工業 作坊까지 工官의 범주에 넣어 漢代 ‘工官’이 가지는 의미와 혼동했던 논문도 눈에 띈다.<sup>19)</sup> 먼저 工官이라는 명칭을 漢代에 설치된, 중앙 정부에서 직접 장악했던 官營 手工業 作坊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縣 단위에까지 설치되어 중앙이 직접 장악하지는 않았던 作坊들까지 工官으로 간주한다면 漢代 특유의 工官에 대한 이해가 방해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筆者는 前漢代 工官이 설치된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중앙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巴·蜀 지역에 설치된 工官에 주목해보겠다. I 장에서는 漢代 工官들이 어디에 배치됐고, 그 특성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巴·蜀 工官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장에서는 巴·蜀 지역이 주목받게 된 계기를, 秦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郡·縣 지배를 확립해가는 과정을 통해 찾아보겠다. III 장에서는 巴·蜀 지역에 工官이 설치된 漢代의 상황을 살펴보면, 工官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漢 帝國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 지배를 관철시키려고 했는지, 그 효과를 정리하겠다.

), 『中原文物』 2000-4.

8) 角谷定俊, 「秦における青銅工業の一考察－工官を中心に－」, 『駿台史學』 55, 1982; 榮文庫, 「漢代中央銅器生産 工官機構考釋」,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7-5.

9) 洪石, 「戰國秦漢時期漆器的生産與管理」, 『考古學報』 2005-4.

10) 周雪東, 「秦漢內官·造工考」,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8-2.

11) 劉紹明·曾照閣, 「“南陽工官”初探－南陽兩漢銘刻輯考之一」, 『南都學壇』 1996-5.

12) 楊琮, 「“河內 工官”的設置及其弩機生産年代考」, 『文物』 1994-5.

13) 郝良眞, 「邯鄲出土的“蜀西工”造酒樽」, 『文物』 1995-10.

14) 柏樺·戴曉北, 「西漢三工官志疑」,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4-2.

15) 王子今, 「西漢“齊三服官”辨正」, 『中國史研究』 2005-3.

16) 葉其峰, 「試釋幾方工官璽印」, 『故宮博物院院刊』 1979-2.

17) 李京華, 「朝鮮平壤出土“大河五”鐵斧」, 『中原文物』 2001-2.

18) 山田勝芳, 「秦漢代手工業の展開－秦漢代工官の変遷から考える」, 『東洋史研究』 56-4, 1998.

19) 角谷定俊의 그의 논문에서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內史雜」의 한 條目에 등장하는 ‘嗇夫’(『睡虎地秦簡』(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睡虎地秦墓竹簡』, 文物出版社, 1990. 이하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內史雜」, p.106. “官嗇夫免, □□□□□□其官亟置嗇夫. 過二月弗置嗇夫, 令丞爲不從令. 內史雜”)를 史料에서의 언급과 관계 없이 ‘工官嗇夫’로 해석했으나(角谷定俊, 「秦における青銅工業の一考察－工官を中心に－」, 『駿台史學』 55, 1982, p.66 및 p.68 표 참고), 戰國 秦에서 명시적으로 工官이 史料 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다소 안이한 命名으로 생각된다.

# I. 漢代 工官의 전국적 분포와 巴·蜀

前漢代 工官<sup>20)</sup>의 배치는 ①원재료와의 접근성, ②工匠의 숙련도 등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실제 工官은 몇몇 지역으로 한정되는데, 구체적인 숫자와 위치는 『漢書』 「地理志」에 전해진다.

<표 1> 漢代 鐵官·鹽官·工官 위치 비교

그룹 <sup>㉑</sup>	郡·國	前漢			後漢						
		鐵官	鹽官	工官	鐵	錫	鹽				
內史그룹	京兆尹	鄭	1								
	左馮翊	夏陽	1								
	右扶風	雍, 漆	2			雍, 漆	2				
	弘農郡	黽池	1								
Ⅲ그룹	河東郡	安邑, 皮氏, 平陽, 絳	4	安邑	1		安邑, 平陽, 皮氏	3		安邑	1
	太原郡	大陵	1	晉陽	1		大陵	1			
	河內郡	隆慮	1		懷	1	林慮(故 隆慮)	1			
Ⅳ그룹	河南郡	?	1		?	1					
	潁川郡	陽城	1		陽翟	1	陽城	1			
	汝南郡	西平	1				西平	1			
	南陽郡	宛	1		宛	1					
	南郡			巫	1						
淮南國그룹	廬江郡	皖	1				皖	1			
梁國그룹	山陽郡	?	1								
	沛郡	沛	1								
	東平國	?	1								
趙國그룹	魏郡	武安	1				武安	1			
	鉅鹿郡			堂陽	1						
	常山郡	都鄉侯國	1				都鄉	1			
	涿郡	?	1								
	勃海郡			章武	1						
	中山國	北平	1				北平	1			
齊國그룹	千乘郡	千乘	1	?	1						
	濟南郡	東平陵, 歷城	2			東平陵	1	東平陵, 歷城	2		
	泰山郡	嬴	1			奉高	1	嬴	1		
	齊郡	臨淄	1								
	北海郡			都昌, 壽光	2						
	東萊郡	東牟	1			曲成, 東牟, 嶧, 昌陽, 當利	5				
	琅邪郡	?	1			海曲, 計斤, 長廣	3				
	膠東國	郁郅	1								
	城陽國	莒	1					莒	1		

20) 이하 工官은 편의상 중앙 직속의 지방 工官을 가리킨다.

楚國그룹	東海郡	下邳, 朐	2				下邳, 朐	2			
	魯國	魯	1				魯	1			
	楚國	彭城	1				彭城	1			
吳國그룹	臨淮郡	鹽漬, 堂邑	2				堂邑	1			
	會稽郡			海鹽	1						
	廣陵國	?	1								
長沙國그룹	桂陽郡					耒陽	1				
II 그룹	漢中郡	沔陽	1				沔陽	1	錫	1	
	廣漢郡					雒	1				
	蜀郡	臨邛	1	臨邛	1	成都	1	臨邛	1		
	犍爲郡	武陽, 南安	2	南安	1						
	益州郡			連然	1						
	巴郡			朐忍	1		宕渠	1			
I 그룹(1)-(2)	隴西郡	?	1	?	1						
	安定郡			三水	1						
	北地郡			弋居	1		弋居	1			
	上郡			獨樂, 龜茲	2						
	西河郡			富昌, 博陵	2						
	朔方郡			沃野, 廣牧	2						
	五原郡			成宜	1						
代國그룹	鴈門郡			樓煩	1						
燕國그룹	漁陽郡	漁陽	1	泉州	1		漁陽, 泉州	2			
	右北平郡	夕陽	1								
	遼西郡			海陽	1						
南越그룹	遼東郡	平郭	1	平郭	1		平郭	1			
	南海郡			番禺	1						
	蒼梧郡			高要	1						
	합계		41		37	8		25	1	1	

출전: 『漢書』 卷28 「地理志」上·下, pp.1543-1639; 『續漢書』 志19-23 「郡國志」1-5, pp.3385-3533.

비고: ① 縣名 중 굵게 밑줄 친 것은 각 郡의 治所.  
 ② ‘그룹’은 拙稿, 「漢代 13州 刺史部の 지역구분」, 學位論文(碩士)-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2007, pp.33-34 참고.

<표 1>은 『漢書』 「地理志」의 내용을 바탕으로 工官과 鹽·鐵官의 위치를 비교해본 것이다. 鹽·鐵官에 비해 工官은 몇몇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됐다. 또 前漢의 鐵官 중 郡 治所인 경우는 총 41건 중 8건(19.51%), 鹽官은 총 37건 중 3건(8.11%)으로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工官은 총 8건 중 6건(75%)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나머지 2건인 河南郡·廣漢郡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郡 治所에 비견될 수 있다. 廣漢郡 工官의 소재지 雒은 『漢書』 「地理志」에 따르면 前漢代의 治所는 아니며, 당시 治所는 梓潼이었다. 그러나 雒은 後漢의 郡 治所이자 刺史 治所였으며, 前漢 初의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秩律에서는 雒의 長官이 秩 800石인 臨潼의 長官에 비해 秩 1,000石으로 더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sup>21)</sup> 河南郡 工官 역시 위치가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앞의 사례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 郡 治所인 雒陽에 있었을 가능성

21) 拙稿,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중 秩律 地名 譯註」, 『中國古中世史研究』 17, 2007, p.373 참고.

이 농후하다. 결국 工官은 모두 각 郡의 治所에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武帝 元狩 6年(B.C.117) 전국적으로 설치된 鐵官·鹽官은 처음 설치될 때부터 그 재료의 產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sup>22)</sup> 鐵官·鹽官이 설치됐던 몇몇 지역에 그 이전부터 私營 手工業者들이 존재했던 것도<sup>23)</sup>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1>에서 前漢과 後漢의 鐵官 분포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 產地는 그대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 鹽官 또는 鹽 產地는 前漢의 37개 鹽官 중 後漢에서는 安邑 단 1곳만 남는다.

한편 工官은 內史그룹에 속한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II그룹에 2곳(廣漢郡 雒, 蜀郡 成都), III그룹에 1곳(河內郡 懷), IV그룹에 3곳(河南郡, 潁川郡 陽翟, 南陽郡 宛), 齊國그룹에 2곳(濟南郡 東平陵, 泰山郡 奉高) 등이 분포되어 있었다. 內史그룹이 빠진 것은 漢 중앙 工官이었던 尙方 등이 그곳의 手工業品 생산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齊國그룹에 속한 것을 제외하면 工官은 漢初부터 漢 중앙의 직접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또 대체적으로 그것이 속한 郡이나 그 주변에 鐵官이 흔했던 것을 보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동원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工官은 鐵官이나 鹽官과는 달리 產地에 무조건 설치된 것이 아니라, 漢 중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됐을 것이다.

工官의 위치 문제를 따져볼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工匠의 숙련도이다. 훌륭한 원재료가 생산되는 지역이라도 그것을 가공하여 원하는 품질의 器物을 생산하는 것은 뛰어난 기술자의 몫이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은 당연히 중앙에 집중됐을 것이다. 그런데 漢代 樂浪郡 지역에서 出土된 漆器들은 이 가설에 재고를 요구한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漢代 漆器 중 紀年이 새겨진 것들을 분석해보면, 전체 67건 중 考工·右工·供工 등 중앙 工官에서 생산된 것이 10건, 蜀郡 西 工官, 廣漢郡 工官 등 지방 工官에서 생산된 것이 57건이다.<sup>24)</sup> 중앙 工官에서 생산된 것보다 蜀郡과 廣漢郡 工官에서 생산된 漆器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巴·蜀 지역은 현재의 四川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금도 湖北 지역과 더불어 漆器 생산지로 유명하다.<sup>25)</sup> 그러나 漢代나 그 이전 시기의 상황을 보면 그곳이 工官을 두고 漆器를 대량 생산하도록 맡길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는지 의심스럽다. 『史記』 「貨殖列傳」은 山東과 陳·夏를 대표적인 漆의 생산지로 거론하고 있는데,<sup>26)</sup> 여기에 언급된 山東은 兗州, 陳·夏는 豫州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은 巴·蜀과는 거리가 멀다. 巴·蜀 지역이 漆의 생산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漢代에 이르러서였다.<sup>27)</sup> 물론 현재 漢代의 巴·蜀 지역에 해당하

22) 『史記』 卷30 「平準書」, p.1429. “大農上鹽鐵丞孔僅·咸陽言: ‘……願募民自給費, 因官器作煮鹽, 官與牢盆. …… 郡不出鐵者, 置小鐵官, 使屬在所縣.’ 使孔僅·東郭咸陽乘傳舉行天下鹽鐵, 作官府, 除故鹽鐵家富者爲吏. 吏道益雜, 不選, 而多賈人矣.”

23) 鐵官 설치 이전부터 南陽郡 宛의 孔氏(『史記』 卷129 「貨殖列傳」, p.3278. “宛孔氏之先, 梁人也. 用鐵冶爲業. 秦伐魏, 遷孔氏南陽. 大鼓鑄, 規陂池, 連車騎, 游諸侯, 因通商賈之利, 有游閑公子之賜與名. 然其贏得過當, 愈於織嗇, 家致富數千金, 故南陽行賈盡法孔氏之雍容.”), 魯國 魯의 曹邴氏(『史記』 卷129 「貨殖列傳」, p.3279. “魯人俗儉嗇, 而曹邴氏尤甚, 以鐵冶起, 富至巨萬.”), 蜀郡 臨邛의 卓氏(『史記』 卷129 「貨殖列傳」, p.3277. “蜀卓氏之先, 趙人也, 用鐵冶富. 秦破趙, 遷卓氏, 至臨邛, 卽鐵山鼓鑄.”) 등이 모두 冶鐵로 유명한 私營 手工業者였는데, 이들의 활동 구역이 바로 鐵官이 설치된 곳들이다.

24) 榎本杜人·町田章, 「漢代紀年銘漆器聚成」, 樂浪漢墓刊行會 編, 『樂浪漢墓 第1冊: 大正十三年度發掘調查報告』, 京都: 樂浪漢墓刊行會, 1974, p.107.

25) 佐藤武敏 著, 『中國古代工業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2, p.218.

26) 『史記』 卷129 「貨殖列傳」, pp.3253-3254. “山東多魚鹽·漆·絲·聲色.”; pp.3271-3272. “陳·夏千畝漆.”(강조 및 밑줄은 筆者)

27) 『鹽鐵論』 1 「本義」, pp.3-4. “隴·蜀之丹·漆·旄羽, 荆·揚之皮革骨象, 江南之柁梓竹箭, 燕·齊之魚鹽旄裘, 兗·豫之漆·絲·絺·紵, 養生送終之具也.”; 『華陽國志』(常璩 撰, 任乃強 校注, 『華陽國志校補圖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卷1 「巴志」 14. “涪陵郡, …… 惟出茶·丹·漆·蜜·蠟.”; 卷2 「漢中志」 11. “梓潼郡,

는 四川 지역에서 戰國 시대에 매장된 漆器들이 出土되기도 했지만,<sup>28)</sup> 그것이 그 지역에서의 생산물임을 보장할 수 없다면, 巴·蜀 지역이 漆器의 주요 생산지가 된 것은 漢代 이후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갑작스런 기후의 변화 등 漆의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巴·蜀 지역이 漢代부터 새로이 漆器의 주요 생산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인위적인 조정에 의해 巴·蜀 지역이 새로운 漆器 생산지로 부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工官의 전국적 배치를 보면, 巴·蜀 지역에 工官이 설치된 것은 漢初부터 직접 지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볼 수도 있다. 그런데 漢代 樂浪郡 지역에서 발굴된 漆器를 보면 巴·蜀 지역이 漢 중양만큼이나 중요한 漆器 생산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전까지 중요한 漆器 생산지도 아니었던 巴·蜀이 漢代에 중앙보다 더 중요한 수공업 중심지로 대두된 이유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巴·蜀 지역이 언제부터 官營 手工業 중심지로 주목받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巴·蜀 지역이 왜 주목받게 됐는지 살펴보겠다.

## II. 巴·蜀 지역의 점령과 본토화

漢代에 工官이 두어질 정도로 중시됐던 巴·蜀 지역은 戰國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한참동안 中原 諸國과는 별개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최근 三星堆 유적에서 발굴된 수많은 靑銅器 祭器들은 中原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와 양식을 가졌다. 문헌 사료의 기록을 보더라도 巴·蜀 지역은 戰國 시대인 秦 惠文王 更元 9년(B.C.3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秦에 의해 정복되면서 中原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巴·蜀 지역이 秦의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春秋·戰國 시대를 거치면서 秦이 어떻게 성장해나갔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秦 襄公이 周王에 의해 岐山 서쪽의 땅에 諸侯로 봉해지면서(B.C.770)<sup>29)</sup> 비로소 역사에 등장한 秦은 武公(B.C.697~678) 때에 이르러서야 渭水 유역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게 된다.<sup>30)</sup> 秦 初期와 그 이후의 영토 확장은 주변에 흩어져 있던 여러 戎族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秦이 이 지역에서 覇者로까지 군림할 수 있었던 것도 秦 穆公 37년(B.C.623) 戎族을 정벌하면서 1,000리에 이르는 새 영토를 개척하고 12개의 屬國을 추가하면서부터이다. 이 지역이 바로 隴西郡·北地郡 지역이다.<sup>31)</sup> 이 지역에 대한 秦의 지배력이 확고하게 된 것은 隴西郡·北地郡·上郡의 설치를 기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훨씬 후대인 秦 惠文王 11년(B.C.327) 義渠에 縣이 설치된 이래<sup>32)</sup> 秦 昭襄王 때 남아 있던 義渠戎를 완전히 정벌된 후의 일이다.<sup>33)</sup> 秦은

…… 土地出金·銀·丹·漆·藥·蜜也.”; “晉壽縣, …… 漆·藥·蜜所出也.”; 卷2 「漢中志」 12. “武都郡, …… 出名馬, 牛·羊·漆·蜜.”; 卷3 「蜀地」 23. “[越嶲郡]臺登縣, …… 又有漆”(강조 및 밑줄은筆者)

28) 張榮 著, 『古代漆器』, 文物出版社, 2005, pp.49-52.

29) 『史記』 卷5 「秦本紀」, p.179. “平王封襄公爲諸侯, 賜之岐以西之地. 曰: ‘戎無道, 侵奪我岐·豐之地, 秦能攻逐戎, 卽有其地.’ 與誓, 封爵之. 襄公於是始國, 與諸侯通使聘享之禮, …… 十二年, 伐戎而至岐, 卒.”

30) 林劍鳴, 『秦史稿』, 上海人民出版社, 1981, p.43.

31) 『史記』 卷5 「秦本紀」, p.194, 秦 穆公 37년 條. “三十七年, 秦用由余謀伐戎王, 益國十二, 開地千里, 遂霸西戎.” p.195 注[一]. “正義: ‘韓安國云: 「秦穆公都地方三百里, 并國十四, 辟地千里。」 隴西·北地郡是也.”

32) 『史記』 卷5 「秦本紀」, p.206, 秦 惠文王 11년 條. “縣義渠.”

그 본거지인 渭水 유역과 그 서북쪽을 지배 영역으로 확고히 안정시킨 이후 巴·蜀으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여, 秦 惠文王 更元 9년(B.C.316) 巴郡·蜀郡,<sup>34)</sup> 13년(B.C.312) 漢中郡을 각각 설치했다.<sup>35)</sup> 이후에야 秦은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 關東으로의 영토 확장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즉 巴·蜀 지역에 대한 秦의 정복 활동은 關東으로의 진출을 위해 그 배후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巴·蜀 지역은 그곳을 정복하여 中原의 역사 무대로 끌어들이는 秦 惠文王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길이 험하여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으며,<sup>36)</sup> 秦 惠文王이 도로 만든 소를 만들어 황금 대변을 본다고 속여 蜀王 스스로 秦에서 蜀에 이르는 길을 뚫게 하고 나서야 정복이 가능했다는 일화처럼<sup>37)</sup> 당시 中原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다. 巴·蜀에 대한 정복을 망설일 때 司馬錯은 巴·蜀 정복을 통해 국토를 넓히고 일반 民과 병사들을 먹여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sup>38)</sup> 즉 富國強兵을 위해서는 巴·蜀 지역의 확보가 秦에게 꼭 필요한 일임을 역설한 것이고, 그 결과 역시 기대를 충족시켜, 秦이 기타 中原의 諸侯들을 압도할 수 있게 했다.<sup>39)</sup>

秦 惠文王은 일단 巴·蜀 지역을 점령하자 蜀王을 蜀侯로 강등시키고 秦王의 王子를 蜀侯로 삼는 동시에 巴郡과 蜀郡을 두어 秦 중앙에 직속시켰다.<sup>40)</sup> 秦의 王子가 임명됐던 蜀侯와 중앙에서 직접 파견된 관리인 蜀守가 함께 蜀을 통치하는 체제는 당분간 지속됐다. 이와 더불어 秦 본토에서 民 10,000戶를 이주시켜 巴·蜀 지역의 안정을 꾀했다.<sup>41)</sup> 巴·蜀 지역을 점령한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지역에 田律이 반포됐다. 그 내용이 四川省 青川縣(당시 廣漢郡에 속함)에서 출토된 簡牘에서 확인된다.<sup>42)</sup> 이것은 秦 武王이 民의 요청에 따라 田律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簡牘은 秦 중앙에서 정한 田土 규격에 대한 규정이 巴·蜀 지역에서도 실시됐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데, 그 내용은 이후 前漢 初, 唐代, 심지어 宋代까지 기본적인 틀이 계승된다.

33) 『史記』 卷110 「匈奴列傳」, p.2885. “其後義渠之戎築城郭以自守, 而秦稍蠶食, 至於惠王, 遂拔義渠二十五城. 惠王擊魏, 魏盡入西河及上郡于秦. 秦昭王時, 義渠戎王與宣太后亂, 有二子. 宣太后許而殺義渠戎王於甘泉, 遂起兵伐殘義渠. 於是秦有隴西·北地·上郡, 築長城以拒胡.”

34) 『史記』 卷5 「秦本紀」, p.207, 秦 惠文王 更元 9年. “九年, 司馬錯伐蜀, 滅之.”; 『華陽國志』 卷3 「蜀志」. “冬十月蜀平, 司馬錯因取苴與巴焉.”; 『後漢書』 卷86 「南蠻西南夷列傳」 “南蠻·巴郡南郡蠻”, p.2841. “及秦惠王并巴中, 以巴氏爲蠻夷君長, 世尚秦女, 其民爵比不更, 有罪得以爵除. 其君長歲出賦二千一百六錢, 三歲一出義賦千八百錢, 其民戶出幘布八丈二尺, 雞羽三十緡.”

35) 『史記』 卷5 「秦本紀」, p.207, 秦 惠文王 更元 13년 條. “又攻楚漢中, 取地六百里, 置漢中郡.”

36) 『史記』 卷70 「張儀列傳」, p.2281, “秦惠王欲發兵以伐蜀, 以爲道險狹難至.”

37) 『藝文類聚』 卷94에 인용된 「蜀王本紀」, “秦惠王欲伐蜀, 乃刻五石牛, 置金其後. 蜀人見之以爲牛能大便金, 牛下有養卒, 以爲此天牛也, 能便金. 蜀王以爲然, 卽發卒千人, 使五丁力士拖牛成道. 致三枚於成都. 秦得道通, 石牛力也. 後遣丞相張儀等隨石牛道伐蜀.”

38) 『史記』 卷70 「張儀列傳」, p.2283, “司馬錯曰: ‘…… 夫蜀, …… 得其地足以廣國, 取其財足以富民繕兵, 不傷衆而彼已服焉.’”

39) 『史記』 卷70 「張儀列傳」, p.2284, “卒起兵伐蜀, 十月, 取之, 遂定蜀, 貶蜀王更號爲侯, 而使陳莊相蜀. 蜀既屬秦, 秦以益疆, 富厚, 輕諸侯.”

40) 『華陽國志』 卷3 「蜀志」 五, pp.128-129, “周赧王元年, 秦惠王封子通國爲蜀侯, 以陳壯爲相. 置巴·蜀郡, 以張若爲蜀國守.”

41) 『華陽國志』 卷3 「蜀志」 五, pp.128-129, “戎伯尙強, 乃移秦民萬家實之.”

42) 『散見簡牘合輯』(李均明·何雙全 編, 『散見簡牘合輯』, 文物出版社, 1990), p.51. “二年十一月己酉朔朔日, 王命丞相戊·內史區: 民願更脩爲田律: 田廣一步·袤八則, 爲畛, 畝二畛; 一陌道. 百畝爲頃, 一阡道. 道廣三步. 封高四尺, 大稱其高. 埽高尺, 下厚二尺. 以秋八月脩封埽, 正疆畔, 及發阡陌之大草. 九月, 大除道及阪險. 十月, 爲橋, 脩陂隄, 利津梁, 鮮草離. 非除道之時, 而有陷敗不可行, 輒爲之.”(標點은 筆者)

- 秦律<sup>43)</sup> (B.C.309)<sup>44)</sup> : 田廣一步, 袤八則, 爲畛, 畝二畛; 一陌道. 百畝爲頃.  
 二年律令<sup>45)</sup> (B.C.186) : 田廣一步, 袤二百卅步, 爲畛, 畝二畛, 一佰(陌)道; 百畝爲頃.  
 唐令<sup>46)</sup> (A.D.624)<sup>47)</sup> : 諸田廣一步, 長二百卅步, 爲畝, 百畝爲頃.  
 天聖令<sup>48)</sup> ( 1029) : 諸田廣一步, 長二百四十步, 爲畝, 畝百爲頃.

무려 13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흘렀어도, 그 條文의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었다. 田土에 대한 규격 규정이 商鞅 變法에서 비롯됐음은 周知의 사실인데, 그 목표인 齊民 지배의 이상이 점령 후 巴·蜀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다. 蜀의 인민을 동원, 楚를 공격하여 黔中郡을 설치하는 등 蜀이 秦의 중요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된 것도<sup>49)</sup> 그만큼 巴·蜀 지역에 대한 秦의 지배력이 이제는 秦 본토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巴·蜀 점령 18년 후에는 蜀侯와 蜀守가 함께 成都에 城을 쌓았는데, 秦의 수도인 咸陽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sup>50)</sup> 巴·蜀 지역에 파견된 秦人들이 이 지역을 秦 본토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巴·蜀 지역 점령 31년 후(B.C.285)에는 蜀侯·蜀守의 양두 체제를 蜀侯의 반란 징후를 빌미로 蜀守만 두어 秦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sup>51)</sup> 이로써 巴·蜀은 완전한 郡·縣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秦의 본토로써의 역할을 부여받게 됐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巴·蜀 지역에는 秦이 關東 지역을 점령해가면서 확보한 기술자들이 遷徙됐다. 원래 趙에 살던 卓氏는 秦이 趙를 친 후 蜀으로 遷徙됐다. 그는 蜀郡 臨邛에서 철광석 채취와 鑄造로 부를 쌓았다.<sup>52)</sup> 程鄭 역시 山東에서 蜀郡 臨邛으로 遷徙되어 冶鐵과 鑄造로 부를

43) 『散見簡牘合輯』(李均明·何雙全 編, 『散見簡牘合輯』, 文物出版社, 1990), p.51. “二年十一月己酉朔朔日, 王命丞相戊·內史區: 民願更脩爲田律: 田廣一步·袤八則, 爲畛, 畝二畛; 一陌道. 百畝爲頃, 一阡道. 道廣三步. 封高四尺, 大稱其高. 埽高尺, 下厚二尺. 以秋八月脩封埽, 正疆畔, 及發阡陌之大草. 九月, 大除道及阨險. 十月, 爲橋, 脩陂隄, 利津梁, 鮮草離. 非除道之時, 而有陷敗不可行, 輒爲之.”(標點은 筆者)

44) 李昭和, 「靑川出土木牘文字簡考」, 『文物』1982-1. 李昭和는 이 木牘에 서술된 田律의 내용 중 “正”字가 避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秦始皇 政의 시대보다는 앞섰을 것이라 보았다. 또 “丞相”이라는 직책이 秦武王 때 처음으로 설치됐다는 史實(『史記』卷5 「秦本紀」, p.209. “武王元年, …… 二年, 初置丞相, 樗里疾·甘茂爲左右丞相.”), 그때 丞相 중 한 명인 甘茂와 木牘에 등장하는 丞相 戊의 이름이 서로 통용될 수 있는 漢字인 것으로 보아, 이 木牘의 田律을 秦武王(B.C.310~B.C.307)이 공포한 것으로 보았다. 대개의 論者들은 여기에 동의하나, 間瀬收芳(「秦帝國形成過程の一考察—靑川靑川戰國墓の檢討による」, 『史林』67-1, 1984)만은 巴蜀 지방을 둘러싼 秦과 楚의 대립·갈등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 木牘의 매장연대에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商鞅 變法 이후 秦始皇의 天下 統一 이전에 실시된 田律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45) 『張家山漢簡』(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 文物出版社, 2001), p.166, 246(F83)號 簡, “田廣一步, 袤二百卅步, 爲畛, 畝二畛, 一佰(陌)道; 百畝爲頃, 十頃一千(阡)道, 道廣二丈.”

46) 『唐令拾遺』(仁井田陞 著, 『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 1933) 田令1, p.607; 『唐令拾遺補』(仁井田陞 著, 池田溫 編集, 『唐令拾遺補』, 東京大學出版會, 1997) 田令1, p.749.

47) 『舊唐書』卷48 「食貨志」上 “兩稅”, p.2088. “武德七年, 始定律令. 以度田之制: 五尺爲步, 步二百四十爲畝, 畝百爲頃.”

48) 『天聖令』(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校證,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附唐令復原研究—』, 中華書局, 2006) 田令 宋1, p.253.

49) 『華陽國志』卷3 「蜀志」五, pp.128-129, “七年, …… 司馬錯率巴·蜀衆十萬, 大舶舡萬艘, 米六百萬斛, 浮江伐楚, 取商於之地, 爲黔中郡.”

50) 『華陽國志』卷3 「蜀志」五, pp.128-129, “赧王五年, 惠王二十七年, 儀與若城成都, …… 與咸陽同制.”

51) 『華陽國志』卷3 「蜀志」五, pp.128-129, “(赧王)三十年, 疑蜀侯綰反, 王復誅之. 但置蜀守.”

52) 『史記』卷129 「貨殖列傳」, p.3277. “蜀卓氏之先, 趙人也, 用鐵冶富. 秦破趙, 遷卓氏. 卓氏見虜略, 蜀

쌍았다.53) 蜀郡으로 工匠들을 遷徙시킨 사례 이외에도, 본래 梁에 살다가 秦이 魏를 친 후 南陽으로 遷徙된 宛의 孔氏 역시 工匠이었다.54) 이를 통해 戰國 秦은 주변 국가들을 정벌한 후 이때 확보한 工匠들을 巴·蜀이나 南陽 등 內地로 遷徙시키는 정책을 취했고, 그 결과 內史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점령지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다른 국가들의 工匠들을 데려와 개발을 촉진했을 것이다. 漆器 工匠의 遷徙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와 같은 工匠의 遷徙가 漆器 工匠에게도 해당됐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戰國 시대 楚의 漆器 생산이 발달했는데,55) 秦이 楚를 친 후 데려온 漆器 工匠들이 巴·蜀 工官에서의 漆器 생산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秦에 의해 巴·蜀 지역은 中原의 역사와 괴리된 이민족 지배 지역에서 中原의 새로운 역사 무대로 자리잡게 됐고, 中原의 여러 문물이 전파됐다. 이를 통해 巴·蜀 지역은 秦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적 의미를 가진 지역으로 거듭나게 됐고, 秦이 戰國을 통일하는데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그 역할을 다했다. 인적·물적 교류조차 쉽지 않던 오지인 巴·蜀 지역의 변화는 이후 漢代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 Ⅲ. 巴·蜀 工官과 지역 지배

巴·蜀 지역에 대한 관심은 漢代에도 지속됐다. 특히 巴·蜀은 漢 高祖 劉邦 최초의 지배 영역 중 일부였다. 秦 멸망 이후 漢 高祖는 項羽에 의해 漢王으로 봉해지면서 漢中郡·巴郡·蜀郡을 그 封地로 받았다.56) 이를 기반으로 漢 高祖는 <표 2>에 서처럼 점차 과거 秦의 중심지인 關中으로 세력을 넓혀갔고, 곧이어 函谷關을 넘어 關東으로 진출했다. 이때 蕭何가 關中과 巴·蜀을 지키며 후방을 책임졌다. 蕭何는 과거 秦 沛縣 및 泗水郡의 屬吏로서, 秦의 監御史도 그 능력을 인정할 정도였다.57) 蕭何는 高祖가 三秦으로 진출할 때

<표 2> 高祖 시기 郡의 성립 순서

성립 시기	郡	備考	
元年 (206) 正月 <sup>①</sup>	漢中郡		
	巴郡		
	蜀郡		
2년 (205) <sup>②</sup>	隴西郡		
	北地郡		
	上郡		
	渭南郡	高祖 9년 폐지 <sup>⑩</sup>	
	河上郡		
	中地郡		
	河南郡		
3월 <sup>③</sup>	河內郡		
	3년 (204) <sup>④</sup>	河東郡	
		太原郡	高祖 11년 代國으로 <sup>⑪</sup>
上黨郡			

5년 (202) 正月<sup>⑤</sup> 夫妻推輦, 行詣遷處. …… 致之臨邛, 大喜, 卽鐵山鼓鑄, 運籌策, 傾滇蜀之民, 富至僮千人. 田池射獵之樂, 擬於人君.; 『漢書』 卷91 「貨殖傳」 “蜀卓氏”, p.3690. “蜀卓氏之先, 趙人也, 用鐵冶富. 秦破趙, 遷卓氏之蜀, 夫妻推輦行. …… 致之臨邛, 大喜, 卽鐵山鼓鑄, 運籌算, 賈滇蜀民, 富至童八百人, 田池射獵之樂擬於人君.”

- 53) 『史記』 卷129 「貨殖列傳」, p.3278. “程鄭, 山東遷虜也, 亦冶鑄, 賈椎髻之民, 富埒卓氏, 俱居臨邛.”; 注[一]. “索隱: 魑結之人. 上音椎髻, 謂通賈南越也.”; 『漢書』 卷91 「貨殖傳」 “程鄭”, p.3690. “程鄭, 山東遷虜也, 亦冶鑄, 賈魑結民, 富埒卓氏.”; 注[一]. “師古曰: ‘魑結, 西南夷也.’”
- 54) 『史記』 卷129 「貨殖列傳」, p.3278; 『漢書』 卷91 「貨殖傳」 “宛孔氏”, p.3691. “宛孔氏之先, 梁人也, 用鐵冶爲業. 秦伐(滅)魏, 遷孔氏南陽. 大鼓鑄, 規陂池, 連車騎, 游諸侯, 因通商賈之利, 有游閑公子之賜與名.”
- 55) 張榮 著, 『古代漆器』, 文物出版社, 2005, pp.27-49.
- 56) 『史記』 卷8 「高祖本紀」, p.365, 高祖 元年 條. “正月, 項羽自立爲西楚霸王, 王梁·楚地九郡, 都彭城. 負約, 更立沛公爲漢王, 王巴·蜀·漢中, 都南鄭.”
- 57) 『史記』 卷53 「蕭相國世家」, pp.2013~2014. “蕭相國何者, …… 爲沛主吏掾. …… 秦御史監郡者與從事,

巴·蜀에서 물자를 지원했으며,<sup>58)</sup> 高祖 2년 이후 楚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는 關中을 지키며 櫟陽을 다스렸는데, 모든 일을 高祖를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처리했다.<sup>59)</sup> 즉 蕭何는 高祖를 대신해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sup>60)</sup>

戰國 시대 秦에서와 같이 巴·蜀 지역은 漢初에도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것은 당시 시행된 律令에서도 확인된다.

私적으로 鹵鹽을 만들거나, 濟水·漢水を 끓이거나, 사적으로 鹽井을 소유하여 끓이는 경우 稅를 물리는데, 縣官에서 1/6을, 主人인이 5/6를 가진다.<sup>61)</sup>

위 律令은 二年律令 金布律에 속한 條文으로, 漢 高后 2년 당시 鹽의 產地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여기에는 鹵鹽, 濟水·漢水, 鹽井 등 세 가지 소금이 언급되고 있다. 鹵鹽은 山西 지역의 대표 소금으로, 山東의 海鹽과 함께 당시 양대 소금으로 명성이 높았다.<sup>62)</sup> 鹽井은 巴·蜀 지역의 특산물로 秦 孝文王 때 蜀守를 역임한 李冰이 濟水의 맥을 이용해서 찾아내기 시작한 것으로, 蜀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63)</sup> 이 사료에서 濟水·漢水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鹽井과 같은 방식으로 소금을 얻어내는 것이라 추측된다. 여기에는 漢代의 대표적 소금 중 하나인 山東의 海鹽이 빠져있는데, 아마도 漢 高后 2년 당시 그 지역은 모두 諸侯國에 속해 있어<sup>64)</sup> 漢 중앙이 손댈 수 없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 條文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漢 武帝 이후 鹽鐵 專賣가 실시되면서 <표 1>에서 확인되듯이 이 지역에도 蜀郡 臨邛, 巴郡 胸忍 등에 鹽官이 설치되는데, 漢初부터 이미 漢 중앙이 井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漢初부터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주목받기 시작한 巴·蜀 지역에 언제부터 工官이 설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巴·蜀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설치된 漢代 工官도 언제, 어디에서부터 설치됐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없다. 문헌상으로

	⑥	南郡 (南陽郡)	시기 불명
	5월 <sup>⑦</sup>	·	關中으로 遷都
6년 (201)	⑧	廣漢郡	
7년 (200)	2월 <sup>⑨</sup>	·	長安으로 遷都
9년 (198)	⑩	內史	
11년 (197)	正月 <sup>⑪</sup>	雲中郡	
	3월 <sup>⑫</sup>	潁川郡 東郡	梁國·淮陽國으로 분할·흡수

出典: ①『史記』卷8「高祖本紀」, p.365; ②p.369; ③p.370; ④p.372; ⑤p.380; ⑦p.381; ⑨p.385.  
⑥『史記』卷51「荊燕世家」, pp.1993~1994.  
⑧『華陽國志』卷3「蜀志」, p.141.  
⑩『漢書』卷28上「地理志」上, p.1543; p.1545; p.1546.  
⑪『漢書』卷1下「高帝紀」下, p.70; ⑫p.72.

常辨之。何乃給泗水卒史事，第一。秦御史欲入言徵何，何固請，得毋行。”  
58) 『史記』卷53「蕭相國世家」, pp.2014~2015. “漢王引兵東定三秦，何以丞相留收巴蜀，填撫諭告，使給軍食。”  
59) 『史記』卷53「蕭相國世家」, pp.2014~2015. “關中事計戶口轉漕給軍，漢王數失軍遁去，何常與關中卒，輒補缺。上以此專屬任何關中事。”  
60) 『史記』卷53「蕭相國世家」, p.2014. “漢二年，漢王與諸侯擊楚，何守關中，侍太子，治櫟陽。爲法令約束，立宗廟社稷宮室縣邑。”  
61) 『張家山漢簡』, p.192, 436(F75)號 簡, “諸私爲鹵鹽，煮濟·漢，及有私鹽井煮者，稅之，縣官取一，主取五。”  
62) 『史記』卷129「貨殖列傳」, p.3269, “山東食海鹽，山西食鹽鹵，嶺南·沙北固往往出鹽，大體如此矣。”  
63) 『華陽國志』卷3「蜀志」六, pp.132~134, “周滅後，秦孝文王以李冰爲蜀守。……又識齊水脈，穿廣都鹽井，諸陂池。蜀於是盛有養生之饒焉。”  
64) 五井直弘, 「中國古代帝國の一性格—前漢における封建諸侯について—」, 五井直弘 著, 『漢代の豪族社會と國家』, 名著刊行會, 2001.

는 周亞夫가 工官·尙方으로부터 받은 甲楯을 아버지의 葬禮를 위해 처분한 사건이 최초로 工官을 명시하고 있다.<sup>65)</sup> 周亞夫는 前漢 初 文帝·景帝 시기 사람으로, 이 시기부터 이미 工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981년 漢 武帝 茂陵 동쪽 1號 無名冢에서 발굴된 “陽信家” 銅鼎 銘文에 “四年二月”이라는 紀年과 함께 역시 工官이 등장한다.<sup>66)</sup> 陽信家は 漢 景帝의 長女 陽信公主를 가리키며, 武帝 初에 사망했으므로, 이 銅鼎은 漢 景帝 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늦어도 景帝 後元 元年까지는 郡·國에 이미 ‘工官’이 설치됐을 것”이라는 의견을<sup>67)</sup> 지지해준다.<sup>68)</sup> 하지만 이들이 말 그대로 지방 工官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工官이라면 “工官” 앞에 해당 郡名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 없이 단독으로 “工官”만 등장하고 있다. 前漢의 지방 郡·國에 工官이 설치된 시기에는 先後가 있으며, 河內 工官 弩機가 前漢 後期 또는 王莽 때의 器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지만,<sup>69)</sup> 늦어도 漢 武帝 初, 이르면 景帝 때 이미 설치됐을 것이다.<sup>70)</sup> 福建省 崇安 漢城에서 출토된 “河內 工官” 弩機는 閩越式 陶器와 함께 출토됐는데, 前漢 中期 이후의 유물은 없다. 따라서 “河內 工官” 弩機는 閩越 멸망 연대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되며, 모두 武帝 元封 元年(B.C.110) 이전의 생산품이다.<sup>71)</sup> 濟南郡은 景帝 前元 2년(B.C.155),<sup>72)</sup> 泰山郡은 武帝 元狩 元年(B.C.128)<sup>73)</sup> 漢 중앙의 관할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의 工官은 적어도 그 이후에 설치됐을 것이다. 즉 工官들의 설치 시기도 다 제각각이었다.

<표 3> 未央宮 발굴 骨簽의 工官 조직 추이

皇帝	紀年	B.C.	河南 工官	潁川 工官	南陽 工官	특기사항
武帝	建元	140-135	令·丞, 作府(畜夫), 佐, (冗工), 工			
	元光	134-129				
	元朔	128-123				
	元狩	122-117				六年, 鹽·鐵 專賣制 실시.
	元鼎	116-111				四年, 上林三官의 五銖錢 독점 鑄造.
	元封	110-105				元年, 均輸·平準 설치.
	太初	104-101		令·丞, 佐, 冗工, 工		潁川 工官.
	天漢	100- 97				
	太始	96				
	征和	92-88		令·丞, 護工, (令史)	令·丞, 作府畜夫,	南陽 工官.

65) 『史記』 卷57 「絳侯周勃世家」, p.2079; 『漢書』 卷40 「張陳王周傳」 “周勃·子亞夫”, p.2062. “居無何, 條侯(亞夫)子爲父買 工官尙方甲楯五百被可以葬者.”  
66) 「河北定縣北莊漢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4-2. “陽信家二斗鼎, 蓋, 并重十四斤四兩, 四年二月, 工官得指造, 第十二, 函池”  
67) 方詩銘, 「從出土文物看漢代“工官”的一些問題」, 『上海博物館彙刊』(1982年), 上海古籍出版社, 1983.  
68) 楊琮, 「“河內 工官”的設置及其弩機生產年代考」, 『文物』 1994-5, p.63.  
69) 陳直, 「福建崇安城村漢城遺址時代的推測」, 『考古』 1961-4; 蔣炳釗, 「關於福建崇安漢城的性質和時代的探討」, 『廈門大學學報』(哲社版), 1978-2-3; 張其海·林忠干, 「福建崇安漢城遺址出土文字符號」, 『考古與文物』 1988-4.  
70) 楊琮, 「“河內 工官”的設置及其弩機生產年代考」, 『文物』 1994-5, p.63.  
71) 楊琮, 「“河內 工官”的設置及其弩機生產年代考」, 『文物』 1994-5, p.63.  
72) 『漢書』 卷28上 「地理志」上, p.1581. “濟南郡, 故齊. 文帝十六年別爲濟南國. 景帝二年爲郡.”  
73) 『史記』 卷12 「孝武本紀」, 前漢 武帝 元狩 元年(B.C.128) 條, p.458. “於是濟北王以爲天子且封禪, 乃上書獻泰山及其旁邑. 天子受之, 更以他縣償之.”

				作府佐, 冗工, 工	冗工, 工	潁川 工官에 護工 등장.
昭帝	後元 88-87					
	始元 86-81	令·丞, 護工卒史, (令史), 作府嗇夫, 佐, 冗工, 工, (客工)	護工卒史, 令·丞, 掾, (作府嗇夫), (令史), (佐), 冗工, 工 (* 令史와 佐는 겹치지 않음)	(과도기) 護工卒史 및 令史 설치. 作府嗇夫 앞으로 令·丞, 護工卒史, 令史의 순서에 수시로 변동이 생김.  四年 고정됨. 護工卒史, 令·丞(右丞·左丞), 令史, 作府嗇夫, (佐), 冗工, 工		護工卒史, 令史 등장. 潁川·南陽 工官은 護工卒史의 등장과 동시에 맨 앞으로.
	元鳳 80-75					
	元平 74					
宣帝	本始 73-70	護工卒史, 令·丞, 令史, 作府嗇夫, 佐, 冗工, 工				河南 工官의 護工卒史가 맨 앞으로.
	地節 69-66					
	元康 65-62					
	神爵 61-58					
	五鳳 57-54					
	甘露 53-51	護工卒史, 令·丞, 嗇夫, 令史, 工	守卒史, 令, 左丞, 掾, 令史, 冗工, 工			作府嗇夫가 사라짐.

출처: 「“工官”類骨簽舉例」,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漢長安城未央宮-1980-1989年考古發掘報告-』(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p.102-115; pp.118-120; 李均明, 「漢長安城未央宮遺址出土骨簽瑣議」, 『臺灣大學歷史學報』 23, 1999.

<표 3>은 漢 長安城 未央宮 遺址에서 出土된 骨簽 중 工官이 표시된 것들을 紀年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만 보더라도 각 工官이 동시에 설치되거나 동일한 조직 변화를 겪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체로 河南 工官이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었고, 다음으로 潁川 工官, 南陽 工官의 순서이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骨簽에 기록된 紀年만 놓고 본다면, 河南 工官은 武帝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며, 潁川 工官은 武帝 太初 연간, 南陽 工官은 武帝 征和 연간에 등장했을 것이다. 潁川 工官과 南陽 工官은 鹽·鐵 專賣制가 시행되고 均輸·平準이 설치되어 전매제라는 새로운 체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던 시기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武帝 이후 郡·國 체제가 郡·縣 체제로 재편되고, 鹽·鐵 專賣制의 시행으로 각 지방의 주요 물자인 소금과 철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와 아울러 지방마다 工官을 설치하여 주요 工匠과 기술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됐다. 아직까지 巴·蜀 지역의 工官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증은 없는데, 이상의 추론 결과를 적용해보면,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漢 武帝 시기를 전후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면 큰 무리를 없을 것이다.

漢 武帝 시기 이후 巴·蜀 지역에 설치된 工官은 齊 지역에 설치된 服官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 工官으로 언급되며, 규모에서도 다른 工官을 압도했다. 漢 武帝에서 元帝 시기까지 활동한 貢禹(B.C.124-44)의 언급에 따르면 巴·蜀 지역의 工官은 金·銀器를 주로 생산했으며 각각 매년 500만 錢의 비용을 소모했다.<sup>74)</sup> 앞에서 언급했듯이 巴·蜀 지역 工官에서는 중앙 工

74) 『漢書』 卷72 「王貢兩龔鮑傳」 “貢禹”, p.3070. “故時齊三服官輸物不過十筥, 方今齊三服官作工各數千

官에 필적하는 당대 최고 수준의 器物들이 생산되어 국내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변경이나 해외에까지 수출되었다. 이것은 戰國 秦에서부터 다져진 巴·蜀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장악력이 중앙과 동일한 수준의 器物 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랐음을 보여준다. 中原과 이질적인 문화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巴·蜀 지역이 中原과 같은 역사 무대에 등장했음을 巴·蜀 지역에 설치된 工官이 웅변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되짚어볼 문제는, 巴·蜀 지역에 工官이 설치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이 지역은 中原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이민족 지배를 위한 漢代의 독특한 행정 단위인 道官이 상당수 온존했다. 漢代의 道官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정리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秩律과 「地理志」·「郡國志」의 道 비교

秩律	I													II					IV	長沙國					
	北地郡				隴西郡					上郡	蜀郡			廣漢郡		南郡									
①	翟道	義渠道	略畔道	除道	胸衍道	(月氏) 獯道	(略陽) 縣諸道	(戎邑) 狄道	氏道	予道	羌道	下辨道	武都道	(平樂) 故道	嘉陵道	循成道	隴陰道	縣道	湔道	青衣道	嚴道	蜀氏道	陰平道	夷道	
② 「地理志」	左馮翊道	北地郡			安定郡	天水郡		隴西郡			武都郡			上郡	蜀郡			犍爲郡	廣漢郡	越嶲郡	南郡	長沙國	零陵郡		
③ 「郡國志」	左馮翊道	北地郡			安定郡	漢陽郡		隴西郡			武都郡			上郡	蜀郡(汶山郡)	蜀郡屬國	犍爲郡	廣漢屬國	越嶲郡	南郡	長沙郡	零陵郡	營道	泅道	

備考: ①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秩律 참고.  
 ② 楊建, 「略論秦漢道制的演變」, 『中國歷史地理論叢』 16-4, 2001, p.22, 注① 참고. 일부는 筆者가 수정.  
 ③ 「地理志」와 「郡國志」를 대조하며 과약. 대체 縣은 『中國歷史地圖集』 II를 참고함.  
 \* ( ) 안은 각각의 자료에서 道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반대쪽 자료에서는 道로 언급된 것을 밝힘.  
 a. 秩律의 北地郡(「地理志」·「郡國志」에서는 安定郡) 月氏는 秩律 467號 簡에 등장하며 秩은 알 수 없음.  
 b. 秩律의 隴西郡(「地理志」에서는 天水郡, 「郡國志」에서는 漢陽郡) 略陽·縣諸·戎邑과 平樂(「地理志」·「郡國志」에서는 武都郡)은 모두 秩 600石.  
 c. 「郡國志」 蜀郡屬國 漢嘉는 後漢 順帝 陽嘉 2년(133) 青衣에서 改名된 것(『後漢書』 志 23 「郡國」 5 “益州·蜀郡屬國”, p.3515).  
 \* □ 표시된 부분은 秩律 秩 500石 道에 해당함. 秩律의 나머지는 모두 秩 600石.

시간이 흐를수록 內史와 I그룹에 속했던 道官은 점차 폐기되거나 縣으로 전환된 것에 비해, II그룹, 즉 巴·蜀 지역에 속한 道官은 後漢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그 대부분은 武帝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道官이며, 나머지는 秩律 秩 600石 道인 蜀郡 青衣道·嚴道와 秩 500石 道 전부가 포함된다. 기타 南郡·長沙國·零陵郡 등 荊州에 속한 지역에 설치된 道 역시 계속 운영되었다. 漢初 內史와 I그룹에 속했던 道들은 점차 異民族 통치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人, 一歲費數鉅萬. 蜀廣漢主金銀器, 歲各用五百萬. 三工官官費五千萬, 東西織室亦然. 廄馬食粟將萬匹.”

되색되어 縣으로 완전히 전환되거나 아예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폐지되었다. 이에 반해 II그룹과 IV그룹의 道는 여전히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했다. 이것은 이 지역의 異民族이 쉽게 漢의 郡·縣 질서에 복속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秩律 秩 500石 道는 漢初에서부터 後漢 末까지의 일관된 운영이 돋보인다. 즉 漢初부터 巴·蜀 지역에서 운영된 道官이 後漢 말까지 유지되는 모습에서, 秦에서부터 중앙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족 집단이 존재했고 中原에 동화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巴·蜀 지역이 일찍부터 정치·경제적으로는 中原에 복속했을지라도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괴리가 있었음은 漢 景帝 말 蜀郡 太守를 지낸 文翁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文翁은 蜀郡 太守를 지내면서 인재들을 선발하여 京師에 보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자신을 보좌하도록 하여, 다시 추천을 통해 郡守·刺史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주선했다. 또 蜀郡 治所인 成都에 學官을 세워 학문을 장려했다. 그 결과 京師에 배움을 위해 蜀에서 올라온 인사들이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齊·魯와 견줄만큼 많아졌다. 武帝가 전국에 學校官을 세운 것도 文翁의 성과에 힘입은 것이었다. 文翁의 教化를 통해 蠻夷의 풍속이 남아있던 비루한 巴·蜀 지역에 처음으로 文雅를 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sup>75)</sup> 이와 같은 文翁의 사례는 巴·蜀 지역이 정치·경제적으로는 이미 秦에서부터 확고한 中原의 일원으로 굳어졌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낙후되었으며, 教化에 의해서만 中原의 수준에 필적하는 문명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工官의 설치는 단순히 정치적·경제적 이유일 뿐이지, 移風易俗과는 거리가 있었다.

## 맺음말

戰國 시대 秦에서 官營 手工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이 전통이 漢代에까지 이어져 각 지방에 工官이 설치되었다. 皇帝의 봉양을 위해서라면 중앙에만 설치해도 충분했을 工官을, 그에 비견되는 규모와 조직으로 지방에까지 설치한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京師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巴·蜀 지역에 工官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생산된 器物이 상당한 수준과 비중을 보여준 것은 특기할만 하다.

前漢代 工官의 배치는 원재료와의 접근성, 工匠의 숙련도 등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鹽·鐵官에 비해 工官은 몇몇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됐고, 거의 모두 郡 治所에 두어졌다. 이에 비해 武帝 元狩 6年(B.C.117) 전국적으로 설치된 鐵官·鹽官은 처음부터 그 재료의 產地에 설치됐다. 工官은 京師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설치됐는데, 漢初부터 漢 중앙의 직접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 집중됐다. 즉 工官은 鐵官이나 鹽官과는 달리 產地에 무조건 설치된 것이 아니라, 漢 중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됐을 것이다. 최고 수

75) 『漢書』 卷89 「循吏傳」 “文翁”, pp.3625-3627, “文翁, 廬江舒人也. 少好學, 通春秋, 以郡縣吏察舉. 景帝末, 爲蜀郡守, 仁愛好教化. 見蜀地僻陋有蠻夷風, 文翁欲誘進之, 乃選郡縣小吏開敏有材者張叔等十餘人親自飭厲, 遣詣京師, 受業博士, 或學律令. 減省少府用度, 買刀布蜀物, 齎計吏以遺博士. 數歲, 蜀生皆成就還歸, 文翁以爲右職, 用次察舉, 官有至郡守刺史者. 又修起學官於成都市中, 招下縣子弟以爲學官弟子, 爲除更繇, 高者以補郡縣吏, 次爲孝弟力田. 常選學官童子, 使在便坐受事. 每出行縣, 益從學官諸生明經飭行者與俱, 使傳教令, 出入閭閻. 縣邑吏民見而榮之, 數年, 爭欲爲學官弟子, 富人至出錢以求之. 繇是大化, 蜀地學於京師者比齊魯焉. 至武帝時, 乃令天下郡國皆立學校官, 自文翁爲之始云. 文翁終於蜀, 吏民爲立祠堂, 歲時祭祀不絕. 至今巴蜀好文雅, 文翁之化也.”

준의 기술자들은 당연히 중앙에 집중됐을 것이다. 그런데 漢代 樂浪郡 지역에서 出土된 漆器의 銘文을 분석해보면, 중앙 工官에서 생산된 것보다 蜀郡과 廣漢郡 工官에서 생산된 것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巴·蜀 지역은 현재 漆器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漢代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巴·蜀 지역이 언제부터 官營 手工業 중심지로 주목받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巴·蜀 지역은 戰國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한참동안 中原 諸國과는 별개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秦 惠文王 更元 9년(B.C.3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秦에 의해 정복되면서 역사 무대에 등장했다. 巴·蜀 지역은 秦이 關東으로 진출하기 전 그 배후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복됐다. 또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秦은 정치·경제적으로 中原의 諸侯들을 압도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秦은 蜀王을 蜀侯로 강등시키고 秦王의 王子를 蜀侯로 삼는 동시에 巴郡과 蜀郡을 두어 秦 중앙에 직속시켰다. 이와 더불어 秦 본토에서 民 10,000戶를 이주시켜 巴·蜀 지역의 안정을 꾀했다. 또 田律을 반포하면서 宋代까지 이어지는 田土에 대한 규격 규정을 적용, 齊民 지배의 이상을 실현시켰다. 成都에 城을 쌓으면서 秦의 수도인 咸陽을 그대로 본뜨게 했고, 蜀侯·蜀守의 양두 체제에서 蜀守만 남겨 秦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로써 巴·蜀은 완전한 郡·縣 체제를 갖추며 秦의 본토로써의 역할이 부여됐다. 이와 더불어 秦이 關東 지역을 점령해가면서 확보한 기술자들이 遷徙됐다. 그 결과 內史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점령지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다른 국가들의 工匠들이 그 개발을 촉진했을 것이다.

漢代 巴·蜀 지역은 漢 高祖 劉邦의 최초 지배 영역 중 일부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漢 高祖는 이를 기반으로 점차 과거 秦의 중심지인 關中으로 세력을 넓혀갔고, 곧이어 函谷關을 넘어 關東으로 진출했다. 巴·蜀 지역은 漢初에도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漢初부터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주목받기 시작한 巴·蜀 지역에 언제부터 工官이 설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巴·蜀 지역 이외의 工官의 설치 시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록이 없다. 대체로 武帝 이후 郡·國 체제가 郡·縣 체제로 재편되고, 鹽·鐵 專賣制의 시행으로 각 지방의 주요 물자인 소금과 철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와 더불어 지방마다 工官이 설치되어 주요 工匠과 기술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게 됐을 것이다. 巴·蜀 지역의 工官 역시 漢 武帝 시기를 전후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다. 巴·蜀 지역에 설치된 工官은 齊 지역에 설치된 服官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 工官으로 언급되며, 규모에서도 다른 工官을 압도했다. 巴·蜀 지역 工官에서는 중앙 工官에 필적하는 당대 최고 수준의 器物들이 생산되어 국내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변경이나 해외에까지 수출되었다. 이것은 戰國 秦에서부터 다져진 巴·蜀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장악력이 중앙과 동일한 수준의 器物 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巴·蜀 지역에 工官이 설치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이 지역은 中原에 비해 문화적으로 낙후되었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이민족 지배를 위한 漢代의 독특한 행정 단위인 道官이 상당수 온존했다. 또 일찍부터 정치·경제적으로는 中原에 복속했더라도 여전히 蠻夷의 풍속이 남아있었다. 工官의 설치는 단순히 정치적·경제적 이유일 뿐이지, 移風易俗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글은 전한대 파·촉 지역에 설치된 工官을 중심으로 중앙권력이 직접 통제 관리하는 관영수공업 作坊을 필요한 지역에 집중해서 설치한 상황을 분석해서 한제국의 지역지배 방식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 논문입니다.

간단히 필자의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한대 공관은 원재료와의 접근성·공장의 숙련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서·지리지』에 따르면 8곳 중 齊國의 2곳을 제외하고 모두 한제국의 직접 지배를 받는 각 군의 치소에 위치해서 중앙에서 필요하다고 지역에 집중 배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파·촉 지역은 2곳인데 낙랑군 출토 칠기의 명문을 보면 이 지역 공관 생산품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관영수공업 비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촉 지역 관영수공업 작방의 발달은 먼저 진이 이 지역을 정복한 후 강력한 본토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다른 六國의 공장들이 천사되면서 촉진되었고, 계속해서 이 지역은 한초 유방의 최초 근거지로 통일과정에서 후방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군국제 하에서 한 중앙의 직접 지배를 받는 지역으로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설치되었을 파·촉 지역 공관의 설치시기·운영방식은 사료의 부족으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 무제 시기를 전후로 만들어졌다고 추론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수준이 중앙 공관에 필적할 정도여서 전국 진 이래로 파·촉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장악력이 강고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만이의 풍속이 남아 있어서 공관의 설치에 중앙 정부의 정치·경제적 목적에 따른 것일 뿐 移風易俗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의 논문은 파·촉 지역 공관 설치 내용을 분석하여 한 중앙정부의 정치·경제적 지역 지배 방식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토론자도 필자의 기본적인 논지 전개나 결론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래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공관의 설치에 원재료와의 접근성·工匠의 숙련도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관 설치에 郡 治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產地와의 접근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서 비교적 소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보충 설명을 바랍니다.

2) 낙랑군 출토 칠기 중 파·촉 지역 공관의 생산품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漆의 생산지로 변화·칠기 공장의 천사와 같은 중앙정부의 인위적 조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료의 부족으로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한의 중앙정부가 굳이 이 지역 공관의 칠기 생산을 촉진시킨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기존 칠기의 주 생산지역이 제후국 영역이어서, 이를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중앙권력의 통제가 용이한 파·촉 지역 공관을 특별히 개발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3) 공관 설치시기를 한 무제를 전후한 시기로 추론하고 있는데, 이는 郡國체제에서 郡縣체제로의 재편과 염철 전매의 시행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초 이래 중앙의 직접 지배가 강고했던 파·촉 지역이 특별히 다른 지방의 공관을 압도할 정도 규모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혹은 중앙정부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파·촉 지역 공관의 설치와 규모는 바로 파·촉 지역의 지배를 강고히 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힘이 강력하게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을 통어하려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한제국의 지역지배 방식(強幹弱支)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戰國 시대 秦에서 官營 手工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이 전통이 漢代에까지 이어져 각 지방에 工官이 설치되었다. 皇帝의 봉양을 위해서라면 중앙에만 설치해도 충분했을 工官을, 그에 비견되는 규모와 조직으로 지방에까지 설치한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京師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巴·蜀 지역에 工官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생산된 器物이 상당한 수준과 비중을 보여준 것은 특기할만 하다.

前漢代 工官의 배치는 원재료와의 접근성, 工匠의 숙련도 등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鹽·鐵官에 비해 工官은 몇몇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됐고, 거의 모두 郡 治所에 두어졌다. 이에 비해 武帝 元狩 6年(B.C.117) 전국적으로 설치된 鐵官·鹽官은 처음부터 그 재료의 產地에 설치됐다. 工官은 京師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설치됐는데, 漢初부터 漢 중앙의 직접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 집중됐다. 즉 工官은 鐵官이나 鹽官과는 달리 產地에 무조건 설치된 것이 아니라, 漢 중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됐을 것이다.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은 당연히 중앙에 집중됐을 것이다. 그런데 漢代 樂浪郡 지역에서 出土된 漆器의 銘文을 분석해보면, 중앙 工官에서 생산된 것보다 蜀郡과 廣漢郡 工官에서 생산된 것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巴·蜀 지역은 현재 漆器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漢代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巴·蜀 지역이 언제부터 官營 手工業 중심지로 주목받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巴·蜀 지역은 戰國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한참동안 中原 諸國과는 별개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秦 惠文王 更元 9年(B.C.3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秦에 의해 정복되면서 역사 무대에 등장했다. 巴·蜀 지역은 秦이 關東으로 진출하기 전 그 배후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복됐다. 또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秦은 정치·경제적으로 中原의 諸侯들을 압도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秦은 蜀王을 蜀侯로 강등시키고 秦王의 王子를 蜀侯로 삼는 동시에 巴郡과 蜀郡을 두어 秦 중앙에 직속시켰다. 이와 더불어 秦 본토에서 民 10,000戶를 이주시켜 巴·蜀 지역의 안정을 꾀했다. 또 田律을 반포하면서 宋代까지 이어지는 田土에 대한 규격 규정을 적용, 齊民 지배의 이상을 실현시켰다. 成都에 城을 쌓으면서 秦의 수도인 咸陽을 그대로 본뜨게 했고, 蜀侯·蜀守의 양두 체제에서 蜀守만 남겨 秦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로써 巴·蜀은 완전한 郡·縣 체제를 갖추며 秦의 본토로써의 역할이 부여됐다. 이와 더불어 秦이 關東 지역을 점령해가면서 확보한 기술자들이 遷徙됐다. 그 결과 內史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점령지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다른 국가들의 工匠들이 그 개발을 촉진했을 것이다.

漢代 巴·蜀 지역은 漢 高祖 劉邦의 최초 지배 영역 중 일부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漢 高祖는 이를 기반으로 점차 과거 秦의 중심지인 關中으로 세력을 넓혀갔고, 곧이어 函谷關을 넘어 關東으로 진출했다. 巴·蜀 지역은 漢初에도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漢初부터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주목받기 시작한 巴·蜀 지역에 언제부터 工官이 설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巴·蜀 지역 이외의 工官의 설치 시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록이 없다. 대체로 武帝 이후 郡·國 체제가 郡·縣 체제로 재편되고, 鹽·鐵 專賣制의 시행으로 각 지방의 주요 물자인 소금과 철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와 더불어 지방마다 工官이 설치되어 주요 工匠과 기술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게 됐을 것이다. 巴·蜀 지역의 工官 역시 漢 武帝 시기를 전후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다. 巴·蜀 지역에 설치된 工官은 齊 지역에 설치된 服官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 工官으로 언급되며, 규모에서도 다른 工官을 압도했다. 巴·蜀 지역 工官에서는 중앙 工官에 필적하는 당대 최고 수준의 器物들이 생산되어 국내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변경이나 해외에까지 수출되었다. 이것은 戰國 秦에서부터 다져진 巴·蜀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장악력이 중앙과 동일한 수준의 器物 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巴·蜀 지역에 工官이 설치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이 지역은 中原에 비해 문화적으로 낙후되었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이민족 지배를 위한 漢代의 독특한 행정 단위인 道官이 상당수 온존했다. 또 일찍부터 정치·경제적으로는 中原에 복속했더라도 여전히 蠻夷의 풍속이 남아있었다. 工官의 설치는 단순히 정치적·경제적 이유일 뿐이지, 移風易俗과는 거리가 있었다.

金龙滌(首尔大)

战国时期秦国管营中手工业占很大比重，此传统一直延续到汉代，在各个地方设立工官。为了满足皇帝供奉需求只需在中央设立也足够充分，但以可与中央工官规模相媲美的规模和组织在地方设立，一时很难理解。尤其在于京师距离较远的巴·蜀地区设立工官，并且在此生产的器物展现较高水平和比重令人瞩目。

前汉代工官的设立由易于供应原材料与否和工匠熟练程度两个因素决定。与盐·铁官相比工官限于几个地区设立，几乎都设立于都治所。武帝元狩6年(B.C.117)全国范围设立的铁官·盐官从一开始就设立在相应材料产地。工官除了京师设立于其他地区，从汉初开始集中于直接接收汉朝中央统筹管理的地区。即，工官与铁官或盐官不同，不是必须设立于材料产地的，选择认为需要汉朝中央进行集中管理的地区集中设立。最高水平的技术人员肯定会集中于中央。但分析汉代乐浪郡地区出土的漆器铭文，相比中央工官生产的蜀郡和广汉郡工官生产的明显居多。现在以漆器产地著名，汉代时期却没有以此扬名。有必要确认巴·蜀地区从什么时候开始作为官营手工业中心地区受到瞩目，其理由是什么。

巴·蜀地区进入战国时期有一段期间形成与中原各国不同的文化圈，到秦国惠文王更元9年(B.C.316)被秦国征服，至此开始登上历史舞台。巴·蜀地区在秦国进军到关东之前为了稳定其背后地区征服。并且征服该地区后秦国得以压制中原诸侯。接下来秦国使蜀王降级为蜀侯，同时将巴郡和蜀郡直属于秦国中央。与此同时让秦国本土居民10,000户移居至此，谋求巴·蜀地区稳定。还颁布了田律，延续至宋代应用为对农耕田地的规则规定，实现支配齐民的理想。在成都筑城仿造秦国首都咸阳，蜀侯·蜀守两家并行体制中仅留下蜀守，该换为秦国中央直接统治方式。从而巴·蜀具备了完整的郡·县体制，赋予秦国本土作用。并且秦国占领关东地区时招引的技术人员迁徙至此。结果对比内史地区其他国家在相对开发较晚的新地区由高水平高技术其他国家工匠促进了相关开发。

汉代巴·蜀地区作为汉高祖刘邦的最初支配领域中一部分从很早开始受到瞩目。汉高祖以此为基础逐渐向过去秦国中心地区关中扩展其势力，很快越过函谷关进军到关东。巴·蜀地区在汉朝初期作为后方基地充分发挥了起作用。汉初开始因其政治·经济方面理由受到瞩目，但巴·蜀地区何时设立了工官尚不明确。除了巴·蜀地区以外的地区设立工官的时间也没有明确地记录。大概在武帝以后郡·国体制改编为郡·县体制，以盐·铁专卖制度实施掌握各地方主要物资盐和铁，同时在各个地方设立工官，国家掌握了主要工匠和技术。巴·蜀地区工官同样看作在汉武帝时期前后设立应该没有多大出入。巴·蜀地区设立的工官和齐地区设立的服官一同作为代表性地方工官提及，在规模方面也压倒了其他工官。巴·蜀地区工官也生产出可以与中央工官相比的当代最高水平的器物，不仅满足国内需求，还远销到边境或出口到国外。这表明从战国时期秦国打下的基础，中央政府掌握巴·蜀地区的同时，使该地区具备与中央相同水平的器物生产水平。但是巴·蜀地区设立工

官时期，该地区对比中原文化方面要落后很多。该地区还完整的存在为支配不同民族的汉代独特行政单位道官。并且很早开始政治·经济方面虽然隶属中原，仍留有蛮夷风俗。工官的设立单只为了政治·经济理由，距离移风易俗要相差很多。

# 东晋十六国南北朝的疆域变动与侨州郡县设置

胡阿祥（中国南京大学历史学系）

**摘要：**东晋十六国南北朝时代，诸多的中原王朝外拓乏力而彼此之间的内竞无有休止。外拓乏力，则中原王朝的总体疆域范围呈现收缩的态势；内竞不止，则各别政权的疆域盈缩、疆界变动极为繁复。分析由于内竞而不断改变着的政治地理版图，可以得出的认识是：对立政权之间的征伐与争战是疆域变动的直接原因，地理条件的限制作用决定着疆域变动的走向与幅度，正统观念影响了疆域变动的若干特征。进而言之，一般能与疆域的拥有彼此印证与说明的政区，在这一时代也出现了颇多例外，比如东晋南朝广泛设置、十六国北朝尤其北朝六镇变乱后也纷然涌现的侨州郡县，往往与疆域的丧失相伴而生，这种特殊的、虚化的、为备职方而立的政区，表达了正统观念以及规复失地的决心，是各别政权特别是东晋南朝政权彰显正统的重要手段；又如十六国以及北朝前期政区的舍实课虚、务广虚名，则以另一种“政区”形式，显示了胡族统治者虚张声势的心态。至于同样属于“虚化”政区的概念，同样与正统意识相联系，却比侨州郡县更难判断，因而往往造成疆域误判之后果者，在东晋十六国南北朝时代，还有较之三国时代更加复杂与多样的遥领与虚封。

**关键词：**东晋南朝；十六国北朝；疆域；侨州郡县；遥领虚封；正统观念

## I. 基本疆域范围与各别政权疆域

## II. 有关疆域变动的初步分析

## III. 疆域变动与侨州郡县设置及其中的正统观念

## IV. 附论：关于遥领与虚封

中国历史上的东晋十六国南北朝时代，由于非汉民族因素的强力介入中原地区，由于制度设计造成的尾大不掉、干弱枝强<sup>①</sup>，导致这 280 余年间，政权兴替之频繁、疆域变动之复杂、政区建置之特殊，既远胜此前之分裂的三国时代，也胜过此后之分裂的五代十国时代。作为“五胡”入主中原、汉族退守南方、南北对峙为主、间以东西对峙与三方甚至多方并立的典型、代表时代，此期相关政治地理问题的探讨，对于理解“合久必分，分久必合”的多民族的中国的历史，可谓颇具学术意义。惟此题牵涉甚广，头绪繁多，兹先就当时之基本疆域范围与各别政权的疆域变动稍作说明与分析，再以侨州郡县为例，讨论疆域变动如何影响了这类特殊政区的建置以及表现于其中的正统观念。按引入正统观念以讨论疆域变动与政区建置，也在于为政治地理领域中的疆域与政区问题，提供一条新的理解路径。

<sup>①</sup>如《续汉书·百官志》刘昭注：“大建尊州之规，竟无一日之治。故焉牧益土，造帝服于岷、峨；袁绍取冀，下制书于燕、朔；刘表荆南，郊天祀地；魏祖据兖，遂构皇业；汉之殄灭，祸源乎此。及臻后代，任寄弥广，委之邦宰之命，授之斧钺之重，假之都督之威，开之征讨之略。……牧镇愈重，据地分争，竟覆天下。”

在进入正题之前，有必要简单交代疆域的定义。所谓疆域，指国家或政权实体的境界所能达到的范围，即实际占有的、控制的地域。<sup>①</sup>在中国古代，一般来说，国家或政权实体的直辖领地即设立正式政区<sup>②</sup>的地域，可以认作是该国或该政权实体主要的、基本的疆域范围；间接控制或联系的地区，则情况较为复杂。在设置了特殊政区或羁縻政区<sup>③</sup>的边远地区、新控制或新占领的地区、非汉族或非本族聚居的地区，虽然或部分控制，或不能稳定地控制，或控制力量不及正式政区，但因主权仍较明确，所以可以认为属于该国或该政权实体的疆域范围。而诸如称臣纳贡的属国<sup>④</sup>，制度相似或文化类同但无政治主从关系的地区，则都不能划入该国或该政权实体的疆域之内。当然，更不能以民族的分布来划定疆域<sup>⑤</sup>。总之，疆域是一个政治概念，其判定标准也应当是政治标准，即政治上的服从与一致，有效的占领或控制；应以其实质为断，而不能只看名义。

又依据以上定义，疆域与政区实为一个问题的两个方面。完全意义上的疆域，是设置了政区的地域，疆域盈缩，政区随之而有增减；而政区作为疆域的一种政治结构，政区的置废增减也往往指示了疆域的得失变动。

立足于这样的认识，本文既从正式政区（州郡县）的设置判断东晋十六国南北朝的基本疆域范围，又从各朝攻伐攘夺的事迹中明了各别政权疆域变动的特点；<sup>⑥</sup>而考虑到其时政区制度的特殊与政区设置的复杂，比如侨州郡县不同于一般政区，它反映的是疆域的丧失而非拥有，又其时战事极多，疆域也因此广狭无常，所以本文为求明晰，选择若干重要年份，表述东晋十六国南北朝之总体的基本疆域四至范围，再从各别政权的对峙或并立情况，叙说与分析其间接壤地带的疆界大体情形。<sup>⑦</sup>

## I. 基本疆域范围与各别政权疆域

东晋十六国南北朝的基本疆域范围，基础于统一的西晋。统一西晋的基本疆域范围，合

<sup>①</sup>本文所谓“疆域”，不完全等同于现代的“领土”。现代“领土”概念与历史“疆域”概念的主要差别，葛剑雄《中国历代疆域的变迁》（中共中央党校出版社1991年版）指出：领土是以明确的主权为根据的，疆域所指的境界不一定有非常完全的主权归属；领土一般有明确的界线，即使是一些未定的和有争议的地区，争议双方总有各自的界线，而疆域的界线往往很不明确，即使当时也是如此；领土的拥有者一般都有明确的领土意识，疆域的拥有者未必有这样的主权意识，而往往根据各自的标准来决定哪里属于自己的疆域；领土是对国家而言的，它的前提是国家的存在，疆域则不一定，中国历史上出现过的一些地区性的、民族性的政权实体，甚至一些部落或部落集团，它们实际占有的、控制的地域范围都可以称为疆域。

<sup>②</sup>这类政区有正式的、分级的行政机构，固定的或经常性的政府驻地，明确的管辖范围，对范围内的人民登记户籍、征集赋役和执行法律。最高统治者拥有对内对外的全部权力。

<sup>③</sup>一般其管理比较松散，减免部分或全部赋税，不进行经常性的户籍登记。其中特殊政区的长官由中央或上一级政府任命，当条件成熟后，也会改为正式政区；而羁縻政区则表现为以军事和政治的压力加以控制，以经济和物质的利益给予抚慰，政府一般不派遣行政官员，也不征收赋税徭役。

<sup>④</sup>多为名义上的归属，与外国并无二致。如东晋南朝时的林邑国、427年迁都平壤后的高句丽，有自己完整的国家机构，内政外交自主，尽管向东晋南朝、南北朝称臣纳贡，也不能认作是疆域范围。参考谭其骧《历史上的中国和中国历代疆域》，《中国边疆史地研究》1991年第1期。

<sup>⑤</sup>恩格斯在《致“共和国”周报编辑》中指出：“没有一条国家分界是与民族的自然分界线，即语言的分界线相吻合的。”见《马克思恩格斯全集》第16卷，人民出版社1972年版。

<sup>⑥</sup>如徐文范《〈东晋南北朝舆地表〉凡例》：“其疆域无明文，固难定准，惟考战争事及攻击镇戍牧守地以为界限，即或有犬牙相错者，亦可按图而得，故凡战争处必书之，亦可引作证据也。”

<sup>⑦</sup>郑樵《〈通志·地理略〉序》：“州县之设有时而更，山川之形千古不易，所以《禹贡》分州必以山川定经界，使兖州可移而济河之兖不能移，使梁州可迁而华阳黑水之梁不能迁，是故《禹贡》为万世不易之书。”秉此原则，本文也每以山川定疆界。

曹魏、蜀汉、孙吴三国为一，并无增减；在此范围之外，则是不属于中原王朝的部族或民族及其政权、不属于历史中国的部族或民族及其政权。<sup>①</sup>以下即以西晋太康三年（283）正式政区的四至范围为参照对象，切出若干变化比较明显的断限年份，按照现行的政区与地名，表述东晋十六国南北朝基本疆域的四至范围，以见其时中原王朝诸多政权或国家的主要地理“舞台”。<sup>②</sup>

年份	正式政区的四至范围
283年	北至宁夏南部、甘肃东部、山西北部 and 内蒙古呼和浩特市、集宁市以南，河北北部 and 内蒙古赤峰市以南；东北至今韩半岛汉江之北；东部至海；西北有今甘肃全省、内蒙古额济纳旗、青海湟水流域、河曲地区；西南有四川中部、云南省；南有海南岛及越南中、北部（北纬16线以北）。
327年	南、东、西同上。北与东北内缩，有今阴山以南河套地区，山西内长城以南，北京、天津两市（包括郊县）及其以西的河北省地区。
366年	北、西、南、东同上。东北有今辽宁朝阳、阜新、抚顺、本溪、丹东等市县以南、以西地；西北至今新疆吐鲁番盆地。
382年	西北、南、西、东、东北同上。北至阴山（包括今狼山、大青山）。
409年	北、西北、西、南、东同上。东北内缩，今辽宁只有辽河以西，建平、朝阳、阜新等市县以南地。
464年	北、东北、东、西同上。西北有今新疆哈密，南至今越南横山。
546年	西、南、东及东北今辽宁地区同上。西北有今甘肃、宁夏及青海湟水流域、河曲地区；北有今陕西北部，山西内长城稍北，河北内长城以南，河北拒马河及北京市长城以南。
553年	西南的今贵州湄潭、凯里、荔波以西，广西田林、凤山、河池以西北及云南省在疆外，为爨氏所有，其余同上。
572年	西北至今甘肃，青海湟水流域、河曲地区；北至河套及山西、河北两省外长城一线及北京市（包括郊县）；东北有今河北滦平、隆化与辽宁建平、朝阳、义县、锦州以南、以西地区，其余同上。
589年	西北有今甘肃省、内蒙古额济纳旗、青海湟水流域及河曲地区；北至阴山（包括今狼山、大青山）及山西、河北外长城以及北京长城一线；东北有今河北兴隆以东的长城和榆关以西地区；西南至今云南省；南有今海南岛及越南的北纬18稍南一线以北。

据上表稍加分析，起码对于立足中原的十六国北朝与东晋南朝而言，这都是一个并非外拓的时代，在边地民族政权的压力下，中原王朝的疆域范围总体呈现收缩的态势。以东北、西南与南部为例，高句丽的向南发展与契丹势力的膨胀，导致了中原王朝疆域从汉江以北一线逐渐收缩到了辽河以东以至大凌河以东；西南地方，东晋、宋、齐、梁虽置宁州，但主要被以大姓爨氏为首的土著势力控制，侯景之乱后，宁州更为爨氏割据，于是梁太清二年（549）后，中原王朝遂不能有宁州之地；又南疆交州的南端，因与林邑接壤而进退不定，而且总体呈现向北退缩之势。

<sup>①</sup>关于“中原王朝”“历史中国”概念的讨论，详胡阿祥《伟哉斯名——“中国”古今称谓研究》第五章，湖北教育出版社2000年版。

<sup>②</sup>下表主要依据资料为中国社会科学院科研局主办、谭其骧总编辑《中国国家历史地图集》“秦以后疆域政区王朝部分图组·编例”（1987·内部资料）；具体形势，可参考谭其骧主编《中国历史地图集》第三册、第四册，中国地图出版社1982年版。

相对于外拓的乏力，十六国的混战、北魏的统一、东魏北齐与西魏北周的对抗、东晋南朝的防守，以及十六国北朝的南征、东晋南朝的北伐，着意于中原的这诸多政权，此起彼伏、互争雄长，所以对于中原王朝而言，这堪称是风起云涌乃至血雨腥风的内竞时代，内竞又不断改变着各别政权的政治地理版图。如以东晋一朝为例，104年间，疆域盈缩、疆界变动极为繁复，所谓“其蹙境也，始于咸和，甚于宁康，再甚于隆安；其拓疆也，肇于永和，再振于太元，大启于义熙。其朝南暮北，旋有旋亡者，虽巧术不能算也”<sup>①</sup>；对此“巧术不能算也”的东晋疆域，笔者曾在《六朝疆域与政区研究》<sup>②</sup>书中，依据《资治通鉴》、相关正史纪传及地理志、清人有关补志补表舆图等，花费约两万言，方才略述了其大致情形及重要史实。考虑及此，下面仅据唐人杜佑《通典·州郡典》与清人顾祖禹《读史方輿纪要》的大致总结，制作稍备对照意味的“疆域表”于下<sup>③</sup>，以见东晋十六国南北朝各别政权的疆域大概，并为下节的相关分析张目。

东晋南朝疆域（附后梁）	十六国北朝疆域
东晋（317—420）：及永嘉南渡，境宇殊狭，九州之地有其二焉。初，元帝命祖逖镇雍丘，逖死，北境渐蹙。于是豫、青、兖、冀四州及徐州之半，陷刘曜、石勒，以合肥、淮阴、寿阳、泗口、角城为重镇。成帝时，鄴守将退屯襄阳，穆帝时，平蜀汉，复梁、益之地。又遣军西入关，至灊上，再北伐，一至洛阳，一至枋头，所得郡县，军旋又失。洎苻坚东平慕容暉，西南陷蜀汉，西北克姑臧，则汉水、长淮以北，悉为坚有。及坚败，再复梁、益、青、徐、兖、豫之地，其后青、兖陷于慕容德，豫、司陷于姚兴，以彭城为北境藩扞。后益、梁又陷于谯纵。每因刘、石、苻、姚衰乱之际，则进兵屯戍在于汉中、襄阳、彭城，然大抵上明、江陵、夏口、武昌、合肥、寿阳、淮阴，常为晋氏镇守，义熙以后，又复青、兖、司、豫、梁、益之地，而政移于宋矣。	前凉（301—376）：盛时，尝南逾河、湟，东至秦、陇，西包葱岭，北暨居延。
	汉—后赵（304—329）：盛时，其地东不过太行，南不越嵩、洛，西不踰陇坻，北不出汾、晋。
	成—汉（304—347）：盛时，东守三峡，南兼夔、夔，西尽岷、邛，北据南郑。
	代（315—376）：什翼犍代立，国益强，东自濊貊，西及破落那，南距阴山，北尽沙漠，悉皆归服。
	后赵（319—351）：盛时，其地南逾淮、汉，东滨于海，西至河西，北尽燕、代。
	前燕（337—370）：盛时，南至汝、颍，东尽青、齐，西抵崤、崑，北守云中。
	冉魏（350—352，都鄆）：同后赵。
	前秦（350—394）：盛时，南至邛、夔，东抵淮、泗，西极西域，北尽大碛。
	后秦（384—417）：盛时，其地南至汉川，东逾汝、颍，西控西河，北守上郡。
	宋（420—479）：宋武帝北平广固，西定梁、益，又克长安，尽得河南之地。长安寻为赫连勃勃所陷，至废帝荊阳王景平中，虎牢以西，复陷于后魏。初，文帝元嘉中遣将北伐，水军入河，克魏碣磬、滑台、虎牢、洛阳四城，其后又失。又分军北伐，西军克弘农、开方二城，以东攻滑台不克，而平碣磬，守
	西燕（385—394）：有上党、太原、平阳、河东、乐平、新兴、西河、武乡八郡地。
	西秦（385—431）：盛时，其地西逾浩亶，东极陇坻，北距河，南略吐谷浑。
	后凉（386—403）：初有前凉旧壤，其后大

<sup>①</sup>洪亮吉《〈东晋疆域志〉序》。

<sup>②</sup>胡阿祥《六朝疆域与政区研究》，西安地图出版社2000年版。

<sup>③</sup>表中东晋南朝疆域部分略据《通典·州郡典一》，十六国北朝疆域部分略据《读史方輿纪要》卷三、卷四。

<p>之，寻皆败退。于是后魏主太武总师，经彭城临江，屯于瓜步，退攻盱眙，不拔而旋。明帝时，后魏又南侵淮北，青、冀、徐、兖四州及豫州西境悉陷没，则长淮为北境，侨徐、兖于淮南，立青冀二州，寄治赣榆。其后十余年而宋亡。然初强盛也，南郑、襄阳、悬瓠、彭城、历城、东阳，皆为宋氏藩扞。</p>	<p>削，姑臧而外惟余仓松、番禾二郡而已。</p>
<p>齐（479-502）：齐氏，淮北之地所以全少，青州治朐山，冀治连口，豫治寿春，北兖治淮阴，北徐治钟离，又置巴州，治巴东郡。其余州郡，悉因宋代。其后频为后魏所侵，至东昏永元初，沔北诸郡，相继败没。又遣军北伐，败于马圈，退屯益城，又失寿春，后三年，齐亡。始全盛也，南郑、樊城、襄阳、义阳、寿春，淮阳、角城、涟口、朐山为重镇。</p>	<p>南凉（397-414）：盛时，东自金城，西至西海，南有河、湟，北据广武。</p>
<p>梁（502-557）：初，武帝受禅，数年即失汉川及淮西之地，其后诸将频年与魏军交战于淮南淮北，互有胜负。虽得悬瓠、彭城，俄而又失。又克寿春。中大通初，大举北伐，淮北城镇，相次克平，直至洛阳，暂为梁有。其后又复汉中。至东魏将侯景以河南地降，逆乱相寻，有名无实。及景平后，江北之地，悉陷高齐，汉川、蜀川没于西魏。大抵雍州、下溘戍、夏口、白苟堆、硖石城、合州、钟离、淮阴、朐山为重镇。</p>	<p>南燕（398-410）：南燕之地，东至海，南滨泗上，西带巨野，北薄于河。</p>
<p>后梁（555-587）：萧詧虽承梁祀，所得者仅江陵三百里，又称臣于魏，比诸附庸。</p>	<p>西凉（400-421）：有郡凡七，最为弱小。</p>
<p>陈（557-589）：陈氏比于梁代，土宇弥蹙，西不得蜀汉，北失淮肥，以长江为境。宣帝太建中，频年北伐，诸将累捷，尽复淮南之地。更经略淮北，大破齐军于吕梁。及旋师，属高齐国亡，又总军北伐，至吕梁，周军来拒，又大破之。旋为周军所败，悉虏其众，自是江北之地，尽没于周，又以长江为界。及隋军来伐，遣将守狼尾滩，荆门、安蜀城、公安、巴陵以下，并风靡退散，隋军自采石、京口渡江而平之。</p>	<p>北凉（401-439）：盛时，西控西域，东尽河、湟，前凉旧壤几奄有之。</p>
	<p>后蜀（405-413）：谯纵之地，北不得汉中，南不踰邛、樊。</p>
	<p>夏（407-431）：盛时，南阻秦岭，东戍蒲津，西收秦、陇，北薄于河。</p>
	<p>北燕（407-436）：袭燕旧壤之一部。</p>
	<p>北魏（386-534）：后魏起自北荒。道武珪克并州，下常山，拔中山，尽取慕容燕河北地。明元嗣时，渐有河南州镇。太武焘西克统万，东平辽西，又西克姑臧，南临瓜步。献文之世，长淮以北悉为魏有。孝文都洛，复取南阳。宣武恪时又得寿春，复取淮西，续收汉川，至于剑阁。于是魏地北逾大碛，西至流沙，东接高丽，南临江、汉。殆胡后内乱，六镇外挠，尔朱构祸，国分为二，而魏亡矣。</p>
	<p>东魏（534-550）：有洛阳以东的原北魏疆域。</p>
	<p>西魏（535-557）：有洛阳以西的原北魏疆域及益州、襄阳等地。</p>
	<p>北齐（550-577）：高欢起自晋州，东有殷、冀，遂灭尔朱，劫魏迁邺，覆其宗嗣。于是河北自晋州东，河南自洛阳东，皆为齐境。（此专举周、齐分界言之。齐天保中其地北界沙漠，东滨海。又梁侯景之乱，遣江略地，南至于江。）高纬时，陈人取淮南地，周师拔河阴，拔平阳，而齐遂亡。</p>
	<p>北周（557-581）：宇文周起自高平，拥有关、陇，魏主西奔，渐移其社。于是河南自洛阳之西，河北自晋州之西，皆为周境。文帝泰既西并梁、益，南克江、汉，武帝邕又东并高齐，兼取陈淮南地。杨坚以内戚擅权，遂易周祚。取梁并陈，天下为一。</p>

## II. 有关疆域变动的初步分析

就上表所示之东晋十六国南北朝各别政权的疆域盈缩与范围及疆界变动概况进行归纳，可以显示出一些带有规律性的事实，并进而分析这些事实背后的影响因素。

其一，对立政权之间的征伐与争战是疆域变动的直接原因。

东晋十六国南北朝 280 余年间，五胡入主，中原板荡，彼此蚕食与鲸吞，兴灭不休；而自晋室南渡以后，东晋南朝虽偏安江左，却也与十六国北朝相互征伐。至于政权之间边境线上的争城掠地，更是少有关断。诸如此类，使得各别政权的疆域屡有盈缩。

以东晋南朝为例，其北部疆界（关、中、河南、青齐、江汉、江淮）与西部疆界（汉中、巴蜀）的变动最为明显，而且总的趋势是越变越南、越变越东，于是疆域越变越小。这种变动，联系着边境线上的反复拉锯、你降我叛，更主要者，则是由东晋南朝的北伐西征与十六国北朝的南征东进之成败引起的。如东晋屡次北伐西征，以争北方失地与西部梁益，所以“试即全晋十有九州论之，始终梗化者惟秦、并、冀、幽、平五州，雍则兵威所加而不能守，凉则职贡所通而不能有。……若夫青、梁、益、宁之始陷卒复，司、兖、豫之时得时失，即扬之江西、徐之淮北、荆之沔中，亦间或沦陷”<sup>①</sup>南朝较大规模的北伐也有十多次，以争中原、淮北、淮西、淮南、江北、汉沔、汉中等地，但最终都难以持久、归于失败，疆域因此而有较大的内缩。又总东晋南朝论，东晋初年与淝水战前疆域甚小，东晋末年疆域最大，南朝疆域则大体“伸于宋，屈于齐，赢于梁，缩于陈”<sup>②</sup>

与东晋南朝相对应，十六国北朝除了与东晋南朝接壤的南部疆界以及西部疆界外，又加上了与北方及西部边地民族政权（重要者先后有东北的高句丽、契丹、库莫奚，蒙古高原的鲜卑、柔然、突厥，西部的吐谷浑等）接壤的北部疆界（如辽河流域、阴山南北、河套地区）、西部疆界（如河湟、河曲、河西等地区）。笔者曾经指出：“北魏立国的艰难又有过于南朝。北魏处于蒙古高原以及西域、东北的民族与南朝政权的夹击之中，它既要防南，又要守北。”<sup>③</sup>北魏如此，十六国、东西魏、北齐周也不例外，而且它们相互之间更多对抗，因而十六国北朝来自内部与周边的各种征伐与争战引起的疆域变迁更形繁杂。

以“十六国中，为最盛焉”<sup>④</sup>的前秦为例，其疆域的开拓与崩溃颇具代表意义。晋永嘉乱后，世为氏帅的略阳临渭人苻洪被族人推为盟主，先后归前赵刘曜、后赵石虎。石虎迁徙秦、雍州民及氏羌十余万户于关东，苻洪被任为流民都督，率二万户居枋头。枋头 18 年（333—350），

<sup>①</sup>钱大昕《〈东晋疆域志〉序》。

<sup>②</sup>日本重野安绎、河田巽《支那疆域沿革略说》第八图，东京富山房 1903 年版。为明大概，再引胡阿祥《六朝政区》（南京出版社 2008 年版）“附录 1·六朝疆域略说”的相关文字如下：“大略而论，东晋较稳定的疆域范围，北抵淮南、江北，东及东海，南达南海兼有交趾。西土巴蜀、南中，当成汉衰亡以后，为东晋所取；后来又落入前秦苻坚之手，继为东晋叛乱的地方官谗纵割据，及东晋末年义熙中，重新收复。又义熙年间，东晋大将刘裕北伐，平南燕，灭后秦，于是东北有今山东半岛，西北有关中，北抵黄河，疆域范围之大，不仅居东晋之首，而且为东晋南朝 270 余年间所仅见，只是这一极盛疆域，维持的时间十分短暂，关中旋即丧失。……南朝疆域也是很不稳定。当刘宋初年强盛时，北以秦岭、黄河（今黄河稍北）与北魏为界，西至四川大雪山，西南包有今云南，南以今越南横山与林邑接壤，东、东南抵海，这是南朝疆域最大的时期。后来河南、淮北逐渐为北魏所侵夺，刘宋疆域于是几乎恢复到东晋原有的版图。齐朝疆域大致与刘宋后期相同，而北界时有变动，后来更内移到大巴山脉、淮河以南一线。又梁朝疆域起初与萧齐后期相仿佛，一度乘北魏衰乱而向北扩展，并几乎恢复到刘宋初期的疆域。及侯景乱后，长江以北沦陷于北齐，巴蜀地区沦陷于西魏，放弃云贵高原于当地土著民族，不久又失襄樊一带于西魏，失江陵一带于西魏的附庸国后梁。及继起的南朝最后一个朝代陈朝，其疆域遂西不得巴蜀云贵，北不得淮淝荆襄，以长江为界，成为南朝四代中疆域最小的王朝。”

<sup>③</sup>胡阿祥《关于〈拓拔宏评传〉的审稿意见》，南京大学中国思想家评传丛书《动态信息》第 84 期，1996 年。

<sup>④</sup>《读史方輿纪要》卷三。

是这支氏人依违于各种势力之间、积聚与锻炼力量的时间。及苻洪子苻健西归，关东氏人纷起响应，苻健遂进入长安，据有关陇，建国大秦。357年，苻健弟苻雄之子苻坚杀苻健子苻生自立，用王猛为相，秦国大治，并迅速开疆拓土：370年东灭前燕；373年西南取东晋梁、益二州，邛、笮、夜郎等西南诸夷悉附；376年，西灭前凉、北向灭代。此后，又陷东晋襄阳、顺阳、彭城、南阳、魏兴等郡，于是前秦南境抵淮水——武当山——大巴山——长江（今重庆市境与四川省境）一线以北。是时，前秦疆域最大而东晋疆域最小。然而，383年苻坚举全国之力、志在灭晋的淝水之战溃败，本来单纯依靠军事征服维系着的鲜卑、羌、匈奴等族乘时纷起，割据建国，北方统一之局迅速瓦解；东晋则乘淝水大捷北伐西征，至385年，徐、兖、青、司、豫、梁、益七州之地，包括今河南、山东、陕西南部、四川、重庆等地区，尽为东晋短期收复。前秦的这种情形，可谓创业艰难、开拓迅速、崩溃转瞬的典型。

相对于前秦，北魏疆域的开拓过程颇为漫长，疆域的盈缩演变则受着周边形势更加复杂的影响。386年，乘着前秦的颠覆，拓跋珪纠合旧部，在牛川召开部落大会，即代王位，同年改代为魏，都于盛乐。盛乐时代（386—398）的北魏，相当程度上仍是游牧行国的形态，在迁都平城之前，已经控制了北到阴山以北、东及滦河上游、西有鄂尔多斯高原、南据河东北大部的广大地区；平城时代（398—493）的北魏，一则于439年完成了黄河流域的统一，二则主要围绕着河南地区，与东晋、宋、齐反复争夺；进入洛阳时代（493—534）的北魏，前期疆域继续着全面南拓的趋势，中路取沔北，东路取淮南，西路取剑阁以北，后期则因防备柔然的北境镇民的变乱与南方梁朝的借势蚕食，北面的有效控制线与南面的疆域颇多收缩，并很快分裂成了东西两国，即所谓的东魏与西魏。<sup>①</sup>然则北魏都城的步步南进，使得其北部边陲的经营相对放松，来自柔然的压力也相形增大，而南部疆域的开拓，因为受到地理条件与力量对比的影响，却毕竟颇多限制。

其二，地理条件的限制作用决定着疆域变动的走向与幅度。

公元450年至452年间，在潼关以东的黄河、长江之间，北魏南征、刘宋北伐、北魏再南征、刘宋再北伐，南北双方颇有进退。北魏南征，围淮西重镇悬瓠，再南征，三路大军（横江、瓜步、广陵）临江；刘宋北伐，则两次进至黄河一线。值得关注的是，北魏并未渡江南而南，刘宋也未越河而北，衡之当时的情形，是不能也而非不愿。如刘宋再次北伐时，青州刺史刘兴祖主张“长驱中山，据其关要。冀州以北，民人尚丰，兼麦已向熟，因资为易，向义之徒，必应响赴。若中州震动，黄河以南，自当消溃。臣请发青、冀七千兵，遣将领之，直入其心腹”，然后河南众军，一时济河，若能成功，清壹可待；<sup>②</sup>对此，南宋李焘《六朝通鉴博议》卷七云：“南北相持之际，河北固不可攻，盖其地远，虽攻而得之，必不得守；河南亦不可攻，盖其地平，虽得之，而守之必不固。……况新造之国，而可以轻议人之腹心乎？文帝之攻河南，固为失矣；而兴祖之计，亦未为得也。”同样，以北魏当时的实力，也无法渡江直捣刘宋之心腹。<sup>③</sup>

按东晋十六国南北朝时代，如黄河、长江这样险固的地理条件，一定程度上决定着南北或东西对抗的各别政权之疆域变动的走向与幅度。以与十六国北朝对抗的东晋南朝言，由于

<sup>①</sup>北魏疆域变迁的具体过程，详母有江《北魏政区地理研究》第二章，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2005年。

<sup>②</sup>《资治通鉴》卷一二六元嘉二十九年。

<sup>③</sup>按从大处着眼，无论是政治上（北朝政局相对稳定，胡汉联合，协调努力，推行封建化措施；南朝朝代迭频繁，又多荒主，士大夫风流相尚，耽于淫乐，遂致政治腐败，军备失修）、经济上（北朝人口多于南朝、农业经济胜于南朝）还是军事上（北朝胡人实行部落兵制，且以骑兵为主，其组织之密、骑术之精、斥候之明胜过南朝），都基本呈现出北强南弱的态势；但北朝因境内民族问题与文化问题的尚未解决，也不具备攻灭南朝的条件。参阅万绳楠整理《陈寅恪魏晋南北朝史讲演录》第十四篇，黄山书社1987年版；赵翼《廿二史劄记》卷八“六朝清谈之习”条、卷十一“宋齐多荒主”条。

其东、南两面被大海封闭，缺乏回旋余地，又处低地，不便仰攻，所以对十六国北朝着重采取以守为主的防御战略，守国所恃则在长川大山。如在其疆界的东部，因时而异，就有守河、守淮与守江三道防线：

东晋之备五胡，宋、齐、梁之备元魏，陈之备高齐、周、隋，力不足者守江，进图中原者守淮，得中原而防北寇者守河。……陈之国势已弱，不能进取，故所守止于江；自晋至梁，惟宋武帝守河，其余皆保淮为固，或守淮西，或守淮北，或守淮南。<sup>①</sup>

而总东晋南朝保守疆域论之，一为守河，特别是守住洛阳、虎牢、滑台、碣磬四镇，以保河淮之间；二为守淮、守汉、守秦岭、守大巴、守米仓，守住淮北的彭城、淮南的寿阳、淮西的悬瓠、汉北的南阳、汉南的襄阳、秦岭南的南郑诸多重镇，以保江淮之间、江汉之间以及汉中、巴蜀；三为守江，如下游的历阳与广陵、中游的江陵与武昌，以保江南根本。这三条防线中，守河守江的时间其实都不长，“盖守江则已蹙，守河则已远。蹙国而守，非勇者不能；远国而守，非强者不能。孙氏臣主俱豪，兵锋所向，迎之者破，故能画长江而守之，魏人不敢南向；其后宿将旧臣，彫落继尽，而其孙用之则危矣。刘氏将卒俱精，威震天下，力倾五胡，能分命虎臣列守河南，拓跋、赫连不敢顾眄；而其子效之则败矣。故惟勇者为能守近，惟强者为能坐远。”<sup>②</sup>守河既不长，则关中不旋踵而失，淮北河南及青齐之地也未能久有；守江既不长，则陈朝终为杨隋所灭。比较而言，还是以守淮、守汉、守秦岭、守大巴、守米仓为常态，盖此线位居南北对峙时的中间推移地带，其得失往往关乎南北双方的强弱存亡，东晋南朝时代，此线南北的疆域变迁也最为频繁，诚如徐文范所言：“南北朝舆地最难分明者，莫如淮南东西及沔北汉东，以干戈战场，南北划界分疆，各有重兵镇守，位号轻无以副人望。地当险要，戍守自倍寻常。”<sup>③</sup>

问题的复杂还在于，若“江陵去襄阳，步道五百，势同唇齿。无襄阳，则江陵受敌不立”<sup>④</sup>，此即疆域变迁中的唇齿原则。如此，东晋南朝欲保长江，就必须控制江北，布兵于江淮之间与江汉之间，以为长江屏蔽。同样的道理，保淮守汉，也必须尽可能地控制淮汉以北的土地，以为南北缓冲，如有可能，当固河防，以屏蔽淮汉。而在河淮之间，青齐与中原又相为唇齿。至于西部地区的汉中与巴蜀、巴蜀与南中，长江一线的巴蜀与荆楚、荆楚与吴越、荆楚与巴蜀及吴越，等等，也无不体现出唇齿相依的关系。（参见文后“附图：东晋南朝疆域形势”）

要之，长川大山的层层设防、重镇要地的此呼彼应、边境区域的唇齿相依，影响着据南面北的东晋南朝保守疆域的成效，甚至决定了其疆域变动的走向与幅度。<sup>⑤</sup>至于十六国北朝，也不例外，在东部，其南向开拓疆域的极限是兵临长江，在中部，其南向开拓疆域的极限是据有汉水流域，而在西部，则一旦拥有了汉中，东晋南朝的巴蜀甚至南中便难以维持。

地理条件的限制作用，当然不仅表现在南北对抗双方疆域的开拓方向与保守范围，也表现在东西对抗的政权之间。“在隋唐以前的中国历史上，东西对立或分峙的局面曾一再地发生。……而在这些多历年所、断续不绝的东西对峙中，地理上的山（太行山、崤山等）、河（晋陕黄河等）、关（函谷关、潼关、武关等）、塞（桃林塞等）之险，又往往起着重要的作用。”<sup>⑥</sup>

<sup>①</sup>李焘《六朝通鉴博议》卷一。

<sup>②</sup>李焘《六朝通鉴博议》卷九。

<sup>③</sup>徐文范《东晋南北朝舆地表·郡县表》卷一。

<sup>④</sup>《南齐书·州郡志》。

<sup>⑤</sup>以上关于东晋南朝的分析，详参胡阿祥《六朝疆域与政区研究》第三章。

<sup>⑥</sup>胡阿祥主编《兵家必争之地——中国历史军事地理要览》第五讲，河海大学出版社1996年版。

例如南北朝后期分据黄河下游与中游的北齐与北周，其对峙界线与主攻地区，就受到了地理条件的深刻影响。

根据北齐与北周双方各自设防的地点，可以划出其东西对抗的界线。《通典·州郡典一》云：

（北齐）大抵西则姚襄城、洪洞、晋州、武平关、柏崖、轵关、河阳，南则虎牢、洛阳、北荆州、孔防城、汝南〔北〕郡、鲁城，置兵以防周寇。

（北周）当全盛战争之际，则玉壁、邵郡、齐子岭、通洛防、黄栌三城、宜阳郡、陕州、土剗、三荆、三鸦镇，置兵以备东军。

如此，北齐与北周对抗的部分界线，是由今山西吉县西南起，向东南逶迤，过今新绛和稷山两县之间，再过今绛县之西，经今垣曲县东，今河南济源市西，又经今孟州市西南而至于黄河之滨。渡过黄河后，由洛阳市和新安县之间南行，经今汝阳县，再折向东南行，由今鲁山县东，而南到今泌阳县。<sup>①</sup>这条界线依托的地理形胜，则有黄河、汾河、中条山、王屋山、崤山、熊耳山、伏牛山等等；而设防的各处，也各具形势之要，如今吉县西南的姚襄城，西临黄河，控带龙门之险，稷山县西南的玉壁城，四面并临深谷，险峻易守，新安县东的通洛防，即汉时的新函谷关。而随着齐、周双方的军旅频兴，这条界线也不是一直稳定的。再分析双方兵争最为频繁的主攻地区，一是战略地位重要的河汾之间，河汾之间联系着北齐的下都晋阳与北周的都城长安，交通近捷，北齐西攻，可以绕过潼关，北周北进，可以直扑晋阳，并便利接续的攻取邺都；二是政治意义突出的崤函、洛阳一线，北周固守崤函要塞，则北齐难以入关，北齐据有北魏旧都洛阳，则从地理上占有了正统的优势。

其三，正统观念影响了疆域变动的若干特征。

以上主要从“守”的角度，讨论了地理条件与疆域变动的关系；再从“攻”的角度看，则正统观念的影响非常明显。正是在正统观念的影响下，退守南方的东晋南朝政权一直着意于恢复中原故地，或迄未放弃扬言恢复中原故地；而十六国北朝的部分胡族政权，既视拥有中州为得地理正统乃至文化正统的最大资本，也以一统华夏为政治追求的最终目标。

在东晋十六国南北朝之南北分裂、东西对立的形势中，最具正统象征意味者，为东汉、曹魏、西晋的旧都洛阳。“洛阳四面受敌，非用武之地”<sup>②</sup>，而诸多政权必欲得洛阳，看重的是其位居天下之中的特殊的政治与文化地位。<sup>③</sup>谭其骧师指出：“曹丕和拓跋宏都认为都洛胜于都邺，他们考虑问题的着眼点显然是地理位置。邺地处河北，在中原范围内稍东稍北，曹魏为了对付西南的蜀汉和东南的孙吴，拓跋魏企图并吞南朝，混一诸夏，都洛当然比都邺合适。”<sup>④</sup>反过来，正统意识强烈、拥有文化传承正统、无奈退守南方的东晋南朝，虽然以守为本，“至于乘间攻取，则亦不惮用兵”<sup>⑤</sup>；而用兵的一个关键指向，便是洛阳所在的中原核心地域：

东晋以还，虽皆守淮，晋讨慕容暉梁宋，元颢所争亦在于河南。然考其兵之所出，不过二道。一自建康济江，或指梁宋，或向青齐；一自荆襄踰沔，或掠秦雍，或徇许洛。

<sup>①</sup>参考史念海《论我国历史上东西对立的局面和南北对立的局面》，《中国历史地理论丛》1992年第1辑。

<sup>②</sup>《周书·王思政传》。按洛阳东据成皋，西阻崤、澠，背倚大河，面向伊、洛，即也有关河之固，然而诚如《汉书·张良传》所载张良之言：“虽有此固，其中小，不过数百里，田地薄，四面受敌，此非用武之国。”

<sup>③</sup>《汉书·地理志》：“昔周公营雒邑，以为在于土中，诸侯蕃屏四方，故立京师。”按词有倒正，“土中”即“中土”，即天下之中；引申之，这也是后世儒家以豫州（三代九州之一，洛阳在豫州，而豫州在九州之中）、以河南（河南曰豫州）为天下之中、为中州、为中原的由来。

<sup>④</sup>谭其骧《中国历史上的七大首都》，收入所著《长水集续编》，人民出版社1994年版。

<sup>⑤</sup>李焘《六朝通鉴博议》卷一。

东晋之祖逖、庾亮、褚裒、殷浩、桓温、谢玄，宋之武帝、檀道济、到彦之、萧斌、思话，梁之韦叡、裴邃、曹景宗、陈庆之之徒，北伐之师，不由于此则由于彼，中原有衅则进兵，寇盗方强则入守，史策所载，皆可知矣。<sup>①</sup>

东晋南朝北伐中，洛阳中州之地的地位由此可见。就具体史实言，如东晋桓温、谢玄、刘裕与宋到彦之、梁陈庆之都曾收复洛阳，而每次收复，也都会引起南方建康朝野迁都洛阳、光复故土、疆理华夏之议。然而也因为志在洛阳的政治目的太过直接与明显，决定了东晋南朝的北伐往往逆水而上，过分依赖水军，战略战术单一，从而导致失败，开拓的中原疆土也就难以保持。

至于那些拥有洛阳的十六国北朝政权，自然平添一股正统的底气，而在这股底气的促成下，或者膨胀起天下归一的雄心，如前秦苻坚发动的灭晋战争<sup>②</sup>，或者缺乏权衡地定鼎嵩洛，如北魏孝文帝的迁都洛阳。陈寅恪先生曾就此分析道：

”

当时中原衣冠多随东晋渡江，汉人正统似在南方。如果不攻取东晋南朝，就不能自居于汉人正统的地位，也就不能降服鲜卑等族，且汉人也有离心的倾向。只有攻取东晋，推行汉化，方可统一胡汉。苻坚所以坚持南伐，原因在此。

洛阳为东汉、魏、晋故都，北朝汉人有认庙不认神的观念，谁能定鼎嵩洛，谁便是文化正统的所在。正统论中也有这样一种说法，谁能得到中原的地方，谁便是正统。如果想被人们认为是文化正统的代表，假定不能并吞南朝，也要定鼎嵩洛。<sup>③</sup>

然而，苻坚的战败、前秦的瓦解、六镇的变乱<sup>④</sup>、北魏的分裂，却又从诸多方面反映了在正统观念的作用下，如果不切实际地征伐、迁都，会引起作为立国基础的疆域之何等剧烈的变动，又会产生事关国家存亡之何等严重的影响。

### III. 疆域变动与侨州郡县设置及其中的正统观念

广泛表现于东晋十六国南北朝诸多政权的正统观念，是我们理解当时之疆域变动、国家存亡、都城选择以及胡汉关系、侨旧关系等等问题的关键之一；进一步看，与疆域为一体两面、且与疆域能够彼此印证与说明的政区，在这个长期分裂的时代，也大不同于传统的统一王朝，如侨州郡县，就有着正统观念的政治思想背景，而且这类政区的设置，大体不能说明疆域的拥有，反而往往指示着疆域的丧失。

以东晋南朝为例，在与十六国北朝的对抗中，每每沦邦失土，于是侨置沦陷区域的州郡县。《隋书·食货志》：“晋自中原丧乱，元帝寓居江左，百姓之自拔南奔者，并谓之侨人。皆取旧壤之名，侨立郡县，往往散居，无有土著”；又《宋书·州郡志》：“自夷狄乱华，司、冀、雍、凉、青、并、兖、豫、幽、平诸州一时沦没，遗民南渡，并侨置牧司，非旧土也。”具体的事例，

<sup>①</sup>李焘《六朝通鉴博议》卷一。

<sup>②</sup>《晋书·苻坚载记》记苻坚之言：“吾统承大业垂二[三]十载，芟夷逋秽，四方略定，惟东南一隅未宾王化。吾每思天下不一，未尝不临食辍哺，今欲起天下兵以讨之。”

<sup>③</sup>万绳楠整理《陈寅恪魏晋南北朝史讲演录》第十四篇。

<sup>④</sup>孝文帝迁洛后，汉化进程加快的洛阳文官集团与仍然鲜卑色彩浓厚的六镇武人集团之间的矛盾，是六镇变乱的关键所在；或者说，英年早逝的孝文帝尚未完成其汉化，才有六镇变乱及随后北魏分裂的悲剧上演。

如宋明帝初年，北魏南征，“青、冀、徐、兖及豫州淮西，并皆不守，自淮以北，化成虏庭。于是于钟离置徐州，淮阴为北兖，而青、冀二州治赣榆之县”<sup>①</sup>，各领侨郡县若干；而查考史传，“皆未尝言……徐、兖、青、冀之人相携流转入南。……其土庶固有留[流]于淮南者，然非户户尽室而行，四州之侨治[置]亦非应北人南徙之需而设，徒以职方不可不备，遂画地立名耳。”<sup>②</sup>也因为此，这类侨州郡县统领侨人很少，“流荒之民，郡县虚置；”“十无八九，但有名存。”<sup>③</sup>

“郡县虚置”以备职方的最典型例子，莫过于上引史料中“豫州淮西”郡县的侨置。据《宋书·州郡志》，豫州领淮西 10 郡 43 县，刘宋泰始（465—471）中这 10 郡 43 县陷没北魏，乃侨置于淮南。其侨置情形如下表<sup>④</sup>：

原郡领县	侨郡领县
汝南郡，上蔡、平舆、慎阳、北新息、安成、南新息、朗陵、阳安、西平、瞿阳、安阳	汝南郡，上蔡、平舆、真阳、北新息、安城、南新息、临汝、阳安、西平、瞿阳、安阳
新蔡郡，颍阳、固始、新蔡、苞信	新蔡郡，颍阳、固始、新蔡、东苞信、西苞信
谯郡，蒙、蕲、宁陵、襄邑、长垣、魏	谯郡，己吾(余无考)，魏郡(领县无考)
梁郡，下邑、碭	梁郡(领县无考)
陈郡，项城、西华、谷阳、长平	陈郡，项城、西华、谷阳、茆平、阳夏
南顿郡，南顿、和城	南顿郡，南顿、和城
颍川郡，邵陵、临颖、曲阳	颍川郡，邵陵、临颖、曲阳
汝阳郡，汝阳、武津	汝阳郡，汝阳、武津
汝阴郡，汝阴、宋、宋[安]城、楼烦	西汝阴郡，汝阴、宋、安城、楼烦
陈留郡，浚仪、小黄、白马、雍丘	陈留郡，浚仪、小黄、白马、雍丘、襄邑、封丘、尉氏

据上，不仅陷没的 10 郡悉数予以侨置，各郡领县也几乎全部侨立。这种“一一对应”地侨置郡县，虽然不排除安置侨流人口的现实考虑，但更主要者是为备职方计。如果对照《晋书·地理志》、《宋书·州郡志》、《南齐书·州郡志》，可以发现东晋、宋、齐侨置郡县类此者颇众。至于梁、陈之际，疆域更加萎缩、而侨州郡县也颇有增置者，盖亦虚张图籍、夸耀职方一类。

笔者曾经指出：“东晋南朝侨州郡县的广泛设置，乃至成为经久不废的制度，联系着复杂的社会背景与政治原因，约言之，与侨流人口的大量存在及其地域乡里观念的深固，与其迁徙及定居过程中结成乡族集团的形式，与正统观念以及讲究郡望的社会风气，与当时的政治、经济与军事情势等等因素，都存在着密切的关系。而由于产生背景与成立原因的复杂，东晋南朝侨州郡县的设立情形也相应地多种多样，计其初立之意，便有处侨流而立者，备职方而立者，招诱侨流而立者，位置失地官吏而立者，以及出于军事需要而立者。”<sup>⑤</sup>然而无论产生背景与成立原因怎样复杂，设立情形如何多种多样，侨州郡县出现的前提，总在原州郡县的丧失，而设置侨州郡县的思想根据与心理考虑，总离不开表达正统观念与收复失地的决心。由此，也就能理解为什么同一时代的十六国北朝真正意义上的侨州郡县要少得多。<sup>⑥</sup>

<sup>①</sup> 《宋书·州郡志》。

<sup>②</sup> 周一良《南朝境内之各种人及政府对待之政策》，收入所著《魏晋南北朝史论集》，中华书局 1963 年版。

<sup>③</sup> 《南齐书·州郡志》。

<sup>④</sup> 下表据《宋书·州郡志》豫州刺史、南豫州刺史以及《南齐书·州郡志》北徐州、《晋书·地理志》兖州等整理。

<sup>⑤</sup> 胡阿祥《述东晋南朝侨州郡县对当时政区之影响》，《中国古中世史研究》第十八辑，中国古中世史学会（韩国），冠岳社，2007 年。

<sup>⑥</sup> 所谓真正意义上的侨州郡县，应该具备三个要素：原州郡县的沦没与侨置，而侨置应“皆取旧壤之名”；侨人即所谓“遗民南渡”者的存在；“侨置牧司”亦即行政机构的初备。换言之，即真正意义上的侨州郡县，指某州某郡某县的实有领地陷没，而政府仍保留其政区名称，寄寓在境内的他州他郡他县，并且设官施政，统辖民户。

与退守南方而又为传统正统王朝的东晋南朝相比较，以胡族为主要统治民族的十六国北朝，先则以“外来者”的身份拥据传统的汉族中原之地（这以十六国时期为典型）、继则以既拥据传统的汉族中原之地遂生长已为正统的意识（这以北朝时期为典型），于是通过侨州郡县表达正统观念，便先则缺乏民族传统的根据、继则没有文化心理的必要。至于与疆域意识有关的十六国北朝政区设置，在十六国与北朝六镇变乱前，表现为舍实课虚者为多，而六镇变乱后，则侨置政区也是纷然涌现。

十六国政区的舍实课虚，洪亮吉《〈十六国疆域志〉序》概括指出：“复有逞其胸臆，则务广虚名，核彼舆图，则多非事实。如石氏建扬州之号，仅得一城；前燕标荆土之名，惟余数县。夏、宋誓书，指恒山为界，既涉张皇；慕容郡册，援唐国为称，亦渐假借。……甚有指南为北，革旧标新。赫连也，以陕地为荆州；乞伏也，以滹川为益土。琅邪之国，强号幽、燕；朔、代之区，忽标齐服”；胡孔福《南北朝侨置州郡考》卷六也称：“地未得而遥建空名，或城已失而犹仍旧号。遥领、寄治，远近相悬；故土、侨邦，名实难指。”按这类既无侨流人民、又无沦陷依据、为示境域广大的“政区”，广泛存在于前后赵、前后秦、成汉、北凉、前后南北燕、西秦及夏诸国，实属“虚设”的政区。又北魏也不乏务广虚名的政区。《魏书·崔暹传附崔曷传》：崔曷“初为太子洗马，后稍迁散骑常侍，赐爵清河侯。后世祖闻（宋文帝）刘义隆以湮为冀州刺史，乃曰：‘义隆知用其兄，我岂无冀州也。’乃以曷为平东将军、冀州刺史”按北魏实有冀州，然而由此一事，可以想见当时讳言瓠缺的心理。北魏始终未有西晋分裂前的荆、扬、湘、江等州，而北扬、北江、三荆（北荆、东荆、南荆）及湘、郢诸州遍置于其境内，即是务广虚名的产物。

北方确因疆域变动而备职方立的侨州郡县的大量出现，是在北魏六镇变乱以后。如前所述，六镇变乱后，北魏疆域在南北两面都有较大规模的内缩，然后又分裂成彼此争战的东魏北齐与西魏北周。南北异壤，东西别邦，疆场之上，实地常有得失；而每每丧州失郡，辄画地立名。于是北魏后期侨置政区颇称繁猥，如“恒代之间，既已荡为丘墟，北魏又侨置此六州于并肆汾界内”<sup>①</sup>；又东魏多假西魏州郡侨置于境内，如《魏书·地形志》所载汾州及所领五城郡、定阳郡寄治西河，南营州寄治英雄城，恒州寄治肆州秀容郡城，安州寄在幽州北界，朔州、云州、西夏州寄在并州界，蔚州寄在并州郃县，宁州寄在汾州介休城，灵州寄在汾州隰城县，等等，就属备职方而侨立者。

总之，所谓“孱主偏安，群雄割据，一则边圉见侵，讳言削弱，一则鸿图乍启，妄自尊大，国本小而多署空名，地未辟而预置镇守，好大喜功，铺张声势”<sup>②</sup>，云云，正是偏安的东晋、割据的十六国及其后对峙的南北朝之疆域变动与政区虚化的写照。然而在此特别值得讨论的是，本应真实的政区的虚化<sup>③</sup>，却从政治思想层面，反映了其时那些已经虚化的部分疆域，在统治者尤其是东晋南朝统治者的心目中，仍是有待收复的真实疆域；这种心目中的真实疆域与现实中的虚化疆域之间的桥梁或纽带，又以侨州郡县最为典型，而侨州郡县的背后，正是正统观念。

欧阳修《正统论》云：“《传》曰：‘君子大居正。’又曰：‘王者大一统。’正者，所以正天下之不正也；统者，所以合天下之不一也。……夫居天下之正，合天下于一，斯正统矣。”这在统一时

详胡阿祥《东晋南朝侨州郡县与侨流人口研究》引言、第一章第二节，江苏教育出版社2008年版。

<sup>①</sup>王仲荦《北周地理志》附录“东西魏北齐北周侨置六州考略序”，中华书局1980年版。按“此六州”指恒、燕、云、朔、蔚、显。

<sup>②</sup>胡孔福《〈南北朝侨置州郡考〉叙》。

<sup>③</sup>“真实的政区”必须具备以下八个要素：一定数量的人口，一定范围的地域空间，相应的机构，一个行政中心（治所），隶属关系，行政建制，行政等级，名称；虚化的政区如侨州郡县，则土断之前没有地域空间、而为借土寄寓，备职方而立者可以没有人口、仅具虚名，相应的机构往往难得健全，名称特别是专名相当混淆。

代是不成问题的。而在中国历史上的分裂割据之世，争夺正统则是普遍现象。谁为正统，各别政权各有理由；而各别政权彰显正统的方式也不一样。以十六国为例，匈奴刘渊初建国号为汉，自称汉王，“立汉高祖以下三祖五宗神主而祭之”<sup>①</sup>；匈奴刘勃勃则“自以匈奴夏后氏之苗裔也，国称大夏”<sup>②</sup>，以继承夏朝法统的中国皇帝自居。又如羯人石勒、氐人苻坚，都因拥有长安、洛阳两京，而自居“中国皇帝”，反指东晋为“司马家儿”“吴人”。南北朝时期，南朝政权和东晋一样，自认正统所在，斥北朝为索虏；而北朝政权以占据着传统的中原地区，遂以正统自居，反骂南朝为岛夷。<sup>③</sup>在这种种的正统之争中，地域与文化是各自最重要的依据：五胡尤其北魏政权之自居正统，多以占有狭义的也是正宗的中原地区为由；离开了这种中原地区的东晋南朝政权，则拥有皇统继承或禅让以及传统文化的多重正统资格。

对于东晋南朝统治者来说，因为存在对立的十六国北朝政权，所以彰显正统是至关重要的大事，这不仅关系到其政权的合法性问题，而且联系着民心向背与军事形势。应该说，东晋南朝在这方面拥有相当的优势。《六朝通鉴博议》卷一云：“若夫东晋、宋、齐、梁、陈之君，虽居江南，中国也，五胡、元魏，虽处神州，夷狄也。……王猛丁宁垂死之言，以江南正朔相承，劝苻坚不宜图晋；崔浩指南方为衣冠所在，历事两朝，常不愿南伐。苻坚违王猛之戒，故有淝水之奔；佛狸忽崔浩之谋，故有盱眙之辱。”《资治通鉴》卷二零四记前秦苻融劝谏苻坚曰：“国家本戎狄也，正朔会不归人。江东虽微弱仅存，然中华正统，天意必不绝之。”由此可以看出，当时南北分裂、各朝均自认为正统，但时人一般的概念是：五胡、拓跋魏虽入主中原，然而“自古以来未有戎狄作天子者”<sup>④</sup>；反之，晋自元帝渡江，“虽僻陋吴越，乃正朔所承。”<sup>⑤</sup>但残酷的现实是：东晋南朝毕竟失去了重要的地理上的正统依据。如东晋初年，全隶版图者仅有荆、扬及分置之江、湘以及边徼之交、广、宁数州，余皆瓯缺瓦解。这瓯缺瓦解的疆域形势，东晋南朝一直没有实质的改变。夫所谓祖宗疆土，尺寸不敢与人，既境地止画方隅，又讳言削弱，那么侨置就不失为解决问题的良好办法；又东晋南朝例不侨置十六国北朝新立的州郡县，借以表明对其政权的否定。北方政权对东晋南朝自恃正统、侨置州郡县的做法，则极为反感。《魏书·韩显宗传》：

显宗上言：自南伪相承，窃有淮北，欲擅中华之称，且以招诱边民，故侨置中州郡县。自皇风南被，仍而不改。凡有重名，其数甚众。疑惑书记，错乱区宇，非所谓疆域物土，必也正名之谓也。

由韩显宗之言，东晋南朝借侨州郡县表达正统观念的政治意图可谓一目了然。<sup>⑥</sup>又北方政权所

<sup>①</sup> 《晋书·刘元海载记》。

<sup>②</sup> 《晋书·赫连勃勃载记》。

<sup>③</sup> 《资治通鉴》卷六九黄初二年“臣光曰”：“宋、魏以降，南、北分治，各有国史，互相排黜，南谓北为索虏，北谓南为岛夷。”又魏收所撰《魏书》，目东晋为僭晋，以司马睿与李雄并列。

<sup>④</sup> 《晋书·姚弋仲载记》。

<sup>⑤</sup> 《晋书·苻坚载记附王猛传》。

<sup>⑥</sup> 所谓“自南伪相承，窃有淮北，欲擅中华之称”云云，反过来又显示了北魏的正统意识。按北魏以正统自居者，一则强调鲜卑是“黄帝少子昌意之后”，这是民族上的理由；二则立都洛阳，居于中土，这是地理上的理由；三则北魏接受并发扬了传统文化，这是文化上的理由。在这三条理由中，民族理由是扯不清的一笔糊涂账；地理理由显得十分充足，以致北魏敢理直气壮地斥南朝为“南伪”；文化理由起初虽然薄弱，而当孝文帝厉行汉化后，北魏传统文化的发展确已达到了相当的程度，梁朝北伐名将陈庆之就心悦诚服地说过这样的话：“自晋宋以来，号洛阳为荒土；此中谓长江以北尽是夷狄。昨至洛阳，始知衣冠士族并在中原，礼仪富盛，人物殷阜，目所不识，口不能传。所谓帝京翼翼，四方之则，如登泰山者卑培塿，涉江海者小湘沅，北人安可不重！北朝当然就更以正统自居，如杨元慎言于陈庆之曰：“江左假息，僻居一隅。……我魏膺篆受图，……移风易俗之典，与五帝而并迹，礼乐宪章之盛，凌百王而独高。”（《洛阳伽蓝记》卷二“景宁寺”）

以反感东晋南朝“侨置中州郡县”还有其它原因。

侨置沦陷区域的州郡县，不仅是对故土的一种怀念，更重要的是，它还表明了规复失地的决心。考南宋建炎四年（1130），汪藻建言“用六朝侨寓法，分浙西诸县，皆以两河州郡名之”<sup>①</sup>；绍兴八年（1138），李谊也奏称“于淮南、荆襄，侨建西北州郡，分处归正之民”<sup>②</sup>。然而终不见施行者，疑与紧接着的宋金关系之演变有关。先是南宋初年，君臣尚思恢复。及绍兴十一年宋金和议，东以淮河、西以大散关为界，宋向金称臣，每年贡纳银、绢各 25 万两、匹；次年春，金主完颜亶册立宋高宗赵构为宋帝。宋既称臣于金，如果侨置淮河、大散关以北州县，意存规复，必为金廷所不容，所以南宋断不敢侨置已在金国境内的北宋故地州县。由此也可以看出侨置与政治地位及疆域形势的关系。

在东晋南朝统治者看来，十六国北朝虽肇基建国，帝制自为，实不过紫色蛙声、余分闰位而已。神州陆沉，已愧对列祖列宗；侨置州郡县，则既可以虚名自慰一番正统观念，又表示不忘故土，恢复有望。侨置从一时权宜之计发展为经久之制，与此可谓密切相关。

然则总结本节以上的讨论，我们可以明了的一个基本事实是：起码对于东晋南朝与北朝后期言，原州郡县的沦没与侨州郡县的设置是一对因果关系，即疆域的丧失是侨置政区出现的前提，而这种情况，与本文开篇说明的设立正式政区的地域即为基本疆域范围的判断，恰好相反。如此，侨州郡县的认定与考证，疆域变动特别是疆域沦陷的整体把握与细节探讨，两者之间实为彼此助益、相得益彰的关系。

#### IV.附论：关于遥领与虚封

一般来说，侨州郡县的认定并不困难，只要在沦陷的疆域范围内，找到对应的原州郡县，便大体可以判断。当然，由于史籍记载的简略或疆域变动的不甚清楚，也有细节难明者。此举与侨州郡县渊源的追溯有关的一例。

《汉书·地理志》有玄菟郡，“武帝元封三年开”，领高句骊、西盖马、上殷台三县；《续汉书·郡国志》玄菟郡则领高句骊、西盖马、上殷台以及“故属辽东”的高显、候城、辽阳凡六县。从表面上看，仍称西汉“武帝置”的《续汉志》玄菟郡是《汉志》玄菟郡的扩大，其实不然，两者在地域上根本不同。简言之，原处辽东塞外的《汉志》玄菟郡，因受逐渐强盛起来的高句骊族的威胁，西迁至辽东郡境内，高句骊、西盖马、上殷台三县也随之内迁；及“安帝即位之年，分三县来属”。<sup>③</sup>按分“故属辽东”的高显等三县来属之前即东汉安帝即位（107）之前，玄菟郡及所领高句骊、西盖马、上殷台三县应该是失土寄寓在辽东郡境内的，及分高显等三县来属，玄菟郡便是以辽东郡北部地作为自己的辖地，也就是有了实土。而无论是失土寄寓还是有了实土，此玄菟郡及所领高句骊、西盖马、上殷台三县，都与《汉志》玄菟郡及所领同名三县在地域上毫无关系，“是名副其实的侨置郡县了”，周振鹤先生甚至称此玄菟郡“事实上是我国最早的侨置郡”。<sup>④</sup>此玄菟郡是否“我国最早的侨置郡”，笔者不敢肯定，但周先生判断此玄菟郡是侨郡，应是没有疑义的。而依据这样的判断，东汉中期前后，今朝鲜清川江以北、狼林山脉以西、中国辽宁宽甸与清原一线以东，已不在东汉王朝疆域范围之内，而为跨鸭绿江立国的

<sup>①</sup> 《建炎以来系年要录》卷三三建炎四年五月乙巳。

<sup>②</sup> 《建炎以来系年要录》卷一一八绍兴八年三月戊申。

<sup>③</sup> 《续汉书·郡国志》玄菟郡刘昭注引《东观书》。“三县”谓高显、候城、辽阳。

<sup>④</sup> 周振鹤《西汉政区地理》下篇第五章第一节，人民出版社 1987 年版。

边地民族高句骊所控制。<sup>①</sup>

在东晋十六国南北朝时代，同样属于“虚化”的政区概念，同样与正统意识相联系，却较之侨州郡县难以判断，因而往往造成疆域误判之后果者，还有所谓的遥领与虚封。

在中国政治地理史上，遥领与虚封是一类时间延续颇长的特殊现象。<sup>②</sup>“遥领者，不入版图之地，而别于国内他处设刺史、郡守以辖之也。虚封者，则仅有封爵而无实土之谓也。”<sup>③</sup>通俗地说，把不属于本国（即本国政府不能行使行政权）的地方，算作自己的，于自己国内设置该地地方长官如州牧、刺史、太守、县令等名义，对其地行使象征性的统治，是为“遥领”；以事实上不属于本国的土地，作为本国王侯封爵的封土，是为“虚封”。虚封与遥领相同，也是象征性的统治。

遥领与虚封以三国时代最为盛行。<sup>④</sup>如黄龙元年（229）孙权称帝，孙吴、蜀汉结盟，约定“豫、青、徐、幽属吴，兖、冀、并、凉属蜀。其司州之土，以函谷关为界”<sup>⑤</sup>。此后，蜀汉有冀州刺史张翼，兖州刺史邓芝、宗预，并州刺史廖化，凉州刺史魏延、姜维，孙吴有青州牧朱桓，豫州牧诸葛瑾、陆凯，徐州牧全琮、贺齐、丁奉，幽州牧孙韶。然而上述各州实属曹魏所有，蜀汉、孙吴固不得稍加染指。又曹魏也有遥领的益州刺史杨阜、黄权，扬州牧曹休，丹阳太守蒋济，等等。至于虚封，曹魏的吴王曹彪、阆中侯张鲁、浚阳子司马珪，蜀汉的鲁王刘永、梁王刘理、北地王刘谡、上党王刘虔、陈仓侯马岱、济阳侯吴壹，孙吴的南阳王孙和、齐王孙奋、琅邪王孙休、鲁王孙霸、高密侯滕胤、外黄侯濮阳兴，这些王国与侯国都是虚封。

三国尤其是蜀汉、孙吴的盛建遥领、广事虚封，形式上看是图其空名、虚张声势，而事实上，作为一种政治手段，遥领与虚封意在表明自己的正统地位及不弃是土的决心，这与东晋十六国南北朝的侨州郡县又是一致的。有所不同者，遥领与虚封并无寄治之所与原土之民，重在其象征意义；侨州郡县则除了表示正统与规复失地的决心外，还与失地之间具有一种天然的联系：安置或招徕原土之民。又与东晋十六国南北朝的侨州郡县一样，三国的遥领与虚封也是疆域与政区研究上极为麻烦的问题。如《三国志·蜀书·李恢传》云：“恢为庾隆都督、使持节、领交州刺史”，于是或以为蜀汉有交州。其实李恢领交州，“住平夷县”，平夷为益州牂柯郡属县，如果其时蜀汉果有交州，怎么会设治于益州牂柯郡？所以蜀汉虽有交州之名，交州实土却属孙吴。类似这种有名无土的情形，即因遥领或虚封所致。洪亮吉在《〈补三国疆域志〉序》中也说：“三国土壤既分，舆图复窄，州郡之号，类多遥领。吴有犍为之守，蜀存京兆之名。武都一郡，土归西国，而名列扶风；房陵一区，实隶当涂，而虚领益土。近而易混，骤每不详。”

具体到东晋十六国南北朝，在争夺或彰显正统的大背景下，也存在着遥领与虚封现象，而且较之三国时代更加复杂与多样，如粗作分类，就略有下面几种情况：

其一，遥领与虚封的对象是所谓“内臣”。这与三国时代是一致的，也可以认为是“正规”的遥领与虚封。如《资治通鉴》卷九七永和二年，后赵有凉州刺史麻秋，胡三省注：“赵使麻秋攻凉州，故授以刺史”，时凉州为前凉疆域，麻秋之凉州刺史显然为遥领；《资治通鉴》卷一一四义熙元年，南燕慕容超以慕容法为都督徐、兖、扬、南兖四州诸军事，洪亮吉《十六国疆域

<sup>①</sup>具体形势，参阅谭其骧主编《中国历史地图集》第二册，中国地图出版社1982年版。

<sup>②</sup>如近期余蔚发表《论辽代府州遥领制度》，《历史地理》第23辑，上海人民出版社2008年版。

<sup>③</sup>顾颉刚、史念海《中国疆域沿革史》第十三章第四节，商务印书馆1938年版。

<sup>④</sup>详胡阿祥《六朝疆域与政区研究》第五章第一节。

<sup>⑤</sup>《三国志·吴书·孙权传》。按此曹魏九州，蜀汉、孙吴既各占其四，曹魏首都所在的司州，则以函谷关为界，各取其半。

志》卷十三云：“案扬、南兖二州，《载记》及《南燕录》等并无可考，疑亦遥领也”；《魏书·游明根传》：“父幼，冯跋假广平太守”；《十六国疆域志》卷十四：“今考北燕无广平郡，盖遥领耳”；《陈书·始兴王叔陵传》：“太建元年，授都督江、郢、晋三州诸军事，江州刺史”；按太建五年陈朝始克晋州，故陈叔陵所督晋州实为遥领。<sup>①</sup>又梁朝封降梁的元魏宗室元树为魏郡王、邳王，元略为中山王，元贞为咸阳王，等等，皆为以北魏郡国为封号的虚封；北魏明元帝有六子分别被封为乐平王、安定王、乐安王、永昌王、建宁王、新兴王，其时乐平等六郡不在北魏疆域范围内，另外如交趾公、襄城公、武原侯、平舒侯之类，其爵名中的郡县也在北魏的辖境之外，所以也都是虚封。<sup>②</sup>

其二，遥领与虚封的对象是所谓“外臣”。<sup>③</sup>这种情况下，不仅遥领虚封的地域不在自己的实际疆域范围内，遥领虚封的对象也并非自己真正的臣下，所以称为虚授遥封也许更加妥当。如保守仇池一隅的氐酋杨难敌称藩于前赵刘曜，“曜大悦，署难敌为使持节、侍中、假黄钺、都督益宁南秦凉梁巴六州陇上西域诸军事、上大将军、益宁南秦三州牧、领护南氏校尉、宁羌中郎将、武都王”<sup>④</sup>，这里所涉的地域，大多不在前赵控制之下，而杨难敌之于刘曜，也最多勉强算个外臣。南朝宋、齐虚授河南王吐谷浑拾寅为都督西秦河沙三州诸军事、西秦河二州刺史<sup>⑤</sup>，情形与之仿佛。又东晋咸安二年正月，百济王遣使供方物，“六月，遣使拜百济王余句为镇东将军，领乐浪太守”<sup>⑥</sup>，当时远在东北的乐浪郡实为高句丽控制，东晋虚授百济王而已。再如“晋安帝义熙九年，高丽王高璉遣长史高翼奉表，献赭白马，晋以璉为使持节、都督营州诸军事、征东将军、高丽王、乐浪公。宋武帝践阼，加璉征东大将军，余官并如故。三年，加璉散骑常侍，增督平州诸军事。”<sup>⑦</sup>东晋、刘宋当然不曾拥有营、平二州，而当时的高句丽也不曾拥有营、平二州，如此，东晋、刘宋授予高句丽的都督诸军事，也是虚授。<sup>⑧</sup>

其三，实际有如遥领的情形。如某些地方虽然实在政权疆域范围内，但由于该地土著民族势力大或距离悬远，所任命的地方官员无法进入该地实施统治，这种实力不到彼处，实际也有如遥领。如《魏书·刘藻传》载，刘藻为秦州刺史时，“秦人恃险，率多粗暴，或拒课输，或害长吏，处前守宰，率皆依州遥领，不入郡县”；东晋南朝则如西南边疆的宁州，朝廷虽任命宁州刺史，却往往并不到任，宁州的实际统治者是以大姓爨氏为首的土著势力。<sup>⑨</sup>

按遥领与虚封所涉的州、郡、县，如上所述的其一与其二的情形，当然不能划归各该政权的疆域范围，这就如同与侨州郡县相对应的原州郡县所在地域，一般属于沦陷疆域一样；然而由于其时疆域的群雄云扰、分裂鼎峙，政区的省置交加、虚实相混，边境各族的领域变动、叛服无常，遥领虚封与实领实封之间往往难以分明，而这又在很大程度上增加了疆域变动与政区设置研究方面的纠缠舛错。诸如此类，非本文能够细说，容另文再作专题探讨。

<sup>①</sup> 详谭其骧《〈补陈疆域志〉校补》，收入所著《长水集》，人民出版社1987年版。

<sup>②</sup> 周振鹤《中华文化通志·地方行政制度志》第九章第一节，上海人民出版社1998年版。

<sup>③</sup> “外臣”是与直属皇帝的朝廷百官即所谓“内臣”相对而言的。中原王朝的皇帝对周边国家的君主乃至臣下或者部族首领进行册封，形成名义上的君臣关系，即所谓“外臣”。“外臣”往往是定期朝贡但却“不知朝事”。

<sup>④</sup> 《晋书·刘曜载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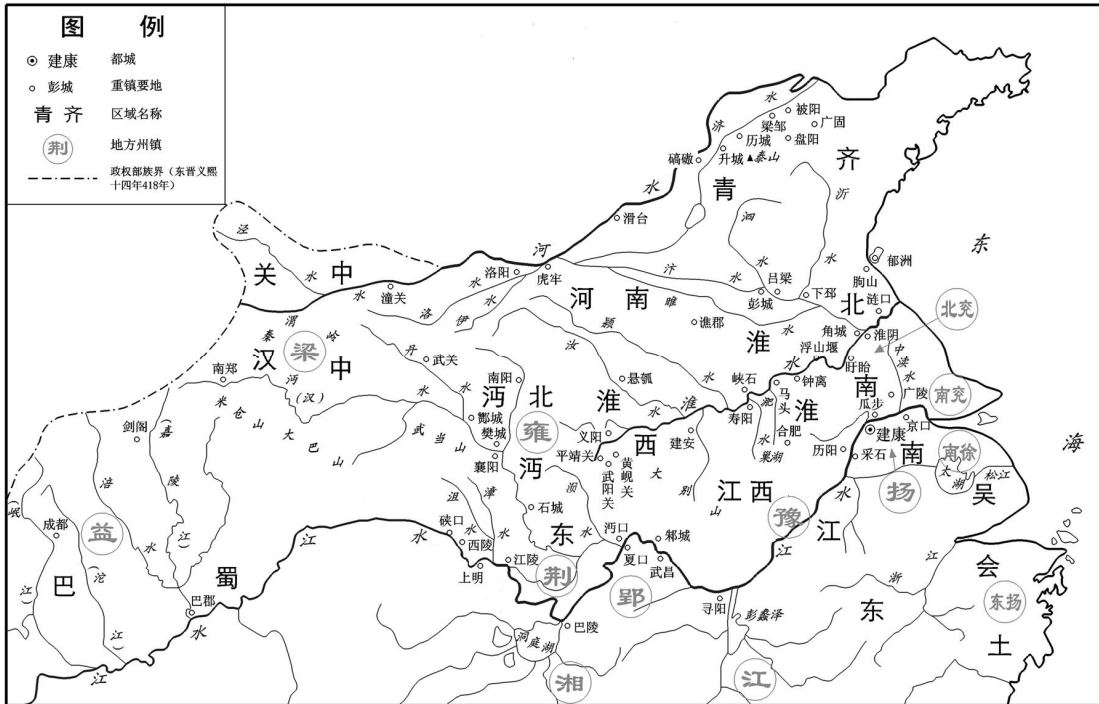
<sup>⑤</sup> 《南齐书·河南传》。

<sup>⑥</sup> 《晋书·简文帝纪》。

<sup>⑦</sup> 《南史·高句丽传》。

<sup>⑧</sup> 参考韩昇《论魏晋南北朝对高句丽的册封》，收入《地域社会与魏晋南北朝研究学术研讨会论文集·讨论提纲》，中山大学历史系，2008年。

<sup>⑨</sup> 据现存于云南陆良的《爨龙颜碑》（大明二年），龙颜及其祖、父三代并任建宁、晋宁二郡太守，宁州刺史；又《爨宝子碑》载宝子（东晋后期人）曾任建宁太守。然而上述这些显赫官职都不见于《晋书》、《宋书》的记载，则爨氏官职乃自相袭代，非经朝廷任命，即爨氏掌握宁州实权，刺史则朝廷另外任命。但爨氏仍奉朝廷正朔，并一直没有公开打出自己的旗号称王割据。



附图：东晋南朝疆域形势



-1-

본 논문은 魏晉南北朝時代 五胡諸國·北朝와 東晉·南朝의 영토 변화와 영토 상실로 인해 야기된 지방행정상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僑州郡縣·遙領·虛封 등 정상적인 통일 왕조에서 보기 어려운 특이한 예들을 설명하였다. 특히 발표자는 僑州郡縣을 각 왕조의 정 통관념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매우 설득력이 높고 참신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전문적인 역사지리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하기 어렵고 지루한 지명의 나열은 청중들에게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대한 요약은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과 보완점을 지적하여 토론자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한다.

-2-

질문에 앞서 필자가 느낀 점을 몇 가지 적어보았다.

1. 3장에 해당하는 10쪽에 실린 표는 劉宋이 北魏에게 淮北을 빼앗긴 후 淮北에 있던 郡縣을 淮南으로 옮긴 僑郡이 있었음을 제시한 것인데, 왼쪽의 '原郡' 가운데 僑縣을 거느린 郡들이 보인다. 예컨대 표 왼쪽의 '原郡' 가운데 汝南郡 속현으로 표기된 安陽縣은 西晉時代 魏郡의 屬縣이었다(이상 『晉書』 「地理志」를 기준으로 삼음). 譙郡의 屬縣인 長垣縣은 西晉時代 陳留國의 屬縣이었고, 魏縣은 魏郡의 屬縣이었다. 또 陳郡의 項城과 長平縣은 본래 梁國의 屬縣이었다. 汝陰郡의 樓煩縣은 前漢時代 鴈門郡의 屬縣이었다. 陳留郡의 白馬縣은 濮陽國의 屬縣이었다. 이상으로 언급한 縣들과 '原郡'은 西晉時代 다른 행정구역에 속했다. 따라서 '原郡' 가운데 汝南郡, 譙郡, 陳郡, 汝陰郡, 陳留郡은 僑縣을 거느린 郡이며, 郡의 위치를 보면 潁川郡과 陳留郡은 원래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상태이므로 僑郡이었다. 따라서 淮北에 있던 僑郡(및 일부 實郡)과 僑縣을 淮南으로 옮긴 것인데, 발표자가 제시한 전형적인 예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2. 3장 11쪽에서 발표자는 五胡十六國北朝時代에 정통문제와 관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僑州郡縣이 적었다고 주장하였다.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北魏가 獻文帝 시기에 劉宋으로부터 빼앗은 靑齊지역(현재의 山東省) 일대에는 冀州와 并州라는 僑州와 이에 속하는 僑郡縣이 존재하였다. 16쪽에 있는 지도를 보아도 발표자는 靑齊 지역의 僑州郡縣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3. 발표자는 3장 11쪽에서 北魏가 지배하지 않은 東晉南朝의 荊州·揚州·湘州·江州에 해당하는 지명인 北揚州·北江州·三荊(東荊州·北荊州·南荊州)·湘州·郢州 등의 虛名을 北魏 영토 안에 설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宋書』 「索虜傳」을 보면 北魏前期에 北魏에서는 北魏의 刺史 가운데 交州刺史(普幾), 揚州刺史(達奚斤), 廣州刺史(公孫表), 荊州刺史(魯軌)의 존재가 보인다. 여기에서 언급된 交州·揚州·廣州·荊州는 北魏의 영토가 아니었다. 본 발표문에서 위의 사례들을 누락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北魏와 관련하여 반드시 삽입해야 하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4. 11-12쪽에서 東魏가 西魏의 영토에 해당하는 州를 설치했다고 하였는데, 南營州·恒州·安州·朔州·雲州는 본래 東魏 영토에 속했던 州였으므로 예로 적절하지 않다.

5. 발표자는 遙領의 대표적인 예로 三國時代 229년 孫權이 稱帝하며 豫州·靑州·徐州·幽州는 吳, 兗州·冀州·并州·涼州는 蜀에 속하게 했던 예들을 단순히 제시하였다. 토론자의 학부졸업논문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吳와 蜀이 魏의 땅을 분할한 것은 단순한 遙領이 아니라 복수의 皇帝가 존재하며 하나의 天下를 둘로 中分하는 ‘일그러진 天下觀’의 예로 파악하였다.<sup>1)</sup> 발표자는 그 근거로 吳와 蜀에서 임명한 刺史(遙領)나 列侯의 封號(虛封)에 포함된 州郡縣名이 吳의 경우 豫州·靑州·徐州·幽州에, 蜀의 경우 兗州·冀州·并州·涼州에 속한다는 예를 제시하였다. 周振鶴 역시 필자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sup>2)</sup> 본 발표문에서는 필자의 글은 논외로 하더라도 周振鶴의 견해를 언급하지 않고 遙領의 예만 단순 나열하는데 그쳤다.

6. 游明根의 아버지가 廣平太守에 假授된 예를 遙領으로 보았는데, 游明根 가문의 본적이 廣平郡 任縣이었으므로,<sup>3)</sup> 游幼의 예는 遙領보다 本郡太守(본적지의 太守), 즉 僑郡의 예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7. 虛封은 발표자가 지적한 의미 이외에 爵號(封號)가 주어졌는데 실제 食邑 혹은 封國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기도 하며, 이 경우 반대말은 實封 혹은 食實封이다. 北魏時代에는 北魏가 지배하지 않은 郡縣名을 딴 封號를 주었다는 저자의 지적은 사실이다. 이와 아울러 孝文帝의 爵制 개혁 이전에는 北魏 영토안의 郡縣名을 취한 封號에도 실제로 食邑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다수설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北魏時代 虛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첫 번째 의미로 사용한다고 밝혔어야 독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는다.

-3-

1. 4-5쪽의 표에서 東晉·南朝와 상반되는 五胡諸國과 北朝, 기타 할거정권의 명칭과 지배 지역을 나열하였는데, 後蜀(405-413)이 언급되어 있다. 아마도 後蜀은 益州에서 할거하며 10여년 명맥을 유지했던 토착인 정권인 ‘譙縱정권’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sup>4)</sup>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지 않은가? 오른쪽 부분에 실린 국가나 정권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표에는 ‘五胡十六國’에 속하지 않는 冉魏(後趙가 망한 후 漢人 冉閔이 세웠던 나라이며, 前燕에게 망함)와 西燕, 代(훗날의 北魏)도 실려 있는데, 그렇다면 仇池氏가 세운 ‘仇池’도 언급되어야 하는데 표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2. 8쪽에서 ‘北齊的下都晉陽’이라고 표현하였는데, ‘下都’의 의미는 무엇인가? 北齊의 ‘실질

1) 『三國時代 天下觀念과 그 현실적 변용-遙領·虛封·‘四方’將軍의 수용을 중심으로-』, 『서울大東洋史學科論集』 23, 1999.  
 2) 周振鶴,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上海人民出版社, 2005, 263-264쪽.  
 3) 『魏書』 卷55 游明根傳, p.1213, “游明根, 字志遠, 廣平任人也. ... 父幼, 馮跋假廣平太守. 和龍平, 明根乃得歸鄉里.”  
 4) 巴蜀지역은 前漢末 公孫遂 정권이래 외지인들이 나라 혹은 정권을 세웠는데, ‘譙縱정권’은 거의 유일한 토착인 정권이었다(崔珍烈, 『後漢末·魏晉時期 僑人政權과 巴蜀社會』, 『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 25집, 2001 참조).

적인 수도'는 鄴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지만, 실제로 北齊 皇帝들이 오래 거주한 곳은 晉陽이었으므로 晉陽을 실질적인 수도로 봐야 한다는 견해,<sup>5)</sup> 并州(太原)와 鄴에 설치된 尙書省을 각각 并省과 鄴省으로 부르며, 양자가 모두 北齊時代의 首都였으며, 특히 전자가 더 중시되었다는 견해,<sup>6)</sup> 혹은 東魏시기 高歡부자의 霸府였던 并州大行臺가 北齊건국 후 [并]省이 설치되면서 陪都가 되었다는 견해<sup>7)</sup>가 존재한다. 발표자가 '下都'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은 세 번째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인가?

3. 발표자는 3장 11쪽에 洪亮吉의 『十六國疆域志』를 인용하며 五胡十六國時代에 정통관념을 호도하기 위해 揚州와 荊州처럼 虛設한 遙領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天下=九州로 등치하려면 몇 개의 州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禹貢九州 혹은 漢代 이후 12주(혹은 13주)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 州名만을 두었다(예컨대 夏에서는 자신이 지배하지 않은 州名 가운데 幽州만을, 後秦에서는 豫州·冀州·并州·荊州·兗州·徐州만을 취함). 이를 정통관념과관련짓기 어렵지 않을까? 혹은 9주나 12주가 아닌 몇 개의 州名만 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4. 발표자는 僑州郡縣의 시초로 玄菟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周振鶴의 『中國地方行政制度史』에서도 동일한 견해를 취하였다. 이밖에도 『宋書』卷48「傅弘之傳」에 의하면 北地郡의 傅氏는 靈州縣이 본적인 傅氏는 漢末에 靈州縣이 廢置되고 北地郡이 馮翊郡에 寄治하게 되면서 泥陽·富平 2縣으로 僑置되자 泥陽縣으로 본적을 바꾸었다가 西晉武帝 太康 3년 靈州縣을 설치하자 본적을 靈州縣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傅祗가 본적지 縣[本縣]인 靈州公에 봉해지자, 本縣에 봉해지길 원하지 않아 傅祗일문의 본적을 泥陽縣으로 바꾸었다(『宋書』卷48 傅弘之傳, p.1430, “傅弘之字仲度, 北地泥陽人. 傅氏舊屬靈州, 漢末郡境爲虜所侵, 失土寄寓馮翊, 置泥陽·富平二縣, 靈州廢不立, 故傅氏悉屬泥陽. 晉武帝太康三年, 復立靈州縣, 傅氏還屬靈州. 弘之高祖晉司徒祗, 後封靈州公, 不欲封本縣, 故祗一門還復泥陽.”). 이 예가 오히려 僑郡縣에 적합한 사료인 것 같은데 발표자와 周振鶴 두 사람 모두 이 사료를 간과하였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5. 발표자는 東晉 安帝와 劉宋 武帝가 高句麗의 長壽王에게 각각 都督營州諸軍事와 督平州諸軍事라는 칭호를 준 것을 遙領의 예로 보았다. 그런데 前燕의 慕容皝이 高句麗의 故國原王(釗)에게 都督營州諸軍事 營州刺史의 칭호를 준 예는 왜 생략했는가? 또 營州와 平州는 高句麗의 국경선에 인접한 州인데, 이는 遙領의 예로 부적합하지 않은가? 혹은 일부 제야사학자들의 주장처럼 高句麗의 영토였기 때문에 都督과 刺史의 칭호를 주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

6. 발표자는 遙領의 세 번째 유형으로 『魏書』「劉藻傳」에서 秦州의 太守와 縣令들이 秦州 사람들의 횡포를 두려워하여 임지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寄治했던 예를 들었다. 韓國古代史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高句麗가 後漢의 西安平을 공격하여 帶方

5)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胡漢葛藤과 二重構造—」, 『分裂과 統合—中國中世의 諸相—』(지식산업사), 1998

6) 嚴耀中, 『北齊政治與尙書并省』, 『上海師範大學學報(哲社版)』 1990-4, 1990, pp.38左-44右.

7) 嚴耕望,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上編中卷, p.811.

습을 살해하고 樂浪太守의 처자를 사로잡았다는 예이다.<sup>8)</sup> 樂浪太守와 帶方令이 임지가 아닌 西安平에 머물렀던 것도 발표자가 제기한 세 번째 유형의 遙領 혹은 寄治의 예로 볼 수 있는가?

---

8) 『後漢書』 卷85 高句驪傳, 2815, “質·桓之間, 復犯遼東西安平,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一

魏晋南北朝时期，由于五胡诸国、北朝以及东晋、南朝的领土变化和领土的丧失，使得地方行政处于紊乱的状态，因此出现了侨州郡县，遥领，虚封等一些在统一王朝中难以看到的特例。这篇论文就是对侨州郡县这一特殊的事例进行的阐释，特别是作者将侨州郡县和各王朝的正统观相结合加以说明，视角新颖，具有较强的说服力。由于此论文需要历史地理方面的知识，因此对于文章主要内容的概括略显困难。另外考虑到繁琐地名的罗列有可能使听众们兴趣大减。在此，本人就略去内容提要部分，主要针对文章中存在的几个问题 and 有待补充的地方，提出一些自己的建议。

二

在提问之前，本人想说明几点自己的看法。

1. 第三章的第十页所载表格中罗列出了北魏将刘宋淮北之地抢走之后，淮北的郡县中有向淮南迁移的侨郡。在左侧的‘原郡’中，可以看到带有侨县的一些郡。例如，表左侧的‘原郡’中被标为汝南郡属县的安阳县，在西晋时期是魏郡的属县（参见《魏书》·〈地理志〉）。谯郡的属县长垣县在西晋时期是陈留国的属县。魏县是魏郡的属县。另外，陈郡的项城和长平县原来是梁国的属县。汝阴郡的楼烦县西汉时期是鴈门郡的属县。陈留郡白马县是濮阳国的属县。以上提及的县和‘原郡’在西晋时期属于别的行政区域。因此，“原郡”中的汝南郡、谯郡、陈郡、汝阴郡、陈留郡是带有侨县的郡。从郡的位置上来看，颍川郡和陈留郡是从原来的地区向南移而形成的侨郡。因此，淮北的侨郡（及一部分实郡）和侨县向淮南移动的情况，很难看到发表者提出的典型事例。

2. 第三章第十一页中发表者认为在五胡十六国北朝时期，与正统问题有关的，真正意义上的侨州郡县很少。虽然此话有些含糊，但是从某种层面来看似乎可以成立。然而献文帝时期北魏从刘宋手中夺取的青齐地区（现在的山东省），就存在着冀州和并州的侨州，以及其属下的侨郡县。对于青齐地区存在的侨州郡县的问题，发表者在文章第 16 页的地图中也并未提及。

3. 发表者在第三章第十一页中指出北魏对不属于其统治范围的东晋、南朝的荆州、扬州、湘州、江州等地冠以了虚名，如北扬州、北江州、三荆（东荆州、北荆州、南荆州）、湘州、郢州等。然而据《宋书》·〈索虏传〉载，北魏前期，其刺史中有交州刺史（普几）、扬州刺史（达奚斤）、广州刺史（公孙表）、荆州刺史（鲁轨）。这里提到的交州、扬州、广州、荆州并不是北魏的领土。尽管不知道发表者为何将以上事例遗漏，然而讨论者认为这是与北魏相关，必需的资料。

4. 11 页至 12 页中提到东魏在西魏属地上设立了相关的州。因此，南营州、桓州、安州、朔州、云州原属东魏的说法是不恰当地。

5. 发表者仅指出了遥领中有代表性的例子，即三国 229 年，孙权称帝，豫州、青州、徐州、幽州属于吴国，衮州、冀州、并州、凉州属于蜀国。而本人的本科毕业论文就与此问题相关。

本人认为吴和蜀分割魏的土地，并非单纯仅是遥领问题，其应被看作是多个皇帝并存，天下被一分为二，由此而产生的“倾斜的天下观”的例证。发表者也正是以此为依托，指出吴、蜀所任命的刺史（遥领）或列侯的封号所包含的州郡县名中在吴有豫州、青州、徐州、幽州，在蜀有益州、冀州、并州、凉州。周振鹤也曾发表过与本人同样的见解。本人认为，在讨论这一问题时，发表者即便不提本人的论文，也应该言及周振鹤的主张。然而，此论文仅仅是对遥领的事例进行了罗列。

6.文章将游明根的父亲被假授为广平太守的事例归为遥领。然而从游明根家的本籍为广平郡任县来看，本人认为将游幼的事例归为本郡太守，即侨郡应该更恰当些。

7.对于虚封的意义，除发表者所说之外，亦指仅有爵号（封号），而并没有实际的食邑或封国。于此种情况相反的，是实封，或食实封。发表者关于北魏时期不在北魏管辖内的郡县名仅是给予封号的说法是与事实相符的。但与此同时，在孝文帝爵制改革以前，亦存在仅取得北魏所属土地的郡县名，而实际上并不领取食邑的情况。这已被多数学者所认同。因此，应该在文中明确指出，北魏时期的虚封含有两种意义，本文所采用的是其中第一种意义。只有这样才不至于使读者混淆。

### 三

1.四至五页表中，罗列了东晋，南朝，和与之相对立的五胡诸国，北朝，以及其他割据政权的名称和支配地区，其中提到了后蜀（405—413）。后蜀应该指的是割据益州十余年的土著政权“谯纵政权”。然而将其认定为“国家”是否有些困难？文章右侧中所载的国家或政权的选定标准是什么？表中还记载了不属于“五胡十六国”的冉魏（后赵灭亡后，由汉人冉闵所建的国家，被前燕所灭）和西燕，代（后来的北魏），那么也应该提到仇池氏建立的“仇池”，但表中为何将其遗漏？

2.第八页中提到“北齐的下都晋阳”，请问“下都”是何意？虽然北齐“真正的首都”是邺已成定论。但是另一种观点认为事实上北齐的皇帝们长期居住的地方是晋阳，因此应该把晋阳看作是其实际的首都。此外，还有一种观点认为在并州（太原）和邺设立的尚书省，分别称为并省和邺省，因此两者都是北齐的首都，特别是前者应该给予更高的重视。还有学者认为，东魏时期高欢夫子的霸府所在地并州大行台，在北齐建国后，即被设为并府，成为陪都。文中提到的“下都”是否是与发表者赞成第三种观点有关？

3.发表者在第三章第十一页中引用洪亮吉的《十六国疆域志》，指出五胡十六国时期，为了证明其正统，出现了扬州、荆州等虚设的遥领。然而这些国家若要将自己的领土与天下（九州）等同起来，不应仅设几个州，而应该将禹贡九州，或者汉代以后的十二州（或十三州）全部设立才对。但是一些国家仅是设置了其中的一部分州名（如夏在自身无法管辖的州名中仅取了幽州一名，后秦仅用了豫州、冀州、并州、荆州、益州、徐州）。在此将遥领与正统观相连是否有些困难？或者说，并非全部采用9州或12州，而仅是取其中几个州名的理由是什么？

4.发表者认为玄菟郡为侨州郡县的嚆矢。周振鹤的《中国地方行政制度史》中也取同一观点。此外据《宋书》（卷48）〈傅弘之传〉载，北地郡的傅氏，本籍为灵州县，汉末灵州县被

废，北地郡寄寓于冯翊郡，下设泥阳，富平两县。于是傅氏将本籍改为泥阳县。西晋武帝太康三年，再设灵州县后，则又将本籍改回灵州县。而后傅祗被封为灵州公，其不愿被封为本籍，因此傅祗又将其一门的本籍改为泥阳县。（《宋书》卷48〈傅弘之传〉，p.1430，“傅弘之字仲度，北地泥陽人。傅氏舊屬靈州，漢末郡境為虜所侵，失土寄寓馮翊，置泥陽·富平二縣，靈州廢不立，故傅氏悉屬泥陽。晉武帝太康三年，復立靈州縣，傅氏還屬靈州。弘之高祖晉司徒祗，後封靈州公，不欲封本縣，故祗一門還復泥陽。”）这一事例应该是与侨郡县相关的史料，但是发表者和周振鹤两位都将这一史料忽略，其中是否有特殊的原因？

5.东晋安帝和刘宋武帝分别给予高句丽长寿王都督营州诸军事和督平州诸军事的称号，发表者将其看作是遥领的事例。那么为何将前燕慕容皝给予高句丽故国原王（钊）都督营州诸军事营州刺史称号的一事省略呢？再者，营州和平州是与高句丽国境线接壤的州，将其作为遥领是否合适？或者如一部分非主流学者所说，是高句丽的领土，因此把它解释为给予都督和刺史的称号，将没有回旋的余地？

6.发表者阐释遥领的第三种类型时，举了《魏书》的〈刘藻传〉中的事例。泰州的太守和县令畏于泰州百姓的横行不法，不敢去其任地管制，只得在其他地方寄治。在韩国古代历史难以阐述的章句中有这样一条，说的是高句丽攻击后汉的西安平，杀害了带方令，并生擒了乐浪太守的妻子，乐浪太守和带方令逗留在非任地的西安平。那么是否可以将这一事例视为发表者提出的遥领或寄治的第三种类型呢？



# 中國 南朝 국가의 境界와 영역 - ‘蠻越’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鄭勉

- I. 서론
- II. 南朝 국가의 남방 경계
  - 1. 寧州와 西爨
  - 2. 交州와 林邑
- III. ‘蠻越’의 분포와 남조국가의 영역
  - 1. 남북조시기 ‘蠻’의 분포
  - 2. 남북조시기 ‘獠’의 분포
  - 3. 남북조시기 ‘俚(越)’의 분포
- IV. 南朝 國家 영역의 특성 - 결론에 대신하여

## I. 서론

이 글은 ‘고중세 동아시아의 경계와 영역 문제’라는 본 학술대회의 주제에 맞추어 남북조 시기 남조 국가들의 경계와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준비되었다. 경계 문제라고 하면 北朝 국가들과의 경계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는 다른 발표에서 다루어지는 까닭에 이 글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이 글에서는 南朝 국가들의 남방 경계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蠻越’의 분포와 그 분포가 가지는 의미를 남조 국가의 영역과 연관 지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경계와 영역 문제를 다룰 때는 미리 전제해 두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 보인다. 역대 중국 왕조 국가의 지배 영역과 역사적 ‘中國’ 개념의 공간적 범주가 언제나 일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sup>1)</sup> 따라서 역사적 ‘중국’의 경계와 영역을 다루는 문제와 역대 국가의 경계와 영역을 다루는 일이 완전히 별개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양자의 관계를 따져서 그 경계와 영역이 갖는 성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제목이 한정하고 있는 대로 우선 남북조 시기 ‘국가’의 경계와 영역 문제만 살펴볼 예정이다.

또 주지하듯이, 전통시대 국가의 영역과 경계를 다루는 일은 오늘날 국가의 그것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특히 황제국가였던 중국의 국가들은 더욱 그러하다. 황제는 이념상 천하 유일의 최고 군주이자 일원적 지배자이기 때문에 황제국가의 경계는 세상의 끝일 수밖에 없

1) 지속적으로 역사적 ‘中國’ 개념을 역사공동체로 파악하여 온 김한규(『天下國家-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서울: 소나무, 2005)나 ‘중국’ 개념이 국가개념과 일치하는 현재의 ‘중국’ 개념을 전제하고 ‘중국’사를 현재의 ‘중국’이 완성되어 가는 역사로 파악하는 葛劍雄(『歷史上的中國-中國疆域的變遷』, 上海: 上海錦繡文章出版社, 2007)이나 모두 역사 시기 국가의 영역과 역사적 ‘중국’ 개념의 공간적 범주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양자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그 괴리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과 ‘괴리’가 있어서, 천하의 황제 국가 안에는 여러 층위의 경계가 존재하게 되었으며,<sup>2)</sup> 황제의 지배 영역 또한 천하를 다 채우지는 못 하였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전통시대 국가의 영역에 대한 탐구는 복잡한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sup>3)</sup> 황제의 지배도 일원적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다층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어느 층위의 지배 범위까지 황제국가 영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군현적 지배를 일차적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蠻越’은 ‘蠻’과 ‘越’의 합성어로서 長江(揚子江) 이남 지역 非漢族 토착민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sup>4)</sup> 여기에는 남북조 시기 이후 협의의 ‘남만’ 개념에 잘 들어맞는 荊州蠻과 雍州蠻, 그리고 사천지역의 獠人과 영남지역의 俚人이 포함된다. 그리고 후한말 이후 위진 시기를 거쳐 대부분 ‘漢化’된 것으로 주장되는 강동의 ‘山越’까지 두고 보면 장강 이남의 대부분 지역은 본디 만월의 땅이었다. 주지하듯이, 이른바 강남개발은 삼국시대에 시작되었지만, 강남 지역의 ‘中國化’ 혹은 ‘漢化’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宋代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남조 국가의 영역을 논하면서 先住民인 이들 ‘蠻越’ 집단과의 관계를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 글에서는 우선 남조 국가들의 남쪽 경계에 관하여 짚어 볼 것이다. 남조국가의 군현적 지배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먼저 서남쪽 변계에 해당하는 寧州의 군현 설치 현황과 지배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어 남쪽 변계에 해당하는 交州의 그것을 확인할 것이다. 특히 寧州의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南中’ 지역에 대한 지배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일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남조 국가들의 북방 경계와 남방 경계 사이의 영역 내에 존재하였던 ‘蠻越’ 종족 집단들의 분포와 이에 대한 남조 국가의 지배 혹은 대응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남조 국가의 경계와 영역 형성 과정이 가지는 특성과 그 역사적 의미를 추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II. 南朝 국가의 남방 경계

이 장에서는 南朝 국가의 남방 경계를 살피고자 한다. 우선 郡縣的 경계를 검토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군현은 皇帝의 지배가 직접적으로 미쳐야 하는 곳이고, 군현이 설치된 곳은 일단 황제 국가 영역이라 간주해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조 국가의 군현적 남방 경계는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남방에 설치된 寧州 방면과 남방에 설치된 交州 방면이다. 황제 국가의 군현적 판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자료는 역시 중

2) 이성규는 이를 ‘내경’과 ‘외경’이라 표현한 바 있다(이성규, 「중화제국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역사학보』186, 2005).

3) 갈검웅은 ‘疆域’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국 고대의 ‘강역’이 가지는 함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1부류는 정식의 행정구역, 제2부류는 한대 서남방의 ‘初郡’과 같은 특수행정구, 제3부류는 군대가 주둔하여 둔전하는 지역, 제4부류는 민족 혹은 지방 자치지구, 제5부류는 실제로 통치하는 구역 이렇게 5가지 경우는 모두 중국의 ‘강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葛劍雄, 『歷史上的中國 - 中國疆域的變遷』, 上海: 錦綉文章出版社, 2007). ‘中國’을 현재의 중국으로 보고 ‘중국’의 역사를 이 현대적 중국의 형성과정으로 이해 하려는 중국 국가의 ‘國史’의 입장으로 이해되지만, 몇몇 부분 특히 제 4부류의 경우 지나친 현재적 관점이 과거의 역사적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물론 현대 중국의 이른바 ‘民族關係史’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특히 그렇지 않았으면 漢族 중심의 역사 속에 매몰되었을 ‘소수민족’의 역사를 끊임없이 발굴하려 노력해온 점은 높이 살만하다.

4) 김한규는 “양자강 이남인 강남과 오령 이남, 즉 영남 지역에는 북방의 중국과는 구별된, 만, 혹은 월이라 불린 별개의 역사 공동체가 오랜 기간 존속했다”라고 적었다(천하국가, p.728).

국 정사의 지리지(혹은 군국지, 주군지)일 것이다. 남조 국가들의 정사 중에는 『宋書』와 『南齊書』 「州郡志」가 남아있다. 이를 중심으로 영주와 교주에 설치된 군현의 현황과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황제국가의 직접적 지배의 남방 경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sup>5)</sup>

### 1. 寧州와 ‘西爨’

다음의 두 기사는 『宋書』와 『南齊書』에 실린 「州郡志」의 영주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다.

㉑-1. 寧州刺史는 晉武帝泰始 7年(271)에 益州南中の 建寧·興古·雲南·永昌 4군을 나누어 세웠다. 太康 3年(282)에 폐지하고, 南夷校尉를 세웠다. 惠帝太安 2年(303)에 영주를 다시 설치하고, 牂牁·越嶲·朱提 3郡을 늘렸다. 成帝咸康 4年(338)에 牂牁·夜郎·朱提·越嶲 4郡을 나누어 安州를 만들었다가, 얼마지 않아 罷하고 寧州에 합쳤다. 越嶲는 나중에 益州로 환속하였다. 지금은 통령하는 郡이 15, 縣이 81이다. 戶는 10,253이다. 京都와의 거리는 13,300리이다(『宋書』卷38 「州郡」4 寧州, p.1182).<sup>6)</sup>

㉑-2. 寧州는 建寧郡에 治所를 두는데, 본디 益州의 南中이며 諸葛亮이 不毛의 땅이라 한 곳이다. 길이가 멀고 땅이 척박하며, 蠻夷가 많고 齊民이 적다. 諸爨과 氐의 強族들이 먼 것을 믿고 제멋대로 하는 까닭에, 여러 차례 土反의 우려가 있었다.<sup>7)</sup>

㉑-1 기사에 따르면 271년에 익주의 3군과 교주의 1군을 떼어 4군 45현의 규모로 설치되었던<sup>8)</sup> 寧州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宋書』 「州郡志」가 대표하는 시기에는 15군 81(77)현의 규모로 성장하여 그 군현적 지배가 확대되고 조밀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㉑-2 기사는 당장 이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 『南齊書』 「州郡志」는 ㉑-2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有名無民’의 郡을 더하여 30개의 군명과 95개의 현명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남제서』의 기록은 군현의 수가 지배의 밀도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㉑-1 기사에 보이는 영주의 전체 戶數는 이러한 현상이 남제 시기의 일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송대 영주의 호수는 서진대의 83,000호에 비하여 약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의 표들은 『晉書』 「地理志」와 『宋書』 「州郡志」의 군별 1현당 평균 호수를 보여준다.

《표 - 1》 서진대와 유송대 영주의 현수와 호수

西晉	縣數	戶數	호수/현수	280년대
雲南郡	9	9,200	1,022	
興古郡	11	6,200	564	

5) 그리고 마땅히 이 군현적 지배의 바깥에 존재하였던 황제와 책봉과 조공을 교환한 군주의 국가나 종족들의 범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세계에서 황제로부터의 책봉을 받아들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경계는 분명 역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바깥에 존재했던 국가 및 종족들과 남조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6) 寧州刺史, 晉武帝泰始七年分益州南中之建寧·興古·雲南·永昌四郡立. 太康三年省, 立南夷校尉. 惠帝太安二年復立, 增牂牁·越嶲·朱提三郡. 成帝咸康四年, 分牂牁·夜郎·朱提·越嶲四郡為安州, 尋罷并寧州. 越嶲後還益州. 今領郡十五, 縣八十一. 戶一萬二千五百三十三. 去京都一萬三千三百. (『宋書』卷38 「州郡」4 寧州, p.1182)

7) 寧州, 鎮建寧郡, 本益州南中, 諸葛亮所謂不毛之地也. 道遠土瘠, 蠻夷衆多, 齊民甚少, 諸爨氐彊族, 恃遠擅命, 故數有土反之虞(『南齊書』卷15 「州郡」下 寧州, p. 303).

8) 寧州. 於漢魏為益州之域. 泰始七年, 武帝以益州地廣, 分益州之建寧·興古·雲南·交州之永昌, 合四郡為寧州, 統縣四十五, 戶八萬三千. (『晉書』卷14 「地理」上 寧州, p. 440)

建寧郡	17	29,000	1,706	
永昌郡	8	38,000	4,750	
牂牁郡	8	1,200	150	
합계	53	83,600	1,577	
劉宋	縣數	戶數	호수/현수	464년
建寧郡	13	2,562	197	
晉寧郡	7	637	91	
牂牁郡	6	1,970	328	
平蠻郡	2	245	123	
夜郎郡	4	288	72	
朱提郡	5	1,010	202	
南廣郡	4	440	110	
建都郡	6	107	18	
西平郡	5	176	35	
西河陽郡	3	369	123	
東河陽郡	2	152	76	
雲南郡	5	381	76	
興寧郡	2	753	377	
興古郡	6	386	64	
梁水郡	7	431	62	
합계	77(81)	9,907	129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건대, 劉宋代 寧州의 군현 통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남조 정사에 영주의 군들이나 군태수가 본업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영주자사의 경우도 《표-2》에서 보듯이, 남조시기 내내 영주자사가 임명되었지만, 전시기를 통틀어 영주에 실제로 부임한 경우는 梁代의 徐文盛 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부임 기간도 수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서문성의 이탈 이후 영주는 토착 수령인 爨瓚의 손에 떨어졌다. 게다가 劉宋代에 속하는 458년에 세워진 소위 「爨龍顏碑」는 당시의 영주가 寧州刺史와 龍驤將軍 鎮蠻校尉를 ‘自稱’한 南中の 大姓 爨氏 가문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음을 전해주고 있다.<sup>9)</sup> 다시 말해서 남조의 송조는 영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宋書』 「州郡志」가 전하는 영주 15군과 군별 戶數는 劉宋代의 모습이라기보다는 東晉末의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정된다. 이는 「주군지」에서 영주내 모든 군현의 설치가 동진대에서 멈추어 있는 것으로도 방증된다.

그리고 다음의 기사들도 『송서』 「주군지」의 15군이 동진말의 시점을 나타냄을 방증하는 근거가 된다.

⑥-1. 王의 이름은 子華이고 字는 守忠이며, 그 先祖는 河東의 汾陰人이다. … 鍾會가 배반으로 죽고 鄧艾가 충성 때문에 죽는 데에 미쳐서, 12代祖 遐가 左遷하여 이 나라(是邦)에 이르렀다. 대대로 南夏에서 豪雄하여 가지가 번성하고 뿌리가 단단해지자, 14郡이 宗主로 삼았다. 마치 鱗爪가 자란 龜龍 같았고, 羽毛가 자란 麟鳳 같았다. 부뚜막(竈)이 오히려 구덩이(戶)를 따르듯 그 노래(歌)에 南音이 섞이듯이, 대체로 그 本性은 잊지 않았다.<sup>10)</sup>

9) 鄭勉, 「「爨龍顏碑」를 통해 본 5세기 雲南 ‘西爨’ 세력의 성격」, 『中國古中世史研究』 제18집, 2007. 참조.

10) 王名子華, 字守忠, 其先河東汾陰人也. … 洎鍾會叛死, 鄧艾忠殂, 十二代祖遐左遷是邦. 世豪南夏, 繁枝固本, 而一十四郡宗之, 若鱗爪之有龜龍, 羽毛之有麟鳳. 竈猶比戶, 歌雜南音, 蓋不忘本也(「爨守忠墓誌」, 『南中大姓與爨氏家族研究』, pp.181~2 ; 『文物』 2002-1, p.69 圖6).

㉑-2. 牂牁의 渠帥는 姓이 謝氏로 예부터 中國에 臣事하여, 대대로 本土의 牧守가 되었다. 隋末에 大亂이 일어나 마침내 끊어졌다. 大唐 貞觀中에 그 僭가 遣使하여 職貢을 닦았다. 勝兵·戰士가 數萬이었다. 이에 그 땅에 牂州를 두었다. 지금은 黔中郡의 羈縻州이다(『通典』卷187 邊防3 - 5051).<sup>11)</sup>

㉑-3. 咸和 8年(333)에, (寧州刺史 尹奉이) 끝내 李雄의 弟 壽에게 저서 사로잡혔다. 南中이 모두 李雄의 소유가 되었다. 오직 牂牁의 謝恕만이 李壽에게 투항하지 않아, 이수가 공파하였다. 이수가 떠나자, 끝내 다시 郡을 지켜 晉에 속하였다. 官이 撫夷中郎將·寧州刺史·冠軍將軍에 이르렀다(『南中志』6-257).<sup>12)</sup>

㉑-1은 「爨守忠墓志」의 일부이다. 찬수층은 唐 陳보 연간 羈縻州 南寧州의 刺史였던 爨歸王의 아들로 西爨國이 南詔에 의해 멸망한 뒤, 당에 귀부하여 南寧一十四州都督을 지냈고 부친의 南寧郡王爵을 이은 사람이다. 찬수층의 조상인 남중의 대성 찬씨 가문이 영주를 접수한 것은 대체로 성한 정권이 환운의 정벌에 의해 멸망한 뒤 어느 시점으로 추정된다. 이 시점을 「爨守忠墓志」에서는 “14郡이 宗주로 삼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㉑-2와 ㉑-3 기사로 보건대, 이 14군은 영주 15군에서 牂牁郡을 뺀 숫자로 보인다. 이 장가군의 세력은 당대에 牂牁蠻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남조시대 내내 寧州는 남조 국가의 직접적(혹은 郡縣的) 지배에서 벗어나 있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조 국가의 서남 방면 군현적 경계는 寧州가 아니라 益州의 남부<sup>13)</sup>, 牂牁郡 혹은 郢州의 서남부, 광주 서부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表 - 2. 南朝時代寧州刺史表》<sup>14)</sup>

시대	임명 또는 재임 연도	성명	前職	典據	비고
宋	武帝 421	應襲	員外散騎常侍	宋書3, 武帝紀 下	應襲解職. 426년, 駙馬都尉奉朝請潘思先使寧州.
	文帝 428	周籍之	安陸公相	宋書5, 文帝紀	432년, 爨龍顏 寧州刺史가 됨(『爨龍顏碑』). / 433년, 揚武將軍·巴東太守周籍之. <sup>15)</sup>
	438	徐循	陳·南頓二郡太守	宋書5, 文帝紀	441년, 晉寧太守 爨松子反.
	442	周萬歲	晉寧太守	宋書5, 文帝紀	446년, 爨龍顏 사망.

11) 牂牁渠帥姓謝氏, 舊臣中國, 代爲本土牧守. 隋末大亂, 遂絕. 大唐貞觀中, 其僭遣使修職貢. 勝兵戰士數萬, 於是列其地爲牂州. 今黔中郡羈縻州(『通典』卷187 邊防3 - 5051).

12) 咸和八年(333), (尹奉)遂爲(李)雄弟壽所破獲. 南中盡爲雄所有. 惟牂牁謝恕不爲壽所用, 壽破之. 壽去. 遂復保郡爲晉. 官至撫夷中郎將·寧州刺史·冠軍將軍(『南中志』6-257).

13) 다음의 기사는 남제 시기 영주의 관할로 나오는 남광군이 사천의 남부 즉 익주의 남부에 고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永明八年, 俊啟世祖曰: 「南廣郡界蒙山下, 有城名蒙城, 可二頃地, 有燒鑪四所, 高一丈, 廣一丈五尺. 從蒙城渡水南百許步, 平地掘土深二尺, 得銅. 又有古掘銅坑, 深二丈, 並居宅處猶存. 鄧通, 南安人, 漢文帝賜嚴道縣銅山鑄錢, 今蒙山近青衣水南, … 青衣縣又改名漢嘉. 且蒙山去南安二百里, 案此必是通所鑄. 近喚蒙山獠出, 云『甚可經略』. 此議若立, 潤利無極.」并獻蒙山銅一片, 又銅石一片, 平州鐵刀一口. 上從之. 遣使入蜀鑄錢, 得千餘萬, 功費多, 乃止. (『南齊書』卷37 「劉俊」, p. 653)

또 越嶲獠郡과 沈黎獠郡의 존재(『南齊書』卷15 「州郡下」益州, p.302) 또한 남조 국가의 남방 군현 경계가 익주의 남쪽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孝武帝	453	坦闕	沛郡太守	宋書6, 孝武帝紀	
	454	尹懷順	强弩將軍	宋書6, 孝武帝紀	
	458	杜叔文	强弩將軍	宋書6, 孝武帝紀	
	459	苻仲子	建寧太守	宋書6, 孝武帝紀	
	460	費景緒	員外散騎侍郎	宋書6, 孝武帝紀	
	461	費伯弘	北中郎參軍	宋書6, 孝武帝紀	465년, 督益·寧二州刺史 蕭惠開
明帝	470	孔玉	奉朝請	宋書8, 明帝紀	
後廢帝	474	劉廷祖	征虜行參軍	宋書9, 後廢帝紀	
	477	柳和	建寧太守	宋書9, 後廢帝紀	
南齊	武帝	484	程法勤	寧朔將軍	南齊書3, 武帝紀
		485	董仲舒	驃騎中兵參軍	南齊書3, 武帝紀
		492	郭安明	新城太守	南齊書3, 武帝紀
海陵王	494	李慶綜	車騎板行參軍	南齊書5, 海陵王紀	
明帝	495	董巒(董仲舒)		魏書7下, 高祖紀 下, 魏書61, 田益宗傳附 董巒傳	
	496	郭安明		南齊書15, 州郡志 下, 寧州	
		李慶宗(綜)	前寧州刺史	南齊書6, 明帝紀	
和帝	501	柳惔	征虜將軍	南齊書8, 和帝紀	
梁	武帝	505	李略	魏書71, 李苗傳	
		515	任太洪	魏書9, 肅宗紀	516년, 爲梁州刺史.
		545	徐文盛	梁書46, 徐文盛傳	548년 離任.
		548?	陳知祖	南史53, 武陵王紀	
	元帝	552	周敷	陳書13, 周敷傳	

## 2. 交州와 林邑

다음의 기사는 宋代 交州에 대한 통치가 남중과는 조금 달랐음을 시사한다.

㉠-1. … 交趾는 멀고 아득하여 여러 차례 藩將을 잃었으며, 그 때마다 政과 刑이 이지러져 撫和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南中은 아득히 멀고 風謠가 멀리 격절하여 서로 통하지 않으니, 蠻獠가 교활하게 竊據하여 邊民이 塗炭에 빠져 있습니다. … .<sup>16)</sup>

이 기사는 『宋書』의 기사로 劉宋 元嘉 9年(432)에 撫軍將軍·荊州刺史에서 都督南兗徐兗青冀幽六州豫州之梁郡諸軍事·征北將軍·開府儀同三司·南兗州刺史에 改授되어 廣陵에 鎮駐하게 된 江夏王 義恭이 얼마 뒤 내려진 내외 百官에게 인재를 천거하라는 詔書에 응하여 올린 표의 일부이다. 이 상표문에서 江夏王 義恭은 尚書金部郎 徐森之와 자신의 막료인 中直兵參軍事 王天寶를 각기 交州刺史와 寧州刺史에 천거하였다. 이 상표문이 보여주는 교지는 여러 차례 번장을 잃어 무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風謠가 중국과 통하지 않고, 蠻獠가 竊據한”

- 14) 金鍾完의 논문 「兩晉·南朝時代의 寧州와 大姓 爨氏」(『우석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총』 제1권, 1998)의 「兩晉·南朝時代寧州刺史表」를 조금 수정하여 옮겼다.
- 15) 是月, 平西將軍臨川王義慶, 以揚武將軍·巴東太守周籍之即本號督巴西·梓潼·宕渠·遂寧·巴郡五郡諸軍事·巴西·梓潼二郡太守, 率平西參軍費淡·龍驤將軍羅猛二千人授成都(『宋書』 卷45-1383~4).
- 16) … 交趾遼遠, 累喪藩將, 政刑每闕, 撫惟艱. 南中復遠, 風謠迥隔, 蠻獠狡竊, 邊氓荼炭, …(『宋書』 卷61 江夏文獻王義恭子朗 叡 - 1643~4).

정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교지의 통치를 어렵게 한 것은 日南郡의 象林에서 자립하여 성장한 林邑王國이었다.

『南史』의 「이맥」상 「임읍전」에 따르면, 한말에 공조(功曹) 구련(區連, 쿠 리엔)이 현령을 죽이고 자립(自立)하여 王이 된 뒤, 내부의 왕조 교체를 거쳐 동진 대에는 일남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구덕군과 구진군에 침입할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梁書』 「海南·林邑傳」에서는 “杜瑗이 죽은 뒤로부터 임읍이 일남과 구덕 여러 군을 침략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살상된 사람이 매우 많았다. 교주(交州)가 마침내 허약해졌다”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임읍의 잦은 침범에 대한 반격으로 5세기 중엽 송의 군대가 임읍을 일시 점령하기도 하였으나, 일시적인 일이었다고, 결국 임읍과 남조 국가의 관계는 관작과 공헌을 교환하는 책봉조 공관계가 정착되었다. 따라서 남조 국가의 군현적 경계는 일반적으로 漢代에 북위 13도선에 있던 것이 192년(혹은 132년)에는 임읍의 성립으로 북위 16도선으로, 그리고 삼국시기(220~265년)에는 임읍이 서권(西捲)현을 병탄함으로써 북위 17도선으로 옮겨지고, 남조시기 후반기에는 임읍이 재차 원래 일남군에 남아있던 3개 현 점령하여 북위 18도선으로 옮겨졌다고 설명된다.<sup>17)</sup>

이러한 모습은 「州郡志」에서도 잘 드러난다. 『南齊書』 「州郡志」에서는 交州에 대하여 “바다로 가로막힌 섬 가운데 있으며,” “밖으로 南夷와 접하였고,” “민이 험하고 먼 것을 믿고 자주 이반하기를 좋아한다”<sup>18)</sup>라고 하였다. 바다에 가로막힌 섬에 있다고 한 것은 교주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가 해로였던 데에 기인하겠지만, ‘멀고 험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표현으로 보인다.<sup>19)</sup> 그리고 『宋書』 「州郡志」에 따르면, 九眞郡은 12개 현에 2,328호, 九德郡은 11개 현에 809호, 日南郡은 7개 현에 402호로 편제 되어 있었다.<sup>20)</sup> 이로 볼 때 구진군과 일남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리라 믿기 어려우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교주의 상황과 부합한다. 그러나 교주는 임읍에 잠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 국가의 군현으로서 존속하였다는 점에서 영주와는 그 사정이 판연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교주에서 분할되어 설치된 廣州에 관한 것이다. 광주와 분할된 교주가 쇠퇴하거나 현상유지에 그쳤던 데 비하여, 廣州는 南朝 시기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군사적 개척과 지배가 진척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의 진척을 통하여 陳霸先 집단의 등장과 陳朝의 성립이 가능하였다는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sup>21)</sup> 이는 남조 시기를 통하여 영남지

17) 葛劍雄, 앞의 책, p.119.

18) 交州, 鎮交阯, 在海漲島中. 楊雄箴曰: 「交州荒漘, 水與天際.」 外接南夷, 寶貨所出, 山海珍怪, 莫與為比. 民恃險遠, 數好反叛. 領郡如左: (『南齊書』卷14 「州郡」上 交州, p. 266)

19) 이는 또 당시의 交州와 廣州의 분리, 그리고 교통로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유철은 당시 교주와 광주의 분리는 지리적 환경에서 보아도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본디 “交廣지역에 이르는 교통로는 동부 해안을 거치든가 아니면 長沙에서 越城嶺을 넘어 桂林, 柳州, 南寧, 혹은 湘水와 漓水를 잇는 靈渠를 통하여 嶺을 넘어 西江 지류로 진입하여 交阯에 직접 이르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따라서 교지 지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건강에 손오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교통로의 변경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제 九江에서 贛水를 거쳐 大庾嶺을 넘어 始興(曲江)에 이르고 여기서 다시 潯水를 통해 番禺로 이르는 길이 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김유철, 「진패선의 정치적 성격과 영남의 지역사회」 『동방학지』114, 2001, p.107).

20) 『宋書』 「州郡」4의 交州條를 기본으로 작성한 표이다.

劉宋	縣數	戶數	戶數/縣數	464년
交趾郡	12	4,233	353	
武平郡	6	1,490	248	
九眞郡	12	2,328	194	
九德郡	11	809	74	
日南郡	7	402	57	
합계	48	9,262		

역에 대한 지배가 그 영향권은 축소되었지만, 그 질적 지배는 강화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영남지역 특히 廣州 지역의 漢化가 진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南朝 국가의 남방 군현적 경계는 益州, 郢州, 廣州와 交州의 九德郡 혹은 九眞郡의 경계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북조와의 경계와 남방 경계 사이 남조 국가들의 영역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 497년 기준 남북조 국가의 군현 설치 실태

21) 김유철, 「진패선의 정치적 성장과 영남의 지역사회」 『동방학지』114, 2001.

김유철, 「양진시대 영남통치와 종족문제」 『동양사학연구』제76집, 2001.

### Ⅲ. ‘蠻越’의 분포와 南朝 국가의 영역

이 장에서는 남북조 시기의 ‘蠻越’ 즉 ‘蠻’, ‘獠’, ‘俚’人的 거주 분포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선주민이었던 이들 만월의 분포 양상에 따라 남조 국가의 영역 구성의 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분포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하는 목적에서였다. 사실 ‘蠻越’의 분포를 살피고 확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자료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한인들에 의해 남겨졌으며, 그나마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자료를 따라 그 거주지의 분포를 따져보아도 그것이 고대 만월의 실제 거주지 전체를 보여준다고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의 분포는 적어도 당시 중국 국가의 활동 영역과 만의 영역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월의 분포에 관한 정보는 당시 중국 국가의 영역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다.

보다 진전된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리적 분포 뿐만 아니라, 질적 분포 즉 각 지역에 대한 통치의 강도라든가 만월의 구성과 관계의 정도, 또 군현의 설치 순서 만월 종족이 속한 군현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지리적 분포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몇 가지 단서를 얻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만월의 분포에 관하여는 선학들의 노력이<sup>22)</sup> 있었으므로 이를 도표화하고 지도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 1. 남북조시기 ‘蠻’의 분포

남북조 시기의 蠻人은 대체로 荊·雍州蠻(盤瓠蠻) 계통과 豫州蠻(廩君蠻) 계통으로 대별되는데, 김종완은 잦은 천사와 기록의 불명으로 인해 계통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따지는 쪽보다는 그 분포 지역별로 구분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다음의 네 표가 그것이다. 각기 漢水유역, 五水유역, 湖北西部와 四川 동부, 湖南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1) 漢水유역

표 4 漢水유역 蠻 분포

蠻名	소지역	대지역	전거	관할
武寧蠻	荊門	湖北	『梁書』 50 「문학진」하장엄	荊州刺史 寧蠻校尉府
建安郡山蠻	應城 天門	湖北	『梁書』 21 「왕분전부왕침전」	
鄖山蠻	大洪山 일대	湖北	『宋書』 77 「심경지전」	
竟陵蠻	鍾祥	湖北	『宋書』 68 「남군왕의선전」 『南齊書』 1 「고제기」상	
樊鄧蠻	樊城 鄧縣, 襄陽	湖北	『南齊書』 1 「고제기」상	
羅陽蠻	棗陽	湖北	『周書』 28 「권경선전」	
蔡陽蠻	棗陽	湖北	『周書』 49 「이역전」상만전	
漢南蠻	房縣	湖北	『周書』 44 「부맹전」	
鄖州巴蠻	安陸	湖北	『資治通鑑』 174 「진기」8선제태 건12년조	

22) 이 장에서 각 만월 종족의 분포는 순전히 김종완의 분류와 작업을 그대로 따랐다(金鍾完, 「南北朝時代의 蠻·獠·俚人과 左郡縣의 분포」, 『吉玄益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99)

湖陽蠻	唐河	河南	『南齊書』 25 「장경아전」
滎水蠻	潁水의 지류, 沙河	河南	『宋書』 97 「이만전」형용주만조
雒水蠻	鎭平	河南	『宋書』 97 「이만전」형용주만조
丹浙二川蠻	漢水의 지류인 丹江과 浙川 일대		『宋書』 46 「장소전」
南陽蠻	南陽	河南	『南齊書』 25 「장경아전」
魯陽蠻	魯山	河南	『魏書』 9 「肅宗紀」 『北齊書』 4 「文宣帝紀」
三鴉蠻	南召 魯山	河南	『魏書』 69 「배연준전」 / 『북사』 76 「주법상전」
伊闕西南蠻	洛陽의 서남 지역	河南	『魏書』 8 「세종기」
湖州蠻	唐河	河南	『周書』 35 「설선전부설신전」
浙陽蠻	內鄉	河南	『周書』 16 「독고신전」
純州蠻	桐柏	河南	『周書』 37 「곽언전」
白獸蠻	山陽	陝西	『周書』 44 「부맹전」

2) 五水유역

표 5 五水 유역 蠻 분포

蠻名	소지역	대지역	전거	관할
(西陽)五水蠻	黃岡 지구, 五水 유역 <sup>23)</sup>	湖北		鎮蠻護軍
江州蠻	黃梅 九江	湖 北 江西		
大陽蠻	蘄縣	湖北	『資治通鑑』133 「宋紀」明帝泰豫元年(壬子, 公元四七二年)	安蠻校尉
豫州蠻(司州蠻)	信陽	河南	『宋書』卷72 「文九王·南平穆王鑠」,p.1856	
弋陽山西蠻	潢川	河南	『宋書』87	
義陽蠻	信陽	河南	『宋書』95, 『梁書』 50	
汝南西境刀壁等山蠻	汝南	河南	『宋書』74	
白水蠻	汝南	河南	『陳書』8	
新蔡蠻	固始	河南	『魏書』15	
襄城蠻	西平	河南	『魏書』15	
光城蠻	光山	河南	『資治通鑑』138, 「齊紀」4,武帝永明11년조.	
晉熙蠻	潛山	安徽		太守·鎮蠻護軍
廬江蠻	廬江	安徽		太守·鎮蠻護軍

3) 湖北 西部와 四川 동부

표 6 湖北 西部와 四川 동부

蠻名	소지역	대지역	전거	관할
----	-----	-----	----	----

23) 蘄水, 希水(현 浠水), 巴水, 赤亭水(현 舉水), 西歸水(현 倒水)

巴東蠻	奉節	四川		三巴校尉府 <sup>24)</sup> 衡州蠻 <sup>25)</sup>
建平蠻	巫山	四川		
宜都蠻	宜都	湖北		(峽中蠻 <sup>26)</sup> )
天門蠻	石門	湖南		
西陵峽의 西陵蠻	宜昌	湖北	『宋書』77	(그외 삼협)
安蜀城의 江外生蠻	宜昌 서북	湖北	『北史』75	
涪陽鎮의 涪陽蠻	公安	湖北	『周書』49	
白帝城 일대의 黔陽蠻	奉節	四川	『周書』44	
臨沮蠻	遠安	湖北	『宋書』67, 저수 중류	
當陽蠻	當陽	湖北	『宋書』67, 저수 중류	
南襄城蠻	南漳 保康 遠安 등지	湖北	『南齊書』58, 저장수의 중상류 지역	(沮漳蠻 <sup>27)</sup> )
北上黃蠻	南漳 保康 遠安 등지	湖北	『南齊書』58, 저장수의 중상류 지역	
汶陽郡山蠻	遠安	湖北	『南齊書』58	
西沮蠻	沮水 이서	湖北	『梁書』46	
隣州蠻	墊江	四川	『周書』44	
巴西蠻	綿陽	四川	『南史』43	
黔安蠻	彭水	四川	『北史』48	(사천지역)
巴州蠻	巴中	四川	『北史』66	

#### 4) 湖南 지역

표 7 湖南 지역

蠻名	소지역	대지역	전거	관할
莫徭蠻(長沙)	長沙	湖南		(武陵蠻 = 莫徭蠻) 安遠護軍
莫徭蠻(武陵)	常德	湖南		
莫徭蠻(巴陵)	岳陽	湖南		
莫徭蠻(零陵)	零陵	湖南		
莫徭蠻(桂陽)	郴縣	湖南		
莫徭蠻(衡山)	衡陽	湖南		
莫徭蠻(澧陽)	澧縣	湖南		
莫徭蠻(熙平)	連縣	廣東		
巴陵馬營蠻	岳陽	湖南	『梁書』22	

표 8 기타 지역 만

蠻名	소지역	대지역	전거	관할
南康揭陽蠻	石城	江西	『송서』3	

24) 劉宋代에는 이들 협중만 통할을 위해 남만교위부와 별도로 三巴校尉府 설치  
 25) 江陵 이서의 湖北과 四川 동부 長江 유역에 거주하는 각종 만의 총칭  
 26) 형주만의 일종으로 三峽을 포함한 湖北과 四川의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만의 총칭  
 27) 형주만의 일종으로 장강의 지류인 沮水와 漳水 유역에 거주하는 만의 총칭

豫章南江蠻	南昌	江西	『陳書』13
陽山蠻	陽山	廣東	『梁書』32
始興蠻	曲江	廣東	『梁書』32
文州蠻	文縣	甘肅	『周書』19
唐州蠻	臨汾	山西	『周書』28
臨賀蠻	賀縣	廣西	『宋書』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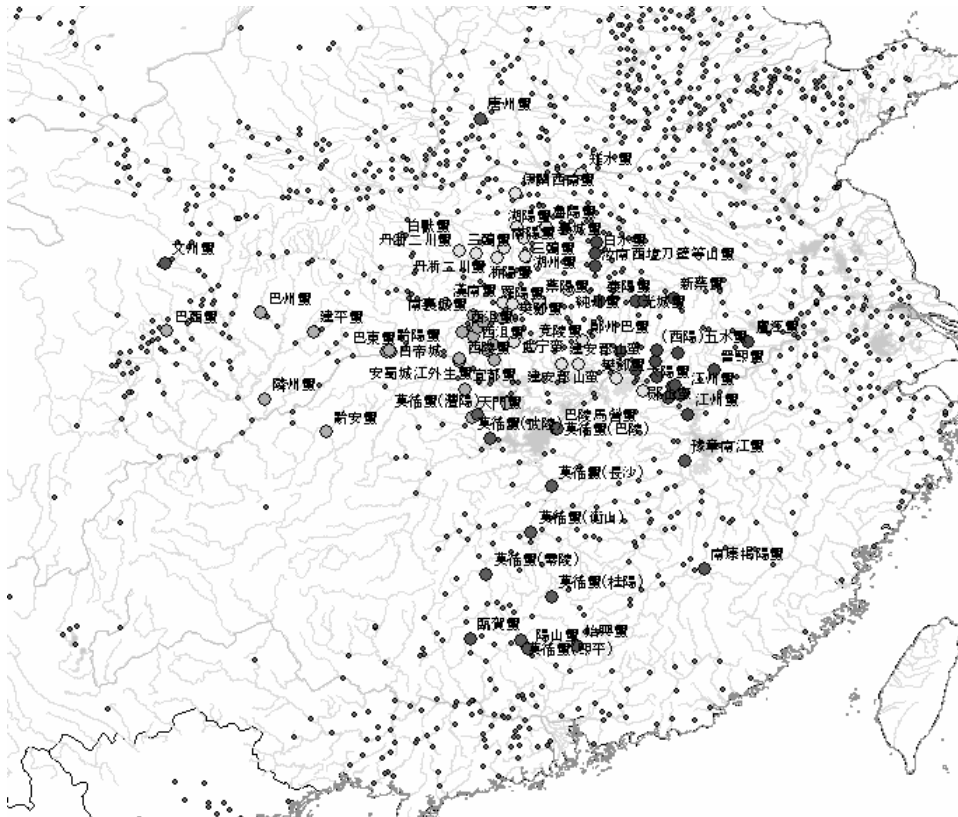


그림 2 남조 시기 蠻 분포도

- 五水유역
- 其他
- 湖北 西部와 四川 東부
- 湖南 지역
- 한수유역

## 2. 남북조시기 ‘獠’의 분포

獠人은 다음 기사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디 축토에 없었으나, 서진시기부터 산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사천 남부에 이르고 남조 시기에 이르면 사천 동부 전역에 분포하게 된다.

初, 蜀土無獠, 至此, 始從山而出, 北至犍為、梓潼, 布在山谷, 十餘萬落, 不可禁制, 大為百姓之患. (『晉書』卷121 「李勢載記」, p. 3047)

표 9 獠人の 분포

獠(거주지)名	소지역	대지역	전거	관할
巴西	閬中	四川		
渠川	渠江	四川		
廣漢	廣漢	四川		
陽安	簡陽	四川		
資中	資陽	四川		
犍爲	彭山	四川		
梓潼	梓潼	四川		
大度獠	大渡河 유역	四川	『資治通鑑』136 「帝紀」2 武帝永明 2년조	
漢中の 五獠	安康 漢中	陝西	『南齊書』27	
晉壽	廣元	四川	『魏書』101	
陵州의 木籠獠	仁壽 동쪽	四川	『周書』28	
鐵山獠	榮縣의 동쪽	四川	『周書』28	
通州의 獠	達縣	四川	『周書』39	
十姓獠	武都	甘肅	『北史』41	
恒陵獠	營山 동쪽	四川	『資治通鑑』170 「陳紀」4 臨海王 光大2年條	

## 3. 남북조 시기 ‘俚(越)’의 분포

俚人은 다음 표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광주 지역 즉 현재의 광동 광서지역에 주로 분포하였다.

표 10 俚人の 분포

俚(거주지)名	소지역	대지역	전거	관할
始興郡 中宿縣	淸遠 서북	廣東	『宋書』92	
晉康郡	德慶 일대	廣東	『宋書』54	
吳春俚郡	合浦 일대	廣東	『南齊書』14	
始興郡	曲江	廣東	『梁書』13	
鬱林郡	貴縣	廣西	『梁書』47	
高要郡	高要	廣東	『南史』51	
新州	新興	廣東	『陳書』8	
臨賀郡	賀縣	廣西	『陳書』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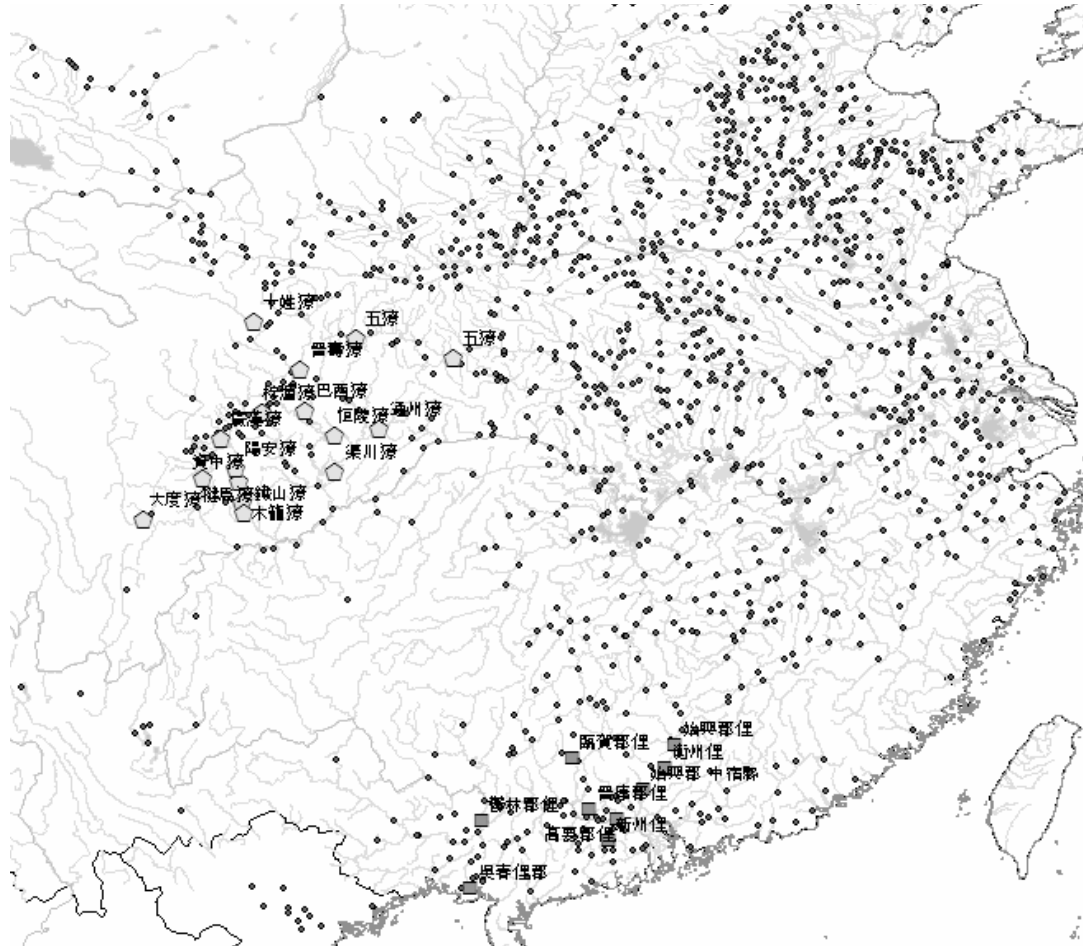


그림 4 南朝 시기 僚人과 俚人 분포도

#### IV. 南朝 국가 영역의 특성 - 결론에 대신하여

이상 평면적으로나마 남북조 시기 남조 국가의 경계와 영역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북방 경계는 북조 국가와의 경합에 의해 정해졌고, 또 여러 학자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북방으로 천사한 ‘蠻’ 집단에 의해 그 군현적 통치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방 경계는 한 무제 이래 지속되어 오던 변군 지배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益州의 南中에 설치되었던 寧州에 대한 지배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으며, 4세기 중반 이후 토착 세력의 지배에 들어갔다. 교주에 대한 지배 또한 후퇴하였는데, 이는 일남군 상림읍에서 자립하여 왕국을 선포한 林邑國의 성장에 의한 것이었다. 남조 말이 되면 일남군의 대부분이 임읍의 영토가 되었다.

본디 만월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 것은 그것의 군현의 분포와의 비교를 위해서였다. 그

러나 이 비교는 해보지 않아도 답이 나와 있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위진남북조 시기 만, 료, 이의 명칭은 대개 지명과 짝하였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이 군현 명이나 수계의 이름과 연칭되었다. 따라서 그 위치 비정이라는 것은 결국 군현들의 사이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 지도들에서 나타나듯이 ‘만월’ 집단의 분포는 군현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쓸모없는 일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리고 답이 뻔해 보이지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그러한가? 왜 남북조 시기의 만월 집단은 해안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가? 그러면서도 군현에 포위되어 있는가?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두 가지 측면의 답이 가능할 것 같다. 蠻, 獠, 僮로 구분되고 때로는 더욱 세분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들은 새로 출현한 집단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인이 되지는 못 하였지만, 오랫동안 帝國 질서 안에서 생활을 영위해온 ‘邊人’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建康 정권의 출현과 이의 존재이다. 사실 ‘만월’이 새로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중국 국가가 이들 앞에 더욱 다가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군현 설치 수의 증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僮’에 대하여는 그들이 새로운 집단이 아니라, 남조 국가의 입장에 따라 교광 지역의 월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라는 연구가 이미 제출된 바 있다.<sup>28)</sup>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 분포 범위가 넓어 보이는 것이다. 사실, 남조 국가 영역에 선주민인 만월 집단이 널리 분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리하면, 이 모든 것이 남조 국가의 군현 개발이 가져온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 지역의 군현 설치 밀도와 한대의 군현 설치 밀도만 비교해 보아도 금방 드러나는 일이다. 그리고 군현들의 분포나 만월 집단의 분포가 강남 지역의 주요 교통로인 수계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것도 그 증좌이다. 양방중의 통계에 따르면, 劉宋은 수도가 있던 楊州에 인구의 약 30%가 몰려 있던 국가였다. 뒤집어서 말하면, 남조 국가는 대부분의 영역이 개발이 진행 중인 아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다는 의미이다.

---

28) 김유철, 앞의 논문(2001).



## 中国南朝国家的疆界与领域——以和“蛮越”的关系为中心

郑勉

- 一、绪论
- 二、南朝国家的南部疆界
  1. 宁州和西爨
  2. 交州和林邑
- 三、“蛮越”的分布及南朝的领域
  1. 南北朝时期“蛮”的分布
  2. 南北朝时期“獠”的分布
  3. 南北朝时期“俚（越）”的分布
- 四、南朝领域的特征——代替结论

### 一、绪论

本文是结合此次学术会议关于“中古时期东亚疆界和领域问题”的主题，为探讨南朝诸国的疆界和领域问题，而完成的发表文。提起疆界问题，北朝诸国间的疆界固然重要，然这一问题，在其他论文中已经有所提及。因此本文仅将关注的焦点放在南朝诸国的南部疆界的问题上。试图将“蛮越”的分布及其意义，与南朝国家的疆界和领域相结合，进行探讨。

在研究疆界和领域时，必须首先讨论以下几个问题。中国历代王朝的领域和历史上“中国”概念的空间范围并非总是相一致的，这一观点已为许多学者所共识。因此在探讨历史上“中国”疆界和领域的问题与探讨历代王朝的疆界和领域时，应该是有所差别的。探讨两者间的关系，必然要对疆界和领域的性质加以规定。然而，对于这一问题有待将来做进一步的讨论。本文，如题目所限定的，仅是对南北朝时期“国家”的疆界和领域问题加以探讨。

众所周知，与现代所讲的的国家相比，历史上国家的疆界和领域的概念，有其独特之处。特别是帝制下的中国历代王朝更是如此。由于皇帝在理念上是天下唯一的最高君主，是一元性的支配者，因此帝制国家的疆界只能是无止境的。然而，现实却与这一理念相“背离”，拥有天下的帝制国家内存在着不同层位上的疆界。皇帝所统治的领域也不可能囊括天下。由于有这样的矛盾存在，使得关于古代国家的领域的研究变得较为复杂。因为，皇帝的统治也并非是一元性的，而是呈现出多元性，多层次的特征。也就是说，必然会产生以何种层次的统治范围作为帝制国家的领域的问题。在本文中，是将郡县作为首要的区分标准。

“蛮越”由“蛮”和“越”组合而成的，是长江以南非汉族土著民的统称。在这里指的是南北朝以后狭义上的“南蛮”，即荆州蛮，雍州蛮，以及四川的獠人和岭南的俚人。从东汉末，经魏晋时期，到被看作大部分已汉化的江东“山越”为止，长江以南的大部分地区原本是蛮越的土地。众所周知，虽然所谓江南开发是从三国时期开始的，但是江南地区真正被“中国化”或“汉化”，是宋代以后的事。因此，在探讨南朝的领域时，其与土著居民“蛮越”集团关系的这一问题必须提及的。

基于以上观点，本文首先对南朝诸国的南部疆界进行探讨。关于南朝郡县统治范围涉及哪些地区的问题，首先从西南边界开始，考察了宁州郡县的设置情形和统治实况，接着对南部边界交州的情况进行了探讨。特别本文是通过对于宁州经营实况的把握，在“南中”地区支配的实效性问题上，做出了很大的努力。其次，探讨了在南朝诸国南北边境间的领域内存在的“蛮越”种族集团的分布，以及南朝对其的统治或对策，从而总结出南朝国家疆界和领域形成过程

中，具有的特点和历史意义。

## 二、南朝国家的南部疆界

本章试图阐述南朝国家的南部边界。首先，是对郡县的疆界进行了探讨。众所周知，郡县是皇帝的统治所直接涉及的地区。因此郡县设置之处既被看作是帝制国家的领域。南朝国家疆域由郡县构成的有两处，即西南方的宁州和南部的交州。能较好体现出帝制国家郡县版图的史料，应该是中国正史中的地理志（或郡国志，州郡志）。在关于南朝诸国的正史中，《宋书》和《南齐书》〈州郡志〉均留有相关的记载。本文就围绕着这些史料，探讨了在宁州和交州设置郡县的情况和其运营实况，由此来把握帝制国家直接统治的南方边界。

### 1. 宁州和“西爨”

以下两个事例是《宋书》和《南齐书》〈州郡志〉中，对宁州的简要说明。

①-1. 宁州刺史，晋武帝泰始七年分益州南中之建宁·兴古·云南·永昌四郡立。太康叁年省，立南夷校尉。惠帝太安二年復立，增牂牁·越巂·朱提叁郡。成帝咸康四年，分牂牁·夜郎·朱提·越巂四郡为安州，寻罢并宁州。越巂后还益州。今领郡十五，县八十一。户一万二百五十叁。去京都一万叁千叁百。（□宋书□卷 38 「州郡」4 宁州，p.1182）

①-2. 宁州，镇建宁郡，本益州南中，诸葛亮所谓不毛之地也。道远土瘠，蛮夷衆多，齐民甚少，诸爨·氏彊族，恃远擅命，故数有土反之虞（□南齐书□卷 15 「州郡」下 宁州，p. 303）。

由①-1 事例可知，271 年，分益州的三郡和交州一郡，设立宁州，共辖 4 个郡，45 县。经过一系列的变化，《宋书》〈州郡志〉所代表的时期，宁州的规模扩大为十五个郡，81（77）个县。由此来看似乎其郡县的统治力有所扩大，人口稠密度也有所增加。然而与①-2 的事例比照观之，不由得对①-1 事例产生怀疑。特别是在《南齐书》〈州郡志〉中，不仅有①-2 的事例，还另外记载道，加上“有名无民”的郡，共有 30 个郡名，95 个县名。《南齐书》的记载，暗示着郡县数与支配的密度不可能成比例。此外，从①-1 事事例来看，宁州户数的这种情况，不仅只存在于南齐时期。刘宋宁州的全部户数仅是西晋时期 83,000 户的八分之一。下表中是《晋书》〈地理志〉和《宋书》〈州郡志〉各郡 1 县的平均户数。由此来看，很难想象在刘宋时期宁州能形成正常的郡县统治。

（表 1）西晋和刘宋时期宁州的县数与户数

建立于 458 年（刘宋时期）的所谓“爨龙颜碑”证明了这样一个事实，即当时的宁州，长期掌握在自称宁州刺史和龙骧校尉的南中大姓爨氏一族手中。换句话说，这意味着南朝的宋并未能对宁州实施实际意义上的统治。因此，可以推断《宋书》〈州郡志〉所记载的宁州 15 郡和每郡的户数，与其说是刘宋时期的状况，还不如说是东晋末的某个时期的情况。这从一个侧面证明〈州郡志〉中所载宁州的所有郡县的设置都停滞在东晋时期。

此外，下面的事例也可以作为《宋书》〈州郡志〉的 15 郡形成于东晋末的佐证。

㉑-1. 王名子华, 字守忠, 其先河东汾阴人也。…洎锤会叛死, 邓艾忠殂, 十二代祖遐左迁是邦。世豪南夏, 繁枝固本, 而一十四郡宗之, 若鳞爪之有龜龙, 羽毛之有麟凤。竈犹比户, 歌杂南音, 盖不忘本也(「爨守忠墓志」, □南中大姓与爨氏家族研究□, pp.181~2; □文物□ 2002-1, p.69 图6)。

㉑-2. 牂牁渠帅姓谢氏, 旧臣中国, 代为本土牧守。隋末大乱, 遂绝。大唐贞观中, 其酋遣使修职贡。胜兵战士数万, 于是列其地为牂州。今黔中郡羈縻州(□通典□ 卷187 边防3 - 5051)。

㉑-3. 咸和八年(333), (尹奉)遂为(李)雄弟寿所破获。南中尽为雄所有。惟牂柯谢怨不为寿所用, 寿破之。寿去。遂復保郡为晋。官至抚夷中郎将·寧州刺史·冠军将军(「南中志」6-257)。

从㉑-2 和㉑-3 的事例来看, ㉑-1 中所载的“14 郡”是除去了牂牁郡。牂牁郡的势力延续至唐成为牂牁蛮。由此来看, 可以说在整个南朝时期, 宁州脱离了南朝国家的(或郡县的)直接统治。因此南朝国家的西南方郡县的边界并非宁州, 而应在益州的南部, 牂牁郡或郢州的西南部, 广州的西部等地区寻找。

(表 2) 南朝时代宁州刺史表

## 2. 交州和林邑

以下的事例暗示宋代对交州的统治与南中稍有不同。

㉒-1. …交阯辽邈, 累丧藩将, 政刑每阙, 抚惟艰。南中复远, 风谣迥隔, 蛮獠狡窃, 边境荼炭, …(□宋书□ 卷 61 江夏文献王义恭子朗 叡 - 1643~4)。

如这事例所说, 交阯较难统治的主要是从日南郡的象林中独立而形成的林邑王国。据《南史》的<이맥>상<林邑传>所载, 汉末, 功曹、区连杀死县令自立为王后, 经过内部王朝的交替, 至东晋时, 控制了日南郡的大部分地区, 并大有侵吞九德郡和九真郡之势。因此《梁书》<海南 林邑传>中有这样的记载:“自瑗(杜瑗)卒后, 林邑无岁不寇日南、九德诸君, 杀荡甚多, 交州遂致虚弱。”此后, 为了阻止林邑的频繁侵犯, 5 世纪中叶, 宋朝的军队曾一度占领了林邑, 然而这只是一时之事, 最终林邑与南朝建立了册封一朝贡的关系。由此追述, 南朝国家郡县的疆界是从汉代的北纬 13 度线, 经 192 年(或 132 年)林邑的独立, 移至北纬 16 度线。此后, 三国时期(220-265 年)林邑吞并了西捲县后, 疆界变为北纬 17 度线。南朝后期林邑再次占领原来日南郡所剩的 3 个县, 于是疆界又转移至北纬 18 度线。通过以上分析可知, 南朝南方郡县的疆界应该是在益州, 郢州, 广州和交州的九原郡或九真郡一带。下面再来谈一谈南朝诸国对南北疆界间的领域是如何管理的问题。

(图 1) 497 年基准南北朝国家郡县设置实态

## 三、“蛮越”的分布及南朝的领域

本章里我们主要看一下, 南北朝时期的‘蛮越’即‘蛮’, ‘獠’, ‘俚’人的居住分布图。首先, 连及前面所提到的内容, 作为这一地区土著民, 他们按照蛮越的分布状态虽然可以掌握南朝各国家的领域构成的实际状况, 但我们的目的是想看看能不能从分布中找出某些规则。事实

上，想确定‘蛮越’的分布并不是件简单的事。最关键的问题就是资料。尽管大部分资料因汉人而保留了下来，但数量并不多。这些资料中就居住地的分布，能把古代蛮越的实际居住地全部展现出来的说法并不完全可信。但根据这些资料所绘制出的蛮越分布图，至少能反映出关于当时中国各国家的活动领域和蛮越领域之间的关系，所提供的这部分情报，可以看成可信的。因此，关于蛮越的分布情报对当时中国各国家的领域形成过程的理解方面可看作是有帮助的。

为了更好的进行理解，不仅是单纯从地理上的分布，而是要对质量分布即对各地域的统治强度或郡县设立的顺序，蛮越种族所属的郡县的比重等进行综合性的考虑及分析，这部分有待以后进一步言及。本书中只对单纯的地理性分布进行确认分析，希望由此得出几条线索。因为有了对蛮越的分布进行研究的前人的辛勤努力的成果（都以图标的形式展现出来了），那我们就从地图化开始吧！

### 1.南北朝时期‘蛮’的分布

南北朝时期的蛮人大体上有荆、雍州蛮（盘瓠蛮）系和豫州蛮（獠君蛮）系之分。因记录并不明确以频繁天使为别名的召宗완은按所属来分类的话，比起按分布上来计算，而是选择了按分布的地域来区分。接下来的4个表格是按各时期汉水流域，五水流域，湖北西部和四川东部，湖南地区来划分的。

#### 1) 汉水流域

（表 3）汉水流域蛮的分布

#### 2) 五水流域

（表 4）五水流域蛮的分布

#### 3) 湖北西部和四川东部

（表 5）湖北西部和四川东部

#### 4) 湖南地区

（表 6）湖南地区

（表 7）其他地区

（图 2）南朝时期蛮的分布

### 2.南北朝时期‘獠’的分布

獠人正如下面的报道所诉，原本并不存在于송고中，而是在西晋时期从大山中走出来而开始形成，形成于四川南部，在南朝时期同时在四川东部开始分布。

初，蜀土无獠，至此，始从山而出，北至犍为、梓潼，布在山谷，十馀万落，不可禁制，大为百姓之患。（《晋书》卷 121 「李势载记」，p. 3047）

（表 8）獠人的分布

### 3.南北朝时期‘俚（越）’的分布

俚人，正如下表和地图中看到的一样，主要分布于当时的广州地区即现在广东广西地区。

（表 9）俚人的分布

### 四、南朝领域的特征— 代替结论

以上只是从平面上对南北朝时期南朝各国的边界及领域进行了研究。而北方边境是指和北朝各国通过竞争而定的，加之根据很多学者所指出的向北 천사한‘蛮’集团，这一郡县制统治受到限制。并且，南方边境表现出因不受限制而延续下来的对兵力支配的不足的状态。南朝诸国对在益州的南中设置的宁州的支配只是有名无实，4世纪中叶后，该地由土著势力支配。对于交州的统治范围也在不断的减小。这主要与从向南郡的象林邑脱离而出，宣布独立的林邑国，并不断地成长有关。南朝末期日南郡的大部分地区成为林邑的领土。

了解土著“蛮越”的分布是为了将其与郡县的分布进行比较。然而这是一个即便不进行比较，也已有答案的问题。这是因为魏晋南北朝时期蛮，獠，俚的名称大体上是与地名相配的。即大部分是由郡县名或水系名称而来的。因此，其位置的 비정이라는 \_\_\_\_\_ 것은 最终只能在郡县之中。事实上正如地图所示，“蛮越”集团的分布无法脱离郡县的包围网。然而，这一问题的提出并非毫无意义。尽管答案已是清清楚楚，然而还是有必要提出一些问题。即为什么会这样？为什么南北朝时期蛮越集团除了海岸地区以外，几乎遍布各地？并且还在郡县的包围之中？

虽然回答这些问题还有待进一步的研究，但是首先进行两个方面的回答是有可能的。虽然做了十分详细的划分来区分蛮，獠，俚，但他们终究不能说是新出现的集团。相反他们虽然没有成为“中国”人，但是应该将它们看作是长时间在帝国秩序中求生的“边人”。这是回答的一个方面。另一个方面则是建康政权的出现和它的存在。事实上“蛮越”并不应该被看作是新出现的集团，其应该是中国国家更进一步的与“蛮越”接触的结果。关于这一点，可以从郡县数量的不断增多中得知。至于“俚”，其并非新兴的集团，已有学者指出“俚”的称呼仅是南朝从自身立场出发对交广地区“越”的新的规定。事实上，南朝国家领域上广泛分布土著居民蛮越集团的现象并不异常的情况。

总之，以上种种全部是南朝国家郡县开发所具有的现象。这是仅将其与汉代长江以南郡县设置密度相比较，就可以立即显现出来的。此外，郡县和蛮越集团的分布，是沿着江南地区主要交通线，水路而形成的，这一点也是其佐证。据统计，刘宋是首都扬州的人口占其总人口的 30% 的国家。反之，这意味着南朝国家仍在开发的过程中，仍有大部分地区尚待开拓。



## 北魏道武帝的鮮卑語本名

羅新（北京大學中國古代史研究中心）

1942年春陳寅恪先生在給姚薇元《北朝胡姓考》所寫的序言中說：“惟不能不於此附著一言者，即吾國史乘不止胡姓須考，胡名亦急待研討是也。”<sup>①</sup>根據我們對中古北族傳統中的政治名號（political titulary）的瞭解，北朝北族社會中包括姓和名在內的名氏系統（anthroponym），在很大程度上都根源於政治名號。通常，姓源自部族名（ethnonym），部族名則來自該部族歷史上某位重要領袖的官號（appellation），而官號是政治名號的一部分。<sup>②</sup>政治名號中的官號和官稱，構成政治人物的個人名號，同時也成為家庭制名的主要資源。因此，姓和名雖然在華夏社會的文化環境下有巨大差異，但從起源意義上說，在北族的歷史傳統中則沒有什麼分別。因此，正如陳寅恪先生所說的，研究名與研究姓是同樣重要的。

由於中古時代用漢字音譯北族姓名時，往往因人因時而異。同樣的北族姓名，亦即同樣的北族名號，在不同場合被譯成不同的漢字，造成同一名號多種漢譯的情況非常普遍。隨著漢字語音的變化，同一個北族名號的不同譯法，漢字讀音可能會由同而異，本來就存在的讀音差距也會由微而著。關於中古北族語言屬性的糾紛是人所共知的<sup>③</sup>，在這種情況下，即使有突厥時代及其以後阿勒泰諸族語文學的幫助，或即使不存在漢譯本身的中古音構擬方面的困難，要完全瞭解現存古代漢譯各名號的北族語源（etymology）也是不可能的。儘管如此，借助迄今阿爾泰學研究（the Altaic Studies）和漢語語音史研究等多個學科在相關方面的巨大積累，我們已經有可能逐漸擴展對中古時期漢譯北族名號的知識，從而至少局部地復原從代北名號向漢文音譯的歷史過程。這種研究不僅是為了盡可能地揭示那些漢譯北族名號的語源，而且也是為了瞭解以中古漢語音譯（transliteration）非漢語詞匯的機制（mechanism）及特點。

本文試以北魏道武帝的鮮卑語本名在史書中的不同漢譯為例，來說明這一問題。

<sup>①</sup> 陳寅恪：《北朝胡姓考序》，載姚薇元《北朝胡姓考》（修訂本），北京：中華書局，2007年，序之第1頁。

<sup>②</sup> 有關中古北族政治名號的分析方法與案例研究，請參看我在《中古北族名號研究》一書中所收的各篇文章，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9年。

<sup>③</sup> 以拓跋鮮卑語言為例：伯希和（Paul Pelliot）早在1921年即判斷拓跋“既非東胡，然亦不屬蒙古”，他根據《南齊書》所記拓跋語詞資料，認為拓跋“似屬突厥系”，見伯希和：《吐谷渾為蒙古語系人種說》，馮承鈞譯，載馮承鈞：《西域南海史地考證譯叢七編》，北京：中華書局，1957年，第32頁。白鳥庫吉認為鮮卑語屬蒙古語，所以把有關拓跋語言的考證放進《東胡民族考》一書。卜弼德（Peter A. Boodberg）、巴贊（Louis Bazin）和後期的克勞森（Sir Gerard Clauson），都贊成伯希和的意見，見 Peter A. Boodberg, *The Language of the T'o-Pa Wei*, i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 Issue 2 (1936), pp. 167-185. 此文後收入 *Selected Works of Peter A. Boodberg*, compiled by Alvin P. Cohen,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pp. 221-239. Louis Bazin, *Recherches sur les parler T'o-pa*, in: *T'oung-pao*, vol. 39 (1949/50), pp. 228-329. 以及 Sir Gerard Clauson, *Turks, Mongols, Tungus*, in: *Asia Major*, new series, vol. VIII, part 1 (1960), pp. 116-117. 克勞森在他那部著名的《十三世紀以前突厥語源辭典》裏，直接把 tavḡaç（即 tabyač）一詞，解釋為“一突厥部落名，其中文轉寫作‘拓跋’”，見 Sir Gerard Clauson,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2. p. 438. 然而，1970年李蓋提宣稱拓跋語言屬於古蒙古語，他在中國史籍（如《南齊書》）保存的零散的拓跋語言資料裏找到了一些蒙古語彙，證明拓跋部並不是如卜弼德等人所論定的那樣是說突厥語的，見 L. Ligeti, *Le tabgatch, un dialecte de la langue sien-pi*, in: *Mongolian Studies* (Bibliotheca Orientalis Hungarica, Vol. XIV), edited by L. Ligeti, Budapest: Akademiai Kiado, 1970, p. 308. 中國學者亦鄰真的研究又完全支持了李蓋提的觀點，見亦鄰真：《中國北方民族與蒙古族族源》，收入《亦鄰真蒙古學文集》，呼和浩特：內蒙古人民出版社，2001年，第561頁注2。

北魏孝文帝以前諸帝都有鮮卑語本名，史書往往把這種本名記作“字”或“小字”。如明元帝拓跋嗣的鮮卑本名是木末<sup>①</sup>，太武帝的本名是佛狸伐<sup>②</sup>，等等。我們已經指出，佛狸伐的語源是 bōri bāg；而木末的語源則難以索解。不過可以肯定的是，木末是中古十六國北朝時期北族常用的一個名號。《晉書》記“慕容沖將許木末殺慕容沖於長安”<sup>③</sup>，說明慕容鮮卑的集團中有以木末為名者。《梁書》記芮芮（柔然）“始築城郭，名曰木末城”<sup>④</sup>，可見柔然也使用這一名號。《晉書》記西秦的最后一個國君是乞伏慕末<sup>⑤</sup>，《魏書》同<sup>⑥</sup>，二者極可能都是依據崔鴻《十六國春秋》；《宋書》則記作乞伏茂蔓<sup>⑦</sup>，代表了南朝的譯法。慕末和茂蔓顯然都是木末的異譯，是乞伏鮮卑亦有以此名號為名者。慕容鮮卑、乞伏鮮卑、柔然和拓跋鮮卑，都是秦漢時期的東胡之裔，都出於東胡中的鮮卑集團，其語言也都屬於古蒙古語，而他們都使用“木末/慕末/茂蔓”這個名號，可見該名號在鮮卑諸部中的普遍存在。

道武帝的鮮卑語本名是什麼呢？

《北史》記宇文部世系，有“丘不勤死，子莫廐立，本名犯道武諱”等語。<sup>⑧</sup>莫廐，《晉書》作莫圭<sup>⑨</sup>，《新唐書》作莫珪<sup>⑩</sup>，顯然《北史》所說的“道武諱”就是這個“圭”或“珪”字。《魏書》稱“太祖道武皇帝，諱珪”<sup>⑪</sup>，這是北魏官方確定的道武帝的漢字名諱，但並非其鮮卑語本名的全部音譯。而《北史》記莫廐“本名犯道武諱”，僅僅是從漢名角度來說的，與道武帝的鮮卑語本名無關。經過長期的、連續的漢化過程之後，特別是在孝文帝的一攬子激烈改革措施之後，北魏史料中那些有關皇帝本名的材料已經被過濾和改寫得難見蹤影了。因此，道武帝鮮卑語本名的漢文音譯，應該到南朝史料中去尋找。

《宋書》卷九五《索虜傳》：“（猗）廐孫什翼鞬勇壯，眾復附之。……鞬死，子開字涉珪代立。”<sup>⑫</sup>據此，道武帝名開字涉珪。《宋書》他處記事時有逕稱道武帝為拓跋開的，如卷五一《宗室傳》記義熙元年“索虜拓跋開遣偽豫州刺史索度真、大將軍斛斯蘭寇徐州”<sup>⑬</sup>，可見劉宋所傳的史料的確存在著以北魏道武帝之名為開的。不過，《宋書》卷二五《天文志三》有三處提到道武帝時，則稱其名“什圭”：1) 東晉孝武帝太元二十年“慕容垂遣息寶伐什圭，為圭所破，死者數萬人”；2) 東晉安帝隆安元年“什圭自號於中山”；3) 東晉安帝義熙二年“十月，什圭為其子偽清河公所殺”。<sup>⑭</sup>因此，道武帝的名字在《宋書》裏有三種記錄：開、涉珪和什圭。顯然，什圭和涉珪是對同一個北族語詞的不同漢譯。開應該是該語詞末尾音節的漢譯，即對應圭或珪這個音，但由於採用了明顯不同的漢字，可以肯定它並非直接來自這兩種音譯形式。這種混亂的情況說明，劉宋可能沒有得到北魏官方有關道武帝名諱的書面報告或正式通知，或使存在著這樣的報告或通知，它們也是不完全一致的。

<sup>①</sup> 《宋書》卷九五《索虜傳》，北京：中華書局標點本，1974年，第2322頁；《南齊書》卷五七《魏虜傳》，北京：中華書局標點本，1972年，第983頁。

<sup>②</sup> 羅新：《北魏太武帝的鮮卑本名》，《民族研究》2006年第4期，收入《中古北族名號研究》，第166-174頁。

<sup>③</sup> 《晉書》卷九《孝武帝本紀》，北京：中華書局標點本，1974年，第235頁。

<sup>④</sup> 《梁書》卷五四《西北諸戎傳》，北京：中華書局標點本，1973年，第817頁。

<sup>⑤</sup> 《晉書》卷一二五《乞伏熾磐載記》，第3126頁。

<sup>⑥</sup> 《魏書》卷四上《世祖紀上》，北京：中華書局標點本，1974年，第78頁。

<sup>⑦</sup> 《宋書》卷九六《鮮卑吐谷渾傳》，第2372頁。

<sup>⑧</sup> 《北史》卷九八《匈奴宇文莫槐傳》，北京：中華書局標點本，1974年，第3267頁。

<sup>⑨</sup> 《晉書》卷一〇八《慕容廆載記》，第2805頁。

<sup>⑩</sup> 《新唐書》卷七一下《宰相世系表一下》，北京：中華書局標點本，1975年，第2403頁。

<sup>⑪</sup> 《魏書》卷二《太祖紀》，第19頁。

<sup>⑫</sup> 《宋書》卷九五《索虜傳》，第2321-2322頁。

<sup>⑬</sup> 《宋書》卷五一《宗室傳》，第1461頁。

<sup>⑭</sup> 《宋書》卷二五《天文志三》，第726頁、第727頁、第731頁。

《南齊書》所記的道武帝名諱又不同於《宋書》，說明存在著不同的信息來源。《南齊書》卷五七《魏虜傳》：“猗盧孫什翼犍，字鬱律施，……子珪，字涉圭，……珪死，諡道武皇帝。……什翼珪始都平城，猶逐水草，無城郭。”<sup>①</sup>同書卷五九《芮芮虜傳》也提到“什翼圭”<sup>②</sup>，顯然是指道武帝。《南齊書》以什翼圭或什翼珪為道武帝的姓名，也許是把“什翼”當作了姓氏，但更大的可能是“涉圭”一名的異譯，或者是由於“涉圭”的讀音使南齊人誤以為與什翼犍的“什翼”有關，從而把“什翼”當作姓氏了。盡管《宋書》和《南齊書》所記頗有不同，但我們還是可以看到兩書的共同點就是道武帝的“字”（其實很大程度上可以看作鮮卑語本名）是涉圭/涉珪/什圭。那麼，如何認識這個鮮卑名號呢？

涉圭/涉珪/什圭所對應的北族名號，無疑也是一個常見名號。要了解或接近了解這一名號的原貌，途徑之一是盡可能了解它有哪些漢文異譯。和中古時期所有的常見北族名號一樣，涉圭/涉珪/什圭也存在著許多異譯，其中最常見的是“涉歸”。《晉書》記石虎時有“襄城公涉歸”<sup>③</sup>，《宋書》還記錄了叔孫建的鮮卑語本名為涉歸幡能健<sup>④</sup>，前一個涉歸是人名，後一個涉歸是姓氏，體現了這個名號的廣泛應用。不過值得注意的是，作為叔孫建本來姓氏的涉歸，在《魏書》中寫作乙旃<sup>⑤</sup>，可見乙旃和涉歸一樣，是涉圭/涉珪/什圭的異譯。根據蒲立本（Edwin G. Pulleyblank）所構擬的漢語早期中古音，涉和什都是以 p 收聲，並且以 dz 為詞首輔音的入聲字<sup>⑥</sup>，作為音譯外來語的漢字顯然是可以通用的。而乙旃之乙，蒲立本的擬音作?it<sup>⑦</sup>，是一個詞首輔音尚不明確的入聲字（以 t 收聲）。根據我們以上的討論，涉歸與乙旃乃是同一個北族名號的不同漢譯，那麼可以知道中古早期漢語中的乙，其輔音應當十分接近 dz 的發音。西魏的乙干貴，其姓氏乙干應與乙旃相同。

中古史書中以涉歸為名者，最著名的一個出自慕容鮮卑，即吐谷渾和慕容廆二人的父親。《晉書》卷九七《西戎傳》：“吐谷渾，慕容廆之庶長兄也，其父涉歸分部落一千七百家以隸之。及涉歸卒，廆嗣位。”<sup>⑧</sup>同樣的記錄又見同書卷一〇八《慕容廆載記》。<sup>⑨</sup>可以推想，《晉書》的依據是崔鴻《十六國春秋》。《太平御覽》卷一二一引崔鴻《十六國春秋》之《前燕錄》，即稱慕容廆“父涉歸”。<sup>⑩</sup>《魏書》卷九五《徒何慕容廆傳》亦稱慕容廆“父涉歸”<sup>⑪</sup>，同樣源於《十六國春秋》。那麼，《十六國春秋》的這一材料又來自哪里呢？《資治通鑑攷異》引范亨《燕書·武宣紀》：“廆，泰始五年生，年十五，父單于涉歸卒。”<sup>⑫</sup>可見《十六國春秋》是依據范亨《燕書》的。這樣，對於把慕容廆之父的名諱譯作“涉歸”，我們就可以建立出從范亨《燕書》，到崔鴻《十六國春秋》，再到《魏書》和《晉書》的史料傳承系統。

可是，基本上能夠反映《魏書》原貌的《北史》卷九六《吐谷渾傳》，卻有一點點不同：“涉歸一名奔洛韓，有二子，庶長曰吐谷渾，少曰若洛廆。”<sup>⑬</sup>不僅出現了涉歸的另一個名字奔

① 《南齊書》卷五七《魏虜傳》，第 983-984 頁。

② 《南齊書》卷五九《芮芮虜傳》，第 1023 頁。

③ 《晉書》卷一〇六《石季龍載記》，第 2769 頁。

④ 姚薇元：《宋書索虜傳南齊書魏虜傳北人姓名考證》，原載《清華學報》第 8 卷第 2 期（1933 年 6 月），收入姚薇元《北朝胡姓考》（修訂本），北京：中華書局，2007 年，第 470-472 頁。

⑤ 《魏書》卷一一三《官氏志》，第 3006 頁。

⑥ Edwin G. Pulleyblank,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91, p. 279, p. 283.

⑦ Edwin G. Pulleyblank, 1991, p. 367.

⑧ 《晉書》卷九七《西戎傳》，第 2537 頁。

⑨ 《晉書》卷一〇八《慕容廆載記》，第 2803 頁。

⑩ 《太平御覽》卷一二一，北京：中華書局影印宋本，1960 年，第 583 頁。

⑪ 《魏書》卷九五《徒何慕容廆傳》，第 2060 頁。

⑫ 《資治通鑑》卷八一晉紀三武帝太康二年條，北京：中華書局標點本，第 2577 頁。

⑬ 《北史》卷九六《吐谷渾傳》，第 3178 頁。

洛韓，而且慕容廆的本名也成了若洛廆，而不是如卷九五《徒何慕容廆傳》中所記的作奔洛瓌。《魏書》內部的這種歧異，說明魏收在為慕容廆和吐谷渾立傳時，分別依據了不同的史源。如前所述，魏收寫慕容廆是依據了《十六國春秋》的。那麼，他為吐谷渾立傳，依據了什麼史源呢？

我認為魏收寫吐谷渾時，參考到了沈約的《宋書》。《宋書》卷九六《鮮卑吐谷渾傳》：“父奔洛韓，有二子，長曰吐谷渾，少曰若洛廆。”對比《北史》，唯一的差別是《宋書》沒有提到涉歸。可見《宋書》所依據的史源只有一個名字奔洛韓，並不存在另一個名字涉歸。而魏收面對這條史源時，卻不能不顧及他本已採信的《十六國春秋》對慕容廆父名的記錄，於是他就把涉歸放在前面，把《宋書》所記的奔洛韓當作另一名附在後面。可以看到，魏收希望這種折衷的做法可以解決史源差異所造成的紛亂，但是他並不徹底，比如慕容廆的本名就依據了《宋書》而沒有回改為《十六國春秋》的那種譯法。然而問題遠遠不是彌縫史源差異那麼簡單。魏收兼採《十六國春秋》與《宋書》兩個不同的系統，即吐谷渾之父名分別為奔洛韓與涉歸的不同記錄，前提是他相信二者的確是不同的名字。而這個前提是非常可疑的。如前所說，《十六國春秋》的史源是范亨《燕書》，屬於十六國國別史。《宋書》的史源是什麼呢？我懷疑沈約寫吐谷渾所依據的史料，是南朝與吐谷渾長期盟友關係、密切往來所積累下來的資料，這種資料反映了吐谷渾政權內部對早期歷史的記憶。

要證明南朝相關史料來自吐谷渾而不是其他方向，我們還應當提到《梁書》。《梁書》卷五四《西北諸戎傳》：“河南王者，其先出自鮮卑慕容氏。初，慕容奕洛干有二子，庶長曰吐谷渾，嫡曰廆。洛干卒，廆嗣位，吐谷渾避之西徙。”<sup>①</sup>與《宋書》的差異雖然不大，但反映了江左政權所獲得的吐谷渾歷史信息本來是口頭的而非書面的，因此存在音譯用字的微小差異。不過《梁書》同樣不提涉歸這個事實值得注意。魏收兼採《十六國春秋》與《宋書》兩個不同的系統，即吐谷渾之父名分別為奔洛韓與涉歸的不同記錄，前提是他相信二者的確是不同的名字。而這個前提是非常可疑的。事實極可能是這樣的：奔洛韓（或奕洛干）與涉歸不過是南北方對同一個鮮卑名號的不同漢譯，其間的差異既可能是南北漢語語音差異的結果，也可能僅僅是翻譯習慣的不同造成的。

如前所述，涉歸與乙旄是同一個名號。而奔洛韓（或奕洛干）與乙旄在讀音上是非常接近的。按照蒲立本的擬音，奔和奕都是以 k 收聲的入聲字，讀音作 jiajk<sup>②</sup>，詞首輔音雖然不同，但非常接近。奔洛韓-奕洛干-乙旄三個音譯姓氏還有一個共同的地方，就是詞尾部分（作為一組名號組合的後一部分，或語法意義上的后綴），都是 -qan。需要注意的是，“涉歸/涉圭/涉珪/什圭”這幾個音譯形式的詞尾部分，都是 kwej，結合我們過去對“賀蘭/賀賴”等音譯形式的分析<sup>③</sup>，可以知道 kwej-kaj-kan 諸音的可替代和可相通。因此我們也知道，和《魏書》稱道武帝名珪一樣，《宋書》所記道武帝之名為“開”，正是對其鮮卑語本名“涉圭/涉珪/什圭”這個名號最後一個音節的音譯。

而且還可以進一步推論，道武帝的祖父昭成帝的名諱“什翼犍”，與道武帝的名諱涉珪/什圭，似乎也具有同樣的語源。前引《南齊書》記“猗盧孫什翼犍，字鬱律旄”，就是強有力的證據。這裏稱“什翼犍，字鬱律旄”，其實是指什翼犍與鬱律旄乃同一個名號的不同漢譯。鬱律旄與奔洛韓（或奕洛干）的對應關係是毫無疑問的，而如前所述，奔洛韓（或奕洛干）與乙旄以及涉歸/涉圭/涉珪/什圭等，具有同源關係。如果這一推論不誤，那麼《南齊書》把道武帝稱作什翼珪，就是非常自然的，因為什翼珪正是涉珪的一個異譯。與此相應，慕容廆的鮮卑

<sup>①</sup> 《梁書》卷五四《西北諸戎傳》，第 810 頁。

<sup>②</sup> Edwin G. Pulleyblank, 1991, p. 370.

<sup>③</sup> 羅新：《申洪之墓志補釋》，待刊稿。

語本名是若洛廐/奔洛瓌,正與其父涉歸/奔洛韓/突洛干同名。慕容廐與其父同名的情況,恰好跟道武帝與其祖昭成帝同名的情況相同。在道武帝之後,再未見到拓跋宗室有取此名者,而同樣的,在慕容廐之後,也再未見到慕容鮮卑中有取此名者。這也許並不能解釋為慕容部與拓跋部建立政權後受到華夏的避諱傳統的影響,而應當看到,固然以前賢之名為名是草原的古老傳統,但草原上也存在著避用偉大英雄尊名的傳統。<sup>①</sup>

那麼,這些漢譯形式共同的語源是什麼呢?與涉歸/涉圭/涉珪/什圭/乙旃這幾種譯音形式呈現為兩個音節不同,什翼犍/鬱律旃/奔洛韓/突洛干/什翼珪/若洛廐/奔洛瓌等,則是三音節的音譯形式。由於所有這些音譯的詞首漢字都是入聲字,可以假定我們所要討論的語源如果是三音節詞(或詞組)的話,其中間的音節是短促的。其次,對於詞首漢字的分析,使我們聯想到蒲立本對“侯斤/irqān/irkin”語音問題的討論。<sup>②</sup>外語以開口前元音(i/e/ä)為詞首的詞在音譯成漢文時,似乎都遇到了類似的問題。同樣,如果該開口前元音後面跟隨的是-r/-l時,似乎問題就變得更加複雜了。前面我們還推測過,我們所討論的這個詞的詞尾音節應當是-qān或-qan,如果它是後綴,就是-qān,如果作為一組名號的官稱部分,就是-qan。因此,我們有理由設想,前面所討論的涉歸/涉圭/涉珪/什圭/乙旃/什翼犍/鬱律旃/奔洛韓/突洛干/什翼珪/若洛廐/奔洛瓌等等漢譯形式,其語源有兩種可能:ilqān或il-qan。這就是本文所探究的北魏道武帝的鮮卑語本名,同樣也是道武帝的祖父昭成帝、鮮卑慕容部慕容廐父子的鮮卑語本名。

關於北魏道武帝的正式漢名,《魏書》記作珪,南朝史書或稱開,或稱珪,而無論是開還是珪,顯然僅僅是道武帝鮮卑語本名ilqān或il-qan的末尾音節的音譯。也就是說,道武帝並沒有專門的漢名。同樣的情況也適用於慕容廐,廐僅僅是其鮮卑語本名末尾音節的漢文音譯。《魏書》記明元帝的漢名為嗣,而南朝史書祇提到他的鮮卑語本名木末,可能說明明元帝和道武帝一樣並沒有專門的漢名,《魏書》所記的“嗣”,或許僅僅是在他成為了嗣君之後才得此漢名。北魏皇帝第一個取有真正漢名的,可能是太武帝。不過直到文成帝時期,皇子取名都是先有鮮卑語本名,而後有漢名的,當然這是另外一個需要專門論證的問題。

<sup>①</sup> 比如,成吉思汗的可汗號成吉思(Činggis),固然在突厥語世界中至今被廣泛用作人名,但在蒙古語世界就得到了嚴格的避諱。

<sup>②</sup> 蒲立本(Edwin G. Pulleyblank):《上古汉语的辅音系统》(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in: *Asia Major*, new series, vol. IX, 1962),中译本,潘悟云、徐文堪译,北京:中华书局,1999年,第10-11頁。



## ‘羅新, <北魏道武帝的鮮卑語本名>’ 에 대한 小評과 질문

작성자: 조영래(趙永來) - 경희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 중국학술계의 변화를 고찰

<北魏道武帝的鮮卑語本名>(이하 <本名>으로 약칭)은 북경대학교 중국고대사연구센터의 羅新 교수의 저술이다. 본 논문을 분석적으로 정독한 결과 전체적으로 최근 고대사연구의 새로운 경향 - 즉 “통섭적 경향”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이를 간략하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제간의 통섭

<本名>에서는 역사학을 역사언어학, 구체적으로는 음운학(音韻學)과 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 전통학문인 국학(國學)의 개념에서 적용되었던 방법이기도 하다.

#### 2) 지역적인 통섭

중국사는 방대한 영역에서 다변적인 지역이 공존하면서 발전했다. <本名>에서는 지역간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원지역과 중원외지역, 강남과 강북 지역의 역사 인식과 사회변화에 대한 시대별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역사상을 조명하려고 있다.

#### 3) 문화적인 통섭

<本名>에서는 중국문화 외에도 몽고와 돌궐의 문화적 특성을 언어에서 모색하며 음운학(音韻學)적으로 그 경향이 한족문화어 어떻게 연관되어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단초를 규명하고 있다. 그래서 <本名>에는 몽고어 발음, 돌궐어 발음을 문화접변과 접촉이란 측면에서 상호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통섭적인 연구는 필연적으로 다국적인 언어(몽고어, 돌궐어)와 그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필연적으로 참고, 인용해야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本名>는 중국학계의 국제화와 세계화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라 평가해도 가회 손색이 없을 정도라 할 수 있고, 이런 시도는 한국 학계에게 충분히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하겠다.

### 2. <本名> 연구법에 대한 3가지 참신성

#### 1) 방법의 참신성

<本名>은 기존 중국 고중세사 연구법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통섭적인 연구, 즉 음운학(音韻學)을 근거한 역사연구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과거 호적(胡適)의 명언인 “대담가설(大膽假說), 소의고증(小意考證)”처럼 ‘대담하게 가설하고 이를 치밀하게 고증하라’의 연구법을 택하고 있다. 논자는 선비어의 본명(本名)을 규명하기 위해서 “音義”라는 수단을 통해 남북조 각기 다른 역사서의 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치밀하게 선비어의 본명을 고증하고 있다.

## 2) 시각의 참신성

<本名>은 선비어에 대한 당시 중국사관의 기록적 차이를 단순히 음의(音義)에 대한 이역(異譯)이란 사실에 머물지 않고서, 그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즉 강남과 강북지역의 역사적인 인식차이가 이역(異譯)의 원인 이었고, 이런 근거를 당시 저술된 다양한 사서(史書)를 통해서 이를 고증하고 있다.

## 3) 결론의 참신성

<本名>은 통섭적인 연구방법을 통해서 선비어의 본명을 음의(音義)라는 수단으로 분석하여, 당시 본명이 2음절과 3음절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음운학(音韻學)의 주요개념인 ‘開口前元音’, ‘同源字’, ‘腹音’ 등을 사용하여 도무제의 소리음이 ‘qan’ 혹은 ‘qān’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 3. 몇 가지 질문

1) <本名>의 저자인 羅新교수는 출토자료에 정통한 학자로서 최근 몇 년 전에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이란 명저를 저술한 바 있다. 만약 출토문물을 근거한다면 더욱 원시적인 선비어의 본명(本名)에 접근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예상과 달리 전혀 묘지명(墓誌銘)을 비롯한 출토문물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북조(北朝)시기 묘지명이 사료(史料)로서 갖는 유용성과 그 한계성을 선비어 本名の 연구와 관련하여 羅新교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2) <本名>은 북조시기 출현한 선비어의 본명(本名) 연구를 음운학(音韻學)적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위진남북조시기는 음운학적 시대구분으로 보면 과도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론이다. 즉 당대(唐代) 이전을 고음(古音)시대라 하고, 그 이후를 금음(今音)시대라 한다. 위진남북조시기 외래문물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이를 한자로 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고민을 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유입으로, 불교경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도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반절(反切)이란 독특한 음의법(音義法)이 출현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羅新교수의 <本名>연구에서 시도한 음의(音義)수단은 결국 반절(反切)의 범주 안에서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문 중에 언급된 羅新교수가 예를 들었던 木末, 恭末, 茂蔓 등은 동일한 성모조(聲母組)로서 구성된 반절적 표기의 대표이다. 이런 선비어 발음 표기에서 등장하는 이역(異譯), 즉 지역적 차이는 결국 반절(反切)의 지역적 차이에서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사료에 등장하는 선비어에 대한 異譯은 저술가 개인의 ‘자의성’보다는 당시 반절을 사용했던 ‘통상성’에서 구하는 것이 옳고, 이런 가설이 타당하면 史書에 등장하는 異譯이 당시 선비어를 인식하는 지역적 차이를 규명하는 유일한 요소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本名>에서 언급한 《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에서 언급한 <燕語>와 《송서(宋書)》에 기록된 선비어의 이역(異譯)은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인 차이가 아니라 반절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 羅新교수의 고견을 듣고 싶다.

# 唐代东北诸族的内附与突厥

(草稿)

王义康

《新唐书》卷四十三下《地理志七下》羁縻州总序云：

唐兴，初未暇于四夷，自太宗平突厥，西北诸蕃及蛮夷稍稍内属，即其部落列置州县。其大者为都督府，以其首领为都督、刺史，皆得世袭。虽贡赋版籍多不上户部，然声教所暨，皆边州都督、都护所领，着于令式。今录招降开置之目，以见其盛。其后或臣或叛，经制不一，不能详见。突厥、回纥、党项、吐谷浑隶关内道者，为府二十九，州九十。突厥之别部及奚、契丹、靺鞨、降胡、高丽隶河北者，为府十四，州四十六。突厥、回纥、党项、吐谷浑之别部，及龟兹、于阗焉耆、疏勒、河西内属诸胡、西域十六国隶陇右者，为府五十一，州百九十八。羌、蛮隶剑南者，为州二百六十一。蛮隶江南者，为州五十一，隶岭南者为州九十二。又有党项州二十四，不知其隶属。大凡府州八百五十六，号为羁縻云。

据序文可知，唐代通常对周边内属（或内附）部族或国家的管理方式是羁縻州，羁縻州的建立意味与唐政治隶属关系的建立。因此，所谓“内附”是指周边民族或国家与唐建立政治上的隶属关系<sup>1</sup>，当然隶属程度因地域、国族而异，不能一概而论<sup>2</sup>。

<sup>1</sup> 所谓内附或内属是一个宽泛的概念，如唐玄宗欲出兵吐蕃，张说建议朝廷遣使，“许其稽颡内属，以息边境”

陈寅恪在论述唐代周边民族盛衰之连环性时提出，考察唐与周边某一民族的关系，不可局限于某一民族，必须通览诸族之间相互关系。在论及具体问题时，陈寅恪认为由于吐蕃的强盛，使唐不得不在东北方面采取消极政策<sup>3</sup>。在陈寅恪的启发下，人们就唐代东北问题展开了广泛的探讨，但是相对来说，突厥，特别是后突厥的复兴与东北的关系关注较少，即使论及，也缺乏系统阐述。本文试图对唐代东北诸族内附与突厥关系进行考察，以企明了东北诸族内附的外部因素。唐代曾经由营州都督充任平卢军使，并且兼任两蕃、渤海、黑水四府经略使，后又以平卢节度使镇抚室韦、靺鞨，唐经略的对象主要为奚、契丹、渤海、黑水靺鞨、室韦等族，本文所谓“东北诸族”主要是指以上诸族。

## 一 隋至唐初东北诸族内附与突厥、薛延陀

突厥自兴起以来就不断向四周扩张势力，至木杆可汗时（553—572年在位），击灭柔然，西破嚙哒，东走契丹，北并契骨，威服塞外诸族。突厥辖境，“东自辽海（今辽河上游濒海一带）以西，至西海（金中亚里海）万里，南自沙漠以北，至北海（今贝加尔湖）五六千里，皆属焉。”<sup>4</sup>隋朝建立之初，突厥强盛，东北诸族仍然在其势力范围之内。当时中原王朝历来经营东北地区的前沿阵地营州，自北周灭北齐至隋初，一直为原北齐营州刺史高宝宁据有<sup>5</sup>。此时情形隋非但不能经营东北，反而是反叛势力以营州为据点，以突厥、东北诸族为依托不断与隋对抗。隋

---

这里内属与同书同卷皇甫惟明所说让吐蕃“稽颡称臣”之义相同，意谓允许吐蕃讲和，结束战争，确立舅甥或臣属关系，无隶属关系。本文所谓内附则为狭义概念。《旧唐书》卷一九六上《吐蕃传上》，中华书局标点本，第5229、5230页。

<sup>2</sup> 谭其骧：《唐代羁縻州述论》，《长水集续编》，人民出版社，1994年。

<sup>3</sup> 陈寅恪：《唐代政治史述论稿》，上古籍出版社，1997年，第125页。

<sup>4</sup> 《北史》卷九九《突厥传》，中华书局标点本，第3287页。

<sup>5</sup> 参见王小甫：《隋初与高句丽及东北诸族关系试探》，《盛唐时代与东北亚政局》，上海辞书出版社，2003年。

文帝为北周丞相时，高宝宁连结契丹、靺鞨举兵反叛，开皇初又勾引突厥围攻北平。隋开皇三年（583），隋文帝派兵八道大规模出塞讨伐突厥，高宝宁自然成为消灭的对象。此年，隋命阴寿率军出卢龙塞讨高宝宁，宝宁求救于突厥，但当时突厥正面临隋数路大军的征讨，无力援助，宝宁弃城逃往碛北，黄龙诸县悉平。阴寿班师后，留开府成道昂镇守。宝宁始遣轻骑袭扰，继而又引契丹、靺鞨之围攻。阴寿派人离间宝宁亲信，宝宁内部分裂，逃往契丹，为部下所杀，“北边遂安”<sup>6</sup>。之后的形势朝着有利于隋的方向发展。突厥由于五可汗并立，争持不下，兵戎相见，陷入内乱，最终分裂为东、西突厥。隋开皇四年（584）沙钵略可汗西边受到达头可汗的困扰，东边受到契丹的进逼，遣使向隋告急，请求把属部迁至漠南，寄治白道川，南倚长城，以隋为后盾，归服隋朝。开皇十九年（599），突利可汗受到都蓝、达头二可汗合攻，南下入隋，隋扶立为突厥可汗，统领东部突厥部落。由于突厥势力的削弱，东北诸族转而向隋内属或通使建立联系。奚，“初臣突厥”，“自突厥称藩之后，亦遣使入朝。”<sup>7</sup>契丹，西魏北周、东魏北齐时一直受到强邻的侵逼。开皇四年（584），契丹诸酋长莫贺弗入朝。开皇五年（585），“悉其众款塞，高祖（隋文帝）纳之，听居其故地。”开皇六年（586），契丹诸部相攻击，久不止，又与突厥相侵，高祖遣使责让，契丹遣使入朝谢罪。其后契丹别部出伏等率众内附，隋文帝将其安置于渴溪那颡之北。开皇末，其别部四千余家背突厥来降，当时正是启民可汗归顺之时，隋文帝既不愿让启民失去颜面，又不愿让契丹失望，“悉令给粮还本，勅突厥抚纳之。”突厥沙钵略可汗之时，派遣吐屯潘埜统领契丹<sup>8</sup>。直

<sup>6</sup> 《隋书》卷三九《阴寿传》，中华书局标点本，第1148页。

<sup>7</sup> 《隋书》卷八四《奚传》，第1881页。

<sup>8</sup> 《隋书》卷八四《契丹传》，第1881—1882页。

至隋炀帝时契丹还由启民可汗统领<sup>9</sup>。室韦，“分为五部，不相总一；”突厥常以三吐屯统领诸部。见于记载，诸部当中，北室韦遣使入隋朝贡<sup>10</sup>。

隋末唐初，突厥始毕部众渐盛，力量开始强大起来，其势力在东北地区又得到进一步扩张。颉利可汗时，以步利社统东方的霫，以始毕可汗子突利可汗主契丹、靺鞨部，“树牙直幽州，东方之众皆属焉。”<sup>11</sup>唐建国之初，中原地区群雄割据，群雄竞相结援突厥，与唐对抗。武德三年（620），梁师都诱突厥入寇，突利可汗与奚、霫、契丹、靺鞨等侵扰幽州<sup>12</sup>。虽然武德年间契丹也曾遣使朝贡，但高祖退位，太宗即位之初，由于突厥势力在东北地区的存在，唐在东北的经营很难有重大进展。见于记载，这期间只是以东北诸族中流散出来的部落设置了燕州、威州、慎州、崇州、鲜州、玄州、昌州、师州<sup>13</sup>。这几个蕃州隶属营州，与后来以契丹八部、奚五部设置的府州有所不同<sup>14</sup>，需要向户部申报版籍，《旧唐书·地理志》记载其贞观、天宝二个年份的户数、口数，属于内蕃<sup>15</sup>。

贞观四年（630），颉利可汗败亡，突厥瓦解，其在东北地区的影响力消失。

同年，“营州都督薛万淑遣契丹酋长贪没折说渝东北诸夷，奚、霫、室韦等十余部皆

---

<sup>9</sup> “会契丹入抄营州，诏云起护突厥兵往讨契丹部落。启民可汗发骑二万，受其处分。云起分为二十营，四道俱引，营相去各一里，不得交杂。闻鼓声而行，闻角声而止，自非公使，勿得走马。三令五申之后，击鼓而发，军中有犯约者，斩纆干一人，持首以徇。于是突厥将帅来入谒之，皆膝行股战，莫敢仰视。契丹本事突厥，情无猜忌。云起既入其界，使突厥诈云向柳城郡，欲共高丽交易，勿言营中有隋使，敢漏泄者斩之。契丹不备，去贼营百里，诈引南度，夜复退还。去营五十里结阵而宿，契丹弗之知也。既明俱发驰骑袭之，尽获其男女四万口，女子及畜产以半赐突厥，余将入朝，男子皆杀之。”据此知其时契丹隶于启民可汗。引自《旧唐书》卷七五《韦云起》，中华书局标点本，第2631—2632页。

<sup>10</sup> 《隋书》卷八四《室韦传》，第1882—1883页。

<sup>11</sup> 《新唐书》卷二一五上《突厥传上》，中华书局标点本，6038页。

<sup>12</sup> 《通鉴》卷一九〇，高祖武德三年十月，中华书局标点本，第5898页。

<sup>13</sup> 以上诸州设置时间及族属分别为：燕州，武德四年以粟末靺鞨内附部落置；威州，武德二年以契丹内稽部落置；慎州，武德初以涑沫靺鞨乌素固部落置；崇州、鲜州，武德五年以奚可汗部落置；玄州，隋旧置，处契丹李去闾部落，唐因之；昌州，贞观二年以松漠部落置；师州，贞观三年以契丹室韦部落置。

<sup>14</sup> 蔡美彪：《契丹的部落组织和国家的产生》，《历史研究》1964年第5—6期，第170—171页。

<sup>15</sup> 杨晓燕：《唐代平卢军与环渤海地域》，《盛唐时代与东北亚政局》，第170—172页。

内附”<sup>16</sup>。但是唐大规模在奚、契丹等族本部设置府州，却是在贞观二十二年（648年）<sup>17</sup>。是年，契丹酋长窟哥举部请求内属，乃置松漠都督府，以窟哥为使持节十州诸军事<sup>18</sup>、松漠都督，封无极男，赐姓李氏。以其八部分为九州，并隶松漠都督府<sup>19</sup>。同年奚酋长可度内附，太宗为其置饶乐都督府，拜可度者使持节六州诸军事、饶乐都督，封楼烦县公，赐姓李氏。以其五部为五州，隶饶乐都督府<sup>20</sup>。霫，“与靺鞨为邻，理潢水北，臣属于颉利，贞观中“遣渠帅内附。”<sup>21</sup>以其地为居延州时间不详<sup>22</sup>，应与奚、契丹同时置州。

突厥贞观四年（630）灭亡，却迟至贞观二十二年（648）始在东北诸族本部设置府州，其中原委与薛延陀的兴起有着直接的关系。突厥灭亡以后，得到唐支持的薛延陀在漠北建立政权，象先前在北亚草原上出现的游牧民族政权一样，薛延陀迅速走上了向西域<sup>23</sup>、东北扩张土境的道路。“颉利可汗之灭，塞隧空荒，夷男率其部稍东保都尉犍山独逻水之阴，远京师才三千里而羸，东室韦，西金山，南

<sup>16</sup> 《通鉴》卷一九三，太宗贞观四年八月，第6082页。

<sup>17</sup> 《新唐书》卷四三下《地理志七下》记载鲜州、崇州“武德五年析饶乐都督府之可汗部落置”，似为武德五年已在奚本部设置府州，孙玉良据此以为唐开国之初即在饶乐水奚人居地设置了羁縻府州（孙玉良：《唐在东北地区设置的府州》，《社会科学战线》1986年第3期），刘统持异议（《唐代羁縻州研究》，西北大学出版社，1999年，第101页），笔者认为在奚、契丹本部设置府州迟至贞观二十年。

<sup>18</sup> 关于松漠都督府十州，《辽史·营卫志》把玄州列入窟哥松漠都督府十州，松井以为十州就是七部外加弹汗州和玄州（松井等著、刘凤翥译、邢复礼校《契丹勃兴史》，《民族史译文集》第10辑，中国社会科学院民族研究所，1981年，第6页）。蔡美彪以为《辽史》修纂者是为了举足十州之数，强为附会。他认为契丹八部分置九州，并松漠都督府为十州，只是为了符合唐制，总十州才可授予相当大都督称号（《契丹的部落组织和国家的产生》，《历史研究》1964年第5—6期，第168、171页。）蔡美彪先生的说法是正确的。奚可度持节六州诸军事，恰是饶乐都督府并奚五部所置州。但说十州是为了符合唐制不确，奚部落所置州不足十，可度与窟哥同为都督。

<sup>19</sup> 《新唐书》卷二一九《契丹传》，第6168页。

<sup>20</sup> 《新唐书》卷二一九《奚传》，第6173页。

<sup>21</sup> 《通典》卷二〇〇《边防十六》，中华书局标点本，第5490页。

<sup>22</sup> 《新唐书》误合“白霫”、“霫”为一传，白鸟库吉已指出（该氏著《东胡民族考》下，第11—12页）。白霫与霫是有区别的，白霫为铁勒部族，贞观二十一年以其地为寅颜州，霫则为东北民族，唐以其地为居延州。岑仲勉先生有详细辨证，参见《突厥集史》下，第751—757页。

<sup>23</sup> 关于薛延陀与唐争夺西域的控制权，参见段连勤：《丁零、高车与铁勒》第十二章《薛延陀汗国始末》，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6年，第332—335页。

突厥，北瀚海，盖古匈奴地也。<sup>24</sup>继颉利之后，薛延陀又将势力扩张至东北，东部一些部族又役属于薛延陀。贞观十五年（641）十一月，“薛延陀尽其甲骑并发同罗、仆骨、回纥、靺鞨、霫等二十万”，南渡大漠击阿史那思摩，唐诏营州都督张俭统所部骑兵及奚、霫、契丹等从东施加军事压力<sup>25</sup>。可以看出，当时东北诸族分别附唐或役属于薛延陀。唐太宗二十一年（647）诏，“其室韦、乌罗护、靺鞨（靺）等三部被延陀抄灭家口者，亦令为其赎取。”<sup>26</sup>靺鞨之外，室韦、乌罗护部落也可能受其控制。因此，贞观四年（630）至贞观二十年（646），唐与薛延陀在东北的影响力处于胶着状态，以致唐对东北诸族的经营难以取得实质性进展。贞观二十年（646）薛延陀灭亡，唐以漠北铁勒诸族置府州，并设都护府监领，直接控制了漠北地区。至此，结束了漠北游牧民族与唐在东北对抗的局面，东北诸族来自漠北草原的压力随之消失，唐才得以在奚、契丹诸部中从容设置府州，建立统治秩序。

## 二 李尽忠、孙万荣之乱与后突厥的崛起

贞观二十二年（648）以后，唐对奚、契丹、霫、室韦等族的经营进入平稳阶段，显庆年间窟哥、可度死后，虽有奚、契丹连谋叛乱，但总的趋势呈现出比较稳定的局面。显庆五年（660）五月，唐以定襄都督阿史德枢宾、左武侯将军延陀梯真、居延州都督李合浦等为冷硎道行军总管，各领本部蕃兵，讨伐叛奚，以尚书左丞崔余庆充使统领，监护三蕃进讨。“寻而奚遣使降附，改枢宾等为沙磧道行军总管，以讨契丹松漠都督阿卜固，送之东都，并擒叛奚谋主匹帝秃帝，斩之而还。

<sup>24</sup> 《新唐书》卷二一七下《薛延陀传》，第6135页。

<sup>25</sup> 《册府元龟》卷九八五《外臣部·征讨四》，第11568页。

<sup>26</sup> 《册府元龟》卷九八六《征讨五》，第1577页。

<sup>27</sup>”此次叛乱很快被平息，未对唐在东北诸族中的统治发生冲击。

高宗调露元年（679）发生的单于都护府突厥降户的叛乱，给唐在东北地区的经营带来了严峻的挑战，很快也就波及东北。突厥降户叛乱之处，诱扇奚、契丹侵掠州县，接着“奚、羯胡（契丹）又与桑乾突厥同反”<sup>28</sup>。武后长寿二年（694）又发生室韦叛乱。室韦西邻突厥<sup>29</sup>，突厥强盛时会长期附属后者，此次叛乱也可能是突厥策动的结果。这两次叛乱虽被平息，但是潜伏的危机依然存在。为了平定突厥叛乱，调露元年（679）曾调派营州、幽州都督前去平叛。在此之前，高宗咸亨元年（670）后，吐蕃崛起在西方给唐造成的压力加大，迫使唐不得不从东北调派军队进行防御，造成东北地区兵力不足<sup>30</sup>。此时调派营州都督参与平叛，使得镇抚东北诸族的军事力量更加薄弱。

万岁通天元年（696）五月，营州契丹松漠都督李尽忠、归诚州刺史孙万荣反叛，杀死都督赵文翊，攻陷营州<sup>31</sup>。直接起因是契丹等部发生饥荒，赵文翊不加赈济，又视酋长如奴仆。这是极大的错误。但是叛乱能够迅速蔓延开来，也说明营州境内没有足够的兵力很快平息叛乱，以致叛众轻而易举地攻克营州，失去了经营东北诸族的前沿阵地。武周派军镇压叛乱，都以失败告终，叛军乘胜南下进入河北境内，杀掠州县。

突厥反叛是契丹反叛的直接或间接地诱因，然而万岁通天元年（696）契丹等族的叛乱又给突厥的发展壮大造成了机会<sup>32</sup>。当武周对李尽忠、孙万荣的叛军一筹

<sup>27</sup> 《册府元龟》卷四二《帝王部·仁慈》，第428页。

<sup>28</sup> 《旧唐书》卷九三《唐休璟传》，中华书局标点本，第2918页。《唐休璟传》“羯胡”应作“契丹”。又见《通鉴》卷二〇二，高宗调露元年，第6393页。

<sup>29</sup> 《通鉴》卷二〇五，则天后长寿二年，第6493页。

<sup>30</sup> 黄约瑟：《武则天与朝鲜半岛政局》，《黄约瑟隋唐史论集》，中华书局，1997年，第62页。

<sup>31</sup> 关于李尽忠、孙万荣之乱，参见李松涛：《论契丹李尽忠、孙万荣之乱》，《盛唐时代与东北亚》。

<sup>32</sup> 关于后突厥的复兴，参见李方《后东突厥汗国复兴》，《中国边疆史地研究》2004年第3期。

莫展的时候，此年九月突厥默啜请求为武太后子，并为其女求婚，且请求得到河曲六州突厥降户<sup>33</sup>，以之作为条件助武周讨契丹。武周没有足够的兵力平叛，默啜请求出兵得到武后的许可。同年十月，默啜袭松漠，虏尽忠、万荣妻子而去<sup>34</sup>，使叛军有了后顾之忧。神功元年（697）三月，默啜开始向武周索求六州降户及单于都护府之地，并谷种、缯帛、农器、铁。武后不许，但大臣姚璈等以契丹未平为由，请太后依默啜所求，“乃悉驱六州降户数千帐以与默啜，并给谷种四万斛，杂綵五万段，农器三千事，铁四万斤。并许其婚。”默啜得到大量人力、物力补充后，“由是益强”<sup>35</sup>。

神功元年（697）三月，王孝杰战死，孙万荣乘胜寇幽州，但是契丹败王孝杰后于柳城西北四百里依险筑城，将老弱妇女，所获器仗资财留于新城。孙万荣南掠，虞突厥袭其后，派人与默啜结盟，默啜不应，却袭掠了新城，获得契丹大量的财物与人口。默啜此次突袭，造成叛军人心不稳。奚人脱离叛乱，唐军乘势与奚人袭击契丹，才把叛乱镇压下去。但是突厥的问题仍然没有结束，默啜进而要求武周兑现当初嫁女的请求，未遂，于是默啜又开始入侵抢掠。武周派军征讨，未能遏制其势头，默啜陷定州，掠赵州，劫财虏人而去。

李尽忠、孙万荣的叛乱，突厥默啜成为最大的获益者。首先，默啜通过向武周索求及数次虏掠，增强了实力。其次，是东北诸族依附于突厥。契丹在遭受打击后，“不能立，遂附突厥”<sup>36</sup>。此时的契丹尚不能作为独立的政治、军事实体存在，

<sup>33</sup> 此六州降户是颉利可汗败亡后，南下内附的突厥部众，因被安置在河曲丰、胜、灵、夏、朔、代等六州，故唐史专称“河曲六州降户（人）。”从默啜求六州降户可知，直至圣历元年此六州内迁民族未参与叛乱。

<sup>34</sup> 《通鉴》卷二〇五，则天后万岁通天元年，第 6509—6510 页。

<sup>35</sup> 《通鉴》卷二〇六，则天后神功元年，第 6519 页。

<sup>36</sup> 《新唐书》卷二一九《契丹传》，第 6170 页。

只有依附与突厥。奚、霫等在叛乱后也降附突厥<sup>37</sup>。东北诸族的归附，使突厥又将其势力伸张到了东北地区，相应的是在唐开元五年以前基本上退出了东北。圣历元年（698）后，“默啜还漠北，拥兵四十万，据地万里，西北诸夷皆附之，甚有轻中国之心。”<sup>38</sup>李尽忠、孙万荣叛乱造成的影响是多方面的，但是这次叛乱也最终导致了后突厥的崛起。

### 三 幽州防务的加强与突厥

李尽忠、孙万荣之乱，导致营州都督府、安东都护府的后撤，河北道唐初以幽州、营州、安东三府防边，此时东北防务只好完全倚仗幽州<sup>39</sup>，迫使唐加强幽州防务，率先在幽州设立节度使<sup>40</sup>。直至复置营州之前，幽州独自承担着防御突厥与两蕃的任务。

河北道自突厥降户叛乱以来即遭受侵扰。高宗调露元年（679）十月，单于大都护府突厥阿史德温传、奉职二部反叛，立阿史那泥熟匐为可汗，所置突厥二十四州酋长皆响应。单于大都护府长史萧嗣业率军镇压，反为叛众所败。叛乱势力乘机南下，入寇河北定州。同年十月壬子，唐遣左金吾将军曹怀舜屯井陘（河北道恒州境内）以防御突厥入寇河北州县<sup>41</sup>。从此时起幽州、营州都督府就承担起征

---

<sup>37</sup> 《通鉴》卷二〇六，则天后神功元年，第 6522 页。《通鉴》卷二〇五，则天后万岁通天元年，第 6506 页，云：“八月，丁酉，曹仁师、张玄遇、麻仁节与契丹战于碣石谷，唐兵大败。先是，契丹破营州，获唐俘数百，囚之地牢，闻唐兵将至，使守牢霫给之曰：‘吾辈家属饥寒不能自存，唯俟官军至即降耳。’既而契丹引出其俘，饲以糠粥，慰劳之曰：‘吾养汝则无食，杀汝又不忍，今纵汝去。’遂释之。”据此知，霫部所置居延州都督府也参与了契丹叛乱。

<sup>38</sup> 《通鉴》卷二〇六，则天后圣历元年，第 6535 页。

<sup>39</sup> 参见王小甫《隋唐五代东北亚关系大势》、李松涛《论契丹李尽忠、孙万荣之乱》，《盛唐时代与东北亚政局》。

<sup>40</sup> 参见黄永年《唐代河北藩镇与奚契丹》，《文史探微》，中华书局，2000 年。

<sup>41</sup> 《通鉴》卷二〇二，高宗调露元年，第 6392—3393 页。

讨、防御突厥的任务。调露元年（679）十一月甲辰，以裴行俭为定襄道大总管，与营州都督周道务等兵十八万，并西军检校丰州都督程务挺、东军幽州都督李文暕总三十余万以讨突厥<sup>42</sup>，并受行俭节度。永隆元年（680）三月，裴行俭打败突厥，擒奉职，突如其来的叛乱得到遏制。但是裴行俭率军而还后，突厥余烬复起，阿史那伏念自立为可汗，与阿史德温傅连兵为寇。高宗开耀元年（681）又以裴行俭为定襄道大总管，以右卫将军曹怀舜、幽州都督李文暕为副，将兵讨伐。此次平叛，“尽平突厥余党，擒伏念、温傅归京师”<sup>43</sup>。这两次大规模平叛，动用了营州都督府与幽州都督府的兵力，其中幽州都督府连续两次参加平叛。

高宗永淳元年（682），叛乱再起，突厥余党阿史那骨笃禄、阿史德元珍等招集亡散，据黑沙城反，寇掠缘边州郡，河北是遭受其害的地区之一。高宗弘道元年（683）二月，突厥掠定州，为刺史霍王元轨击走，遂寇妫州<sup>44</sup>。武则天垂拱三年（687）二月，“突厥骨咄禄及元珍寇昌平，杀掠人吏，命左鹰扬卫大将军黑齿常之率诸军讨击之”<sup>45</sup>。默啜时，突厥杀掠行为更为残酷。圣历元年（698），突厥默啜籍口和亲不遂，发兵袭静难、平狄、清夷等军，寇妫、檀等州，深入定、赵，所过杀掠<sup>46</sup>，使河北地区饱受蹂躏之苦。契丹的反叛，河北又添一个侵扰者。叛乱中孙万荣陷冀州，围瀛洲，掠幽州。叛乱平定后，奚、契丹降附突厥，出现了“契丹与突厥连岁寇边”的局面<sup>47</sup>。睿宗景云元年（710），奚、霫犯塞，掠渔阳、雍奴

<sup>42</sup> 《旧唐书》卷五《高宗纪下》，第105页；《通鉴》卷二〇二，高宗调露元年，第6392—6393页。

<sup>43</sup> 《通鉴》卷二〇二，高宗开耀元年，第6400、6405页。

<sup>44</sup> 《通鉴》卷二〇三，高宗弘道元年（683），第6413页；《旧唐书》卷五《高宗纪下》，第110页。

<sup>45</sup> 《册府元龟》卷九八六《征讨五》，中华书局影印本，2003年，第11581页。

<sup>46</sup> 《通鉴》卷二〇六，则天后圣历元年，第6530页。

<sup>47</sup> 《旧唐书》卷一九九下《渤海传》，第5360页。

出卢龙塞而去，幽州都督薛讷派兵追击<sup>48</sup>，却不能有效地遏制其侵掠。先天元年（712）十一月，奚、契丹寇渔阳<sup>49</sup>，幽州都督宋璟闭城不出，大掠而去。

唐前期河北平原是全国经济最发达的地区<sup>50</sup>，是王朝的财源地。面对侵扰，不得不加强防务<sup>51</sup>。然而，“四夷之中，突厥为大<sup>52</sup>”，在现实中的确也是如此，突厥对唐军事防御的穿透能力远胜他蕃。唐面临的大敌是突厥，奚、契丹附于后者。因此，开元以前河北防务的加强，乃至军事指挥权力的调整，往往以突厥为主要对象。武则天时，“于河北断塞居庸、岳岭、五回等路以备突厥。<sup>53</sup>”万岁通天元年（696）九月，“令山东近境州置武骑团兵。”至圣历元年（698）腊月二十五日，“河南、河北置武骑团，以备默啜，每一百五十户，共出兵十五人，马一匹。<sup>54</sup>”长安二年（702）三月，默啜入寇并州，“以雍州长史薛季昶摄右台大夫，充山东防御军大使，沧、瀛、幽、易、恒、定等州诸军皆受季昶节度。夏，四月，以幽州刺史张仁愿专知幽、平、妫、檀防御，仍与季昶相知，以拒突厥。<sup>55</sup>”开元十四年（726），“于定、恒、莫、易、沧五州置军以备突厥<sup>56</sup>”。除此之外，唐在河北倾注大量财物以备征讨突厥所用。“国家平日聚江淮、河南钱帛于彼，以贍北军，谓之‘天下北库’；今有布三百余万匹，帛八十余万匹，钱三十余万缗，粮三十余万斛。昔讨默啜，

<sup>48</sup> 《通鉴》卷二一〇，睿宗景云元年十二月，第6660页。

<sup>49</sup> 《通鉴》卷二一〇，玄宗先天元年十一月，第6678页。

<sup>50</sup> 唐长孺：《魏晋南北朝隋唐史三论》，武汉大学出版社，1996年，第343—344页。

<sup>51</sup> 关于河北军事力量的加强，孟宪实以为其方式一是军镇、二是团结兵。参见孟宪实《略论唐前期河北地区军事问题》，《中国史研究》2003年第3期。亦可参见上引黄永年《唐代河北藩镇与奚契丹》。

<sup>52</sup> 《通鉴》卷二一二，玄宗开元十三年，第6764页。

<sup>53</sup> 《旧唐书》卷一八五下《宋庆礼传》，第4814页。岑仲勉附此事于圣历三年末，《突厥集史》上，中华书局，1958年，第355页。

<sup>54</sup> 《唐会要》卷八七，中华书局，1998年，第1438页。

<sup>55</sup> 《通鉴》卷二〇七，则天后长安二年，第6558页。

<sup>56</sup> 《通鉴》卷二一三，玄宗开元十四年，第6772页。胡注：定州置北平军，恒州置恒阳军，莫州置唐兴军，易州置高阳军，沧州置横海军。

甲兵皆贮清河库，今有五十余万事。<sup>57</sup>”可见当时在河北倾注大量人力物力防御突厥乃是重中之重。

通常人们根据《通典》卷一七二《州郡》、《旧唐书》卷三八《地理志》的记载<sup>58</sup>，认为唐代范阳节度使的任务是“临制奚、契丹”。而《通鉴》记载节度使（经略使）的辖区、兵力、任务系于天宝元年（742）<sup>59</sup>。这当是以天宝元年的政府文书为依据，所记各个节度使的任务是随着周边形式的变化，天宝元年（742）最终确定下来的结果。天宝元年（742）突厥灭亡在即，唐东北经营也取得了很大进展，突厥已不是范阳节度使防范的主要对象，其主要任务自然而然地就转向了临制奚、契丹。

唐代经营东北幽州是后援，营州是前沿阵地，两者为表里关系。“国家往有营州，兹为虏障，此北狄不敢窥觐东藩，由其辑睦者久矣。<sup>60</sup>”营州是遏制突厥向东发展的屏障，唐据营州可以防止突厥控制东北诸族。同时，“镇彼戎夷，扼喉断臂，逆则制其死命，顺则为其主人<sup>61</sup>”。据有营州既可以断突厥左臂，又可以有效镇抚奚、契丹，达到“挟两蕃（奚、契丹）以制突厥”的目的，进而保证幽州的安全。突厥崛起，奚、契丹降附，唐失营州，唐东北防务被压缩至幽州一隅之地，反为突厥、奚、契丹联合所制。开元初，薛讷针对“契丹及奚与突厥连和”为患给唐造成的被动局面<sup>62</sup>，认为经营东北必须恢复营州，试图制服奚、契丹，断突厥左臂，请求出击契丹，结果大败而归。薛讷战败也许有多种原因，但是幽州长期以来处于突厥强大的压

<sup>57</sup> 《通鉴》卷二一七，肃宗至德元年三月，第6957页。

<sup>58</sup> 《通典》卷一七二《州郡二》，第4479—4480页；《旧唐书》卷三八《地理志一》，第1385—1387页。

<sup>59</sup> 《通鉴》卷二一五，玄宗天宝元年，第6847—6851页。

<sup>60</sup> 《册府元龟》卷一一九《帝王部·外臣部·备御五》，第11650页。

<sup>61</sup> 《旧唐书》卷一八五下《宋庆礼传》，第4815页。

<sup>62</sup> 《旧唐书》卷九三《薛讷传》，第2984页。

力下，幽州节度使受其牵制，无法倾力经营东北确是事实。总之，唐经营东北面对的是奚、契丹等族，但自从后突厥崛起以后，直至开元四年（716），经营东北突厥始终是最大的阻力。后来的事实证明也是如此，默啜的败亡，突厥势衰，两蕃转而内附于唐。

#### 四 奚、契丹的反复与突厥

开元四年（716）六月，默啜北征拔野固途中被杀，部落离散，突厥政权濒临崩溃的边缘，奚、契丹失去了后援。同年八月，契丹首领李失活、奚首领李大酺率所部内附。唐以失活为松漠郡王、行左金吾大将军兼松漠都督，八部酋长各为刺史；大酺为饶乐郡王、行右金吾大将军兼饶乐都督，以薛泰督军镇抚两蕃<sup>63</sup>。又出降公主于失活、大酺，以示笼络两蕃。开元五年（717）复置营州都督府于柳城，置平卢军使，关内州县镇戍设置皆以其旧。唐与突厥对峙近二十年，终于在突厥势衰之际，两蕃内附，恢复了经营东北诸族的据点。

虽然突厥的影响力退出了东北，但是突厥的威胁亦然存在。其内部局势稳定后，其势力随时可能介入东北。毗伽可汗继位后，起用多谋而国人信服的默啜衙官噉欲谷。噉欲谷首先建议招抚离散部落，唐安置于河曲之地的突厥降户，闻毗伽可汗继立，大多叛归。其次，噉欲谷以为唐人合年丰，无机可乘，建议停止对唐侵扰，而对叛变的各部族、部落力主征服，使其重新置于可汗的统治之下。噉欲谷的建议被毗伽可汗所采纳。开元六年（718）五月，毗伽可汗领军至大雒，进攻奚、契丹<sup>64</sup>。此事《毗伽可汗碑》也有记载，“地豆于人归降了汉人可汗。由于他们的使臣、他们的好消息，以及他们的祝福不再送来，我便在夏天讨伐之。我将

<sup>63</sup> 《通鉴》卷二一一，玄宗开元八年，第6719—6720页。

<sup>64</sup> 《册府元龟》卷九九三《外臣部·备御五》，第11658页。

他们击败，（并俘获了）其马匹（与财物）。他们的军队集结起来，前来（迎战）。

<sup>65</sup>”这次毗伽可汗攻打两蕃，唐已有准备，并没有导致两蕃的背叛。

开元八年（720）年，朔方大总管王峻请朝廷调发西方的拔悉密、东方的奚、契丹，掩袭毗伽可汗牙帐于稽落水上，毗伽可汗用噉欲谷谋，先击拔悉密于北庭，拔悉密部众多为所虏。噉欲谷引兵东南，败唐兵，掠凉州羊马及原驻于凉州的契苾部落而去。“毗伽由是大振，尽有默啜之众。”<sup>66</sup>

突厥对奚、契丹压力及再次振作，影响着契丹内部的党争以及对唐的态度。

开元六年（718）李失活卒，弟娑固继位。契丹衙官、静析军副大使可突干（实际上已可突干已是契丹部落联盟以下掌握了军事领导权的军事首长）<sup>67</sup>，骁勇服众，娑固猜畏，想除掉他。开元八年（720）年十一月，可突干先发制人，娑固逃奔营州。营州都督许钦澹派遣安东都护薛泰率军与奚王李大酺讨伐，结果战败，娑固、大酺被杀，薛泰被擒，营州都督府被迫迁往渝关。事后可突干以娑固从父弟郁干为王，遣使谢罪。玄宗赦免可突干，仍以郁干为松漠都督，以大酺弟鲁苏为饶乐都督<sup>68</sup>。这次契丹内部之争，看似与突厥没有直接的关系，但是可突干敢于弑主擅立，不怕获罪于唐，很显然，再次振兴的突厥也是可以选择的退路。况且，突厥依然没有放弃征服奚、契丹企图。721年（开元九年），毗伽征契丹。722年（开元十年），又征奚，掠其人畜财物<sup>69</sup>。唐面对突厥的压力，为了稳定两蕃，避免将可突干逼向突厥一边，对于可突干的废立行为采取了容忍的态度。可突干也是看

<sup>65</sup> 芮传明：《古突厥碑铭研究》，上海古籍出版社，1998年，第120、265页。

<sup>66</sup> 《通鉴》卷二一一，玄宗开元四年，第6742—6743页。

<sup>67</sup> 蔡美彪：《契丹的部落组织和国家的产生》，《历史研究》1964年第5—6期，第172页。

<sup>68</sup> 《通鉴》卷二一一，玄宗开元八年，第6720页。《通鉴》将毗伽可汗振兴与可突干废立，一前一后系于同月，可能是同时发生的事。

<sup>69</sup> 芮传明：《古突厥碑铭研究》，第265页。

出唐这种心理，以致连续废立。

突厥的对两蕃的觊觎助长了契丹内部之争，契丹内部之争最终导致突厥势力进入东北，甚至军事介入。可突干开元十八年（730），可突干杀契丹王邵固，率众挟奚叛降突厥。唐的东北政策是“挟两蕃以制突厥”，期望两蕃依附在唐的一边，以抵御突厥的侵扰，所以可突干一再挟势废立，仍然得到唐的认可而没有兴师问罪，但当可突干背唐而依附突厥后，这就触及了唐的基本利益。唐连续发兵，发动了对可突干的讨伐。

开元二十年（732）年五月，信安王讳率裴耀卿及幽州节度使赵含章等击奚、契丹，赵含章部在白山战败，平卢先锋使乌承玘救援败敌。之后，信安王大败奚、契丹，可突干逃窜，系酋长李诗锁高率五千余帐归降，赐归义王，充归义州都督，徙其部落于幽州。但这不是决定性的胜利，可突干未灭，突厥在东北仍然很活跃，室韦等也归附了突厥<sup>70</sup>。这加深了唐对东北的顾虑，开元二十年（732）五月，以幽州节度使兼河北采访处置，并增领卫、相、洺、贝、冀、魏、深、赵、恒、定、邢、德、博、棣、营、郑十六州及安东都护府<sup>71</sup>，扩大幽州节度使的权利，以便有效应对东北局势的变化。开元二十一年（733）三月，幽州节度使薛楚玉派遣幽州副总管郭英杰率骑兵及降奚讨契丹，可突干引突厥兵迎战于榆关外，奚众叛逃，唐军大败，几乎全军覆灭。张守珪任幽州节度使后屡破契丹，可突干困迫，率部移徙西北依靠突厥为援。在唐军的持续压力下，可突干集团内部发生分裂，与其争权不和衙官李过折在唐使的诱劝下，袭杀可突干及其契丹王屈烈。开元二十三

---

<sup>70</sup> 《通鉴》卷二一三，玄宗开元二十年三月（第6797页）记载裴耀卿入奚境赐立功奚官绢，而突厥、室韦欲邀劫未遂。可见当时突厥军队进入了东北，室韦等也降附。

<sup>71</sup> 《通鉴》卷二一三，玄宗开元二十年五月，第6799页

年（735）年正月，唐以李过折为松漠都督。同年，李过折为部下涅礼所杀，唐仍采取宽大的政策，赦其罪，因其为松漠都督。至此，有突厥介入的这场可突干叛乱宣告结束。

此时突厥内部也发生了变故，毗伽可汗为其大臣毒死，政局不稳。国人立其子继位，为伊然可汗。不久伊然可汗死，其弟继位，为登利可汗。登利可汗继位后再次进攻奚、契丹，为契丹王涅礼与奚王李归国击败。然而此时登利可汗击两蕃，如张九龄所说，“伏以突厥新立，轻事用兵，彼之威众，在此一举。<sup>72</sup>”其意在于通过军事上的胜利，提高自己的威信，增强内部的凝聚力，但经此失败，非但不能挽救突厥的颓势，反而益衰。开元时营州都督任两蕃、渤海、黑水四府经略使，天宝元年以平卢节度使镇抚室韦、靺鞨，经略或镇抚范围的扩大，说明东北经营取得了很大进展。开元二十三（735）年至天宝四（745）年，奚、契丹大体处于平静状态。

## 五 渤海附唐与突厥

渤海是李尽忠、孙万荣之乱后在东北地区出现的国家。万岁通天元年（696）叛乱爆发后，原居于营州，受契丹节制的靺鞨酋长乞乞仲象、乞四比羽及高丽部众东走<sup>73</sup>，“度辽水，保太白山之东北，阻奥娄河，树壁自固”<sup>74</sup>。武后封乞四比羽为许国公，乞乞仲象为震国公，乞四比羽不受命。从圣历中大祚荣沿用震国公的爵号自立为震（振）国王来看，所谓“不受命”，是因为武后册封其意是招抚乞乞仲象、

<sup>72</sup> 《全唐文》卷二八九，张九龄《贺破突厥状》，第2931页。

<sup>73</sup> 《新唐书》卷二一九《渤海传》记载“有舍利乞乞仲象者”，则知此时粟末靺鞨乞乞仲象等是内附营州后受契丹节制的部落。参见范恩实《渤海国的建立及其与周边政治关系》，《盛唐时代与东北亚政局》。《通鉴》卷二〇六，则天后久视元年六月条（第6547页）记载：“太后以（李）楷固为左玉铃卫将军，（骆）务整为右武卫将军，使将兵击契丹余党。”《通鉴》将两《唐书》武则天命李楷固讨伐的对象视为契丹余党，也说明了乞乞仲象等契丹有联系，这也印证了上述说法。

<sup>74</sup> 《新唐书》卷二一九《渤海传》，第6179页。

乞四比羽等牵制乃至讨伐契丹，而乞乞仲象、乞四比羽等只接受册封而不愿讨伐契丹，或者说乞四比羽既不接受册封，也不愿讨伐契丹。武后招慰失败，神功元年六月后<sup>75</sup>，武后命降将李楷固等率军征讨，重创靺鞨部众，杀乞四比羽。大祚荣率余众逃遁，李楷固越天门岭，穷追不舍。后大祚荣纠合靺鞨部众及高丽遗民抵抗，打败李楷固，武周的讨伐以失败而告终。神功元年（697）孙万荣死后，由于奚、契丹降附突厥，共同对抗武周，切断了讨伐的道路。大祚荣获得喘息的机会，圣历中自立为震国王。李尽忠、孙万荣叛乱时，乞乞仲象、大祚荣率众东走，背离契丹，两者关系破裂<sup>76</sup>，同时又面临着武周的讨伐。在两难的处境下，“遣使交突厥”<sup>77</sup>，即附属突厥，求得庇护，突厥派出吐屯监领渤海<sup>78</sup>。大祚荣能够轻而易举的建国，并非仅仅因为持地荒远，与突厥势力在东北的扩张有着直接的关系。

唐中宗即位以后，一改武则天讨伐的做法，派遣张行岌招慰大祚荣。此举得到回应，大祚荣遣子入侍为质，表示接受册封。中宗希望大祚荣尽快内附，但是“契丹与突厥连岁寇边，使命不达”<sup>79</sup>。其时契丹等族附属突厥，在东北地区的势力正盛，尽管大祚荣倾向于接受唐的册封，但依然不敢公开背离突厥，倒向唐的一边，唐未达到招慰渤海牵制突厥、契丹等目的，故而“使命不达”。以致有人认为其时渤海在唐与突厥之间具有了两属的性质<sup>80</sup>。可见，突厥是妨碍渤海附唐的最大因素。

玄宗即位以后，开元元年（713）二月，遣郎将崔兕前往渤海册封大祚荣为左

<sup>75</sup> 《通鉴》卷二〇六，则天后久视元年六月条（第6547页）记载李楷固、骆务整二人在孙万荣死后来降。孙万荣死于神功元年六月，李楷固等奉命讨伐也在次年六月以后。

<sup>76</sup> 参见宋玉祥：《渤海与契丹‘世仇’浅见》，《北方文物》1995年第4期。

<sup>77</sup> 《新唐书》卷二一九《渤海传》，第6180页。

<sup>78</sup> 突厥向渤海派遣吐屯的时间，大约应在久视元年（700）李楷固讨伐失败后，至默啜被杀，突厥部落离散之间。

<sup>79</sup> 《旧唐书》卷一九九下《渤海传》，第5360页。

<sup>80</sup> 马一虹：《渤海与后东突厥汗国的关系》，《民族研究》2007年第1期。

骁卫大将军、渤海郡王，以其所统部落为忽汗州，兼都督<sup>81</sup>。崔訢返回时途经旅顺（此次出使应是从海路抵达渤海），开元二年（714）五月十八日，在旅顺凿井刻石。从石刻知，崔訢（鸿胪井碑作“訢”）出使官职除郎将外还带鸿胪卿一职<sup>82</sup>。唐代携带敕书出使周边部族或国家的使者多为宦官<sup>83</sup>，玄宗派郎将、鸿胪卿崔訢册立大祚荣，足见当时对渤海的重视程度。先天元年（712年），幽州大都督孙佺试图袭击奚、契丹，收复营州，结果失败，使唐深知在东北寻找牵制两蕃力量的重要性。而此时正值默啜晚年政衰之际，其部落叛离已显端倪，这也使大祚荣不得不考虑以唐为后援。随后，开元四年（716）默啜败亡，两蕃内附，唐又置营州，突厥势力退出东北，唐对渤海的册封具有了实质性的宗藩关系。

唐以渤海之间最激烈的冲突发生在渤海第二代王大武艺时期。开元七年（719）大祚荣死，其子大武艺继位，“斥大土宇，东北诸夷畏臣之，私改年仁安<sup>84</sup>”。开元十四年（726）年，黑水靺鞨遣使来朝，“诏以其地为黑水州，仍置长史，遣使镇压，<sup>85</sup>”并以黑水部落为黑水军，黑水靺鞨进入了唐的统治体系。唐在黑水设府、置军，并派长史监领的意图，或以为是牵制突厥<sup>86</sup>，或以为是针对渤海<sup>87</sup>。我们应该看到，大武艺在突厥势力退出东北后，大武艺乘机大斥土宇，兼并临近部族，试图打破东北地区的平衡，而唐此时在东北的通知也不是十分稳固，大武艺的做法无疑对唐在东北诸族中的影响力是一个极大的挑战，违背唐的利益。同时，大武艺私改

<sup>81</sup> 《旧唐书》卷一九九下《渤海传》，第5361页；《通鉴》卷二〇〇，玄宗开元元年，第6680页。

<sup>82</sup> 酒寄雅志：《唐碑亭‘唐鸿胪井之碑’探秘》，待刊稿。此稿经作者同意，经管宁先生由日文翻译为汉文，拟在中国大陆发表。笔者曾受管宁先生之托，校对译文，有幸阅读，并保留了译稿。

<sup>83</sup> 中村裕一：《唐代制敕研究》之《论事敕书的传达》，汲古书院，1991年。

<sup>84</sup> 《新唐书》卷二一九《渤海传》，第6180页。

<sup>85</sup> 《旧唐书》卷一九九下《渤海传》，第5362页。

<sup>86</sup> 黄约瑟：《读〈曲江集〉所收唐与渤海及新罗敕书》，《黄约瑟隋唐史论集》，第87页。

<sup>87</sup> 马一虹：《渤海与后东突厥汗国的关系》。

年号，对唐来说是一种悖逆行为，又意味着摆脱唐的宗主地位。因此，唐在黑水靺鞨设府、置军，不能否认具有抑制大武艺乘机扩张的意图。

大武艺对唐的做法反应极为强烈，对属下说：“黑水途经我境，始与唐家相通。旧请突厥吐屯，皆先告我同去。今不计会，即请汉官，必是与唐家通谋，腹背攻我也。”<sup>88</sup>随即遣母弟大门艺及其舅任雅相发兵以击黑水。大门艺曾入唐为质子，深知与唐为敌的后果，劝其兄放弃攻打黑水，大武艺不从，欲杀大门艺，大门艺奔众奔唐。大武艺致书于唐要求杀大门艺，唐不许，好言安抚，大武艺执意要杀大门艺，双方难以达成妥协，关系陷入僵局。此时东北局势的发展，又促使大武艺对唐的态度愈加强硬。开元十八年（730）五月，契丹可突干叛唐，并协奚降突厥，在可突干的招引下，突厥势力又伸张至东北。唐玄宗除派幽州长史赵含章率军进讨外，又命中书舍人裴宽等于关内、河东、河北、河南分道募勇士。开元二十年（732）三月，信安王玮打败奚、契丹，可突干逃窜。开元二十年（732）六月，裴耀卿赉绢二十万匹，分赐立功奚官，进入奚境后突厥、室韦欲掠未遂<sup>89</sup>。可知可突干虽败，突厥势力仍在东北活跃，室韦等族又附属了突厥。突厥势力重回东北又成为渤海对抗唐的后援，大武艺联合奚、契丹、突厥等向唐发起了进攻<sup>90</sup>。开元二十年九月（732）大武艺派兵袭登州<sup>91</sup>，又出渤海至马都山，屠陷城邑<sup>92</sup>。开元二十年至开元二十一年渤海与唐处于战争状态。开元二十二年（734）十二月，

<sup>88</sup> 《旧唐书》卷一九九下《渤海传》，第5363页。

<sup>89</sup> 《通鉴》卷二一三，开元十八年五月，第6789—6790页；同书卷二一三，开元二十年五月，第6797页。

<sup>90</sup> 樊衡《为幽州长史薛楚玉破契丹露布》载契丹可突干“西连匈奴，东拘渤海”，此匈奴指突厥。又“四蕃云屯，十万雨集”，四蕃指奚、契丹、突厥、渤海。又“突厥锐而逃，渤海摄懼”。是知，渤海与奚、契丹、突厥共同向唐进攻。《全唐文》卷二五二，中华书局影印本，第3569页。又岑仲勉以为《露布》作于开元二十一年（733），为张守珪所作，此说甚是。《突厥集史》上册，中华书局，1958年，第437页。

<sup>91</sup> 《通鉴》卷二一三，开元二十年九月，第6799页。

<sup>92</sup> 《新唐书》卷一三六《乌承玘传》，第4597页。

张守珪击杀可突干，唐东北战事取得重大胜利。二十三年（735）秋，契丹涅里与奚王李归国击败突厥东侵<sup>93</sup>。突厥与唐在东北的争锋，逐渐处于下风，室韦、黑水诸部又重新归唐<sup>94</sup>。东北地区势力的变化，间接给渤海施加了压力。开元二十三年（735），大武艺扣留突厥派来联合渤海准备攻打两蕃的使者<sup>95</sup>，以示与突厥脱离关系。从此唐和渤海的关系稳定下来，进入和平交往。

### 小结

唐前期，唐王朝经营东北诸族的竞争对手，是来自漠北草原的游牧民族政权东突厥、后突厥（及昙花一现的薛延陀政权）。尤其后突厥的崛起在东北舞台上异常活跃，举足轻重，甚至一度成为主角，使唐长达二十年间不能恢复营州，将其拒于东北舞台之外。东北诸族是否内附，基本上自己无法选择，是根据唐与突厥双方势力的消长决定去向，特别是唐和突厥双方经营东北首当其冲的奚、契丹，表现至为明显，不断地在唐与突厥势力消长变化之中附属、背离。因此，东北诸族是否内附唐，突厥是一个重要的、甚至是一个决定性的外在因素。

---

<sup>93</sup> 张九龄《勅松漠都督泥礼书》：“得张守珪表知，卿等破贼。且突厥此来也，其心毒害，又甚轻敌。人事之与神道，可得有不有伤残……秋气渐冷。”知奚、契丹破突厥在开元二十三年秋。又张九龄《勅幽州节度张守珪书》：“北虏猖狂，劳师远袭。朕已成料，知其破伤……秋凉。”岑仲勉以为是开元二十三年八月（《突厥集史》上，第444页）。敕文引自《全唐文》卷二八五，第2890页。

<sup>94</sup> 韩愈《乌氏庙碑铭》云：“开元中……黑水、室韦以骑五千来麾下”，大约也是二十三年秋以前的事。引自《全唐文》卷五六一，第5683页。

<sup>95</sup> 《全唐文》卷二八五，张九龄《勅渤海王大武艺书》，第2893页。

## 唐代東北諸族的內附與突厥(討論文)

鄭炳俊(東國大學)

이전부터 王 선생님의 성함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韓國에서 討論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주된 논지는 머리말과 맺음말에 적혀 있듯이, 唐 前期에 있어서 중국의 동북지역 諸民族 또는 國家의 향방이 자율에 의한 것보다는 주변 강대 세력의 盛衰에 連動된 他律性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주제가 큰 만큼 서술 범위도 넓어서 시기적으로는 隋代부터 唐 玄宗시기에 이르는 약 150년 동안, 지역적으로는 중국, 몽골고원, 중국 동북지역뿐 아니라, 吐蕃까지 시야에 놓고 있습니다. 시간적, 지역적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벅찬 느낌도 있습니다만, 논문의 완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논문이 완전히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松漠都督府와 饒樂都督府의 설치 지점 문제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營州 경내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境外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王 선생님은 발표문에서 설치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營州 경내에 설치되었던 燕州, 威州, 慎州, 嵩州 등의 蕃州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한다(이들 蕃州는 “需要向戶部申報版籍”했다고 함). 왕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 싶다.

2. 薛延陀가 세력을 떨치던 시기에, 동북지역에 대한 唐과 薛延陀의 영향력이 교착상태에 있었다고 하는데, 비록 설연타 말기의 상황이라고는 해도 唐 太宗이 高句麗를 공격할 때 고구려가 설연타와 동맹을 맺으려 하였고 또 실제로 얼마 후 설연타가 당을 공격한 사실이 있다(『舊唐書』卷199下, 鐵勒傳, 5346頁과 『資治通鑑』卷198, 貞觀 19年 8月 조, 6227頁, “及高麗敗於駐驛山, 莫離支使靺鞨說眞珠, 啗以厚利, 眞珠懾服不敢動”). 이를 두고 한국 학계에서는 그간 고구려가 설연타에게 정성을 기울인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면 이를 중국 동북지역의 향방과 관련하여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3. (사소한 질문) 李盡忠, 孫萬榮의 난으로 營州都督府와 함께 安東都護府도 후퇴(後撤)되었다고 하는데, 안동도호부는 그때 폐지되었다가 704년 또는 705년에 幽州에 다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4. (제가 잘 몰라서 묻는지도 모름) 突厥이 渤海에 吐屯을 파견하여 監領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료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돌궐이 서역에 토둔을 보내 세금을 거두었다는 기록도 있는 만큼, 만약 吐屯이 말해에 파견되었다면, 이는 말해의 종속성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 발표문에서, 당대에 勅書를 휴대하고 주변 부락 혹은 국가로 出使한 使者가 대부분 宦官

이었지만, 大祚榮을 책봉하기 위해 간 使者는 郎將·鴻臚卿이었다고 하면서, 이는 당이 발해를 매우 중시한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자의 대부분이 환관이었다는 것은 中村裕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해당 연구서를 확인해 보면, 칙서를 국내에 전달할 때는 환관이 많았지만, 주변국에 전달할 때는 일반 관인이 많고 환관은 오히려 일부였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唐朝가 新羅와 渤海에 파견한 사자들을 비교한 한국사 연구자들의 논문을 보면, 신라에 대해서는 거의 文官(그것도 학식이 높은 경우가 많음)을 파견하였고, 발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관이 대부분이었다.

6. (전체적 느낌을 바탕으로 한 질문입니다) 契丹과 奚 등은 王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타율적 성격이 강했다고 보이지만, 可突干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한 느낌도 든다. 부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해의 경우에도 역시 특히 突厥의 盛衰에 따른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거란이나 해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도 드는데, 왕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다.

7. 渤海에 대해서는 동북지역의 주된 세력으로 보고 고찰의 주 대상으로 설정하는 데 반해, 高句麗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고구려 역시 당시 동북지역의 주요 세력이었음이 분명하다면, 고구려까지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발표문의 주된 논지와 관련하여, 고구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다.

# 唐代押蕃使的出现和欧亚东部国际形势的变化

村井 恭子

(日本大阪市立大学都市文化研究中心研究员)

## 前言

前近代国家的领域常因其与周边政权关系或国际形势的变化而变化。前近代国家常采取国内政治、制度等方面的改革以应对这些变化。

在由道、府、州、县构成的唐朝(本文中的唐朝包括武周时期)事实统治领域(内地)的边缘(边境),活动着很多少数民族。由于地理、历史等诸条件的差异,他们与唐朝的关系各不相同。唐朝根据这些条件,实行了各种各样的政策,对他们施以影响。其中,在唐代有时代特色的是边境的羁縻州化政策,即把少数民族组织成唐的府(都护府)州县来加以统治,比册封和朝贡这种名义上的关系能更直接地支配他们。<sup>1</sup>但是,这些羁縻州虽然被包括唐领域内,可是还保存着少数民族的社会状态,可以说,他们处于与唐敌对的外部势力和唐内地的“中间地带”。羁縻州势力的大小、与唐朝密切程度也是个不同的。<sup>2</sup>唐朝特别把北边的羁縻州作为兵力的来源和防卫的壁垒。<sup>3</sup>

玄宗开元(713~741)初,在羁縻州地带,特别是内地附近明确设置了“押蕃落使”和“押党项部落使”等的使职(本文总称为“押蕃使”),同时出现边州节度使往往兼领这些使职的情况。当时因欧亚东部国际形势的变化,唐朝以都护府、边州都督府为统治中心的羁縻州体制崩坏了,渐渐变成了节度使体制。<sup>4</sup>由此笔者预料押蕃使的设置是与这个变化以及唐朝的边境、少数民族相关的政策。

对押蕃使很早进行研究的主要有张国刚先生和黎虎先生,<sup>5</sup>尤其是黎虎先生的研究明确了押蕃使的职掌、设置地区、机构等的特征。不过,两位学者都主要关注的是节度使兼领的押蕃使,而没谈到押蕃使的出现和羁縻州体制崩溃之间的关系,以及在押蕃使设置过程中出现的变化及其意义。笔者认为研究押蕃使的问题,只有涉及到羁縻州的经营情况才能探讨其本质,并且在唐朝施行的很多边境政策里,押蕃使占有比较重要的位置。

<sup>1</sup> 菊池英夫:《总说—研究史的回顾と展望—》(载《隋唐帝国と东アジア世界》汲古书院,1979年版);栗原益男《七、八世紀の东アジア世界》(载《隋唐帝国と东アジア世界》);堀敏一:《律令制と东アジア世界—私の中国史学(二)》(汲古书院,1994年版)、同氏:《中华世界》(收入同氏:《东アジアの中の古代日本》研文出版,1998年版)。

<sup>2</sup> 张国刚先生认为每个羁縻州隶属于唐朝的程度不同,并将这个程度分为三个阶段(见《唐代的蕃部与蕃兵》,收入同氏:《唐代政治制度研究论集》文津出版社,1994年版,第95~96页)。另外,章群先生和石见清裕先生指出:唐朝对于设置在内地的羁縻州的办法和对于设置在外地的羁縻州的措施不同(见章群:《羁縻州府与边族安置》,载同氏:《唐代蕃将研究》联经出版事业公司,1986年版,第134~142页;石见清裕:《唐の内附异民族对象规定》,载同氏:《唐の北方问题と国际秩序》汲古书院,1998年版)。

<sup>3</sup> 参照康乐:《边防军队》(载同氏:《唐代前期的边防》国立台湾大学文史丛刊,1979年版);张国刚前列注2论文;石见清裕:《唐代外国贸易·在留外国人をめぐる诸问题》(收入前列注2书)以及《ラティモアの边境论と汉~唐間の中国北边》(收入《东アジア史における国家と地域》刀水书房,1999年版)。

<sup>4</sup> 本文使用的“节度使体制”意味着以节度使、经略使等军事使职为核心的边境经营体制。

<sup>5</sup> 依笔者管见,有关整个押蕃使的专门研究很少,主要有张国刚前列注2论文(第104~105页)和黎虎:《汉唐外交制度史》(兰州大学出版社,1998年版,第508~516页)以及《唐代的押蕃使》(载《文史》2002年第2辑)。

因此，本稿通过考察押蕃使制度的形成过程，试图弄清押蕃使和羁縻州的关系，重新审查在羁縻州体制崩溃之后，唐朝对羁縻州的经营趋势，并谈到使唐朝改革统治羁縻州的欧亚东部国际形势的变化。

## 一 押蕃使的设置与意义

押蕃使在安史之乱前已经存在，所以我们需要了解早期押蕃使的情况以及唐朝当时设置此使职的目的。安史之乱前已存在的押蕃使，以及与羁縻州等少数民族相关使职的设置情况，如表 1 所示。笔者所见的史料中，党项的拓跋守寂的墓志铭<sup>6</sup>是目前可以见到的最早关于押蕃使的记录。此方墓志补充了史书中未见的信息，引起党项史研究者的注意。节录墓志录文如下：

大唐故特进右监门卫大将军兼静边州都督赠灵州都督西平郡开国公拓跋公墓志文并序

朝散大夫使持节都督夏州诸军事宁夏州刺史上柱国郑宏之撰

公讳寂，字守寂。出自三苗，盖姜姓之别以字为氏，因地纪号，世雄西平，遂为郡人也。……名王弥府君，洎附授大将军宁府君矣，时逢季代，政乱中原，王教不宣，方贡殆绝。天降宝命，允归圣唐。迨仪凤年(676~679)，公之高祖立伽府君，委质为臣，率众内属。……拜大将军、兼十八州部落使。徙居囿阴之地，则今之静边府也。曾祖罗胃(胄)府君，……拜右监门卫将军、押十八州部落使，仍充防河军大使。祖后那(舟卩)府君，……拜静边州都督、押淳恤等一十八州部落使、兼防河军大使、赠银州刺史。考思泰府君，……拜左金吾卫大将军、兼静边州都督防御使、西平郡开国公。……赠特进、左羽林军大将军。公即西平公之元子也。……起家袭西平郡开国公、拜右监门卫大将军、使持节淳恤等一十八州诸军事、兼静边州都督、仍充防御部落使。寻加特进，干父蛊也。……春秋卅，以开元廿四年(736)十二月廿一日，寝疾薨于银州敕赐之第。诏赠使持节都督灵州诸军事、灵州刺史。赠物一百五十段，米粟一百五十石，应缘丧葬所在官供，遵朝典也。粤明年八月十八日，护葬于银州儒林县新兴乡招贤里欢乐平之原，安吉兆也。……弟游骑将军、守右武卫翊府右郎将员外置宿卫、赐紫金鱼袋、助知检校部落使守礼……。嗣子朝散大夫、守殿中省尚辇奉御员外置同正员、使持节淳恤等一十八州诸军事、兼静边州都督、防御部落使、赐紫金鱼袋、西平郡开国公曰澄澜，年在童丕……。叔父朔方军节度副使、兼防河使、右领军卫大将军、兼将作大匠兴宗……。【史料 A】

周伟洲先生研究唐代党项的内徙和羁縻州的设置情况，认为党项的内徙主要是吐蕃的侵逼有关，党项从唐太宗贞观末开始内徙，高宗仪凤年间(676~679)达到了高峰。<sup>7</sup>也就是说，随着他们的动向，唐朝陆续设置了羁縻州。

由史料 A 可见，唐高宗仪凤年间(676~679)，拓跋立伽带领部众归附唐朝，被任命为“十八

<sup>6</sup> 该墓志 1995 年出土于横山县韩岔乡元盆洼村，拓片见于陕西省古籍整理办公室编《榆林碑石》(三秦出版社，2003 年版，第 51 页，录文第 224~225 页)、王富春：《唐党项族首领拓跋守寂墓志考释》(载《考古与文物》2004 年第 3 期)、周伟洲：《早期党项史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4 年版)。

<sup>7</sup> 周伟洲：《早期党项史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4 年版)，第 30~54 页。

州部落使”；后来他子孙大约都担任相似的使职，即拓跋罗胃(胄)担任“押十八州部落使”；拓跋后那(舟β)担任“押淳恤等一十八州部落使”；拓跋守寂担任“防御部落使”(或“防御、部落使”)；拓跋澄澜担任“防御部落使”。墓主之父拓跋思泰，虽然史料 A 里没有提到他担任该使职，但在《册府元龟》里明确写道他也担任“防御部落使”，<sup>8</sup>夏州刺史郑宏撰墓志铭时有些省略。

唐朝对少数民族进行羁縻之际，授予他们与国内不同系统的官位和爵位，这些官位和爵位一般既有名目的因素，又被他们子孙世袭下去，因此笔者推测拓跋守寂家族担任的“押十八州部落使”“防御部落使”等使职虽然名称有变化，但基本职务内容是相同的。<sup>9</sup>由此可以认为，唐朝对于党项在仪凤年间(676~679)已经设置押蕃使。

我们看拓跋后那(舟β)担任的“押淳恤等一十八州部落使”，此十八州应该是党项的羁縻州，可能是由拓跋立伽归附唐朝时带领的部众编成的。由此可以认为，此使职就是统率这些羁縻州的。而且，就墓主之叔父拓跋兴宗没有担任这种使职来看，只有首领直系子孙才能与静边州都督一起世袭。

此外，吐谷浑也有被设置押蕃使的情况。迁到唐的吐谷浑王族慕容家族的墓志铭<sup>10</sup>也给我们很重要的消息。首先我们看慕容明的墓志铭(出土于甘肃省武威县)：<sup>11</sup>

唐押浑副使忠武将军右监门卫中郎将员外置同正员检校阁甄府都督摄左威卫将军借紫金鱼袋代乐王上柱国慕容公墓志誌铭

王讳明，字坦，昌黎鲜卑人也。粤以唐永隆元年(680)岁次庚辰七月廿七日生於灵州之南衙。年五岁，以本蕃号代乐王。……至景云二年(711)三月卅日，敕摄左屯卫将军借紫金鱼袋，仍充押浑副使。……以大唐开元廿六年(738)十一月十三日薨於本衙，春秋五十有九，归葬於凉州先塋。【史料 B】

可见，景云二年(711)，慕容明被任命为“押浑副使”(表 1№4)。可以认为此职位是以吐谷浑为对象的押蕃使的副使。由此我们知道至少景云二年(711)吐谷浑的押蕃使已经存在了。由史料 B 记载慕容明出生于灵州，先塋在凉州，而且“以本蕃号代乐王”的一句话来看，他很可能是与吐谷浑可汗慕容诺曷钵集团的后裔。因为在高宗龙朔三年(663)吐谷浑国灭亡，慕容诺曷钵集团从吐蕃

<sup>8</sup> 在宋本《册府元龟》卷九七四《外臣部·褒异一》开元九年六月丁酉的制敕里写道：“党项大首长故右监门卫将军员外置同正员、使持节淳恤等一十二州诸军事、兼静边州都督、防御部落使拓跋思泰”。文字有所不同，应该依据墓志铭。

<sup>9</sup> 或者由于史料 A 记载思泰上任“防御使”，因此不是“防御部落使”，而是“防御使”和“部落使”这两种使职的可能性也有。

<sup>10</sup> 关于吐谷浑慕容氏的墓志，在张维编《陇右金石录》里可以看到。另外，从 20 世纪 40 年代起，诺曷钵家族的墓志出土于甘肃省武威县，这些墓志铭的内容可以弥补两《唐书》等史料的遗漏。参照夏鼐：《武威唐代吐谷浑慕容氏墓志》(载《历史语言研究所集刊》第 20 上，1947 年)；党寿山：《武威县南山青咀喇嘛湾又发现慕容氏墓志》(载《文物》1965 年第 9 期)；宁笃学：《甘肃武威南营发现大唐武氏墓志》(载《考古与文物》1981 年第 2 期)；钟侃：《唐代慕容志浅释》(载《考古与文物》1983 年第 2 期)；周伟洲编《吐谷浑资料辑录》(青海人民出版社，1992 年版)等。

<sup>11</sup> 《慕容明墓志》(收入《隋唐五代墓志汇编》北京卷第一册，天津古籍出版社，1991 年，第 175 页，以及《陇右金石录》卷二；周绍良主编《唐代墓志汇编》上海古籍出版社，1992 年版，第 1485 页)。

吞并的吐谷浑部落逃到唐凉州，咸亨三年(672)唐朝把他们安置在灵州。<sup>12</sup>也就是说，吐谷浑王族从景云二年(711)到他去世的开元二十六年(738)，在灵州担任“押浑副使”一职。

其次，我们看慕容曦皓的墓志铭(出土于陕西省西安市)：<sup>13</sup>

唐故大同军使云麾将军左武卫大将军宁朔县开国伯慕容公墓志铭并序……

公讳曦皓，字曦皓，京兆长安人。故属昌黎，僻在辽右。……公即囿化公主曾孙，姑藏县主次子。曾祖□，大父忠，烈考宣超，世袭可汗，为囿海国王，咸以忠顺显名。……及君之身，虔奉成构，少以强荫补千牛备身，囿尚舍直长。于时，西戎为国□敌，势倾山海，蕃邦病之。附落请公追继前绪，制授押蕃浑使。……累转左武卫大将军，大同军使。……以宝应元年(762)九月十二日、遘疾终于任，春秋五十五。【史料 C】

根据两《唐书·吐谷浑传》的记载，上述慕容诺曷钵之后，可汗位的世袭情况是：慕容忠→慕容宣超(《旧唐书》为宣赵)→慕容曦皓→慕容兆，然后贞元十四年(798)慕容复即位，他去世后结束世袭可汗位。由此，慕容曦皓是慕容诺曷钵的直系子孙。并且，在史料 C 里写道他被任命为“押蕃浑使”(表 1№28)。可以认为此职位也是以吐谷浑为对象的押蕃使。由在史料 C 里写道“京兆长安人”和“少以强荫补千牛备身”的一句话来看，他首先在长安生活，然后“附落请公追继前绪”就是说部落要求他回来当可汗，此时唐朝任命他为押蕃使。

加之，我们看慕容曦光的墓志铭(出土于武威县)：<sup>14</sup>

大唐故朔方军节度副使兼知部落使金紫光禄大夫行光禄卿员外置同正员五原郡开国公燕王上柱国慕容曦光墓志铭

王讳曦光，字晟，昌黎鲜卑人也。粤以周载初元年(690)岁次戊寅七月八日生于灵州之南衙。年甫三岁，以本蕃嫡孙号观乐王。年十岁以本蕃嫡子号燕王。……去开(元)九年，六州叛，复领所部兵马，摧破凶胡……至开(元)十年，胡族再叛。立功授左威卫将军。……至开元十八年(730)敕差充朔方军节度副使。以大唐开元廿六年(738)七月廿三日薨于本衙。其年闰八月五日赠持节凉州都督。归葬凉州。【史料 D】

由墓志铭题可见，慕容曦光兼领“部落使”(表 1№19)。还写道他是“本蕃嫡孙”和“本蕃嫡子”，由此可以认为他是可汗直系的子孙，而且被看做可汗后继者。夏鼐先生推测他是慕容曦皓的堂兄弟。<sup>15</sup>开元十八年(730)他担任朔方军节度副使这个要职，由此可以认为，他是在部落内相当拥有

<sup>12</sup> 见《旧唐书》卷 198《吐谷浑传》和《新唐书》卷 221 上《吐谷浑传》。属于唐朝的吐谷浑不只是慕容诺曷钵集团，还有其他集团。

<sup>13</sup> 《慕容曦皓墓志》(收入《隋唐五代墓志汇编》陕西卷第 4 册，第 37 页)。另有周绍良、赵超主编《唐代墓志汇编续集》(上海古籍出版社，2001 年版，第 697 页)。

<sup>14</sup> 收录在夏鼐前列注 10 论文，以及在《全唐文补遗》第 4 辑(三秦出版社，1997 年版，第 432~433 页)里也有录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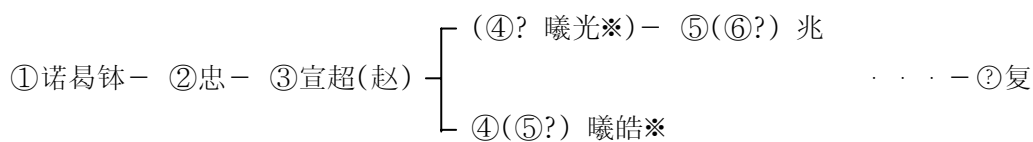
<sup>15</sup> 夏鼐前列注 10 论文，第 321 页。周伟洲先生认为慕容曦皓和慕容曦光是同一个人物(前列注 10 书)，但是从墓志铭内容来看，他们两个并不是同一个人物。

实力的人物。

在两《唐书》等文献史料里，却看不到慕容曦光的名字。但在他妻子武氏的墓志铭<sup>16</sup>里写道“嗣子右金吾卫泌(沁?)州安乐府果毅都尉兆”而且，在两《唐书》里明确地记载慕容兆是慕容曦皓之子，但是慕容曦皓的墓志铭里他的儿子中没有兆。由此笔者推断，慕容兆事实是慕容曦光的孩子，史书把曦皓和曦光混同记载了。

另外，当上可汗的慕容曦皓，据史料 C，与父亲一代不同，没有受到唐朝对他正式册封的迹象。并且唐朝对慕容曦光授予五原郡开国公，对慕容曦皓授予宁朔县开国伯。我们如果比较这两个爵位的话，慕容曦光的爵位比慕容曦皓高。当慕容曦光十七岁的时候，慕容曦皓才出生，并据史料 C，部落要求他从长安回来灵州当可汗。由此笔者推测慕容宣超去世后，慕容曦光在灵州统率部落，也许是在慕容曦皓回来之前当上可汗。曦光四十九岁就去世了，或许因为他的去世，所以部落要求慕容曦皓回到灵州。

因此，被唐朝安置在灵州后，吐谷浑可汗位的世袭情况如下：



(○里数字是即位顺序；※是担任押蕃使的人)

关于慕容曦光担任的“部落使”一职，由慕容明的“押浑副使”(据史料 B)和慕容曦皓的“押蕃浑使”(据史料 C)的实例来推测，可能是“押浑部落使”的省略。慕容曦光至少开元二十六年之前担任此使职。

另外，关于可汗位与押蕃使一职的关系，值得注意的是在《旧唐书》卷一九四下《突厥传》中记载：

……及讨平(阿史那)贺鲁，乃册立(阿史那)弥射为兴昔亡可汗兼右卫大将军、崑陵都护，分押贺鲁下五咄六部落。(阿史那)步真授继往绝可汗兼右卫大将军、濠池都护，仍分押五弩失毕部落。因下诏曰自西蕃罹乱，三十余年。……贺鲁父子既已擒获，诸头部落须有统领。卿早归阙庭，久参宿卫，深感恩义，甚知法式，所以册立卿等各为一部可汗。但诸姓从贺鲁，非其本情，卿等才至即降，亦是赤心向国。卿宜与卢承庆等准其部落大小、位望高下、节级授刺史以下官。【史料 E】<sup>17</sup>

西突厥阿史那贺鲁举旗造反，显庆二年(657)高宗对他进行讨伐。之后，唐朝把在朝廷宿卫的西突厥王族阿史那弥射和阿史那步真都册立为可汗，并设置崑陵和濠池两个都护府，将他们分别任命为都护。唐朝又把贺鲁部下西突厥十姓部落分为五咄六部落和五弩失毕部落，把他们编成

<sup>16</sup> 《大唐故武氏墓志之铭》(收录在宁笃学前列注 10 论文)。

<sup>17</sup> 《通典》卷一九九《边防一五》北狄突厥下也有大略相同记载。关于这个情况，参照伊濑仙太郎：《中国西域经营史研究》(岩南堂书店，1955 年版)，第 231~239 页。

羁縻州，使阿史那弥射和阿史那步真分别“押”他们。按照史料 E 中的诏记载“诸头部落须有统领”和“亦是赤心向国”，唐朝把阿史那弥射和阿史那步真派遣作为部落统率，并试图通过他们使西突厥部落对唐朝竭尽忠诚。

在此《突厥传》里继续记载：

则天临朝，十姓无主数年，部落多散失。垂拱(685~688)初，遂擢授弥射子左豹韬卫翊府中郎将元庆为左玉铃卫将军兼崑陵都护，令袭兴昔亡可汗，押五咄六部落。步真子斛瑟罗为右玉铃卫将军兼濠池都护，押五弩失毕部落。

可见，在武则天时期，阿史那弥射和阿史那步真死后，唐朝让他们的儿子们相继世袭其地位，与他们一样“押”十姓部落。这个由西突厥可汗“押”部落的情况，与吐谷浑的情况大致相同。上述党项的实例也是首领地位的人物当上“押十八州部落使”“防御部落使”等使职。由此可以认为，基于唐朝的统治周围民族的观念和其边境政策，唐朝让附属的少数民族首领统治属下的部落，这称作“押”，而且这个任务可以世袭下去。把少数民族首领“押”自己的部落这个任务变为使职，就是最初的押蕃使。

从欧亚大陆东部的国际形势变化来看，党项和吐谷浑押蕃使的出现主要与吐蕃的动向有关。高宗时期由于吐蕃逐渐扩张势力，党项和吐谷浑部落被夹在唐和吐蕃中间，不得不选择其政治归属。拓跋守寂家族和慕容诺曷钵集团就选择了归属于唐朝。

从吐谷浑国灭亡直到玄宗天宝十四年(755)安史之乱前夕，唐朝和吐蕃继续争夺青海等地区，<sup>18</sup>上面史料 C 记载“西戎为国口敌，势倾山海，蕃邦病之”，就表示唐(玄宗时期)和吐蕃间的战争很激烈，影响到党项和吐谷浑等处“中间”的部落。唐朝积极地把这些归属自己的部落编成羁縻州，试图加强兵力和防卫力。

## 二 押蕃使的转换

### (一) 唐中央派遣押蕃使

由表 1 可见，自从开元年间以后，唐朝国内的人也当上了押蕃使，很多实例表明唐中央派遣押蕃使的情况增多。在所能见到的史料上，最初担任这种押蕃使的是薛泰(表 1No7)。

开元四年(716)由于突厥默啜可汗去世，契丹和奚来附于唐。在《新唐书·契丹传》中记载：

后二年(开元四年、716<sup>19</sup>)，与奚长李大酺皆来，诏复置松漠府，以(李)失活为都督，封

<sup>18</sup> 参照周伟州：《吐谷浑史》(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6 年版)，第 157~166 页；同氏撰《中国中世西北民族关系研究》(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7 年版)，第 259~266 页。另外吐蕃的情况，见薛宗正：《吐蕃王国的兴衰》(民族出版社，1997 年版)。

<sup>19</sup> 关于奚、契丹内附的时间，《旧唐书·契丹传》为开元三年(715)，但《新唐书·玄宗纪》、《资治通鉴》卷二一一、《册府元龟》卷九六四、《外臣部·封册二》都为开元四年(716)。田村实造先生指出《旧唐书·契丹传》的错误，而认为开元四年是合适的。(同氏：《唐代に於ける契丹族の研究—特に开国传说の成立と八部组织に就いて—》，收入《满蒙史论丛》1，1938 年，第 29~30 页)。又，在《旧唐书·契丹传》里云：“又

松漠郡王，授左金吾卫大将军。仍其府置静析军，以失活为经略大使，所统八部皆擢其酋为刺史。诏将军薛泰为押蕃落使，督军镇抚。【史料 F】

可见，玄宗对契丹设置松漠都督府，以其首领李失活任命为都督，并把他部下的八个部落组成羁縻州，令李失活统率它们。这是典型的设置羁縻州的措施。当时对奚设置饶乐都督府，任命其首领李大酺为都督，采取与契丹同样的措施。<sup>20</sup>根据上述史料 F，设置羁縻都督府和羁縻州之际，唐朝任命将军薛泰为押蕃落使，令“督军镇抚”。

最初管理契丹和奚羁縻州的部门是柳城的营州都督府。<sup>21</sup>不过，武后时期发生了契丹李尽忠的叛乱，营州都督府暂时设在幽州渔阳，直到开元五年(717)<sup>22</sup>才回到柳城。所以薛泰当上押蕃落使的时候，营州都督府还在渔阳，无法担当管理契丹和奚的任务。由此笔者认为，玄宗实际是令押蕃落使担此任务，并任命给薛泰，把他派遣到契丹和奚的住处。<sup>23</sup>

虽然后来营州都督府回到了柳城，但开元六年(718)时，薛泰依然执行押蕃使的任务(表 1№7)。开元八年(720)他当上安东都护，<sup>24</sup>可能在那以前他一直领押蕃使之职。依据是《旧唐书》卷一八五下《宋庆礼传》记载：

开元五年(717)，奚、契丹各款塞归附，玄宗欲复营州于旧城，……俄拜庆礼御史中丞，兼检校营州都督。开屯田八十余所，追拨幽州及渔阳、淄青等户，并招辑商胡，为立店肆，数年间，营州仓廩颇实，居人渐殷。

可见营州都督府完全恢复其原有职能需要几年的时间，由此可以认为营州都督府刚迁回柳城时候还没有力量，所以统治羁縻州的任务仍旧要借助押蕃使的辅助。

此时，在胜州也设置了与押蕃使相似的使职。与上述的契丹和奚一样，由于默啜可汗之死，很多突厥部落来投降唐朝。开元四年(716)玄宗就令杨执一为检校胜州都督而兼领“处置降户使”(表 1№8)。关于这个情况，石见清裕先生指出：开元四年(716)突厥部落来投降时，唐朝把他们以部落为单位，安置在诸州管辖下。根据斯坦因(Stein)1344 号文书《开元户部格残卷》，这种措

---

以将军薛泰督军以镇抚之。明年失活入朝，封宗室外甥女杨氏为永乐公主以妻之。”可见任命薛泰为押蕃落使的时间是在永乐公主降嫁的前一年。并且根据《新唐书·契丹传》、《通典》卷二〇〇、《唐会要》卷九六，公主降嫁的时间是开元五年(717)。由此，薛泰当上押蕃落使是开元四年(716)。

<sup>20</sup> 见《旧唐书》卷一九九下《奚国传》。

<sup>21</sup> 见《旧唐书》卷三九《地理志》。另外，关于营州都督府的变迁和契丹的动态，参照田村实造前列注 19 论文。

<sup>22</sup> 只是《旧唐书·地理志》为开元四年(716)，但同书卷八《玄宗纪上》、卷一八五下《宋庆礼传》、《新唐书》卷三九《地理志》、《唐会要》卷七三、《资治通鉴》卷二七都为开元五年(717)。在《册府元龟》卷九九二《外臣部·备御五》记载再置营州都督府的诏敕在开元五年(717)。由此笔者判断，在柳城再置营州都督府是开元五年(717)。

<sup>23</sup> 在《旧唐书》卷一九九下《靺鞨传》记载：

开元十三年(725)，安东都护薛泰请于黑水靺鞨内置黑水军。续更以最大部落为黑水府，仍以其首领为都督，诸部刺史隶属焉。中国置长史，就其部落监领之。

对于黑水靺鞨设置的军、羁縻都督府、州，唐朝派遣长史到当地，令监督它们。由此可以认为，营州都督府在幽州渔阳的时候，薛泰也作为押蕃落使到契丹和奚的住处去上任。

<sup>24</sup> 《资治通鉴》卷二一二，玄宗开元八年末条。

施从武后垂拱元年(685)已经开始。那时原应管理羁縻州的单于都护府就处在不能发挥作用的状态。<sup>25</sup>

也就是说,玄宗任命杨执一为处置降户使的背景有单于都护府作用不良的因素。此与营州的情况相同。又,〈表 1№6〉的凉州都督、河西节度使担任“督察九姓部落使”在开元二年(714),<sup>26</sup>由此看来,唐中央派遣人担任有关附属少数民族的使职起因于默啜可汗死亡前后突厥国内的混乱,并且是针对都护府和边州都督府的作用不良的情况而设置的。这一点值得注意。

我们看薛泰的任务。这次内附以前契丹和奚附属于突厥,屡次侵犯唐,由此可以推测唐朝尤其要防止它们再次背叛。《册府元龟》卷九九二《外臣部·备御五》记载玄宗给契丹大臣可突于的文书记载:

(开元六年,718)六月己(巳)丑,松漠郡王失活卒,降书于契丹衙官静柝(析)军副大使可突于……近得押蕃使<sup>27</sup>薛泰表云,突厥杀儿到大洛扬言,万众欲抄两蕃。左手有急,右手不助,既在一身,得其自勉力捍,时须觉察,审防奸诈。【史料 G】

可见薛泰作为押蕃(落)使对朝廷报告契丹和奚的情况。由此可以认为,薛泰作为契丹和奚的押蕃使,为了防止它们背叛,监视其辖下的羁縻都督、州,并把它们的动向报告朝廷。史料 G 继续记载“动静与宋庆礼等筹度勿失事理”,就是唐朝对可突于命令与营州都督宋庆礼等商量行动。当时宋庆礼和薛泰可能共同管理契丹和奚的羁縻州,尤其是薛泰,作为专职去现场,执行监视等实际的任务。

其次,我们看在安史之乱刚结束时候设置押蕃使的情况,在《新唐书》卷二二一上《党项传》中记载:

先是,庆州有破丑氏族三、野利氏族五、把利氏族一,与吐蕃姻援,贲普悉王之,因是扰边凡十年。(郭)子仪表工部尚书路嗣恭为朔方留后、将作少监梁进用为押党项部落使,置行庆州。且言,党项阴结吐蕃为变,可遣使者招慰,芟其反谋,因令进用为庆州刺史,严逻以绝吐蕃往来道。代宗然之。又表置静边、芳池、相兴王(三)<sup>28</sup>州都督、长史,永平、旭定、清宁、宁保、忠顺、静塞、万吉等七州都督府。【史料 H】

可见,朔方节度使郭子仪辟召将作少监梁进用为“押党项部落使”和庆州刺史,以及对党项设置静边等羁縻都督府组织。并且,郭子仪想要在庆州设置押党项部落使,辟召梁进用的目的就是引诱

<sup>25</sup> 石见清裕:《唐の突厥遗民に対する措置》(收入《唐の北方问题と国际秩序》),第132~135页。

<sup>26</sup> 在《新唐书》卷六七《方镇表》记载:景云元年(710)河西节度使兼领督察九姓部落使,但没有当时担任节度使的贺拔延嗣兼领此使职的记录,而在《唐会要》卷七八《诸使中》河西节度使条记载:“至开元二年(714)四月,除阳(杨)执一,又兼赤水九姓本道支度营田等使”,由此最初有杨执一的记录,所以笔者推断督察九姓部落使的设置是在开元二年(714)。

<sup>27</sup> 由史料 F 来看,应该是“押蕃落使”。

<sup>28</sup> 由文意来看,此“王”应该是“三”。

党项归属于唐朝——“招慰”<sup>29</sup>，同时为了防止党项暗中勾结吐蕃严格监视他们。

黎虎先生已经指出过，押蕃使多为边境军事单位所兼领，<sup>30</sup>只是由上面考察的情况来看，特别是唐中央派遣押蕃使的中心任务，不是军事行动，而是为了防止被编成羁縻州的少数民族结合吐蕃和突厥等外部势力，加以监视和控制而使他们归属于唐朝。

## （二）两类押蕃使的差异

那么，从唐中央派遣的押蕃使与党项首领、吐谷浑可汗担任的押蕃使有什么样的差异呢？

首先来看吐谷浑的情况，开元年间守灵州都督白知节(表 1№17)和开元十六年(728)的朔方节度使(本官是灵州都督)都兼领“检校浑部落使”(表 1№18)，由此名称来看，检校浑部落使可能是监督吐谷浑部落的使职。<sup>31</sup>因此，虽然吐谷浑可汗当上了押蕃使而统治整个自己的部落，但是他们都在检校浑部落使也就是灵州都督的监督之下。

其次是党项的情况，据史料 A，开元二十四年(736)时拓跋守寂之弟拓跋守礼担任“助知检校部落使”一职(表 1№22)。由此职名的“助知”字来推测，另有中央派遣的检校部落使，拓跋守礼就担任相当于其副官职位，或者他临时担任此职位。并且，后来天宝十载(751)银川郡(银州)都督兼领“押吐蕃党项使”(表 1№34)，即唐朝从中央派遣的押蕃使设置在银州。由此可以认为，吐谷浑可汗的押蕃使和党项拓跋家族的押蕃使受到检校部落使的监督。但是，从唐中央派遣的押蕃使没有这种情况。

我们应该注意，据史料 C 和《旧唐书·吐谷浑传》，玄宗在慕容曦皓即可汗位时虽然授予押蕃使，但没有正式册封为可汗。但是据《旧唐书·吐谷浑传》，在武后圣历三年(700)，他父亲慕容宣超受到唐朝的册封成为可汗。<sup>32</sup>由此可以判断，玄宗改变方针，慕容宣超去世后，他一边废除了唐朝对吐谷浑进行册封为可汗的惯例，一边加强以吐谷浑为内地民，授予五原郡开国公、宁朔县开国伯等中国内地的爵位，并任命为押蕃使，由此保证统率部落的权力，同时编入唐国家体制内。另外关于党项的情况，据史料 A，党项从拓跋思泰一代开始就得到“西平郡开国公”的爵位和“防御部落使”的任命。拓跋思泰在开元九年(721)去世，<sup>33</sup>虽然不清楚唐朝什么时候对他授予上述爵位和使职，但我们可以推测，至少在开元年间他们的情况与吐谷浑的相同。

总之，玄宗通过吐谷浑可汗的押蕃使之职，令灵州都督兼领检校浑部落使管理吐谷浑部落，似乎党项拓跋部落也是相同情况。即边州都督统治附属少数民族的形式仍被保持下来了。不过，这种情况只是在吐谷浑和党项看到，所以不能一般化。另外，中央派遣的使职开始出现主要由于两个因素，即第一，突厥国内的混乱，给北方诸民族带来了动摇，增加向唐内附的少数民族；第二，羁縻州统治体制的都护府和边州都督府效能下降。玄宗任命薛泰为押蕃落使、任命杨执一为

<sup>29</sup> 石见清裕先生指出：“招慰”这一行为指作为国家的政策，招揽某些地域、集团、组织等而编入自己的支配下(参照石见前列注 3《唐代外国贸易·在留外国人をめぐる诸问题》，第 516~517 页)。

<sup>30</sup> 见黎虎前列注 5《汉唐外交制度史》，第 512 页。

<sup>31</sup> 陈国灿先生把“检校浑部落使”看做检校官(见《全唐文职官丛考》武汉大学出版社，1997 年版，第 44~45 页)。但是在《旧唐书》卷一九四上《突厥传》里云：“时有阿史德元珍，在单于检校降户部落，尝坐事为单于长史王本立所拘禁，会骨咄禄入寇，元珍请依旧检校部落。”由此可以把“检校”看做“监督”意义的动词。

<sup>32</sup> 慕容忠的墓志铭也明确写道“袭青海国王、乌地也拨勤豆可汗”(见《全唐文补遗》第 3 辑，三秦出版社，1996 年，第 510 页)。

<sup>33</sup> 见宋本《册府元龟》卷九七四《外臣部·褒异一》开元九年六月丁酉条。

处置降户使等等，设置从中央派遣使职，由它们对都护府和边州都督府的任务进行补充。并且由灵州都督兼领检校浑部落使的实例来看，玄宗朝开始了由以都护府和边州都督府为核心的羁縻州统治向利用使职进行直接统治的政策性转换。只是，唐朝中央派遣押蕃使的出现，并不意味着取消原来的少数民族首领押蕃使，此两类押蕃使直到唐末一直并存。此两类押蕃使的出现都是与国际形势的变化有关，安史之乱前唐朝为应对吐蕃势力逐渐抬头及突厥兴衰等情势调整其边境政策。

### 三 节度使体制下的押蕃使 — 以朔方节度使的情况为中心 —

#### (一) 安史之乱前的情况

节度使最早兼领有关附属少数民族的使职在开元二年(714)，当时，河西节度使(兼任凉州都督)兼领“督察九姓部落使”(表 1№6)。对于押蕃使，开元二十四年(736)朔方节度使最早兼领“押诸蕃部落使”(表 1№20)。朔方节度使统领关内道一带广大的地区，担任北边防卫。在此领域里，有不少都护府、都督府、军、城和它们管理的羁縻州，是北边羁縻州统治的重点区。<sup>34</sup>

如上所述，灵州都督一直兼领检校浑部落使，之后开元十六年(728)由朔方节度使兼领(表 1№18)。当时节度使信安王李祎虽然不担任灵州都督，但朔方节度使的治所在灵州，因而他兼领检校浑部落使。然后在开元二十四年(730)牛仙客担任节度使时，第一次兼领押诸蕃部落使(表 1№20)。<sup>35</sup>由此名称可见，它要管理若干少数民族部落的使职，并如后述，也有下层组织。虽然它属于押蕃使的范畴，但是与管理个别少数民族的押蕃使不同，更有综合的特性。

首先关于朔方节度使兼领押诸蕃部落使的理由，李鸿宾先生考察朔方节度使发展的情况时，根据《新唐书·方镇表》指出：从开元十四年(726)起，朔方节度使陆续兼领关内支度营田使、关内盐池使等使职加强权力，在此情况下，朔方节度使也兼领押诸蕃部落使，这事反映出在该使辖区内蕃部的控制权直接归由它掌握，表明朝廷进一步加强了对关内道各部族的控制，唐廷以军事强力(主要是御边固守)的手段开始取代行政控制即羁縻为核心的政策。<sup>36</sup>

下面实例可以证实他的意见：目前我们可以确认，开元二十五年(737)时蒲州甘泉府别将武令珪已兼领“夏州押降户使”(表 1№23)<sup>37</sup>；开元二十八年(740)或天宝三载(744)，安化郡(庆州)太守兼领“党项使”(表 1№29)；天宝十载(751)银川郡(银州)都督兼领“押吐蕃党项使”(表 1№34)，在灵州以外也设置了从中央派遣的押蕃使。另外，据史料 H，由朔方节度使郭子仪辟召梁进用为押党项部落使。当时郭子仪应该兼领押诸蕃部落使。由此可以推断，押诸蕃部落使可以辟召各个民族的押蕃使，即庆州和银州的押蕃使构成押诸蕃部落使的下层组织。换句话说，当时

<sup>34</sup> 参照李鸿宾：《朔方军节度使的确立与极盛》(收入同氏撰《唐朝朔方军研究 — 兼论唐廷与西北诸族的关系及其演变》吉林人民出版社，2000年版)。

<sup>35</sup> 在《新唐书》卷六四《方镇表》写道开元二十年(732)朔方节度使兼领押诸蕃部落使之事，以及在《唐会要》卷七八《诸使中》朔方节度使条记载：“(开元)二十年四月，除牛仙客，又加押诸蕃部落使”由此可见唐朝任命牛仙客为朔方节度使之际第一次设置押诸蕃部落使。但是据两《唐书·牛仙客传》，他开元二十年担任河西节度使，开元二十四年才上任朔方节度使，由此可以认为《新唐书·方镇表》和《唐会要》记载的时间有误，应该是牛仙客被任命为朔方节度使和押诸蕃部落使在开元二十四年。

<sup>36</sup> 见李鸿宾前列注 34 书，第 115~127 页。

<sup>37</sup> 由于突厥复兴，单于都督府撤废，其四都督府侨置在夏州，所以此职任务可能是管理突厥降户(见石见前列注 25《唐の突厥遗民に対する措置》)。

已经确立了以押诸蕃部落使为最高机构的管理各州附属少数民族的系统，这表明唐朝随节度使辖区重新整顿了边境防卫和经营体制。

其次关于设置押诸蕃部落使的理由，值得注意的是六胡州的叛乱<sup>38</sup>之后，唐朝采取的处理办法。此叛乱是开元九、十年(721~722)关内道羁縻州的居民发动的。唐朝镇压叛乱，史料 D 记载“去开(元)九年，六州叛，复领所部兵马，摧破凶胡……至开(元)十年，胡族再叛。立功授左威卫将军”，由此可见，此时唐朝动员汉兵和吐谷浑慕容曦光等听从中央号令的羁縻州蕃兵。镇压后，唐朝撤废六胡州，将其居民移到许、汝、唐、邓、仙、豫等州。在《唐大诏令集》卷一二八《遣牛仙客往关内诸州安辑六州胡敕》里记载：

如闻已有逃在关内诸州及先招携在灵庆州界者，宜委侍中牛仙客，于盐夏等州界内，选土地良沃之处，都置一州，兼量户多少置县。

并且，在《旧唐书》卷九《玄宗纪》里记载：

(开元)二十六年(738)春正月乙亥，工部尚书牛仙客为侍中。……(九月)庚子，于旧六胡州地置宥州。

可见，后来六胡州居民逃回来关内道诸州，玄宗针对这个情况，开元二十六年(738)九月派遣牛仙客到关内道，令他设置宥州安置六胡州居民。这一任务交给牛仙客，是因为他当时虽然是遥领，但是担任朔方节度使，同时兼领押诸蕃部落使。

关于忠王李玕(表 1№25)和牛仙客的关系，牛仙客在开元二十四年(736)上任朔方节度使时，他职位确切说是节度副大使。<sup>39</sup>开元二十六年(738)李玕上任朔方节度大使，不过节度大使的职位大概是由亲王所遥领的。由此可以认为，在开元二十四年(736)牛仙客上任节度副大使时应该另有亲王的任节度大使。在《唐会要》卷七八《诸使中》亲王遥领节度使，开元四年(716)条记载：“其在军节度，即称节度副大使，知节度事”，可见亲王遥领节度使好像是名义上的职位，负责事实是上任副大使的牛仙客。对于朔方的押诸蕃部落使，可能是与节度使一样的情况，因而设置宥州之际，受到命令的是牛仙客，而不是李玕。

由此，唐朝设置押诸蕃部落使的理由是：当开元二十四年(736)设置此使职时，六胡州居民逃回来关内道诸州的情况已经表面化，并且由于其他很多少数民族也住在关内道，因此需要能统治羁縻州的上级机构。

总之，唐中央派遣押蕃使的时期与节度使兼领押蕃使的时期很接近，两者都在开元年间(713~741)，更表明玄宗采取加强统治羁縻州的政策。

<sup>38</sup> 关于这个叛乱的情况，参照小野川秀美：《河曲六州胡の沿革》(载《东亚人文学报》1-4, 1942年)；周伟洲：《唐代六胡州与“康待宾之乱”》(载《民族研究》1998年第3期)；刘统：《六胡州的沿革与变迁》(收入同氏撰：《唐代羁縻府州研究》西北大学出版社，1998年版)等。

<sup>39</sup> 见孙狄：《授牛仙客殿中监制》(收入《文苑英华》卷三九九)。

## (二) 安史之乱后唐、吐蕃、回鹘三国鼎立时期的押蕃使

众所周知，安史之乱爆发后，吐蕃攻陷唐河西陇右地区，有时连唐朝首都长安也处于其威胁下。并且在蒙古高原的回鹘汗国拥有强大军力，给唐朝造成很大压力。加之唐国内割据势力抬头，唐朝突然陷入了内忧外患的情况。从乱后到回鹘汗国灭亡(840)前的时期，欧亚东部的国际形势主要以回鹘、吐蕃、唐这三国为中心展开。<sup>40</sup>因此本文将这个时期称做欧亚东部三国鼎立时期。这个时期也可以分为前后两个时期：前期是从安史之乱后到长庆会盟(821~822年)，唐朝、吐蕃、回鹘三国处于严峻的对立状态，但后来唐朝和回鹘缔结了同盟，一起对抗吐蕃，只是唐朝和回鹘的关系不一定是真正的“友好”，两者都是为了自己的利益行动的<sup>41</sup>；后期是从长庆会盟到回鹘汗国灭亡时期，由于长庆会盟，三国关系相对稳定。<sup>42</sup>

因而，对唐朝来说，在三国鼎立前期从外部受到极大压力，这个时期唐朝受到外部压力最大的地方是西北边境，就是朔方节度使管辖的关内道。但是由于国际形势已经变化，即唐边境的防卫线发生了很大的变化。因此唐朝需要针对朔方军进行军制改革。关于这一情况，李鸿宾先生等有些学者已经做了考察，<sup>43</sup>因此本文不再赘述。简言之，唐朝将朔方军加以分割，在此分别设置几个藩镇，即所谓京西京北藩镇，<sup>44</sup>同时不断地提高神策军的权力，从而形成了以这些藩镇为主的新的边防格局。

唐边境防卫线的变化，也给唐朝的羁縻州管理带来很大影响。由于吐蕃东进也引起了附属少数民族的移动，由此可以认为以前存在的管理羁縻州的体系又崩坏了。因此唐朝在西北边需要重新建构羁縻州管理体制。例如：乾元元年(756)设置振武节度使以及贞元三年(787)设置夏州(夏绥银)节度使，唐朝于设置这两个节度使同时令它们兼领“押蕃部落使”。<sup>45</sup>贞元十二年(796)分割朔方和振武的辖区来设置天德军都团练防御使，<sup>46</sup>至少可以确认元和九年(814)它兼领押蕃部落使。<sup>47</sup>由此可见，随着增设藩镇，唐朝也增设押蕃使。这些藩镇在北边防卫上占有重要的位置，在此辖区内有党项等大量各族部落。唐朝为了监视他们和利用其兵力，在新设的藩镇设置押蕃使。也就是说，唐朝在重新构筑边防格局同时也构成了新的羁縻州地带。

## 结 语

押蕃使原来是授予附属少数民族首领的使职，以使他们统领部下，尽忠唐朝。但是，以开元四年(716)突厥默啜可汗之死和突厥国内的混乱为契机，唐朝开始从中央派遣押蕃使，于是押蕃使变为中央监督、统治羁縻州，防止它们勾结外部势力的管理羁縻州的使职。

<sup>40</sup> 参照妹尾达彦：《中华の分裂と再生》（收入《岩波讲座世界历史》9，岩波出版社，1999年版），第57页。森安孝夫：《シルクロードと唐帝国》（讲谈社，2007年版），第346~352页。

<sup>41</sup> 见林俊雄：《ウイグルの対唐政策》（载《创价大学人文论集》第4号，1992年）。

<sup>42</sup> 森安孝夫先生指出长庆会盟时唐、回鹘、吐蕃三国缔结了盟约（前列注40书，第350~352页）。

<sup>43</sup> 例如王吉林《唐代的朔方军与神策军》（载《第一届国际唐代学术会议论文集》，台湾唐代研究学者联谊会，1989年2月）；李鸿宾前列注34书，第五章~第八章。

<sup>44</sup> 参照黄利平：《唐京西北藩镇述略》（载《陕西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1年第1期）。

<sup>45</sup> 见《文苑英华》卷四五四《授唐朝臣振武节度论惟明鄜坊观察使制》；《新唐书》卷六四《方镇表一》。

<sup>46</sup> 见《新唐书》卷六四《方镇表一》。

<sup>47</sup> 见《旧唐书》卷一五《宪宗纪下》元和九年六月丙戌条。

唐朝开始由中央派遣押蕃使后不久，唐朝也开始随节度使辖区的设置而整顿边境防卫体制，在此过程中，押蕃使为节度使所兼领。在安史之乱前，朔方节度使兼领押诸蕃部落使，并充实下层组织。也就是说，在此辖区内，以节度使兼领的押蕃使为最高层，建立了统治羁縻州系统。在安史之乱后，针对回鹘和吐蕃的兴起，在几种与少数民族相关的使职中，押蕃使逐渐被设置在边境藩镇。除了东南沿海地区以外，押蕃使还广泛设置在内陆边境地区。<sup>48</sup>

另外，押蕃使的名称，有的包含部落、民族名称，并且其对象是周边的部落、民族、国家，由此可以认为唐朝以传统的羁縻州为前提，按照附属少数民族的部落、国家等现有的存在形式用押蕃使进行理解与控制。例如山东的平卢淄青节度使兼领主要以新罗和渤海两国为对象的押新罗渤海两蕃使，<sup>49</sup>唐朝一方面名义上在新罗和渤海地方设置鸡林州和忽汗州，制造一种该地属于唐朝掌握范围内的表象，另一方面在它们的押蕃使名称上采用其国号(或集团名称)，事实上承认它们作为国家(或某种集团)的地位。由此我们可以认为：唐朝的押蕃使制度(尤其是中央派遣的)的出现是唐朝面临羁縻州制度崩溃的情况，采取更现实的措施。并且因为各个押蕃使管理不同少数民族，由此可以推断按照对象部落、民族的具体情况，其任务有些差异。

关于欧亚东部国际形势和唐朝的对策，从高宗时期始，吐蕃和突厥等外部势力渐渐强大，并蚕食唐的羁縻州，统治广大羁縻州地域的中心都护府也逐渐向内迁移或被撤废，由此，唐朝所能管理的羁縻州的领域缩小了。针对这种情况，为了维持经营对外势力的防卫地带，唐朝不得不转换机制，以便彻底支配内地附近的羁縻州。押蕃使就是在此转换期出现的统治羁縻州的使职。安史之乱后，唐朝突然陷入了内忧外患的情况，因而唐朝为了保持国家存在，采取了各种各样的措施。其中在边境政策上，唐朝加强西北边境的防卫，进行军制改革。此时也利用押蕃使制度重新构建了新的羁縻州地带。押蕃使制度延续到北宋，也传播到同时代的渤海。<sup>50</sup>

---

<sup>48</sup> 见黎虎前列注 5 论文。

<sup>49</sup> 关于平卢淄青节度使兼领的押新罗渤海两蕃使，已有很多论文，例如：孙慧庆《唐代平卢节度使南迁之后琐议》(载《北方文物》1992年第4期)；马一虹：《渤海与唐朝押蕃使关系考》(载《欧亚学刊》第4辑，中华书局，2004年)；姜清波：《试论唐代的押新罗渤海两蕃使》(载《暨南学报[人文科学与社会科学版]》2005年第1期)等。

<sup>50</sup> 渤海采取唐朝押蕃使制度，见黎虎前列注 5 论文。

【补注】 这篇文章是将笔者 2003 年在《东洋学报》第 84 卷第 4 号上发表的论文(原题为：《押蕃使の设置について—玄宗期における对异民族政策の转换—》)订补而成。因为公开史料 A 的时间与发表拙文是同一年，所以笔者不能参照它。由此改正我们可以确认的最早押蕃使的时间和表 1 等。

《表 1 唐前期附属少数民族相矣使职》

No	时间(公历)	附属少数民族相矣使职	被任命者	地方	地方官职	主要兼领职位	典据	备考
1	仪凤年 (676-678)	十八州部落使	拓跋立伽	银州		大将军	《拓跋守寂墓志》	收入《榆林碑石》(三秦出版社, 2003年版, 第51页, 录文第224-225页)等。
2	仪凤年后武后时期	押十八州部落使	拓跋罗胃 (胃)	银州		右监门卫将军、防河 军大使	《拓跋守寂墓志》	
3	仪凤年后武后时期	押淳恤等一十八州部落 使	拓跋后那 (舟β)	静边州(银 州)	静边州都督	防河军大使	《拓跋守寂墓志》	
4	景云2-开元 26(711-738)	押浑副使	慕容明	灵州	检校甄甄府 都督	左屯卫将军	《慕容明墓志》	收入《隋唐五代墓志汇编》北京 卷第一册(天津古籍出版社, 1991年, 第175页)等。
5	开元2(714)前	安抚朔方诸蕃部落使	王海宾	丰州(九原 郡)	九原太守	丰安军使	全 369	开元2年战死(新传、旧传)
6	开元2(714)前	督察九姓部落使	杨执一	凉州	凉州都督	河西节度使	英 895、会 78	新 67云:景云元年(710)河西节 度使兼领
7	开元4(716)	押蕃落使	薛泰	营州附近?		将军	新 219	
8	开元4(716)左右	处置降户使	杨执一	胜州	检校胜州都 督		英 895	
9	开元4(716)	安抚河东内陇右诸蕃 部落使	郗王李嗣 直	安北都护 府	安北都护		会 78、通 211	亲王遥领。旧·靖德太子琮传云 “安西大都护”。
10	开元4(716)	(安抚)河西四镇诸蕃落 使	陝王李嗣 昇	安西都护 府	安西都护		旧 10、通 211、 会 78	亲王遥领。
11	开元6(718)	押蕃(落)使	薛泰	营州附近?			册 992	

12	开元8(720)	管内诸蕃使	许钦琰	营州	营州都督	平卢节度使	新66、会78	
13	开元9(721)前	防御部落使	拓跋思泰	静边州(银州)	静边州都督	右监门卫将军外置同正员、使持节淳恤等一十二州诸军事	册974	
14	开元9-24(721-736)	防御部落使	拓跋守寂	静边州(银州)	静边州都督	特进右监门卫大将军、使持节淳恤等一十八州诸军事	《拓跋守寂墓志》	
15	开元15(727)	九姓使	王君口	凉州	判凉州都督	河西节度使	英907	
16	开元15(727)左右	九姓使	萧崇	凉州	判凉州都督	河西节度使	英876	遥领。据旧·萧崇传，推断为开元15。
17	开元中期?	检校浑部落使	白知节	灵州	守灵州都督		全30	
18	开元16(728)	检校浑部落使	(信安王李禕)	灵州		朔方节度使	新64	据通213，推断被任命者为李禕。
19	开元18左右-26(730-738)	(押浑?)部落使	慕容曦光	灵州		朔方节度副使	《慕容曦光墓志》	收入夏鼐：《武威唐代吐谷浑慕容氏墓志》(载《历史语言研究所集刊》第20上，1947年)等。
20	开元24(736)	押诸蕃部落使	牛仙客	灵州		朔方节度使	英399	后来遥领。
21	开元24(736)左右	九姓使	崔希逸	凉州	判凉州事	河西节度使	英406、452	
22	开元24(736)左右	助知检校部落使	拓跋守礼	静边州(银州)?		游骑将军、守右卫卫翊府右郎将员外置宿卫	《拓跋守寂墓志》	
23	开元25(737)前	夏州押降户使	武令珪	夏州		蒲州甘泉府别将	《武令珪墓志》	收入《榆林碑石》，第53页，录文第225-226页。

24	开元 26(738)	九姓使	李林甫	凉州	判凉州事	河西节度使	诏 52	遥领。
25	开元 26(738)	押诸蕃部落使	忠王李瑁	灵州	单于大都护	河东河北行军元帅、朔方军节度大使	诏 28	亲王遥领。
26	开元 28(740)	押四蕃(及)渤海黑水等四府经略处置使	王斛斯	营州		平卢军节度副使	新 66、会 78	
27	开元 29(741)	押四蕃渤海黑水四府经略使	安禄山	营州	营州刺史	平卢军节度副使	旧 9	
28	开元末期?	押蕃浑使	慕容曦皓	灵州?			《慕容曦皓墓志》	收入《隋唐五代墓志汇编》陕西卷第 4 册, 第 37 页)等。
29	开元 28or 天宝 3(740or744)	党项使	吴从众	安化郡(庆州)	安化郡太守		《嘉泰吴兴志》14	《嘉泰吴兴志》本文记载开元 28·密州刺史充党项使,但是引用文的左文质《吴兴统记》记载天宝 3·安化郡(庆州)太守,由此可以认为密州是错吴,应该是庆州。
30	开元末天宝初	新罗渤海诸蕃使	王惟忠	登州	登州刺史	河西节度使	《王逖墓志》	收入《匋斋臧石记》31。
31	天宝 1(742)左右	九姓使	(王侏)	凉州	判武威郡事	河西节度使	英 648	据通 215,推断被任命者为王侏。
32	天宝 9(750)	押四蕃渤海墨(黑)水等四府节度处置使	安禄山	幽州	范阳大都督府长史、柳城郡(营州)太守	范阳节度使	册 129	兼领平卢军节度使。

33	天宝 10(751)	押诸蕃部落使	李林甫	灵州	安西大都护	朔方节度使	册 329、诏 52	遥领。诏 52 记载开元 24。但据旧·李林甫传，当为天宝 10。
34	天宝 10(751)	押吐蕃党项使	臧希庄	银川(银州)	银川郡都督		《臧怀亮与妻合柩墓志》	收入《隋唐五代墓志汇编》陕西卷第 4 册,第 15 页。
35	至德 1(756)	押回蕃渤海黑水四府经略使	刘客奴(正臣)	柳城郡(营州)	柳城郡太守	平卢军节度使	旧 145	
36	乾元 1(758)	押蕃落使		镇北大都护府(单于都护府)		振武节度使	新 64	
37	上元 1(760)	押诸蕃部落使	郭子仪	灵州	灵武大都督 府长史、单于镇北副大都护	朔方节度使	册 129	
38	广德 2(764)	押诸蕃部落使	仆固怀恩	灵州	灵武大都督 府长史、单于镇北副大都护	朔方节度使	旧 11、册 164	上任节度使是宝应 1 (762)。

注 1. 附属少数民族相矣使职位,除了<No 4 慕容明>(和<No 22 拓跋守礼>)以外,省略副官和判官等。

注 2. 典据的省略,“会”《唐会要》;“旧”《旧唐书》;“新”《新唐书》;“诏”《唐大诏令集》;“英”《文苑英华》;“册”《册府元龟》;“通”《资治通鉴》;“全”《全唐文》,以及阿拉伯数字表示卷数。



## <唐代押蕃使의出現和欧亚东部国际形势的变化> 토론요지

김선민

1. 본 논문은 당대 고종기 이후 토번세력의 신장과 돌궐세력의 부흥에 따른 당조의 대외정책변화를 押蕃使의 설치와 활동을 통해 살펴본 글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唐初 都護府 중심의 기미주 통치는 고종기에 토번과 돌궐의 강대화로 당의 기미주를 잠식함에 따라 기존 도호부를 내지에 가까운 쪽으로 遷徙하거나 철폐하는 등 기미주 영역이 축소되어갔다. 그 대응책으로 당은 내지에 가까운 기미주를 철저히 지배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기에 기미주를 통치하는 使職으로서 출현한 것이 압번사라는 것이다.

2. 먼저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한다.

(1) 본 논문에서는 시종일관 ‘唐의 羈靡州’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러한 ‘기미주’는 당대 전 시기를 통해 존속했다가고 보는 것 같다(예: 기미주 편성, 기미주 잠식, 기미주 통치, 새로운 기미주지대 구축 …) 그렇다면 ‘기미주’란 무엇인가? ‘기미주’란 어떤 개념의 말인가?

(2) 이른바 ‘기미주’에 속한 이민족을 통치한 것은 누구인가?

본 논문에 의하면 초기에는 이민족 수령을 可汗 및 압번사로 삼아 자기 부락을 통치하게 하는 동시에 내지출신의 檢校部落使로 하여금 이를 관리감독하게 했다(예: 檢校渾部落使). 한편으로 현종조에는 돌궐의 혼란으로 이민족의 당조 來附가 증가하는 정세변화 속에서 이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없는 도호부·도독부를 보조하기 위해 압번사를 설치하였다(예: 751년 銀州都督兼領押吐蕃黨項使). 이러한 압번사의 설치에 도호부·변주도독부를 핵심으로 하는 기미주 통치로부터 使職을 이용해 직접 기미주를 통치하는 정책전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監督’ ‘管理’ ‘統治’ 등의 용어는 정치와 관련한 중요 개념으로서 그에 대한 엄밀한 개념규정을 한 다음에 신중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계속해서 ‘도호부가 기미주를 통치’ ‘기미주통치체제’ ‘사직을 이용해 기미주를 직접 통치하는’ ‘기미주를 통치할 수 있는 상급기구 필요’ ‘기미주 통치 임무는 압번사의 보조가 필요’ … 등등의 예에서 보듯 시종일관 唐 또는 도호부가 기미주를 ‘통치’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묻는다. ‘통치’란 무엇인가?

3. 당조의 이민족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각 이민족의 통치구조를 비롯한 제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7세기에서 8세기 중반에 걸쳐 來附 또는 來降한 이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압번사 설치를 집중 고찰하였다. 그럼에도 ‘감독’해야 할 來降 이민족의 정치적 성격이나 사회적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관4년(630) 頡利可汗 패망 이후 塞內로 대거 유입해온 돌궐 來降자 처리를 둘러싼 논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降戶는 스스로 內附해온 자들로, 內徙 후에도 본래의 부락조직과 생업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兵裝을 소지하고 뛰어난 기동성을 갖춘 위험한 무력집단이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당조가 마음대로 지배, 통제할 수 있는 무력한 ‘降服’자들이 아니었다. 塞內의 내항자가 이렇다면 塞外 ‘기미주’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정관기 향호처리시 하북(河套이북)귀환론자들의 주장도 위험한 집단을 내지에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고, 최종 채택된 河南分置論 역시 유목 부족들을 분산 안치

하여 상호분쟁을 방지함으로써 강력한 유목제국의 출현을 막는다는 방안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부 이민족의 무력집단으로서의 성격, 이들의 내부적 세력구조 변화를 고려함 없이 다만 당조측의 압번사 설치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당조의 정책변화를 논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개원기 압번사 파견이 왜 ‘기미주통치’ 강화의 증거가 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 4. ‘압번사’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본 논문은 압번사의 설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본 글이다. 저자는 ‘押’의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모두 대략 ‘統治’에 가까운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附屬한 이민족 수령에게 押\*\*部落使를 수여하여 속하 부락을 통령하도록 했는데 이를 ‘押’이라 칭한다” “이 임무가 使職으로 바뀐 것이 압번사이다”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개원기 이후 중앙에서 파견한 압번사의 임무를 “기미주를 감독·통치하고, 외부세력과의 결탁 방지를 위해 기미주와 도독을 감시하고 동향을 보고하는 일”이라 한 점, “營州도독부의 역량 부족으로 기미주 통치임무는 여전히 압번사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여 도호부 또는 도독의 기능 저하에 따른 보충을 압번사의 임무로 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들은 압번사의 임무와 역할에 관해 의문을 갖게 한다.

『舊唐書』 권11, 太宗本紀, 大曆10년(775)2월, “甲申, 以平盧淄青節度觀察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檢校工部尚書、青州刺史李正己檢校尚書左僕射.”

『舊唐書』 권12, 德宗上, 興元元年(784), “淄青節度使承前帶陸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 宜令李納兼之.”

『舊唐書』 권13, 德宗下, 貞元8년(792)8월, “辛卯, 以青州刺史李師古為鄆州大都督府長史、平盧淄青等州節度觀察海運陸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많은 ‘押’의 용례가 보이는데 한 예로 840년 圓仁의 여행허가증 발급과 관련하여 登州도독부에서 押兩蕃使에게 올린 公文이 있다. 775년 李正己가 平盧淄青절도사로 올립되고 押新羅渤海兩蕃使로 임명된 사실로부터 보면 押兩蕃使란 押新羅渤海兩蕃使를 가리킨다. 이것은 신라·발해 거류민의 사무, 使節의 왕래에 따른 외교적 업무 등을 맡는 長으로서, 青州절도사가 겸하고 있었다. 圓仁이 외국승인 관계로 圓仁의 공험 발급은 押兩蕃使의 소관이다(金文經,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 중심, 2001, pp.255-258).

만약 저자의 관점에 따른다면 770년대의 평로치청절도사나 840년대의 청주절도사 모두 押兩蕃使라는 직책으로 신라·발해를 ‘통치’ 내지 ‘감독’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저자는 ‘押新羅渤海兩蕃使’라는 명칭이 첫째, 新羅와 渤海 지방이 당조의 장악 범위내에 속함을 드러내고, 둘째 압번사 명칭에 국호를 넣음으로써 사실상 양국의 국가적 지위를 승인했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거하면 ‘押新羅渤海兩蕃使’는 그야말로 청주 지역의 신라·발해 居留民의 사무와 使節·求法僧·貿易 등의 왕래에 따른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外交通商部(外務部) 地方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동북, 서북 변경지역의 압번사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참고: 『新唐書』 逆臣傳上·安祿山, “天寶元年, 以平盧爲節度, 祿山爲之使, 兼柳城太守, 押兩蕃、渤海、黑水四府經略使.” 『資治通鑑』 德宗貞元九年, “春, 正月, 劍南、西山羌、蠻二萬餘戶來降; 詔加韋皋押近界羌蠻及西山八國使.”

# 唐人의 新羅에 대한 認識

- 『冊府元龜』 소재 신라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

李 宇 泰  
(서울 시립대)

## <목 차>

1. 머리말
2. 신라와 당의 교섭과 외교관계의 진전
3. 唐人의 신라 인식
  - 1) 君子國으로서의 신라
  - 2) 해외의 絕域으로서의 신라
4. 맺음말

## 1. 머 리 말

전근대시기 특히 고려 이전의 한국사에 있어서 외국과의 교섭이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서역 국가나 동남아제국과의 교류나 무역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있었다. 일찍이 인도를 여행한 승려가 있었고, 동남아나 서역의 생산품들이 국제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도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sup>1)</sup>. 그렇지만 이들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은 일은 없었다.

우리 역사의 서술에서 대외관계나 외교관계를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즉 과거의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특히 당나라 시기에 확립된 조공 책봉의 체계는 그 이후의 우리 역사의 전개에서 국제관계를 설정하는 전범이 되었다.

신라는 빈번히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왕이 바뀔 때마다 책봉을 받아 그 지위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당나라도 신라 못지않게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긴밀한

1) 金昌錫, 2006,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44, 한국고대사학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전쟁기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이후의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도 두 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신라에서는 통일 이후 체제의 정비에 따른 정치적 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당 유학생과 숙위학생들을 파견하고 관리하였으며, 많은 수의 승려들도 중국에 유학하여 우리나라의 불교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 시기의 국제적인 상호 인식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최근 동북공정의 영향으로, 고구려의 정체성과 상호 인식에 관해서는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2)</sup>. 또한 신라와 당과의 교류와 외교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조명이 이루어졌다.<sup>3)</sup> 그러나 신라에 비친 당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당나라에서 신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다고 보인다.<sup>4)</sup> 이는 신라와 발해 사이의 상호 인식이나 교류 관계<sup>5)</sup>, 그리고 한일 양국 사이의 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sup>6)</sup> 상당히 구체화된 사실에 비한다면 약간은 의외의 결과로도 보인다.

본고는 이 시기에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또 그들의 이해의 방법과 정도는 어떠하였는지를 중국측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의 대상으로는 『冊府元龜』를 주로 이용하였다. 주지하다싶이 『冊府元龜』는 북송의 왕흥약(王欽若)과 양억(楊億) 등이 진종(眞宗)의 칙명을 받아 1005년에 편집에 착수하여 13년 만에 완성한 중국 六朝·唐·五代의 사료집이다. 고대로부터 5대까지의 역대 君臣의 정치에 관한 事績을 각종 서책 가운데서 모아 항목별로 기록한 것으로, 제왕·참위·열국·종실·외척 등에서 外臣에 이르기까지 31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冊府元龜』는 북송 초기의 대표적인 類書로 특히 唐나라와 五代에 관한 부분은 현재 전하지 않는 역사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받고 있다.

또 『사고전서』 전체에서 ‘新羅’로 검색을 해보면 정문과 주석을 포함하여 모두 4,498회가 검색되는데, 이중 『冊府元龜』에 나오는 것이 361회로 전체 기사의 8%가 조금 넘는 수치이다.(<부록1> 참조) 이는 하나의 서적으로서는 가장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늦게 중국에 알려진 까닭에 당대 이전의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신라 인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적당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의 사정으로 『全唐詩』나 『全唐文』과 같은 문집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본고의 커다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완하고자 한

2) 金裕哲, 2004, 「中國 史書에 나타난 高句麗의 國家的 正體性」, 『高句麗研究』18, 고구려발해학회.  
徐永大, 2004, 「韓國 史書에 나타난 高句麗의 正體性」, 『高句麗研究』18, 고구려발해학회.  
3) 하일식, 2000,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현실』37, 한국역사연구회.  
申滢植, 1969, 「宿衛學生考 - 羅末麗初의 知識人의 動向에 對한 一齣」, 『역사교육』11·12합, 역사교육연구회.  
양정현, 2008, 「국사 교과서 고대사 서술에서 민족·국가 인식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52, 한국고대사학회.  
李基東, 2007, 「9~12世紀 韓國과 東아시아세계」, 『史學研究』88, 한국사학회.  
이기형, 2006, 「설인귀 전설의 비교 고찰」, 『韓國民俗學』44, 한국민속학회.  
4) 권덕영, 2005,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채미하, 2008,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통일신라" 서술과 그 내용 분석」, 『한국사학보』30, 고려사학회.  
5) 趙二玉, 2005, 「新羅 中代 渤海觀의 變遷과 그 意味」, 『新羅文化』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한규철, 2007, 「고구려·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 『대동한문학』26, 대동한문학회.  
6) 장영철, 2006, 「중세 일본의 타자 인식 -일본 역사군담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30, 한국일본어문학회.  
정효운, 2006, 「고대 한·일 국가와 타자인식」, 『新羅文化』28.

다.

## 2. 신라와 당의 교섭과 외교관계의 진전

신라가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 것은 梁나라 때의 일이다.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었으며, 초기에는 그나마 고구려나 백제의 사신들을 따라 입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 이유는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 중국과 상대적으로 멀다는 지역적인 불리함도 작용했겠지만, 그 보다는 신라의 지역 통합과 고대국가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와위 독점이 이루어지는 4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취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신라 사자 衛頭가 前秦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 전진왕 符堅이 “경이 말하는 해동의 사정이 옛과 같지 않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하고 묻자, 이에 대해 위두가 “중국에서 시대가 변하고 名號가 비뀌는 것과 같으니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한 것<sup>7)</sup>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 기사는 신라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당시의 신라의 사정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신라는 이러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5세기 후반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데, 6세기에 들어와서는 울령의 반포와 불교의 공인 등을 통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 및 고구려와의 영토 확보 전쟁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삼국간의 대립은 7세기 이르면 더욱 치열해지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신라는 중국의 세력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당하게 된 신라는 수·당에 접근하게 되고 몇 차례의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중국은 백제를 선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당과 신라 사이에 군사적인 동맹이 맺어지게 된다.

나당 동맹이 성립하게 된 것은 신라와 당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였기 때문이지만, 당시의 신라로서는 당나라와의 군사 동맹이 없이는 국가의 존위를 보장받을 수조차도 없는 절박한 사정이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진덕왕대에는 고유의 의관제를 포기하고 중국의 의관제를 받아들였으며, 왕이 스스로 태평송을 지어 중국의 황제에게 바치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것 등으로 미루어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신라는 당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개된 삼국간의 치열한 항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군사적인 혈맹의 관계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새로운 갈등관계로 변질하게 된다. 먼저 백제와의 전투에서 당나라의 소정방은 사소한 이유로 신라의 장수를 참하려고 하였으며, 또 백제 멸망 이후에는 백제의 고지를 신라의 장수들에게 분배하여 지배층의 분열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라의 의지는 단호하였다. 특히 김유신은 당나라와의 결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당나라의 기도를 일축하였다.

7) 『太平御覽』781, 四夷部2, 東夷 新羅.

그러나 당은 백제 멸망 이후에도 백제의 故地를 신라에게 넘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라마저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문무왕 3년(663)에는 신라를 鷄林都督府로 명명하고 문무왕을 대도독에 일방적으로 임명하였으며, 신라가 백제 고지의 당군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자 당시 당나라에 머물고 있던 金仁問을 새로이 대도독에 임명하여 신라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이러한 알력은 일단 신라의 능동적인 화공 양면 작전으로 극적인 충돌은 피하게 되지만, 이후에도 신라는 몇 차례의 전투를 통해 당나라의 군대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반도의 남부 대부분을 영토로 확보하게 된다. 즉 신라는 자국의 안위를 위하여 당에 접근하여 군사적인 도움을 받았으나, 거꾸로 당나라가 자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변하게 되자 이를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신라는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조공 책봉의 틀을 유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 국가로서의 자주권과 존엄성을 전혀 침해받지 않는 실리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당 전쟁이 끝난 후 상당 기간 동안의 냉각기를 거쳐 신라와 당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은 발해로 말미암아서였다. 681년 신라의 문무왕이 서거하고 신문왕이 뒤를 잇게 되자 당은 사신을 파견하여 신문왕을 신라와 에 봉하고 문무왕의 관작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였다고 한다<sup>8)</sup>. 그러나 본격적인 관계의 회복은 732년 발해가 등주를 공격하였을 때이다. 이 때에 당은 신라에 출병을 요청하였는데, 비록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신라가 이에 응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는 원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sup>9)</sup>.

이후 나당간의 교류는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발해를 견제해야겠다는 공동의 이해 관계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이보다는 문화교류를 통한 선진 문물의 흡수를 갈망하고 있던 신라의 욕구도 강력하게 작용하였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후 조공 책봉의 의례를 둘러싼 양국간의 사신 파견은 간단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 3. 唐人의 신라 인식

#### 1) 君子國으로서의 신라

신문왕의 등극에 대해 당나라가 사신을 파견해 정상적인 관계 개선의 제스처를 보낸 뒤, 신문왕 6년에 비로소 신라는 회답사를 보내게 된다. 이 때에 신라는 『禮記』와 文章에 관한 서적을 요청하고 이와 함께 신라승 圓測의 방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則天武后는 『吉凶要禮』를 복사하는 한편 『文館詞林』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가려 뽑아 50권으로 만들어 보내 주었다고 한다<sup>10)</sup>. 이로서 신라와 당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 때에 신라가 禮記와 문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당이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이에 응하였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8) 『冊府元龜』 卷九百六十四 外臣部 封冊第二.

9) 권덕영, 2005,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0) 冊府元龜 卷九百九十九 外臣部 入覲 請求 互市(4) “則天 垂拱 二年二月, 新羅王金政明 遣使請禮記一部 并新文章. 令所司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 賜之.”

신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國學은 신라가 당나라와의 본격적인 교섭에 나서기 시작하는 진덕왕 5년(651)에 설립되어 신문왕2년(682)에 완성되었다. 경덕왕 때 이름을 大學監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국학으로 되돌렸는데, 소속 관원으로는 卿, 博士, 助教, 大舍, 史 등이 있었다. 국학에서는 周易, 尚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을 주로 공부하게 했다. 또 국학의 학생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讀書三品科를 만들었다. 춘추좌씨전 또는 예기 또는 문선을 읽어 그 뜻을 통달하고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도 밝은 사람을 上으로 치고, 曲禮·논어·효경을 읽은 사람을 中, 곡례·효경을 읽은 사람을 下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五經, 三史, 諸子百家의 책들을 통달한 사람은 등급을 넘어 특별히 발탁하였으며, 또한 算學博士나 조교 1명에게 綴經, 三開, 九章, 六章 등을 가르치게 했다. 학생은 관등이 없는 사람부터 대사 이하까지였으며, 나이는 15세에서부터 30세까지였고, 9년을 기한으로 공부하였는데, 우둔해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켰고, 재주가 있으나 미숙한 자는 9년이 넘어도 재학을 허락했으며, 관등이 대나마·나마에 이른 뒤에 국학을 나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신라의 국학에서 교육한 내용은 유교의 중요 경전은 물론 역사와 문학에 이르는 폭 넓은 것이었으며, 실용적인 산술과 천문 또한 교육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와 서적과 새로운 지식의 도입은 국가적으로도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신라인의 학문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져 통일 이후에는 직접 당나라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宿衛라는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곧 이들은 일종의 관비 유학생과 같이 되었고<sup>11)</sup>, 이들 이외에도 많은 승려들이 자비로 유학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에 파견하는 견당사의 횡수도 차츰 증가하여 성덕왕대에는 재위 36년 동안 46회나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는 등, 당나라를 통한 새로운 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라는 당시 중국의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신라 스스로도 주변의 다른 蕃國들과는 문화의 수준이 다른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신라인의 인식은 그대로 당나라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唐人들도 신라를 君子의 나라라고 인식하였다. 군자의 나라 즉 君子國이란 『山海經』에 보이는 상상의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동방에 있는 나라로 공자가 뗏목을 타고 가고자 했던 나라인 동시에, 중국이 예를 잃으면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것이다. 이 나라가 바로 신라일 것이라는 인식은 당시의 당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당나라가 사신을 파견할 때에 특히 신라로 가는 사신은 문적에 능하고 作詩에 능통한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sup>13)</sup> 이는 당시 당나라에서 발해로 가는 사신이 대개 환관 출신이나 무명의 관리로 충당되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8세기 이후 신라에 사신으로 온 당나라의 관리는 모두 33명인데, 이 중 신라 사람 6명을 제외한 27명은 모두 유교적 소양을 갖춘 학자 출신이라는 점도<sup>14)</sup>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증거라 하겠다. 또한 신라의 사신이 당나라에 와서 문적에 능한 인사를 본국으로 초청하려

11) 申滢植, 1969, 「宿衛學生考 - 羅末麗初의 知識人의 動向에 對한 一論」, 『역사교육』11·12합, 역사교육연구회.  
 12) 하일식, 2000, 앞의 논문, pp.82-83.  
 13) 865년에 신라를 사신으로 방문했던 胡歸厚가 본국에 돌아가서 말하기를 “신라왕이 鷄林의 경치를 시로 읊었는데, 겨우 회답하여 망신을 면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신라에 보내는 사신은 武夫이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大崇福寺碑)  
 14) 권덕영, 2005, 앞의 논문, p.28.

하였다는 사실도 이러한 중국인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sup>15)</sup>.

## 2) 해외의 絕域으로서의 신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나라 사람들에게 신라는 예의와 문물을 갖춘 문화의 나라, 즉 君子國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함께 당나라 사람들의 신라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신라는 해외의 나라로 絕域에 속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당시의 교통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개인적으로 해외를 여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불교를 배우러 간다거나 학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마도 당시의 해외여행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국이란 항상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되고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 그 원근을 비교한다거나 문화의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변방에 원정을 나간 경험이 있는 관리나 장군들, 그리고 해외의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해외의 여러 나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당나라의 엘리트들은 신라를 표현하거나 묘사할 때에 항상 海外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보아 중국에서 육로로 신라에 간다는 것은 발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다길에 의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로 가는 사신들도 거의 대부분 항로에 의지하여 신라를 방문하고 있으며<sup>16)</sup>, 이는 신라에서 당나라로 향하는 학생이나 사신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17)</sup>. 따라서 중국인이 신라를 해외의 나라로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를 日本, 大食國

15) 張鷟 字文成 自長安尉 遷鴻臚丞 凡四參選判策 為銓府之最 員外郎員半千謂人曰“張子之文 如青銅錢 萬選萬中 未聞退時。”時流重之 目為青錢學士 後為司門員外郎. 鷟下筆敏速 著述尤多 言頗詼諧. 是時, 天下知名, 無賢不肖 皆記誦其文. 天后朝中 使馬仙童陷默啜. 默啜謂仙童曰“張文成在否.” 曰“近自御史貶官.” 默啜曰“國有此人 而不用 漢無能為也.” 新羅日本東夷諸蕃 尤重其文 每遣使入朝 必重出金貝 以購其文, 其才名遠播如此.(冊府元龜 卷八百四十)

16) 유일한 예외로 『속일본기』에 의하면 764년 당의 사신 韓朝彩가 일본의 유학승 戒融의 귀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해를 거쳐 신라로 왔다고 한다.

17) 『전당시』에 실린 新羅使와 관계된 시들을 보면 대개가 바다나 배를 소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몇몇 예이다.

○ <送新羅法師還國> 異域今無外, 高僧代所稀. 苦心歸 一作窮 寂滅, 宴坐得精微. 持鉢何年至, 傳燈是日歸. 上卿揮別藻 一作操, 中禁下禪衣. 海關杯還度, 雲遙錫更飛. 此行迷處所, 何以慰虔祈.(全唐詩 第二函 第七册 崔國輔)

○ <送金卿歸新羅> 奉義朝中國, 殊恩及遠臣. 鄉心遙渡海, 客路再經春. 落日誰同望, 孤舟獨可親. 拂波衝木鳥, 偶宿泣珠人. 禮樂夷風變, 衣冠漢制新. 青雲已干呂, 知汝重來賓.(全唐詩 第二函 第十册 陶翰)

○ <送歸中丞使新羅> 南憶 一作憲 銜恩去, 東夷泛海行. 天遙辭上國, 水盡到孤城. 已變炎涼氣, 仍愁浩淼程. 雲濤不可極, 來往見雙旌.(全唐詩 第三函 第九册 皇甫曾)

○ <送陸旌侍御使新羅> 衣冠周柱史, 才學我鄉人. 受命辭雲陸, 傾城送使臣. 去程滄海月, 歸思上林春. 始覺儒風遠, 殊方禮樂新.(全唐詩 第四函 第五册 錢起)

○ <送從兄使新羅> 六氣銅渾轉, 三光玉律調. 河宮奉青賚, 海嶽晏來朝. 地絕提封入, 天平賜 一作錫 貢饒. 揚威輕破虜, 柔服取征遼. 曙色黃金闕, 寒聲白鷺潮. 樓船非習戰, 驄馬是嘉招. 帝女飛銜石, 鮫人賣淚綃. 管寧雖不偶, 徐市 一作馭 儻相邀. 獨鳥綠空翠, 孤霞上沈寥. 蟾蜍同漢月, 螭蜥異秦橋. 水豹橫吹浪, 花鷹 迥拂霄. 晨裝凌莽渺, 夜泊記招搖. 幾路通員嶠, 何山是沃焦. 颶風晴泊 一作自 起, 陰火噴潛燒. 鬢 一作鬢 髮成新髻, 人參長舊苗. 扶桑銜 一作迎 日近, 析木帶津遙. 夢向愁中積, 魂當別處銷. 臨川思結網, 見彈欲求鴟 一作鵬. 共散羲和曆, 誰差甲子朝. 滄波伏 一作伏 忠信, 譯語辨謳謠. 疊鼓鯨鱗隱, 陰帆鶴首飄. 南溟垂大翼, 西海飲文鰲. 文選 吳都賦注文鰲常行西海而遊東海. 指景尋靈草, 排雲聽洞簫. 封侯萬里外, 未肯後班超.(全唐詩 第四函 第九册 顧況)

과 함께 해외의 절역으로 표현한 예로 보아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해외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바다의 건너편이라는 뜻 이외에도 중국의 바깥 지역, 즉 중국의 천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앞서 중국이 한 때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命名하여 중국의 영토로 포함하려한 사실과는 서로 모순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은 실제 신라를 자신의 영토로 지배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라를 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제스처어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의 신라 원정에 대하여는 이것이 단순히 계획만으로 끝난 것만이 아님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나라의 신라 침공 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전쟁의 비용이나 백성의 희생에 비해 그에 상응할만한 실리가 없다는 주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sup>18)</sup>.

이러한 이유로 당나라가 신라를 자신의 영토에 소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일단 포기한 다음에는, 신라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대국의 위신과 체면을 돌보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후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를 해외의 절역에 있는 군자의 나라, 평온하고 진기한 산물이 풍부한 신비로운 나라<sup>19)</sup> 정도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 4. 맺음말

(생략)

18) 房玄齡為司空. 貞觀二十二年, 太宗幸玉華宮. 玄齡以疾卧總留臺. 後漸篤. 玄齡乃謂諸子曰: “吾自度危篤. 而恩澤轉降. 若辜負聖君. 則死有餘責. 當今天下寧謐. 咸得其宜. 唯東討不停. 方為國患. 主上含怒意決. 臣下莫敢犯顏. 吾知而不言. 可謂銜恨入地.” 遂抗表切諫曰: “臣聞…… 死囚必令三覆. 五奏進素食. 停音樂者. 蓋以人命所重. 感動聖慈. 況今兵士之徒. 無一罪戾. 無故驅之於行陣之間. 委之於鋒刃之下. 使肝腦塗地. 魂魄無歸. 其老父孤兒. 寡妻慈母. 望樞車而淹泣. 抱枯骨而摧心. 足以變動陰陽. 傷害和氣. 實天下之冤痛也. 且兵者凶器. 戰者危事. 不得已而用之. 向使高麗違失臣節. 而陛下誅之. 可也. 侵擾百姓. 而陛下滅之. 可也. 久長能為中國患. 而陛下除之. 可也. 有一於此. 雖日殺萬夫. 不足為媿. 今無此三條. 坐煩中國. 內為舊王雪怨. 外為新羅報讐. 豈非所存者小. 所損者大? 願陛下. 遵皇祖老子止足之戒. 以保萬代巍巍之名. 發霽然之恩. 降寬大之詔. 順陽春而布澤. 許高麗以自新. 焚陵波之船. 罷應募之衆. 自然華夷慶賴. 遠肅邇安. 臣老病三公. 旦夕入地. 所恨竟無塵露. 微增海嶽. 謹以殘魂餘息. 預代結草之誠. 儻蒙察以哀鳴. 臣即死且不朽.” 太宗見表. 謂玄齡子婦高陽公主曰: “此人危篤如此. 尚能憂我國家.” (冊府元龜 卷五百四十八)

19) 중국의 송대 이후의 의학서에서는 新羅의 명칭이 들어가는 한약재의 이름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들 약재는 대개 신라의 산삼과 함께 효능이 높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 국화의 품종에도 신라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도 당시 중국인의 신라관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권덕영, 2005,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金昌錫, 2006,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44, 한국고대사학회.
- 金裕哲, 2004, 「中國 史書에 나타난 高句麗의 國家的 正體性」, 『高句麗研究』18, 고구려발해학회.
- 박인희, 2006, 「〈信忠掛冠〉과 〈怨歌〉 연구」, 『新羅文化』28.
- 徐永大, 2004, 「韓國 史書에 나타난 高句麗의 正體性」, 『高句麗研究』18, 고구려발해학회.
- 申滢植, 1969, 「宿衛學生考 - 羅末麗初의 知識人의 動向에 對한 一飭」, 『역사교육』11·12합, 역사교육연구회.
- 양정현, 2008, 「국사 교과서 고대사 서술에서 민족·국가 인식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52, 한국고대사학회.
- 윤선태, 2007,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新羅文化』2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李基東, 2007, 「9~12世紀 韓國과 東아시아세계」, 『史學研究』88, 한국사학회.
- 이기형, 2006, 「설인귀 전설의 비교 고찰」, 『韓國民俗學』44, 한국민속학회.
- 이혜순, 2004, 「한문화권(漢文化圈) 형성 초기 한시 창수를 통한 동북아 국가간의 문화교류」, 『한국문학연구』2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林玲愛, 2002, 「'서역인'인가 '서역인 이미지'인가 - 통일신라 미술 속의 서역인식」, 『美術史學研究』236, 한국미술사학회.
- 장영철, 2006, 「중세 일본의 타자 인식 -일본 역사군담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30, 한국일본어문학회.
- 정효운, 2006, 「고대 한·일 국가와 타자인식」, 『新羅文化』28.
- 趙二玉, 2005, 「新羅 中代 渤海觀의 變遷과 그 意味」, 『新羅文化』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조이욱, 2006, 「『新唐書』新羅傳長人記事의 長人國 -新羅의 靺鞨認識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19, 부경역사연구소.
- 조인성, 2007, 「남북국시대론 - 1960년대 초 북한의 고대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47, 한국고대사학회.
- 채미하, 2008,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통일신라" 서술과 그 내용 분석」, 『한국사학보』30, 고려사학회.
- 최관, 2000, 「「삼한의 왕은 일본의 개다」에 관하여」, 『일본어문학』8, 한국일본어문학회.
- 하일식, 2000,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현실』37, 한국역사연구회.
- 한규철, 2007, 「고구려·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 『대동한문학』26, 대동한문학회.

<부록 1> 『冊府元龜』 所載 신라관련 기사

券	기사수	卷	기사수
1. 卷三十五	1回	32. 卷六百六十	5回
2. 卷三十六	1回	33. 卷六百六十九	3回
3. 卷四十二	2回	34. 卷七百七十七	1回
4. 卷六十	1回	35. 卷八百十五	1回
5. 卷六十五	1回	36. 卷八百四十	1回
6. 卷一百九	1回	37. 卷八百四十一	1回
7. 卷一百十	3回	38. 卷九百五十六	2回
8. 卷一百十一	2回	39. 卷九百五十七	5回
9. 卷一百十七	3回	40. 卷九百五十九	6回
10. 卷一百十九	1回	41. 卷九百六十二	2回
11. 卷一百二十八	1回	42. 卷九百六十三	6回
12. 卷一百二十九	1回	43. 卷九百六十四	19回
13. 卷一百三十	1回	44. 卷九百六十五	16回
14. 卷一百六十八	3回	45. 卷九百六十六	6回
15. 卷一百六十九	1回	46. 卷九百六十九	6回
16. 卷一百七十	6回	47. 卷九百七十	30回
17. 卷一百七十六	1回	48. 卷九百七十一	37回
18. 卷二百三十一	1回	49. 卷九百七十二	34回
19. 卷二百八十一	1回	50. 卷九百七十三	1回
20. 卷三百二十七	2回	51. 卷九百七十四	9回
21. 卷三百五十八	3回	52. 卷九百七十五	23回
22. 卷三百六十六	6回	53. 卷九百七十六	27回
23. 卷三百八十四	1回	54. 卷九百八十	4回
24. 卷三百八十八	1回	55. 卷九百八十一	8回
25. 卷四百二十九	1回	56. 卷九百八十五	3回
26. 卷四百五十九	1回	57. 卷九百八十六	17回
27. 卷五百四十八	1回	58. 卷九百九十一	5回
28. 卷五百五十六	1回	59. 卷九百九十五	13回
29. 卷五百六十九	1回	60. 卷九百九十六	9回
30. 卷五百七十	1回	61. 卷九百九十九	4回
31. 卷六百五十四	2回	62. 卷一千	4回

※총 62권 361회



李宇泰, 「唐人的 新羅에 대한 認識  
- 『冊府元龜』 소재 신라관련 기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택민  
(고려대)

본 발표 내용은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또 그들의 이해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중국측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 시기의 국제적인 상호 인식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고, 신라와 당과의 교류와 외교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조명이 이루어졌지만, 거꾸로 당나라에서 신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보고, 『冊府元龜』의 관련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발표자의 이 같은 전제에도 불구하고 본 발표는 『冊府元龜』의 기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기왕에 익히 알려진 중요한 사료들에 대한 검토와 의미도 충분히 드러내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발표자는 “백제와의 전투에서 당나라의 소정방은 사소한 이유로 신라의 장수를 참하려고 하였으며, 또 백제 멸망 이후에는 백제의 고지를 신라의 장수들에게 분배하여 지배층의 분열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라의 의지는 단호하였다. 특히 김유신은 당나라와의 결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당나라의 기도를 일축하였다. ----”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설명은 극히 초보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이 사료는 당시 당의 대신라 인식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설명하는데 요긴한 사료이다. 즉 당 고종은 소정방을 파견할 때 신라까지 접수할 것을 은밀히 지시하였다. 또 그 전에 당 태종은 신라 사자에게 “신라는 여자가 군주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니 당의 충실 한 사람을 뽑아 왕으로 삼자.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종용한 일도 있었다. 이 처럼 신라는 당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아왔고, 그래서 소정방이 신라군과 김유신의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기일을 어긴 것을 트집 잡아 독진 김문영을 참수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는 사실상 김유신에게 죄를 묻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이에 김유신이 당과 일전을 선언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상황이 되자 소정방이 후퇴하고 다시 힘을 합쳐 백제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이로써 신라는 겉으로는 공손하게 사대의 예를 취하면서도 당당하게 당과 일대일로 상대하였고, 당도 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신라와 당 사이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신라가 당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라는 당 조정부로부터 군자의 나라, 인의의 땅이라는 미칭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김유신의 당당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표는 이 처럼 중요한 사료를 천착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본 발표는, 신라가 『禮記』와 文章 등 서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則天武后는 『吉凶

要禮』를 복사하는 한편 『文館詞林』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가려 뽑아 50권으로 만들어 보내 준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또한 신라가 國學을 설치하고 卿, 博士, 助教, 大舍, 史 등 관원을 두고 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을 교육한 사실 및 국학의 학생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讀書三品科를 만든 사실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신라인의 학문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져 통일 이후에는 직접 당나라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국에 파견하는 견당사의 횡수도 차츰 증가하여 성덕왕대에는 재위 36년 동안 46회나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는 등, 당나라를 통한 새로운 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하여 신라는 당시 중국의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다른 蕃國들과는 문화의 수준이 다른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었고, 唐人들도 신라를 君子의 나라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만으로는 당의 신라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이 특별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당시 당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내지 민족은 70여 개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君자의 나라로 불렸던 나라가 신라 외에는 달리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만 신라의 위상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물론 당나라가 사신을 파견할 때에 특히 신라로 가는 사신은 문적에 능하고 作詩에 능통한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는 당시 당나라에서 발해로 가는 사신이 대개 환관 출신이나 무명의 관리로 충당되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는 것을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발해에 그치지 않고 위글이나 기타 유목민족 국가와 대비해서 설명하게 되면 신라의 위상이 훨씬 잘 드러나게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당나라 사람들에게 신라가 문화의 나라, 君子國으로 인식되었음에도 해외의 나라, 또는 絕域에 속하는 나라로 인식되었다고 보았는데, 이 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당인들의 시문에 해외 또는 절역의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디까지나 문학적 표현일 뿐, 이는 정치적인 의미의 해외 또는 절역과는 그 뜻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해외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바다의 건너편이라는 뜻 이외에도 중국의 바깥 지역, 즉 중국의 천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이는 앞서 중국이 한 때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命名하여 중국의 영토로 포함하려한 사실과는 서로 모순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설명이야말로 자가당착적인 논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라는 처음부터 당 황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관작을 주고 조공하는 관계는 그야말로 외교관계의 형식일 뿐이니, 갑자기 해외니 절역이니 하는 표현을 빌어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 『元和郡縣圖志』로 본 唐人의 영역에 대한 인식

김종섭(서울시립대)

## 1. 머리말

근대 국가를 규정하는 여러 요인<sup>1)</sup> 중 하나가 국경이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국경은 주권국가의 공간적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간 영토나 공해를 가르는 실제적이고 가상의 경계선이다. 국가간에 고정된 국경이 생기게 된 것은 근대 주권국가가 성립되면서였고, 대략 17~18세기에 이르러 자연지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한 오늘날의 국경선이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국경은 일반적으로 산맥·하천·호수 등의 자연적 지형이나 지구의 경도·위도 등의 인위적인 것을 이용하여 그어지는데, 때로는 국가간의 조약체결을 통해 설정되기도 한다.<sup>2)</sup> 이처럼 국경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명확한 범위를 의미하지만 과학적이며 측량적인 경계선의 개념은 근대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기존연구에서는 영역에 관한 근대적 인식을 기초로 하여 전근대시기 영역, 혹은 영역관을 설명하려 하였다. 형식적인 조공과 책봉체제, 일시적인 군사 점령마저도 주권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제5책에 실려 있는 唐時期全圖(一)에는 동일한 시기의 일이 아님에도 동쪽으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옛 땅을, 서쪽으로는 파미르고원을 넘어 토카로이(Tocharoi 중국명 吐火羅)까지를 당의 영역으로 묘사하였다.<sup>3)</sup>

본고는 전근대시기 사람들이 그들의 영역에 관한 인식이 현대와 사뭇 달랐을 것으로 보고 영역에 관한 唐代 사람들의 인식을 『元和郡縣圖志』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元和郡縣圖志』는 재상 李吉甫에 의해서 편찬되어서 憲宗에게 진상되었던 것인 만큼 영역에 대한 당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지리서 가운데 비교적 온전히 내용을 전하고 있어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으며,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었다.<sup>4)</sup>

## 2. 당대 사람들이 인식한 당의 영역

당대 사람들은 『尚書』 「禹貢篇」에 보이는 禹貢 九州와 太宗대에 새롭게 만든 十道를 기초로 하여 그들의 영역을 규정짓는다. 『新唐書』 권58, 「藝文志」에 수록된 지리서 및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 西川長夫, 윤대석 역, 『國民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년, 289~290쪽.

2)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http://100.naver.com/100.nhn?docid=21761>).

3) 葛劍雄은 譚其驥가 『中國歷史地圖集』을 편찬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면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그리기를 주장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종종 각 왕조의 동서남북으로 가장 넓은 강역을 지도상에 그리기도 했다고 지적하였다(『唐代以前我國疆域的演變』, 『秘書工作』, 2008년 3월).

4) 번진의 호구수 기제는 淄青節度使가 평정되기 전 중앙에 호구수를 보고한 정황을 보여주는 등 번진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孫繼民, 「關於唐憲宗元和時期割據藩鎮的戶口申報」, 『江漢論壇』 2004년 6월). 『元和郡縣圖志』의 독특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八到는 장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府·州, 縣, 군사설비, 자연지형 등의 위치를 확정지어 주었다(汪前進, 「現存最完整的一份唐代地理全圖數據集」, 『自然科學史研究』 제17권, 제3기, 1998년). 각 지역에서 장안과 낙양으로 가는 노선의 지름길도 알 수 있게 되었다(김성한, 「당 후기 각 州에서 東都를 거쳐 京師로 가는 교통노선」, 『中國古中世史研究』 제21집, 2009년).

표1. 『新唐書』 권58, 「藝文志」에 보이는 당 영역 관련 서적과 지도

저자	서명 또는 지도명	권수	저자	서명 또는 지도명	권수
李泰	括地志	550	賈耽	古今郡國縣道四夷述	40
?	長安四年十道圖	13	賈耽	關中隴右山南九州別錄	6
?	開元三年十道圖	10	賈耽	貞元十道錄	4
李吉甫	元和郡縣圖志	54	韋澳	諸道山河地名要略	9
	十道圖	10			
梁載言	十道志	16	劉之推·文括	九州要略	3
賈耽	地圖	10	劉之推·文括	郡國志	10
賈耽	皇華四達記	10	馬敬寔	諸道行程血脈圖	1

위 표에서 당대의 지리서는 대략 禹貢 九州와 十道를 중심으로 당의 영역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禹貢 九州를 근거해서 저술한 것은 『九州要略』인데, 이는 현재 전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제목을 통해서 九州를 근거로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담의 지도는 그가 『關中隴右山南九州別錄』과 九州圖를 바치면서 “큰 지도는 밖은 四海를 간략하게 하고, 안으로는 九州를 구별하였습니다.”<sup>5)</sup>라고 하였다. 또 賈耽은 『古今郡國縣道四夷述』을 바치면서 “중국은 禹貢으로 근거를 삼고, 外夷는 『班史』로 발원하고, 군현은 增減을 기록하고, 蕃落은 盛衰를 서술한다.”<sup>6)</sup>라고 한 것을 보면 역시 九州를 근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리서 저술의 근거가 되는 禹貢 九州는 禹가 치수를 위해서 돌아다닌 지역을 산천의 지형에 따라 크게 아홉으로 나눈 것이다. 冀州, 兗州(濟水와 黃河 사이), 青州(바다와 泰山 사이), 徐州(바다와 태산과 淮水 사이), 揚州(淮河 이남), 荊州(荊山과 衡山 남쪽 기슭 사이), 豫州(荊山과 黃河 사이), 梁州(華山の 남쪽 기슭에서 黑水까지), 雍州(黑水에서 西河까지)이다.<sup>7)</sup> 그런데 杜佑의 말에 따르면 帝嚳이 九州를 만들어 만국을統領한 후 堯, 禹(夏), 湯(殷), 주나라가 자신의 영역을 九州로 나누었다고 한다. 杜佑 자신도 『通典』에서 당의 영역을 禹貢 九州에 근거하여 州郡을 나누었으며 南越을 하나 부가하였다.<sup>8)</sup>

그러면 당대 사람들의 禹貢 九州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高馮은 太宗에게 올린 글에서 “폐하께서 九州를 평정하니, 四海에 부유함이 있게 되었습니다.”<sup>9)</sup>라고 하였다. 僖宗은 「平楊師立宣示中外詔」에서 “항상 四海를 배불리 먹이고, 九州를 고르게 진흥하고자 한다.”<sup>10)</sup>라고 하였다. 또 다른 용례를 보면, 王勃은 “禹가 九州를 경계 지을 때 流沙의 경계를 서술하지 않았다.”<sup>11)</sup>라고 하였으며, 胡交는 “禹는 산천을 나누어서 구주를 그리니, 大河의 남쪽 땅을 豫州로 삼았다.”<sup>12)</sup>라고 하였다.

위의 사례를 보면, 당대인의 인식 속 九州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구주는 곧 전

5) 『全唐文』 권394, 「進九州圖并別象通象表」, 4006쪽. 賈耽은 關中隴右及山南九州等圖 한 폭을 그렸다고 했으므로 표1의 지도 10권은 九州道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6) 『全唐文』 권394, 「進海內華夷圖及古今郡國縣道四夷述表」, 4006쪽.  
 7) 부록4 참조.  
 8) 『通典』 권171, 「州郡一」, 4450~4469쪽.  
 9) 『全唐文』 권135, 「上太宗封事」, 1370쪽.  
 10) 『全唐文』 권87, 「平楊師立宣示中外詔」, 916쪽.  
 11) 『全唐文』 권179, 「上劉右相書」, 1822쪽.  
 12) 『全唐文』 권352, 「修洛陽宮記」, 3564쪽.

중국을 상징하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상대적으로 근원적, 포괄적이며 추상적 성격을 지닌다. 즉, 구주라는 용어는 하나의 영역 개념이지만 이 의미 속에는 정치, 사회, 문화, 백성 등 등 비지형적 요소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하나는 중국을 산천 지형에 따라 아홉 개의 주로 구분하는, 용어의 원래적 의미인 지리적 의미로서의 구주이다. 이는 영역만을 의미하며 영역 범위를 한정짓는 개념이다.<sup>13)</sup>

그런데 송나라 사람 王應麟이 말하기를 “우공이 높은 산과 큰 하천을 정하여서 구주의 경계를 구분하니, 『周禮』의 「職方」과 『爾雅』의 「釋地」는 그 법을 취하였다. 산천은 만고로 변하지 아니하고, 州縣은 수시로 변천하는데 이후의 지리자들은 山川을 注에 附記하였으니 그 강령을 잃어버렸다. 오직 『唐六典』만이 十道를 서술하니 우공이 남긴 뜻을 얻었다.”<sup>14)</sup>라고 하여 지형에 따른 분류의 쇠퇴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唐六典』에는 십도를 설명하면서 “關內道는 동쪽으로는 황하로 가로막고, 서쪽으로는 隴坂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終南山에 의지하며, 북쪽으로는 沙漠과 이웃한다.”<sup>15)</sup>라고 하는 것처럼 十道の 지형적 범위를 설명하고 있어 왕응린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의 비판처럼 『元和郡縣圖志』도 십도의 지형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는다.

왕응린의 이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이전과 달리 산천과 주현을 분리하여 산천은 불변의 것이라면 주현은 가변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천은 자연 혹은 지형적 의미로, 예나 송이나 지형적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주현은 인위적 혹은 비지형적 의미로, 세월이 흘러 사회가 변할수록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비지형적 요소인 주현의 변천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그리고 무수한 전쟁 등을 거치면서 변화된 것이므로 그것은 지형적 측면의 영역 변화가 아니라 비지형적 요소들의 변화인 것이다.

이처럼 구주는 지형적, 비지형적 요소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가 후대로 갈수록 두 요소를 분리하여 사고하는 이분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지형적 의미 즉, 영역상의 의미에서 본다면 구주는 불변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식 속의 영역개념은 비교적 불변적이며 고정적이었다.

당의 영역을 비지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것이 十道이다. 太宗은 貞觀 원년(627)에 高祖가 투항한 적장에게 주와 현을 나누어줌으로써 주현의 수가 隋나라 때보다 두 배나 증가해 백성보다 관리가 많은 상황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그 폐해를 고치고자 하였다. 그는 즉위 후 주현을 병합하거나 줄이고, 山川의 형세에 따라 크게 ‘十道’로 나누었으니, 關內道, 河南道, 河北道, 河東道, 劍南道, 江南道, 淮南道, 山南道, 隴右道, 嶺南道이다.<sup>16)</sup> 십도는 이처럼 구주와 달리 태종의 근본취지부터 비지형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십도는 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십도는 주현의 행정운영상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아무런 행정조직을 갖추지 않는 개념이었다. 단지 상서성 호부의 戶部郎中과 戶部員外郎의 직무 중 지역마다 생산되는 것에 따라 貢賦의 차별을 두며, 十道로 나누어서 그것을 총괄하게 한 것<sup>17)</sup>이었다. 이를 보면 十道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杜佑는 “지금 禹貢 九州 및 南越의 땅을 나누고, 역대 郡國은 그 안에서 나누어 따로 하였다. 만일 본래 九州의 구역이 아니라면 인접하게 하여 붙여서 이야기한다.”라고 하였다(『通典』 권172, 「州郡二」, 4495쪽).

14) (宋)王應麟, 『通鑑地理通釋』 권5, 「十道山川攷」, 四庫全書本.

15) 김택민 주편, 『譯註唐六典』 권3, 신서원, 2003년, 273쪽.

16) 『資治通鑑』 권192, 「太宗貞觀元年」, 6033쪽.

17) 김택민 주편, 앞 책, 272~273쪽.

十道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16道, 20道, 15道가 되기도 했으며, 관할 지역의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 특히 현종 때에는 15道가 설정되었는데, 開元 21년(733) 당 전역을 京畿道·都畿道·關內道·河南道·河東道·河北道·隴右道·山南東道·山南西道·劔南道·淮南道·江南東道·江南西道·黔中道·嶺南道 등 15도로 나누었다. 태종의 십도와 비교하면 京畿道·都畿道·黔中道가 신설되고, 山南道가 山南東道와 山南西道로 분리되고, 江南道가 江南東道와 江南西道로 분리되었다. 이렇듯 십도가 15도로 되었다고 해서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역의 범위는 구주, 십도, 15도가 거의 일치한다.

또한 십도는 황제의 특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使職의 출현으로 행정적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태종은 정관 8년(634)에 풍속을 순찰하기 위해서 16道 黜陟大使를 파견하였으며,<sup>18)</sup> 則天武后는 李嶠가 10州마다 어사 한 명을 두어 관리를 감찰하도록 주청하자, 衆議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 하였지만 조를 내려 당 전역을 20道로 나누라고 했다.<sup>19)</sup> 中宗은 神龍 2년(706)에 十道巡察使를 파견하였으며,<sup>20)</sup> 睿宗 景雲 2년(711) 처음으로 十道按察使를<sup>21)</sup> 설치하였으며, 현종 개원 21년(733)에는 15도의 신설과 함께 각 道에 採訪使를 두어서 불법을 감찰하도록 하였다.<sup>22)</sup> 또 현종은 逃戶와 籍外剩田을 단속하기 위해서 十道勸農使를 파견하였다.<sup>23)</sup> 문종이 開成 원년(836) 十道黜陟使를 파견한<sup>24)</sup> 이후 十道나 十五道 등을 단위로 사직을 파견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道는 때로는 황제의 특명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가 되었다.

그런데 안사의 난 이후 十道와 성격이 다른 道가 생겨난다. “당나라 초기에 군대가 변경을 지키는 큰 것을 軍이라 하고, 작은 것을 守捉이라 하고, 城이라고도 하고, 鎮이라고도 하였으며, 그것을 총괄하는 것을 道”라고<sup>25)</sup> 하였다. 즉 이때의 道는 고조 무덕 연간부터 현종 천보 이전까지 변방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로, 平盧道·范陽道·河東道·關內道·河西道·北庭道·安西道·隴右道·劔南道·嶺南道·江南道·河南道라고 하였다.<sup>26)</sup> 원래는 道의 대장을 大總管이라 불렀으나 이후 大都督이라 불렀다가 高宗 永徽 이후 都督으로 使持節을 지닌 자를 節度使라 불렀는데 현종 이후 점차 고착되었다. 그리고 안사의 난 이후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번진은 肅宗이 李光弼에게 ‘九節度之師’라는 관직을 내린 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武夫 가운데 侯王에 봉해진 자들에게 모두 절도사를 제수함으로써 내지에도 번진이 설치되어 큰 곳은 10여 州, 작은 곳은 3~4州를 통치하게 되었다.<sup>27)</sup> 현종 원화 연간에 이르면 번진은 대략 47개에 이르게 된다. 즉 당 중기 이후 행정단위로 이해되는 道는 대부분 번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十道の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 유의미했을까? 표1을 보면, 李泰는 『括地志』 서문에서 360州를 十道에 의거해서 서술한다고 밝혔으며,<sup>28)</sup> 賈耽의 地圖 10권은 그가 지은 『貞元十道錄』에 근거해서 그린 지도로 역시 십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것이다.<sup>29)</sup> 즉 15가지의 서적과 지도 가운데 십도를 근거로

18) 『新唐書』 권93, 「李靖傳」, 3814쪽. 태종이 왜 16道로 나누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9) 『新唐書』 권123, 「李嶠傳」, 4368쪽.

20) 『新唐書』 권4, 「中宗」 108쪽.

21) 『舊唐書』 권7, 「睿宗」, 157쪽.

22) 『舊唐書』 권38, 「地理一」, 1384~1385쪽.

23) 『舊唐書』 권97, 「張說傳」, 3054쪽.

24) 『舊唐書』 권17하, 「文宗下」, 5654쪽.

25) 『新唐書』 권50, 「兵志」, 1328쪽.

26) 『新唐書』 권50, 「兵志」, 1328~1329쪽.

27) 『新唐書』 권50, 「兵志」, 1329쪽.

28) (唐)李泰 撰, 賀次君 輯校, 『括地志輯校』, 中華書局, 1980년, 5쪽.

해서 그린 것은 적어도 8가지 이상이 된다.<sup>30)</sup> 이것은 당대 대부분의 지리서 근간은 십도에 둔다는 뜻이다. 15도, 20도, 47도 등 내란으로 영역 구분이 많이 지어져도 당대 지리서의 기본 영역들은 十道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대와 송대에도 십도를 영역 인식의 준거틀로 삼았다. 비록 분열 국면이었지만 당의 계승자임을 자처했던 後唐은 자신의 영역을 당대 十道에 근거하였다. 후당의 十道는 關內道, 河南道, 河北道, 河東道, 劍南道, 江南道, 淮南道, 山南道, 隴右道, 嶺南道로 태종이 설정한 십도와 동일하였다. 또, 明宗 長興3년(932) 中書門下에서 十道 가운데 수도 낙양이 있는 河南道를 상위로 하고자 할 때 당대 十道圖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당대 十道圖에 의하면 “옛 제도에 왕이 있는 곳이 상위가 되므로 당대는 장안이 있는 關內道가 가장 상위가 되었으며, 지금(후당)은 궁궐과 종묘가 모두 낙양에 있으므로 하남도가 가장 상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1)</sup> 또한 송대의 예를 보면, 태조 乾德 2년(964) 有司에서 十道圖에 全州와 邵州의 이름이 없지만 규모는 望(4천호 이상의 州)에 이르렀다고 보고 하자, 中州로 삼도록 하라고 조를 내렸다.<sup>32)</sup> 즉 송 초기에도 십도는 주를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오대와 송대 역시 십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십도는 당 태종이후 15도·20도 등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역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십도 이후 무수한 변화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역의 범위 혹은 크기이다. 그것은 구주 때 형성된 영역틀로, 십도·15도·20도가 되어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의 크기를 유지하였다. 이는 구주부터 형성된 지형적 인식이 상당히 고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당대 영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공 구주와 십도가 이용되었는데, 우공 구주는 중국 영역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반면에 십도는 행정 편의상의 의미가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치 행정상 많이 필요로 했던 지리서에는 구주보다는 십도가 현실적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의 근본적 인식 속에는 구주의 영역틀이 자리매김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당대 사람들은 구주 및 십도이외 지역으로의 영역 확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高宗 顯慶 4년(659)에 편찬되었음에도 내용은 隋나라까지로 한정된 李延壽의 『北史』 「四夷傳」의 서문 일부를 보자.

구천은 紀가 되고, 오악 한 지역을 지키니, 이것을 일러 諸夏라고 하고, 그 땅에서 생겨나는 것, 즉 인의가 나오는 바이며, 昧谷과 嶠夷, 孤竹과 北戶는 丹徼와 紫塞로 경계 짓고, 滄海와 交河로 떼어 놓으니, 이를 일러 荒裔라 하며, 그 기를 받으면 흉덕이 본성을 움직인다. …중략…선왕이 教化를 세우니 안으로는 諸夏에 밖으로는 夷狄에 옛 현인이 모범을 후세에 전하니, 덕을 쌓는 것을 아름답다 하고 땅을 넓히는 것을 비루하다고 하였다. 비록 禹의 족적이 동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서로 움직였지만 바다와 流沙를 넘어가지 않았다. 王制에 북에서 남으로 가더라도 땅을 파고 굴에 사는 交趾로써 경계 지었다. 어찌 道는 三古를 관통하고, 옳은 뜻은 백대에 높지 않겠는가!<sup>33)</sup>

위 글에서 이연수는 諸夏의 땅에서는 仁義가 생겨나고, 荒裔의 땅에서 凶德이 생겨나며,

29) 盧良志, 「隋唐圖志圖記의繁榮與賈耽對制圖理論的繼承與貢獻」, 『國土資源』, 2008년 3기.

30) 그 나머지는 구주 등을 근거로 하여 서술하거나 그렸다.

31) 『舊五代史』 권150, 「郡縣志」, 2013쪽.

32) 『續資治通鑑長編』 권5, 「太祖乾德二年條」 133쪽.

33) 『北史』 권94, 3109~3120쪽

이의 못된 행위는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는 화와 이의 구별을 위해서 嶠夷(해가 뜨는 곳)·昧谷(해가 지는 곳)·孤竹(商나라가 분봉한 나라)·北戶(五嶺 이남 지역)의 개념을 빌려 왔으며,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滄海·交河·丹徼·紫塞를 이용하였다. 즉 嶠夷는 滄海, 昧谷은 交河, 孤竹은 紫塞, 北戶는 丹徼로 경계 지워진다. 滄海<sup>34)</sup>는 漢나라 때 遼西郡 海陽縣(지금의 河北省 灤縣 서남) 남쪽에 있었으며, 交河는 漢나라 때 車師前王이 거주하던 交河城(지금의 新疆省 吐魯番市)을 둘러싸고 흘러가는 강을 말한다.<sup>35)</sup> 丹徼와 紫塞는 남방의 蠻夷와 북방의 戎狄이 중국을 침범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장치이다.

이연수의 이런 관점은 狄仁傑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는 則天武后 萬歲通天 원년(696)에 太宗이 설치한 疏勒 등 서쪽 四鎮의 방비에 폐단이 많으므로 이를 폐할 것을 주청하면서 “신이 듣기로는 하늘이 四夷를 낳았으며, 모두 先王의 封疆 밖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滄海로 방어하고, 서로는 流沙로 四夷를 떼어 놓았으며, 북으로는 大漠을 가로 놓았으며, 남으로는 五嶺으로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夷狄을 경계로 지어서 中外를 떼어놓은 까닭입니다.”<sup>36)</sup> 라고 하였다. 이연수와 적인걸의 화이 구분은 거의 유사한데 그 이유는 모두 『尙書』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런 화이 구분은 결국 中夏와 四夷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中夏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중하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려 한다면 당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연수는 누군가가 四夷로 둘러싼 장막 밖으로 진출하려는 것에 대해서 “덕을 쌓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영토를 넓히는 것을 비루하다고 여겼다.”라고 하였다. 즉 이연수의 생각은 嶠夷·昧谷·孤竹·北戶로 둘러싸인 중하를 지키면서 주변 나라에 덕을 베풀어야지 굳이 영토를 확장해서 권위를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태종 때 諫臣으로 유명한 魏徵은 태종이 高昌을 멸한 후 이곳에 州縣을 설치하려 하자, 주현의 설치로 인한 직접 통치 비용의 과다, 인명의 손실, 이별의 아픔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隴右 지역이 폐허가 될 것이며 주현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미미하다며 극력 반대하였다.<sup>37)</sup> 태종은 위징의 간언을 물리치고 옛 고창 땅에 西州를 설치하여 매년 천명의 병사를 조발하여 이곳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에 黃門侍郎 褚遂良은 高昌 땅에 세워진 州縣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다른 지역의 糧草가 막대하므로 차라리 高昌國을 다시 세워 唐의 藩翰으로 삼을 것을 주청하였다.<sup>38)</sup> 그는 고창국으로 하여 당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서 당을 지키는 병풍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唐과 四夷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狄仁傑은 則天武后가 疏勒 등 安西四鎮을 계속 운영하려 하자 漢武帝의 대외정벌이 가져온 경제적 손실과 들끓는 도적으로 인해서 백성 가운데 자신의 처를 다시 시집보내거나 자식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지나친 대외정벌을 비판하였다.<sup>39)</sup> 劉昫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태종이 위징이 있었다면 고구려 원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한 것을 인용하여 왜 그런지를 알겠다고 했다. 그는 夷狄의 땅은 돌밭과 같아서 그것을 얻는다고 한들 이익이 없으므로 그곳을 잃는다고 하

34) 滄海는 公孫康의 사자 韓忠이 烏桓 峭王을 만났을 때 요동의 창해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으며(『資治通鑑』 권 64, 「獻帝建安九年條」 2058쪽). 漢代 遼西郡에 속한 海洋縣 남쪽에 있었다(『資治通鑑』 권 113, 「安帝元興三年條」, 3577쪽).

35) 『資治通鑑』 권 46, 「章帝建初元年條」, 1474쪽.

36) 『舊唐書』 권 89, 「狄仁傑傳」, 2890쪽.

37) 魏徵은 高昌 지역의 州縣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명이 항상 요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舊唐書』 권 198, 「西戎傳」, 5296쪽).

38) 『舊唐書』 권 80, 「褚遂良傳」, 2736~2737쪽.

39) 『舊唐書』 권 89, 「狄仁傑傳」 2890쪽.

등의 아픔이 없으니 이들을 잘 위무하여 조공을 오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sup>40)</sup>

魏徵·褚遂良·狄仁傑·劉昫 등은 당나라가 九州를 벗어나 영토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가져와 결국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여 영토 확장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보면 杜佑가 “秦漢 이후 가혹한 세금을 國富라 여기고, 병사가 많음을 군대가 강하다고 여기고, 영토를 넓히는 것을 업적이 크다고 생각하고, 멀리서 조공 오는 것을 덕이 성하다고 여기니, 성을 서로 빼앗으려 사람을 죽여 성을 채우고, 땅을 서로 차지하려 사람을 죽여 들을 가득 메웠다.”<sup>41)</sup>라고 한 것도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염려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영토 확장에 심혈을 기울인 진시황과 한무제는 혁혁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어렵게 만든 이유로 인해서 그 업적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구주 혹은 십도 이외의 영역을 중국 영역으로 편입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위 사례들은 무력 사용을 부정한 경우이다. 반대로 무력사용을 주장하는 입장, 특히 변진 할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를 보자. 主戰派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길보의 정치적 최대 열망은 변진을 제압하고 주변 나라나 민족의 침입을 막아내 강력한 통일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sup>42)</sup> 그렇지만 이길보는 秦始皇과 漢武帝의 무리한 대외 전쟁을 비판하고 “聖人の 강역 제도는 진실로 황원(荒遠)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였다.<sup>43)</sup> 비록 이길보가 주전파이기는 하지만 十道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진출할 의사는 없었다. 그리고 그의 변방책은 현종 원화 8년(813) 回鶻의 침입으로 경사가 공포로 사로잡혔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때 회골을 공격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天德軍에서 夏州에 이르는 곳에 新館 11곳을 설치하여 天德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4일 만에 京師에 도달할 수 있게 하도록<sup>44)</sup> 주청하였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회골을 중국에 예속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길보의 아들 이덕유는 40여 년 간 ‘牛李黨爭’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주전파를 이끌었던 자로, 예로부터 戎을 제어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戎撫에게 慰를 두텁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漢宣帝가 흉노의 呼韓兒를 위로하니 60년간 변경에 별 일이 없었으며, 漢武帝가 힘으로 흉노를 제압했음에도 海內은 오히려 힘겨워졌다고 하여<sup>45)</sup>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위로하여 변경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길보와 이덕유는 비록 황제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무력으로 변진을 제압하고자 했지만 앞서 언급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하를 벗어나 강토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무력사용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九州를 벗어난 지역은 근본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 3. 『元和郡縣圖志』로 본 당의 영역

당대 職方郎中과 職方員外郎은 천하의 地圖 및 城隍·鎮戍·烽候의 수를 관장하는데, 지

40) 『舊唐書』 권199하, 「北狄傳」, 5364쪽.

41) 『通典』 권171, 「州郡序」, 4450쪽.

42) 李文才, 「試論『元和郡縣圖志』的成就及特點」, 『江蘇科技大學學報』 제6권, 1기, 2006년.

43) 『元和郡縣圖志』, 「序文」, 1쪽.

44) 『元和郡縣圖志』 권4, 「關內道四」, 106~107쪽.

45) (唐)李德裕, 傅璇琮·周建國 校箋, 『李德裕文集校箋』 권13, 「請賜回鶻嚙沒斯等物狀」, 河北教育出版社, 2000년, 227쪽.

도는 州와 府에 맡겨 3년에 한 차례 만들어서 호적과 함께 상서성에 올린다.<sup>46)</sup> 그런데 3년에 한 차례 만들어서 상서성으로 보내던 州와 府의 지도는 德宗 建中 元年(780)에 주현이 신설되거나 산과 강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5년에 한 차례 만들어서 상서성으로 보내도록 하였다.<sup>47)</sup> 李吉甫가 憲宗 元和 8년(813) 『元和郡縣圖志』를 현상했을 때 각 번진마다 하나의 지도를 그려서 함께 현상하였다. 지도는 宋代에 망실되었으며, 지금은 『元和郡縣志』만 남아 있다. 이길보가 현상한 『元和郡縣圖志』도 크게는 5년에 한 번 제작하는 규정에 따라 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元和郡縣圖志』의 구성을 보면, 十道→藩鎮→州→縣 순으로 설명을 한다. 그리고 관할 州는 禹貢 九州 가운데 해당하는 주를 우선 설명하고 州의 연혁을 설명한다. 다시 州의 크기, 八到와 거리, 貢賦를 설명한 후 관할 현에 대한 설명을 더하였다. 여기서 八到는 이길보의 독창적인 것이라 평가받고 있는데,<sup>48)</sup> 동서남북의 기본 방향과 동남·서남·동북·서북을 더하여 여덟 방향으로 도달하는 거리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同州에서 서쪽으로 上都(長安)까지는 250리, 동쪽으로 洛陽까지는 650리라고 기록한 것처럼 각 州에서 종착지가 되는 장안과 낙양까지의 거리를 기록해 놓았다. 또, 당의 전역을 十道를 기준으로 나누고, 십도가 禹貢 九州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면 劍南道上→四川節度使(治所는 成都府)→管州二十六→禹貢梁州之域(주의 연혁을 설명)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十道에 해당하는 주를 다시 한번 禹貢 九州로 설명하는 것은 십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보다 구주에 대한 인식이 더 포괄적으로 확산되어있었음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또, 당대에 와서 영역에 대한 인식이 구주에서 십도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 당대에도 여전히 구주에 대한 관념이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당대 사람들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당대 지리서인 『元和郡縣圖志』를 통해 영역관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正州와 羈縻州이다.

기미주는 항복해 온 민족이나 종족의 추장을 都督·刺史 등으로 삼아 모두 세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물과 조세와 호적 다수는 戶部에 보고하지 않았다.<sup>49)</sup> 예를 들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安東都護府, 서북쪽으로 北庭都護府와 安西大都護府<sup>50)</sup>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길보는 이 기미주를 당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아무리 전략적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당의 영역으로 삼지 않았다. 현종 연간 토번과 安樂州·原州·秦州의 귀환 문제<sup>51)</sup>로 서로 사절이 오고 갔는데, 현종은 사절로 온 토번 재상 尙綺心兒에게 “河·隴의 땅은 국가의 옛 영토이다. 州郡을 논한 즉 그 수는 자못 많고, 年數를 헤아린 즉 함락된 시간은 매우 짧다. 이미 화친을 했으니 모두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그곳을 버리고 말하지 않는다 하여 어찌 마음으로 애석해 하지 않겠는가? 다만 조금이라도 일찍 맹약을 이루기 위해 三州만을 말한 것이다.”<sup>52)</sup>라고 하였다. 현종이 많은 주 가운데 이 3州만을 언급한 것은 그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지만 이길보는 『元和郡縣圖志』에 原州와 秦州만 기재하고 安樂州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安樂州는 靈州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북방의 군대가 황하를 건너 남하하기

46) 김택민 주편, 『譯註唐六典』 권3, 신서원, 2003년, 530쪽.

47) 『唐會要』 권59, 「尙書省諸司下」, 1032쪽.

48) 李文才 앞 논문.

49) 『新唐書』 권43하, 「地理七下」, 1119쪽.

50) 이 지역은 德宗 貞元 3년(787)에 토번에게 함락되었다(『舊唐書』 권40, 「地理三」, 1647쪽).

51) 李天石, 「論唐憲宗元和年間唐朝與吐蕃的關係」, 『西藏研究』, 2001년 3기.

52) (唐) 白居易 著, 朱金城 箋校, 『白居易集箋校』 권56, 「與吐蕃宰相尙綺心兒等書」, 3237~3238쪽.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였다. 비록 安樂州가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었지만 正州가 아닌 기미주였으므로 『元和郡縣圖志』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이길보가 당의 위세를 위해 『元和郡縣圖志』를 편찬했다면 당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시켜 묘사했을 것이지만 그는 분명하게 기미주와 정주를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羈縻州를 통해서 짐작해 보면 正州란 당나라 사람을 자사로 삼고, 세습되지 않으며, 공물과 조세와 호적을 호부에 보고하는 주라 볼 수 있다. 정주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보면 『元和郡縣圖志』에 의하면 정주는 대략 290주인데 대부분 우공구주에 해당한다. 이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구주를 바탕으로 한 영역관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正州는 당나라 사람이 刺史가 되어 직접 통치하는 州이다. 당이 직접 통치한다는 것은 州縣을 설치한다는 뜻이며 주현 설치하는 그곳에 당나라 사람들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려야함을 의미한다. 태종은 貞觀 14년(640) 高昌을 멸망시킨 후 이곳에 西州를 설치하고 謝叔方을 서주자사로 파견하였으며, 정관 15년(641)에는 高祖의 딸 廬陵公主의 부마 喬師望을 서주자사로 파견하여<sup>53)</sup> 직접 통치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 만약 정주가 이미 함락된 경우에는 『元和郡縣圖志』에서 제외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한 예로 隴右道에는 秦州, 渭州, 武州, 蘭州, 河州, 鄯州, 廓州, 岷州, 洮州, 疊州, 芳州, 宕州, 臨州, 涼州, 甘州, 肅州, 沙州, 瓜州, 伊州, 西州, 庭州 등이 포함되었다. 隴右道에 포함된 州의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元和郡縣圖志』 권40, 「隴右道下」

지역	지배국	편입된 시기	근거
秦州	吐蕃	肅宗 寶應2년(763)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渭州	吐蕃	肅宗 寶應2년(763)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武州	吐蕃	肅宗 至德(756)후	『新唐書』 권37
蘭州	吐蕃	肅宗 寶應원년(762)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河州	吐蕃	肅宗 寶應원년(762)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鄯州	吐蕃	肅宗 寶應원년(762)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廓州	吐蕃	肅宗 乾元원년(758)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岷州	吐蕃	肅宗 上元2년(762)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洮州	吐蕃	代宗 廣德원년(763)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疊州	吐蕃	代宗 이후(?)	『唐刺史考全編』 제1책, 461쪽
芳州	吐蕃	高宗 上元2년(675)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宕州	吐蕃	玄宗 開元 이후(?)	『唐刺史考全編』 제1책, 464쪽
臨州	吐蕃	肅宗 寶應원년(762)	『元和郡縣圖志』 권39, 「隴右道上」
涼州	吐蕃	代宗 廣德2년(764)	『元和郡縣圖志』 권40, 「隴右道下」
甘州	吐蕃	代宗 永泰2년(766)	『元和郡縣圖志』 권40, 「隴右道下」
肅州	吐蕃	代宗 大歷원년(766)	『元和郡縣圖志』 권40, 「隴右道下」
沙州	吐蕃	德宗 建中2년(781)	『元和郡縣圖志』 권40, 「隴右道下」
瓜州	吐蕃	代宗 大歷11년(776)	『元和郡縣圖志』 권40, 「隴右道下」
伊州	吐蕃	玄宗 天寶末	『舊唐書』 권187하, 「袁光庭傳」
西州	吐蕃	德宗 貞元7년(791)	『元和郡縣圖志』 권40, 「隴右道下」
庭州	吐蕃	肅宗 上元원년(760)	『舊唐書』 권40

위 표처럼 이길보가 『元和郡縣圖志』를 현상했을 때는 이 지역은 모두 토번의 땅이었다.

53) 『唐刺史考全編』 제1책, 511~514쪽.

그럼에도 그는 이 지역을 十道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당시 자기의 땅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들의 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근거에는 구주가 있다. 그리하여 그는 禹貢九州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涼州는 禹貢雍州의 서쪽 경계, 甘州는 禹貢雍州의 강역, 肅州는 禹貢雍州의 강역, 沙州는 禹貢雍州의 강역이라 하였다. 이는 영역인식의 근간을 이루는 구주를 토대로 하여 토번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포함시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주를 바탕으로 한 불변의 영역관이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五代會要』 권30, 「吐蕃條」에는 “吐蕃이 隴右道 일대를 점령했을 때 이곳에 살던 華人 백만 명이 비리고 역겨운 곳에 빠져 버렸으며, 文宗 開成 연간(836~840) 조정에서 다시 번이 되도록 사자를 보냈는데, 梁州·肅州·瓜州·沙州를 지나가매 성읍은 옛날과 같았다. 華人들이 당나라 사신의 깃발과 사절의 장엄함을 보고서 길을 끼고 울면서 호소하였다. 그리고 황제는 여전히 번에 빠진 生靈을 생각하고는 계시는지 물었다.”<sup>54)</sup>라고 하였다. 비록 당은 이곳에서 물러났지만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많은 당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길보는 이를 ‘漢戶’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비록 토번의 영역이 되었지만 여전히 당 영역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사례이다.

그렇다면 우공 구주 밖의 영역이면서 正州인 경우는 없었는가? 伊州와 庭州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伊州는 禹貢九州 밖 옛 戎의 땅이라 하였으며, 庭州는 伊州에서 서북 방향으로 970里 떨어져 있었다. 이길보에 따르면 伊州와 庭州는 禹貢九州 안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가 庭州를 설명하면서 “그곳의 漢戶는 (高宗) 龍朔(661~663) 이래 이리저리 떠돌아 온 사람들이다.”<sup>55)</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漢戶는 중국 사람을 뜻하는데, 이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아마도 漢나라가 酒泉郡을 설치하여 漢나라 사람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살게 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56)</sup> 伊州刺史에는 대략 太宗 貞觀 16년(642)에 부임한 謝叔方을 필두로 韓威, 蘇海政, 衡義整 등이 있었다. 그리고 庭州에는 태종 정관 말에 부임한 것으로 보이는 駱弘義를 비롯해서 來濟, 袁公瑜, 杜懷寶 등이 있었다.<sup>57)</sup> 伊州와 庭州 역시 당나라 출신 자사들이 이곳을 다스림으로써 正州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경우에 속하는 사례는 아주 적다. 이는 비록 구주의 영역은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중국 사람들이 생활해 오던 곳이며 당 자사들이 직접 이 곳을 다스린 조건에 의해 정주가 된 경우이다.

또, 당조가 영역을 확대하려면 우공 구주 밖에 주현을 많이 설치하면 되고, 직접 주현 설치가 어려우면 이 지역의 羈縻州를 정주로 삼으면 될 것이다. 기미주에서 正州로 된 州를 모두 기록한 『元和郡縣圖志』를 보면 당나라 전시기에 걸쳐 기미주에서 정주로 된 것은 劍南道の 維州·冀州·龍州·塗州·炎州·徽州·向州·冉州·穹州·笮州, 嶺南道の 思唐州 등 모두 11차례이다. 다만 塗州·炎州·徽州·向州·冉州·穹州·笮州 등이 『元和郡縣圖志』에 실리지 않은 것은 그가 『元和郡縣圖志』를 편찬할 때는 아직 正州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州는 後晉 때 편찬된 『舊唐書』 권41, 「地理四」에 모두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대 기미주는 모두 856개로 기미주에서 정주로 된 비율은 1%에 해당한다. 이것은 당조가 기미주를 정주로 만들어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길보의 『元和郡縣圖志』를 통해 당대인의 영역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元和郡縣圖志』에 기미주는 하나도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正州만을 기재하였다. 즉, 영

54) (宋)王溥, 『五代會要』 권30, 「吐蕃」, 中華書局, 1998년, 357쪽.

55) 『元和郡縣圖志』 권40, 1033쪽.

56) 『漢書』 권, 「西域傳」, 쪽.

57) 郁賢皓, 『唐刺史考全編』 제1책, 安徽大學出版社, 2000년, 507~510쪽, 527~536쪽 참고.

역에 관한 한 正州와 羈糜州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는 그가 正州만을 당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관점의 근간에는 그의 구주관이 지배하고 있다. 그가 正州만 당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南宋 때에 그려진 『唐一行山河分野圖』이다. 이 지도는 당나라 僧侶 一行(683~727년)이 제기한 “天下山河兩戒”<sup>58)</sup>라는 지리 관념과 山河의 수를 근거로 해서 그린 지도이다.(부록3) 이 지도에서도 서북쪽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甘州→肅州→沙州→瓜州→伊州→西州→庭州 순으로 적어 놓고, 동북쪽 끝으로 平州→營州를 적어 놓았다. 그리고 마치 당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선을 그어서 당과 주변 지역을 분리시켜 놓았다. 이 지도에서 기록해 놓은 서북방면과 동북방면의 지역은 『元和郡縣圖志』의 지역과 대략 일치한다. 또, 그는 正州가 비록 다른 나라에 편입되었더라도 그곳을 여전히 당의 영역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기미주에서 정주로 된 주도 예외는 아니다. 이길보가 『元和郡縣圖志』에서 보여준 당의 영역은 당나라 사람이 직접 지배하는 正州가 가장 기본이 되며, 일단 정주로 인정되면 그곳의 상황 변화와 상관없이 당의 영역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隴右道처럼 正州가 된 이상 토번으로 편입된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당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 역으로, 『元和郡縣圖志』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기미주는 당의 영역 밖이므로 그곳의 상황에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사실상 당의 영역 밖의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 4. 맺음말

당대 사람들이 인식한 영역관의 근간에는 禹貢 九州와 十道가 있다. 禹貢 九州는 지형적인 구분임과 동시에 中夏를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였으며, 十道는 자연 지형을 기준으로 당의 영역을 나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당대 사람들의 영역개념은 두 층위로 나뉜다. 우공 구주로 대변되는, 영역의 증감이 없는 불변의 절대적 공간으로서의 영역과 구체적인 사회현실의 정황과 행정적 편의를 따라 가변적 공간으로서의 영역이 그것이다.

당대 사람들은 영역의 확장에 큰 관심이 없었다. 우공 구주의 범위를 벗어나 좀 더 광대한 지역을 차지한 황제나 대외 전쟁을 감행하려는 황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다. 심지어 무력을 사용하는데 긍정적이었던 주전파들도 당 내지의 분열을 종식시키고자 심혈을 쏟았지만 대외로의 확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당대 사람들의 영역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구주관을 근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길보의 『元和郡縣圖志』는 이런 당대 사람들의 영역관을 잘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元和郡縣圖志』에 정주만 기재하여 정주만 당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당의 영역은 당나라 사람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며 정주인 경우는 현재의 상황과는 별개로 모두 당의 영역이었다. 이 인식의 기저에는 禹貢 九州의 영역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元和郡縣圖志』는 禹貢 九州에 기반을 둔 당나라 사람들의 불변의 영역관을 잘 보여준다.

당대 사람들의 영역관이 『元和郡縣圖志』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면 주변의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것은 당과 주변 나라 사이에 완충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완충지대는 당의 영역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당의 주변에 존

58) 唐曉峰은 일행의 天下山河兩戒의 관념은 고대 천문학 분야와 華夷之辯에 기초한다고 하였다(「兩幅宋代“一行山河圖”及僧一行的地理觀念」, 『自然科學史研究』, 1998년, 4기).

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대 변경 지역에 설치된 번진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부록 1. 『元和郡縣圖志』에 수록된 十道와 관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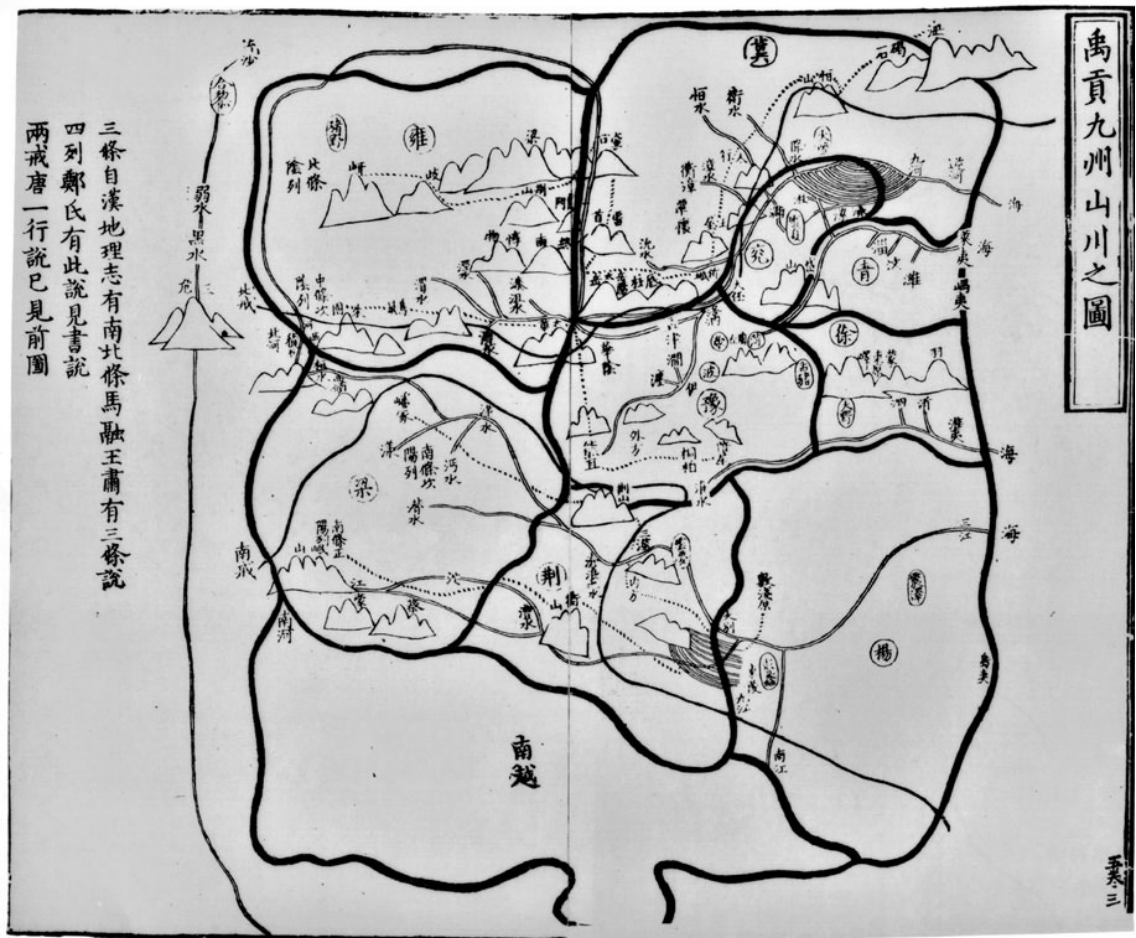
관할주 十道	
關內道	京兆府, 華州, 同州, 鳳翔府, 隴州, 涇州, 原州, 邠州, 寧州, 慶州, 鄜州, 坊州, 丹州, 延州, 靈州, 會州, 鹽州, 夏州, 綏州, 銀州, 新宥州, 單于大都督府, 麟州, 勝州, 豐州
河南道	河南府, 陝州, 虢州, 汝州, 汴州, 宋州, 亳州, 潁州, 滑州, 鄭州, 許州, 陳州, 徐州, 宿州, 泗州, 濠州, 蔡州, 申州, 光州, 鄆州, 袁州, 青州, 齊州, 曹州, 濮州, 密州, 海州, 沂州, 萊州, 淄州, 登州
河東道	河中府, 絳州, 晉州, 慈州, 隰州, 太原府, 汾州, 沁州, 儀州, 嵐州, 石州, 忻州, 代州, 蔚州, 朔州, 雲州, 潞州, 澤州, 邢州, 洺州, 磁州
河北道	懷州, 魏州, 相州, 博州, 衛州, 貝州, 澶州, 恒州, 冀州, 深州, 趙州, 德州, 棣州, 定州, 易州, 滄州, 景州(河北道四關) 幽州, 涿州, 莫州, 平州, 薊州 (『元和郡縣圖志關卷逸文卷一』)
山南道	(山南道一關)襄州, 鄧州, 復州, 郢州, 唐州, 隨州, 均州, 房州, 興元府, 洋州, 利州, 鳳州, 興州, 成州, 文州, 扶州, 集州, 壁州, 巴州, 蓬州, 通州, 開州, 閬州, 果州
淮南道	關
江南道	潤州, 常州, 蘇州, 杭州, 湖州, 睦州, 越州, 婺州, 衢州, 處州, 溫州, 台州, 明州, 鄂州, 沔州, 安州, 黃州, 蘄州, 岳州, 洪州, 饒州, 虔州, 吉州, 江州, 袁州, 信州, 撫州, 宣州, 歙州, 池州, 潭州, 衡州, 郴州, 永州, 連州, 道州, 邵州, 福州, 建州, 泉州, 漳州, 汀州, 黔州, 涪州, 夷州, 思州, 費州, 南州, 珍州, 溱州, 播州, 辰州, 錦州, 敘州, 溪州, 施州, 獎州
劍南道	成都府, 彭州, 蜀州, 漢州, 邛州, 簡州, 資州, 嘉州, 戎州, 雅州, 眉州, 松州, 茂州, 翼州, 維州, 當州, 悉州, 靜州, 柘州, 恭州, 眞州, 黎州, 鞏州, 姚州, 協州, 曲州, 梓州, 劔州, 緜州, 遂州, 渝州, 合州, 普州, 榮州, 陵州, 瀘州, 龍州, 昌州
嶺南道	廣州, 循州, 潮州, 端州, 康州, 封州, 韶州, 春州, 新州, 雷州, 羅州, 高州, 恩州, 潘州, 辯州, 瀧州, 勤州, 崖州, 瓊州, 振州, 儋州, 萬安州, 桂州, 梧州, 賀州, 昭州, 象州, 柳州, 巖州, 融州, 龔州, 富州, 蒙州, 思唐州, 邕州, 貴州, 賓州, 澄州, 橫州, 欽州, 潯州, 巒州, 交州, 愛州, 驩州, 峯州, 陸州, 潯州, 長州, 郡州, 諒州, 武安州, 唐林州, 武定州, 貢州
隴右道	秦州, 渭州, 武州, 蘭州, 河州, 鄯州, 廓州, 岷州, 洮州, 疊州, 芳州, 宕州, 臨州, 涼州, 甘州, 肅州, 沙州, 瓜州, 伊州, 西州, 庭州,

부록2. 『舊唐書』 권38, 「地理一」에 수록된 十道와 관할주

관할주 十道		
關內道	京兆府, 華州, 同州, 坊州, 丹州, 鳳翔府, 邠州, 涇州, 隴州, 寧州, 原州中都督府, 慶州中都督府, 鄜州, 延州中都督府, 綏州銀州, 夏州都督府, 靈州大都督府, 鹽州, 豐州, 會州, 宥州, 勝州下都督府, 麟州, 安北大都護府	
河南道	東都, 河南府, 孟州, 鄭州, 陝州大都督府, 虢州, 汝州, 許州, 汴州, 蔡州, 陳州, 亳州, 潁州, 宋州, 曹州, 濮州, 鄆州, 泗州, 海州, 袁州上都督府, 徐州, 宿州, 沂州, 齊州, 青州, 淄州, 棣州, 萊州, 登州	
河東道	河中府, 絳州, 晉州, 隰州, 汾州, 慈州, 潞州大都督府, 澤州, 沁州, 遼州, 北京太原府, 代州中都督府, 蔚州, 忻州, 嵐州, 憲州, 石州, 朔州, 雲州, 單于都護府	遼州
河北道	懷州, 衛州, 相州, 魏州, 澶州, 博州, 貝州, 洺州, 磁州, 邢州, 趙州, 鎮州, 冀州, 深州, 滄州, 景州, 德州, 定州, 祁州, 易州, 瀛州, 莫州, 幽州大都督府, 涿州, 檀州, 媯州, 平州, 順州, 歸順州, 營州上都督府, 燕州, 安東都護府	
山南道	梁州興元府, 鳳州, 興州, 利州, 通州, 洋州, 合州, 集州, 蓬州, 壁州, 商州, 清州, 金州, 渠州, 渝州, 鄧州, 唐州, 均州, 房州, 隋州, 襄州, 荊州江陵府, 硤州, 歸州, 夔州, 萬州, 忠州,	
淮南道	揚州大都督府, 楚州, 滁州, 和州, 濠州, 廬州, 壽州, 光州, 蘄州, 申州, 黃州, 安州中都督府, 舒州	
江南東道	潤州, 常州, 蘇州, 湖州, 杭州, 越州中都督府, 明州, 台州, 婺州, 衢州, 信州, 睦州, 歙州, 處州, 溫州, 福州中都督府, 泉州, 建州, 汀州, 漳州	
江南西道	宣州, 池州, 饒州, 洪州, 虔州, 撫州, 吉州, 江州, 袁州, 鄂州, 岳州, 潭州中都督府, 衡州, 澧州, 朗州, 永州, 道州, 郴州, 邵州, 連州, 黔州下都督府, 辰州, 錦州, 施州, 巫州, 業州, 夷州, 播州, 思州, 費州, 南州, 溪州, 溱州, 珍州, 牂州	
隴右道	秦州中都督府, 成州, 渭州, 鄯州, 蘭州, 臨州下都督府, 河州, 武州, 洮州, 岷州, 廓州, 疊州, 宕州,	
河西道	涼州中都督府, 甘州, 肅州, 瓜州, 伊州, 沙州, 西州中都督府, 北庭都護府, 安西大都護府(隴右道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십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劍南道	成都府, 漢州, 彭州, 蜀州, 眉州, 綿州, 劍州, 梓州, 閬州, 果州, 遂州, 普州, 陵州, 資州, 榮州, 簡州, 嘉州, 邛州, 雅州下都督府, 黎州, 瀘州下都督府, 茂州都督府, 翼州, 維州, 塗州, 炎州, 微州, 向州, 冉州, 穹州, 笮州, 戎州中都督府, 協州, 曲州, 郎州, 昆州, 盤州, 黎州, 匡州, 攀州, 尹州, 曾州, 鉤州, 靡州, 哀州, 宗州, 徽州, 姚州, 隴州中都督府, 松州下都督府, 文州, 扶州, 龍州, 當州, 悉州, 靜州, 恭州, 柘州, 保州, 眞州, 霸州,	
嶺南道	廣州中都督府, 韶州, 循州, 岡州, 賀州, 端州, 新州, 康州, 封州, 瀧州, 恩州, 春州, 高州, 藤州, 義州, 賓州, 勤州, 桂州下都督府, 昭州, 富州, 梧州, 蒙州, 龔州, 潯州, 鬱林州, 平琴州, 賓州, 澄州, 繡州, 象州, 柳州, 融州, 邕州, 貴州, 黨州, 橫州, 嚴州, 山州, 巒州, 羅州, 潘州, 容州下都督府, 辯州, 白州, 牢州, 欽州, 禺州, 湯州, 瀼州, 巖州, 古州, 安南都督府, 武峨州, 奧州, 芝州, 愛州, 福祿州, 長州, 驩州, 株州, 景州, 峰州, 陸州, 廉州, 雷州, 籠州, 環州, 德化州, 郎茫州, 崖州, 儋州, 瓊州, 振州, 萬安州,	



부록4. 南宋 孝宗 淳熙 12년(1185) 禹貢九州山川之圖 (北京圖書館 소장)



## 김종섭, 『元和郡縣圖志』로 본 당인의 영역에 대한 인식』에 대한 토론문

최재영

본 발표는 禹貢 九州와 十道の 설정과 그 의미 및 『元和郡縣圖志』의 기록을 분석하여 당대인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禹貢 九州는 영역 증감이 없는 불변의 영역이고 十道는 현실적지만 가변적인 영역인데 『元和郡縣圖志』에는 禹貢 九州의 기반을 둔 불변의 영역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唐代人은 자신의 영역을 九州라고 생각했고 九州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 확장에 대해 거부감도 있었음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禹貢 九州의 실체에 대한 唐代人의 인식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十道 이후 무수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영역의 범위는 변하지 않았고 그것은 九州 때 형성된 영역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대인들이 九州의 범위를 일정한 영역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通典』에서 제시하고 있는 九州의 범위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을 듯합니다. 더구나 楊州를 淮河以南이라고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楊州의 범위는 고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九州의 楊州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十道の 실제 영역을 바탕으로 九州를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대인들은 九州 영역의 신축성을 이용하여 편의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규정한 것은 아닐까요?

2. 十道の 설정의 九州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貞觀元年(627) 설치된 十道가 비지형적 요소, 즉 州縣의 행정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구분되었다고 하여 九州 설정에 반영된 지형적 요소가 십도 설치에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 인용하고 있는 王應麟의 기록이나 『通典』 卷172 州縣 2(「貞觀初, 并省州縣, 始於山河形便, 分爲十道.」, p.4478)의 기록은 당시에 十道를 구분할 때 지형적 요소를 반영했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唐朝는 지형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현의 행정운영상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3. 앞서의 질문과 관련하여 『唐六典』 卷3 尙書戶部の 十道에 관한 기술에서 「一曰關內道, 古雍州之境, ……二曰河南道, 古豫·兗·青·徐四州之境……」처럼 十道の 범위를 九州에 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설명대로 十道の 설치가 행정 편의라고 해석한다면 굳이 十道를 九州와 연관해서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唐六典』에서는 이같은 기록을 왜 했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尙書』 「禹貢」의 「禹가 九州로 분할하고 산에 따라 나무를 베고 지방에 따라 공납하도록 했다(禹別九州, 隨山刊木, 任土作貢)」라는 기록은 이에 대한 실마리가 될 듯 합니다. 이 기사는 우임금의 九州 설치와 공납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같은 서술 구조가 『唐六典』에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十道에 대한 서술 구조가 道 이름-九州 비정-현재의 屬州-지형적 경계-공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唐六典』에서 九州란 공납을 분담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尙書戶部條에 실려있다는 점도 이것을 방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九州에 대한 이러한 의미는 『元和郡縣圖志』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元和郡縣圖

志』의 州에 대한 서술 구조가 州 이름-九州 비정-州 연혁-주의 크기-八到-貢賦-屬縣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九州와 貢賦가 연이어 서술되어 있다. 李吉甫가 「元和郡縣圖志序」에서 강역을 분할한 뒤에는 貢賦를 부과한다는 내용을(「然後分疆以辨之, 置吏以康之, 任所有而差貢賦」) 기술하고 있는 것에서도 九州와 貢賦의 상관성을 당시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발표자께서는 『元和郡縣圖志』에서 十道에 속한 州를 다시 禹貢 九州로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唐代 영역 인식이 九州에서 十道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元和郡縣圖志』에서 州에 대한 설명구조에서 禹貢 九州에 관한 부분이 없는 州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江南道の 경우 모두 57개의 州가 병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5개의 州(潤州, 衢州, 溫州, 明州, 沔州, 安州, 黃州, 岳州, 饒州, 虔州, 吉州, 袁州, 信州, 池州, 郴州, 永州, 連州, 道州, 邵州, 建州, 泉州, 漳州, 汀洲, 黔州, 思州, 費州, 南州, 珍州, 溱州, 播州, 錦州, 敘州, 溪州, 施州, 夔州,)에서 九州에 관한 서술이 없습니다. 심지어 費州와 珍州에는 그 연혁의 시작을 각각 「本古徼外蠻夷地」, 「本徼外蠻夷地」이라고 하여 中國을 상징하는 禹貢 九州 이외의 지역도 正州로서 十道 내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唐六典』 卷3 尙書戶部の 「八曰江南道, 古楊州之南境」에서 보듯이 江南道는 九州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임을 開元年間에도 唐朝에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唐代에는 禹貢 九州와 十道 사이의 구별이 존재해서 十道를 실제 영역이라고 인식했던 것을 아닐까요? 唐代人の 영역 인식이 九州보다 확대되었다는 것은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通典』 州郡志에서 확인됩니다. 九州 외에 古南越 부분을 덧붙여 이 지역의 正州 설치 연혁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용어의 개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領域’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근대에 형성된 영역 의미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실 뿐 발표자의 영역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 개념 외에 ‘활동, 기능, 효과 등이 미치는 일정한 범위’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羈縻州’도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의도 발표자의 영역 개념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상정하고 계신 영역의 개념은 무엇인지요?